

5월 21일 토요일 10:00 ~ 13:00

메인세션. 한중서원의 운영과 변화



# 한말 일제강점기 서원 운영의 변화

## —옥산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근(영남대 역사학과)

### 【국문초록】

1871년 흥선대원군은 전국 47개소의 원사(서원과 사우)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서원은 교육과 제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양반 신분의 우위를 대변해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특히 영남지역은 조선후기 들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향촌 지배력 제고에 관심이 높았고, 서원의 훼손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 가문의 위상을 통해 향촌사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훼손 이후 원사의 복설과 신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훼손 당시 영남은 총 747개의 원사 중 14개소만이 남게 되었다. 훼손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영남에서는 130개소의 원사가 복설되었고, 56개소의 원사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복설 혹은 신설된 원사는 대부분 문중인사를 제향하는 문중서원이었다. 국가가 사라진 환경에서 지역에서는 문중을 중심으로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경주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모신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향촌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도 훼손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옥산서원은 규약이 매우 소략하여 이를 가지고는 서원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 제정된 옥산서원 규약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구도 설치했는데, 대표적으로 평의회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원장—이사—유사—평의원—고문으로 서원 운영의 구성원을 다양화하였고, 각 임원은 분명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재정 관리를 위한 특별규약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사는 서원 재산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서원 재산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식민지배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원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韩末日帝抢占时期书院运营变迁

-以玉山书院为中心-

曹铭根(岭南大学校)

### 【中文摘要】

1871年,兴宣大院君只剩下全国的47个院祠(书院和祠宇),摧毁了所有院祠。传统书院具有教育和祭祀等基础功能,随着“在地士族”在乡村社会发挥影响力,书院代表了贵族身份的优势。特别是进入朝鲜后期之后,岭南地区的士人被排除在中央政治之外,因此,该地区士人对加强乡村支配力非常关注。在书院被析除后,士人也一如既往地致力于通过家族地位在乡村社会内确保主导权。于是,撤除之后,当地内院祠的修复、新建展开活跃。当书院被撤除时,岭南共有747个院祠,其中只剩下14个院祠。之后到日帝强占时期为止,在岭南地区修复了130个院祠,又新建了56个院祠。这样修复、新建的院祠,大部分都是祭祀门中人士的“门中书院”。在亡国的情况之下,地方各地区以门中为中心,确立两班家族的社会地位,以试图在地区社会保持影响力,他们在此过程当中积极利用“书院”。

庆州玉山书院,作为岭南地区代表书院之一,又祭享晦斋李彦迪,在乡村社会中一直发挥了巨大的影响力。兴宣大院君下达书院废除令时,玉山书院也没有被破坏。由于《玉山书院章程》内容较为简略,所以我们通过这一章程无法确认此书院具体是如何运营的。但是,至于日帝强占期,书院制定《玉山书院规约》,其内容详细介绍具体运营方针,同时书院还设置“评议委员会”等新的机构。另外,当时玉山书院由院长-理事-有司-评议员-顾问构成组织,使书院运营组织的多样化,各管理人员也都有明确的角色。不但如此,书院制定了财政管理相关的特别规约,并且“理事”集中管理书院财产,这样,书院致力于维持书院的财产。我们通过探讨玉山书院的情况,将确认在殖民统治这一新的政治环境的变化中,书院如何应对其变局。

# 한말 일제강점기 서원 운영의 변화

## —옥산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근(영남대 역사학과)

- I. 머리말
- II. 서원 훼손 이후 신설 및 복설의 양상
- III. 일제강점기 옥산서원 운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서원은 선현제향과 강학을 통한 학문연구를 위해 사림들이 주도해서 설립한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서원은 단순히 제향과 강학이라는 자체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향촌 자치운영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사림세력의 향촌 운동의 일환으로 그 건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봉당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서원은 학연의 매개체로서 각 당파에서는 지역의 서원을 자파세력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는 광해군 대 집권한 북인세력과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세력에 의해 비롯되었다. 17세기 산림세력의 등장으로 서원의 정치적 성격은 더욱 농후해지는데, 서원은 향촌 여론 형성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중앙 정치계와 긴밀히 연계되었다. 재지사족 역시 서원을 통해 중앙 정치권과 연결을 맺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점에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서원은 숙종대 이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18세기 후반에는 문중서원 건립이 주를 이루게 된다. 조선후기 일반화한 동족마을은 문중활동의 기본 단위가 되었는데, 각 가문은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문중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가문은 현조의 영당이나 제실을 건립하면서 문중의 내적 결속을 다진 후 문중기구의 모체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 하였고, 이를 향촌사회에서 지위 유지 및 백성의 통제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러한 문중서원의 건립으로 서원은 기존 강

1) 이수환, 「1장 서원의 건립활동」,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학이나 선현제향의 기능보다는 문중의 우위권 경쟁이나 사회경제적 권력기반으로 변모되었다.<sup>2)</sup>

이와 같이 가문의 지위 유지 수단으로서 문중서원이 남설되자 서원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었고, 1871년 흥선대원군은 전국 47개소의 원사(서원과 사우)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그런데 훼손 이후에도 서원의 복설과 신설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본문 2장에서는 신설, 복설된 서원의 실태와 그 특징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남지역은 조선후기 들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향촌 지배력 제고에 관심이 높았고, 서원의 훼손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 가문의 위상을 통해 향촌사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훼손 이후 원사의 복설과 신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훼손 당시 영남은 총 747개의 원사 중 14개소만이 남게 되었다. 훼손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영남에서는 130개소의 원사가 복설되었고, 56개소의 원사가 신설되었다. 이렇게 복설 혹은 신설된 원사는 대부분 문중인사를 제향하는 문중서원이었다. 국가가 사라진 환경에서 지역에서는 문중을 중심으로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서원 정책을 향교 등 유림 세력과 관련된 정책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당시 일제는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양반들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들의 기반인 서원과 향교를 통해 어떻게 지배하려 했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를 검토할 것이다. 조선시대 옥산서원 규약은 매우 소략했으나 일제강점기 들어 새롭게 제정된 옥산서원 규약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구도 설치했는데, 대표적으로 평의원회를 들 수 있다. 식민지라는 변화된 환경속에서 옥산서원이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는지 옥산서원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 II. 서원 훼손 이후 신설 및 복설의 양상

### 1. 한말 이후 서원 신설·복설 추이 및 특징

대원군의 서원 훼손 이후 영남지역에는 서원의 복설 및 신설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우선 사액서원의 경우 총 66개소 중 14개소가 복설되었다. 미사액 서원의 경우 738개소 중에서 120개가 복설되었는데, 서원으로 복설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당 혹은 재실로 건립되었다. 신설의 경우 영남지역에서 56개소가 신설되었는데, 경남이 43개소 경북보다 월

2) 이해준, 「2장 문중서원의 대두 배경」,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썬 더 많았다.

조선후기와 마찬가지로 한말·일제강점기에 복설된 서원에도 문중인사가 다수 제향되었다. 제향인을 동성동본으로 채우거나 타성 인물은 철향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문중서원의 경향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문중 인사만을 선별적으로 제향함으로써 타성과의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문중서원은 사족인 문중조직인 공조적인 서원조직으로 전환된 형태로 가문의 지위와 영향력을 향촌사회에서 드러내고 보장받으려는 하나의 수단이었다.<sup>3)</sup>

문중서원 이외의 특별한 제향인 사례를 보면 일제강점기 우국지사였던 송병선(宋秉璿), 송병순(宋秉珣), 이주환(李株煥)을 배향하는 거창의 성암사(聖巖祠)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송병선과 송병순은 각각 1905년, 1912년에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자결했다. 이주환은 둘의 문하에서 수학한 연호학과의 일원으로, 역시 일제에 항거하다 고종황제가 서거하자 1919년 자결했다. 성암사가 거창에 건립된 것은 거창이 송병선을 종장으로 하는 연재학과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 특히 이주환의 순국 이후 거창 유림이 1919년 가조·위천의 만세시위와 파리장서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은 성암사가 단순히 사우·사당으로서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거창 내 독립운동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4)</sup>

한편 호남지역의 경우 역시 문중서원이 압도적으로 가령 전남지역 복설 원사 59개소 중 문중서원이 아닌 것은 3개소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런데 복설된 원사 중 당국과 마찰을 일으킨 사례가 보이는데, 임진왜란·이순신과 관련된 인물을 향사하는 곳이었다. 복설 원사 중 임진왜란과 관련있는 인물을 주향으로 향사한 곳은 고흥 무열사(진무성 향사)·영암 서호사(조행립 향사)였고, 무안 학산사를 비롯해 7개소에 달하는 원사에서 임진왜란 인물을 배향하였다. 그런데 일제가 훼손한 곳은 이순신 장군을 주향으로 향사한 2개소와 장성 남문창의 관련 인물을 향사한 곳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수 오충사(五忠祠)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따라 종군한 정철(丁哲)을 비롯한 4위를 함께 모셔 사충사라 하였다가 대원군 때 훼손되었다. 1921년 복설할 때 이순신을 주벽으로 기존의 4충신을 배향하고 오충사라 이름을 지었는데, 1938년 일본경찰이 사우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여수의 충민사(忠愍祠)는 1601년 이순신을 향사하는 최초의 사우로 건립되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순신을 도운 이억기(李億祺), 안흥국을 배향하였다. 대원군 때 훼손되었다가 1873년(고종 10) 지역 유림들의 진정으로 건물을 다시 세우고 충민사 현판을 걸었는데, 1919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장성의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는 임진왜란 때 장성 남문에서 창의한 17위를 봉안하였는데 1868년 훼손되었다가 1932년 복설하고 오산사라 편액하고 67위를 연향하

3) 이해준, 「5장 문중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앞의 책, 2008.

4) 이상은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였는데 3년만에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되었다. 신설 원사 중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최익현을 배향한 사우가 그 대상이 되었다. 곡성 오강사(梧岡祠)는 최익현이 을사의병 거병 이후 대마도로 끌려가 그곳에서 순국한 후 그와 함께 체포되었다가 돌아온 조우식(趙愚植)과 조영선(趙永善)이 최익현을 봉사하고자 향중 사림들과 협력하여 설립하였다. 그런데 1921년 일본 경찰에 의해 최익현의 영정이 압수당하고 사우가 해철되었다. 곡성 유림들이 조선총독과 곡성경찰서장에게 항의문을 보내 1922년 사우를 복설하였는데, 1937년 또 해철을 당하자 조우식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결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지역의 신설 원사의 배향 인물이 복설 원사 배향 인물과 다른 점은 한말 인사들을 향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제에 항거하다 죽은 이들을 향사한 원사가 적지 않다. 송병선, 최익현, 임병찬, 장태수, 김근배, 정동식 등을 향사했는데, 이들은 순국하거나 의병 전쟁을 이끌고 일제에 항거한 인물들이었다. 특히 진안 영광사는 민영환·송병선·안중근·윤봉길·이봉창·이상설·이준·최익현 등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순국선열 33위를 연벽으로 배향한 점에서 이채롭다.<sup>5)</sup>

반면에 일제에 의해 도움을 받은 원사도 존재했다. 진주 덕천서원(德川書院)의 경우 토지 조사사업 이후 서원 유허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어 도로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1915년 덕천서원 유림들이 당시의 산청군수 홍승균(洪承均)과 경상남도 도장관인 사사키 도타로(佐々木藤太郎)의 협력을 받아 덕천서원을 세울 수 있었다.<sup>6)</sup>

## 2. 일제의 유림정책과 서원의 대응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73호 「경학원」 규정을 제정하여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편하였다. 경학원 규정에 따르면 경학원의 주요 역할은 매년 춘추 2회 문묘 제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성균관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거하였다. 경학원의 직원명은 대제학 등 조선시대 관직명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대제학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院務) 전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경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은 교화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한편 향교의 경우, 조선후기 들어 향교는 관학(官學)이었으나 명목상 수령의 관할 아래 있었을 뿐 실제로는 지방 유생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향교의 자치권은 일제강점기에 크게 변하였다. 모든 면에서 관(官)의 지시와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3·1운동 이후에는 장의회(掌議會)라는 자문기구를 조직하여 향교를 운영함에 따라 일제강점기 향교는 학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면서 일제의 감독하에 놓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5)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 사우의 신설과 복설」, 『한중인문학연구』 22, 2007

6) 오이환,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동양철학』 32, 2009.



일제는 향교재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향교재산을 관유화함으로써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유림들을 일제 식민지 지배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였다. 일제는 1910년 4월 「향교재산관리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향교재산을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윤·군수가 관리하도록 한 점에 있었다. 그리고 향교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향교 소재 군내 공립학교 또는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의 경비와 향교 또는 문묘의 수리비 및 향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향교재산을 부윤·군수가 관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향교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지역 유림들에게서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이후 향교재산은 이 규정의 통제를 받았다. 1910년대 향교재산 수입 가운데 향교 수리비와 향사비의 지출액은 전체 예산 규모에서 보자면 소액이었고, 1910년대 향교관련 관통첩을 보면 향교경비 대부분이 학교경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교는 전통적인 자체의 교육적 역할을 상실하고 총독부의 식민지 보통교육의 확대를 위한 재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향교 운영의 주체는 직원과 장의(掌議)였다. 직원은 향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경학원이나 총독부 등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고시문(告示文)을 유림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의들의 회의체인 장의회는 3·1운동 이후 지방 유림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로 1920년대 이후 향교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일제강점기 향교는 그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향교 제례인 석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37년 석전 의례의 변화를 겪었는데, 석전에 참여한 지역 유림 및 조선인들을 강연회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조선인을 일제의 식민통치에 순종 내지 교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로서 석전은 기존의 유교 제례로서 기능이나 신성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통치에 철저하게 이용되었다.<sup>7)</sup>

### III. 일제강점기 옥산서원 운영

경주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모신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향촌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도 훼손되지 않았던 영남 지역의 대표적 서원이었다. 한말 이후에도 옥산서원의 사회적 위상은 큰 변화가 없이

7) 이상 일제강점기 향교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김명우, 「日帝 植民地時期 鄕校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순석,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泰東古典研究』 33, 2014; 서동일,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향교 동원과 변형」, 『국학연구』 40, 2019를 참조.

유지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각 가문의 선조 현양사업에 옥산서원의 동의를 구하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 유림의 입장에서는 옥산서원의 위상을 통해 조정의 인준을 대처한다는 인식 하에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들 사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향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세기 전반의 향전이 원임 내지 교임직을 둘러싼 신분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19세기 말 향전은 서원의 궤철로 결집력이 약화된 양반 내부의 분열과 위기 속에서 가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문 간의 우위 경쟁은 원사의 복원, 효열의 포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옥산서원은 대원군의 궤철 이후 구심점을 잃은 가문들이 결집된 대표적인 공간이었다.<sup>8)</sup>

조선시대 옥산서원은 규약이 매우 소략하여 이를 가지고는 서원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 제정된 옥산서원 규약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구도 설치했는데, 대표적으로 평의원회를 들 수 있다. 또한 원장-이사-유사-평의원-고문으로 서원 운영의 구성원을 다양화하였고, 각 임원은 분명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 특히 재정 관리를 위한 특별규약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사는 서원 재산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서원 재산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식민지배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원이 어떻게 대응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玉山書院 規約>

제1조 옥산서원은 이회재(晦齋) 선생을 享祀하는 서원으로 한다.

제2조 옥산서원은 이회재 선생의 유훈을 준수함과 함께 尊賢養士를 하고, 儒道の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옥산서원은 유림으로서 조직한다.

제4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한다. 매년 유림 중 학식, 인격, 문벌 등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옥산서원에 종사하게 하고, 靑衿案에 등록한다.

매월 15일 및 晦日 2회에 걸쳐 옥산서원의 유사로부터 그 廟宇에 香謁을 행한다.

서원의 원장은 매년 二季에 걸쳐 祭主가 되어 유림과 함께 엄숙히 향사를 행한다.

유림 중 篤行자에 대해서는 이를 표창하고 불량자에 대해서는 이를 징벌을 행한다.

제5조 옥산서원은 다음의 역원을 둔다. 단 역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유사 1인

이사 1인

평의원 12인

8)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玉山書院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2017

고문 2인

제6조 원장은 서원을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유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享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재무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평의원은 원장, 유사, 이사로부터 附議가 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고문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참여한다.

제7조 원장 및 역원은 다음의 자격자로 하고 유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원장은 학덕, 문벌, 명망이 현저하여 유림의 원로이어야 할 자(원로가 될 수 있는 자)

유사 및 이사, 평의원은 학식, 문벌, 인격 등이 우수한 자

제8조 본원에 서기 2명을 두고 원장이 해직(免)을 명한다.

서기는 유사 및 이사의 명에 따라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 옥산서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평의회 및 임시평의회를 개최하고 실시사항을 평의결정한다.

정기총회는 1월 5일, 春享, 秋享 이회재 선생 望祭일 등에 이를 개최한다.

임시평의회는 임시 필요에 응해 개최한다.

회의의 의장은 원장으로서 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단 가부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원장이 事故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이사가 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옥산서원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입 또는 독지자의 기부금으로서 충당한다.

제11조 경비는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에 결산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세입출은 관계회계장부 및 수지증빙서를 보존하고 10년간 증빙해야 한다.

부칙

본 규약은 1940년 4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한편 옥산서원은 규약 제정에 따라 제1회 평의회를 1940년 10월 10일 강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사 최윤(崔潤)과 평의원 9인이 참석하였고, 평의원 3인이 결석하였다. 이 평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옥산서원의 채무액 승인 및 채무정리에 관한 건
2. 1940년도 옥산서원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건
3. 이회재 선생의 종가 및 墓位 토지 영구 유지 관리에 관한 건
4. 옥산溪亭 守護 보조에 관한 건
5. 옥산서원의 역원 비용 변상 및 직원 급료 및 여비 규정 제정에 관한 건
6. 院有토지 매도 부분이전에 관한 건
7. 옥산 이씨 서파 중 位土 이전에 관한 건

## 8. 서원의 추계향사비 지불에 관한 건

마지막으로 옥산서원의 재정 실태를 1940년도 세입출 예산을 통해 살펴보자. 옥산서원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은 차입금이 차지하고 있다. 차입금은 1만 8천 엔으로 전체 수입의 75%에 이르고 있었는데, 소작료 수입은 약 6천여 원으로 2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즉 옥산서원은 재정구조상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500엔의 예금이 있었으나 그 이자는 2.5%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극소액에 불과하였다. 특히 1940년은 전시기 자금통제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채 소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금리 역시 최저한도로 묶어두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 이 시기 예금은 그다지 자산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전쟁 이전에는 10%가 넘는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에는 예금이 옥산서원 운영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기본 자산은 노비와 토지였고 옥산서원 역시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분제 해체로 노비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고, 토지에서 나오는 소작료만으로는 서원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전체 세입의 3/4을 빚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사액 서원의 경우 면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옥산서원 토지의 규모는 답이 56,598평, 밭이 13,379평으로 논이 밭보다 약 4.2배 많은 규모이다. 논이 약 283마지기 정도이고 밭이 약 69마지기인데, 소작료 수입을 보면 논에서 나오는 소작료가 밭보다 14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작료 수입 중 논에서 나오는 수익이 92%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옥산서원의 순수입은 전적으로 논의 소작료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옥산서원 지출 역시 수입과 조응하여 차입금 상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입금 상환 항목이 있는 잡지출이 전체 지출 중에서 85%를 점유할 정도로 외부에서 옥산서원 예산에서 빚은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다음으로 예비비 5%, 사무비 4%, 교육비 3%, 제사비 2%의 순이었는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제사비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서원의 핵심 기능이 제향에 있다고 볼 때 조선시대에 제사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나 일제강점기에 그 비율은 현격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서원의 일반행정에 지출되는 사무비가 제사비보다 2배 이상 높는데, 인건비와 여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옥산서원은 인근에 옥산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했는데, 옥산학교 지원비로 800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의원회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3엔씩을 지불하는 등 변화된 운영이 지출 항목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옥산서원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원을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940년도 옥산서원 세입출 예산(단위: 엔)

수 입			
항목	세부항목	본년도 예산액	부기
재산수입	소작료	6,061	o 畓: 56,598평 (평당 10전의 비율 5,659엔 80錢) o 田: 13,379평 (평당 3전의 비율 401엔 37전)
	소계	6,061	
2. 잡수입	예금이자	12	예금이자 12엔 77전. 경비예금 매일 채고 평균 500엔 일보 7리의 비율(연리 2.555%)
	소계	12	
3. 차입금		18,000	
합계		24,073	
지 출			
항목	세부항목	본년도 예산액	부기
제사비	향사비	200	秋享費 200엔
	大祭費	200	
	香謁費	72	1회 평균 3엔 24회분 72엔
	소계	472	
2. 회의비	회의비	100	유림총회비 55엔, 비용변상 45엔 <sup>9)</sup>
	잡비	70	접대비 50엔, 제잡비 20엔
	소계	170	
3. 사무비	서기 급료	60	1인 평균 30엔 2인분(반년분)
	여비	200	역원 및 서기 여비
	수용비	250	비품비 100엔, 소모품비 100엔 통신운반비 30엔, 잡비 20엔
	院有건물유지비	100	수선비 100엔
	傭人費	360	傭人料 1인 평균 30엔 3인분
	소계	970	
4. 사업비	교육비	800	옥산학교 경비
	소계	800	
5. 잡지출	공과금	10	
	舊債상환비	18,000	
	연부상환비	644	연부금 1,288엔의 半연부금
	회재선생 증가 위전유지비	600	
	溪亭수호비 보조	1,000	
	잡비	100	
	소계	20,354	
6. 예비비		1,307	
합계		24,073	

출전: 玉山書院, 『往復文書類綴』(1940.9.30.~1942.12.15.)

---

9) 원장 3엔, 이사 3엔, 유사 3엔, 평의원 36엔(12인분 1인당 3엔)

##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이광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국문초록】

이 발표문은 학계에 알려진 주요 學規를 통해 16~19세기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서원의 교육 및 운영 지침을 규정해 놓은 학규는 學令·院規·齋規·齋憲·約束·講規·立約·訓示文·諭示文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학규는 교육 과정과 운영 방침을 제정해 놓은 서원의 자체 규약이다. 이는 서원의 학문적 지향점과 계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정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南宋의 理學者들은 오래 관학의 쇠퇴를 지목하였다. 이들은 ‘爲人之學’이 아닌 ‘爲己之學’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재 양성, 의리 강명, 그리고 ‘尊賢’의 장소로 서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고, 그 교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서원에서 학규를 제정해 나갔다. 고려 후기 주자 성리학을 도입한 한국에서도 16세기 이후 朱子の 書院觀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레 조선의 사대부 층은 주자의 「白鹿洞書院揭示」를 학규의 典範으로 삼고,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서원을 운영해 나갔다.

한·중 서원 모두 남송 이학자가 제정한 학규를 전범으로 삼았으나, 서원의 전개 양상은 사뭇 달랐다. 왕조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서원 운영의 주체는 대응을 달리 하였는데, 학규를 통해 그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때로는 학규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전통적인 체제를 고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조선에서 서원이 운영되던 16~19세기를 기준으로 중국 明代와 清代 서원 학규와 동 시기 조선의 서원 학규를 비교·검토하였다.

우선 명대에는 白鹿洞書院의 「續白鹿洞學規」를 통해 서원의 관학화를 극복하려던 程朱理學 계승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6세기에 이르러 心學이 번성하였고, 「教條示龍場諸生」과 「大科訓規」와 같은 학규가 심학자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에 반해 17세기 초반에는 학문의 전환을 도모하는 이학자 집단에 의해 서원에서의 자유 강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학규로는 ‘東林會約’이 있다. 하지만 당대 많은 서원이 관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중앙의 지방 통치에 협조하고 관료 예비층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림회약’과 비슷한 시기 제정된 共學書院의 「會規」는 자유 강학을 추구하는 서원과 관학화된 서원의 이질성을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16세기 중반 백록동서원을 전범으로 한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이 처음 설립되었

다. 이에 앞서 조선의 당국자들은 지방에서 私學 기관이 발달하는 가운데 明朝의 관학화된 서원을 주목하였고, 얼마 후 공신 계열 인사인 周世鵬에 의해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고 학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이후 서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것은 주자 성리학을 발전시킨 사림 세력이다. 이들은 17세기 중반까지 서원을 성리학과 사림 세력의 부식처로 삼고 전국에 서원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각 學派의 名儒들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를 계승한 「伊山院規」[李滉], 「隱屏精舍學規」[李珥], 「院規」[鄭述], 「新山書院立規」[李明志] 등을 제정하였다. 이 무렵 성리학 발전은 ‘道統’의 분화로 이어졌으며, 각 학파는 경쟁적으로 서원을 설립하였다. 17세기로 접어들면 서원 학규에서도 학파별 계통 의식이 드러난다. 이에 서원 학규는 교육적 활용과 별개로 ‘도통’을 표방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는 관학화의 길을 걸으며 교육적 내용이 구체화 되는 명말의 학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청대 초기 이학자들은 명말 심학의 병폐를 지목하면서 서원에서의 자유 강학을 통해 학풍을 쇄신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康熙 연간 제정된 關中書院의 「學程」과 「還古書院會規」는 이학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雍正·乾隆 연간 서원 정책은 크게 일신된다.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속에 지방 행정 조직과 연계하여 관학화된 서원 제도가 한층 더 정비된 것이다. 특히 변방에도 행정력과 교화가 미치는 가운데 서원이 건립되었고, 靑海에서는 「三川書院學約」과 같은 학규가 제정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西勢東漸의 흐름 속에 신식 학문을 접목시킨 서원이 등장하였다. 이 무렵 제정된 「中西書院課程規條」에서는 中學과 西學을 함께 익힌다면 관직에 나간 후 능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서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변모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원이 근대 교육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서원은 교육 보다 제향 기능이 중시되었다. 향촌지배 세력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했다. 17세기 후반부터 1868·1871년 전국적인 서원 毀撤이 이루어지기까지 「竹林書院節目」[俞樾], 「魯岡書院齋規」[尹拯], 「紫雲書院院規」[朴世采], 「深谷書院學規」[李緯], 三溪書院 「居齋節目」[李光庭], 「石室書院講規」[金元行], 「坡山書院齋規」[成近默] 등의 여러 학규가 당대 명현에 의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들은 복고론적 입장에서 經學에 중점을 둔 학규를 제정해 나갔지만, 시대적 변화상을 학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력한 몇몇 서원에서는 서원 입원 자격에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양 왕조에서 서원 학규의 지향점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 从16-19世纪书院学规来看韩、中书院的变迁

李光宇(岭南大学校 民族文化研究所)

### 【中文摘要】

该论文通过检讨在学界流传的一些主要书院学规,对16-19世纪韩、中书院的变化情况进行比较讨论。作为书院教育及运营方式的规定,“学规”往往被称为学令、院规、斋规、斋宪、约束、讲规、立约、训示文、谕示文等多种名称。学规是制定教育课程和运营方针的书院的内部规约。这不仅体现书院的基本学术志向和体系,而且又反映所指定当时政治、社会、经济、文化的一些特征。

南宋理学家往往指出了官学的衰退。他们不是提出“为人之学”,而是全面提倡“为己之学”,积极建立书院,以作为人才培养、义理讲明和“尊贤”之所。为了体现其教学理念,他们在书院制定了学规。在高丽后期引进程朱理学以后,至于16世纪,朝鲜的学者开始关注朱子的书院观。朝鲜士大夫自然而然地以朱子的《白鹿洞书院揭示》为学规的典范,根据朝鲜的实际情况开始经营各所书院。

韩国、中国书院均将南宋理学家所制定的学规作为典范,但是,其书院发展趋势各不相同。随着王朝的政治、社会变化,书院运营主体也采取了不同的行动应对措施,我们可以通过学规追踪其情况。书院的学规,有时顺应时代的变化,而有时也被用作坚持传统体制的手段。于是,笔者将以16-19世纪朝鲜书院为研讨范围,与同时期中国明代和清代书院学规进行比较来探讨其异同点。

通过白鹿洞书院的《续白鹿洞学规》,我们看出明代程朱理学家试图客服书院的“官学化”现象。至于16世纪,陆王心学兴盛,心学家指定《教条示龙场诸生》或《大科训规》等学规。相反,17世纪初一些理学家,他们图谋转变主流学术思潮,从中提倡、突出在于书院的自由讲学活动,如《东林会约》就代表这种意图。但是,当时许多中国书院处于中央政府及官府的影响力之下,于是全国各所书院运营方式主要构成为协助中央政府的地方统治工作、或负责官僚人才的教育。还有与《东林会约》同一时期制定的学规,就是共学书院的《会约》,明显突出追求自由讲学的书院和官学化的书院的不同性质。

16世纪中期,朝鲜儒家首次设立了以白鹿洞书院为典范的“白云洞书院”(今绍修书院)。在此之前,朝鲜儒家在地方私学结构继续得以发展的趋势下,对明的官学化的书院加以关注,不久,由功臣系人士朱世鹏建立白云洞书院,同时制定了书院学规。但16世纪

中期以后，主导书院设立和运营的是发展朱子性理学的朝鲜士林势力。直到17世纪中期，他们把书院作为性理学和士林势力的据点，并在全国普及书院。而且各学派的著名儒家，以朱子《白鹿洞书院揭示》为典范，制定了主要学规，比如有《伊山院规》[李滉]、《隐屏精舍学规》[李珥]、《院规》[郑述]、《新山书院立规》[李明忘] 等等。当时性理学的发展导致了“道统”的分化，各学派竞相设立了书院。进入17世纪后，在书院学规中也表现出了各学派的学统意识。因此，书院学规与其教育性意义无关，就成为标榜“道统”的手段。这一现象与同时代明末中国书院的情况有明显对比。因为当时明的书院走在官学化的过程中，其教育内容更为具体化。

清初理学家指出明末心学的弊病，希望通过书院的自由讲学来刷新学风。康熙年间，在关中书院指定的《鹤亭》和《塏告书院会规》表现出要回归理学的强烈意志。但是在雍正、乾隆间，在书院政策上发生了巨大变化。正是随着中央集权体制的加强，与地方行政组织互相联系，进一步完善了官学化的书院制度。特别是在边防也有行政能力和教化影响的情况下建立了书院。比如在青海制定《叁川书院学约》。19世纪中期以后，在西华东渐这一巨大潮流中，结合新式学问的书院开始登场。当时制定的《中西书院课程规条》中有一句话，如果同时掌握中学和西学，就可以进入官职更好地发挥自己的能力。如是，许多书院顺应时代要求摸索变化，结果书院成为了中国近代教育的基础。

朝鲜后期的书院，比起教育活动更重视祭享(祭祀)功能。各乡地区的统治势力在社会、经济变化中，以书院为中心要坚持传统价值和文化。从17世纪后期到1868、1871年全国性书院析除为止，其间许多名儒指定学规，比如《竹林书院节目》[俞荣]、《鲁冈书院斋规》[尹拯]、《紫云书院院规》[朴世采]、《深谷书院学规》[李穰]、叁溪书院的《居斋节目》[李光庭]、《石室书院讲规》[金元行]、《坡山书院斋规》[成近默]等等。他们立足于“复古”的立场，沿袭过去书院初期的学规制定崭新的学规，因此他们的学规实际上未能反映时代的变化趋势。也就是说，这时有影响力的几所书院，却强化了书院入学资格上的身份限制，而且在此过程中发生了围绕学规解释的严重矛盾、冲突。总之，在巨大的时代潮流中，韩国、中国书院的志向各不相同。

##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이광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I. 머리말

조선 시대 사림 세력은 으레 ‘尊道’와 ‘尙賢’을 기치로 내세우며 서원을 설립하였다. 당초 ‘尊道’와 ‘尙賢’은 관학의 몫이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관학이 쇠퇴하기에 이르자, 사림과 관료 세력은 士風이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사풍을 矯正하는 교학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존현’을 통한 독서처를 마련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서원의 발생이다.<sup>1)</sup> 즉, 서원 설립의 실질적인 명분은 관학의 쇠퇴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원 보급에 앞장선 退溪 李滉[1502~1571]은 1549년(명종 4) 豐基郡守로 있으면서 관학의 폐단을 지적하며, 白雲洞書院에다가 서적과 扁額을 내려주고 경제적 기반을 지원해 달라고 上府에 청원하였다.<sup>2)</sup>

퇴계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서원 설립의 典範으로 삼은 것은 朱子の 書院觀이다. 중국 唐代에 궁중의 修書處로 麗正書院과 集賢書院처럼, 비록 士人이 학업을 닦는 장소는 아니지만 ‘서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이 처음 등장하였다. 나아가 현종 이후에는 관학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인들의 개별적인 독서·강학 풍조가 활발해지며 서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北宋 초기 교육 정책에 힘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학 기관 중 지방에 자발적으로 설립된 서원을 그 대안처로 삼았다. 정부는 서원에 현판과 서적을 내려주고 祿俸을 정해줌으로써, 교학을 진흥시켜 나갔다.<sup>3)</sup> 이로써 차별화된 사학 기관으로서 서원이 등장하였다.

서원은 북송과 南宋 교체기에 관학이 무너지면서, 남송 理學者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게

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32쪽.

2) 『退溪集』 卷9, 書, 「上沈方伯」, “내가 보건대 지금 국학은 원래 현명한 선비가 관여하고 있지만, 저 郡·縣의 학교는 한갓 허울만 남았고 가르침이 크게 무너져, 선비들이 도리어 향교에서 지내는 것을 수치로 여겨 시들고 피폐함이 극심하여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오직 서원 교육이 오늘날 성대하게 일어난다면 무너진 學政을 구제할 수 있어 학자가 귀의할 바가 있고, 士風이 따라서 크게 변혁되고 습속이 날로 아름다워져서 왕의 교화가 이루어질 것이니, 聖治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뿐이 아닐 것입니다.”.

3) 이하 서술되는 중국 서원 역사의 대략은 ‘朱漢民, 「중국 서원의 역사」,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邓洪波·赵伟, 「白鹿洞书院的建立背景与中国书院的变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을 참조한 것이다.

된다. 기존 서원의 복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송 시기에 있었던 賜書·賜額·賜田·賜官 등의 조치를 정부에 청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역시 관학의 쇠퇴를 서원 설립의 명분으로 삼았다. 특히 주자는 옛날 성현의 학문을 “義理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뒤에 이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라고<sup>4)</sup> 평가하며, 修己治인에 입각한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주자는 당시 관학이 爲人之學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sup> 관학의 博士와 弟子들이 대부분 과거 준비에 몰두하며,<sup>6)</sup> 이른바 ‘務記覽爲詞章’과 ‘以釣聲名取利祿’<sup>7)</sup>에 힘쓸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자를 필두로 한 이학자 집단은 인재 양성, 의리 강명, 그리고 존현의 장소로 서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고, 그 교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각종 서원 學規를 제정해 나갔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 서원은 쇠퇴한 관학의 대안처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서원 등장과 그것의 변모 양상은 양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형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서원의 설립 및 운영 배경은 설립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문 및 교육의 지향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사에서 서원은 전통 시대 존재했던 가장 완숙했던 형태의 私學 기관이다. 서원의 등장은 여러 가지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에 따른 과거 제도의 발전, 사회·경제적으로는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관료 지향적 사대부 계층의 성장, 문화적으로는 성리학의 융성을 손꼽을 수 있다.

따라서 서원 학규에는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서원 학규는 교육 과정의 전반과 운영 방침을 제정해 놓은 자체 규약이다. 일반적으로 학규라고 통칭되지만, 學令·院規·齋規·齋憲·約束·講規·立約·訓示文·諭示文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sup>8)</sup> 학규는 서원 설립의 지향점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학규를 통해 16~19세기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을 비교·검토해 볼 것이다. 다만, 발표자의 한계로 현재 전하는 서원 학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기에 학계에 알려진 주요 학규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4)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5)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 -특히 “백록동서원게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80~81쪽.

6) 『朱子大全』 卷79, 記, 「衡州石鼓書院記」, “抑今郡縣之學官 置博士弟子員 皆未嘗考德行道義之素 其所受授又皆世俗之書 進取之業 使人見利而不見義 士之有志爲己者 蓋羞言”.

7)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8) 박종배,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한국교육사학』 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 224쪽. 다만, 세부 운영 지침은 그것이다.

## II. 明代와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

### 1. 明代 서원과 학규

중국에서 程朱理學은 元代를 거치면서 더욱 번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주이학은 새로 건국된 명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바탕으로 명 정부는 중앙과 지방에 관학 체계를 완비해 나갔다. 이에 전조의 서원을 관학으로 삼았으며, 1436년(정통 1)에는 관학을 정돈하기 위해 提督學校官을 설치하게 된다.<sup>9)</sup> 제독학교관은 인재 선발과 교육 등 관할 내 학정을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교화와 민정 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서원 관리도 제독학교관의 몫이었다. 이들은 정부 허가 없이 건립된 서원을 적발하고 과거 정원을 서원에 배정하였다.<sup>10)</sup> 관학 정비에 서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제독학교관 등 관부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원 본연의 사학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成化[1465~1487] 연간 백록동서원의 洞主를 지낸 胡居仁[1434~1484]의 「續白鹿洞學規」도 그 중 하나이다.

백록동서원은 1438년 南康知府 翟溥福에 의해 새롭게 중건되었으며, 이후 관부의 지원을 받고 學田·제기·서적·房舍 등을 차례로 확보하였다. 호거인은 1467년(성화 3)과 1480년 두 차례 백록동서원의 동주를 맡았다. 1480년에는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를 따라서 「속백록동학규」를 제정하였다. 그는 6조의 요체로 구성된 「속백록동학규」를 통해<sup>11)</sup> 과업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異端을 배척함으로써,<sup>12)</sup> 宋儒 사상을 계승하여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의리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명 정부가 관학 발전을 위해 서원의 자율적인 강학 활동을 억제하자, 호거인처럼 정주이학의 전통을 계승한 명유들은 새로운 학규 제정을 통해 주자가 내세웠던 사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리의 講明을 추구하던 이학자에게 명대 초반 서원 교육을 名利 추구의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사학 본연의 가치를 내세운 서원 운영이 활기를 띤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송·원대 시기보다 훨씬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嘉靖[1522~1566] 및 萬曆[1573~1620] 연간에 집중되었다. 명초 서원의 관학화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과 별개로 정치·경제 발전과 더불어 학문의 발전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心學과 理學으로 대표되는 學團 간 경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학자인 王陽明

9) 『明史』 卷69, 志, 選舉 一.

10) 박종배, 「중국 역대 제학관 제도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2, 교육사학회, 2010, 94~100쪽.

11)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正趨向以立其志」, 「主誠敬以存其心」. 「博窮理事 以盡致知之力」, 「審察幾微 以爲應事之要」, 「克治力行 以盡成己之道」, 「推己及物 以廣成物之功」.

12)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熹於科舉 自幼便見得輕 今人不講義理 只去學詩文 已落第二等」, 「故力排異端 以扶正道」.

[1472~1529]과 湛若水[1466~1560]는 서원을 자신들의 학술 사상을 전파할 중심지로 삼았으며, 각각 서원 학규인 「敎條示龍場諸生」과 「大科訓規」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심학자에 의해 서원 활동이 왕성해 지자, 심학을 이학으로 돌리려는 이학자의 서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東林會約」을 제정한 顧憲成[1550~1612]이다.

먼저 왕양명은 지방관으로 있거나 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龍岡書院·貴陽書院·濂溪書院·백록동서원·稽山書院·萬松書院·敷文書院 등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 그 중에서 용강서원은 왕양명이 貴州 龍場에 유배되었을 때 관여했던 서원이다.<sup>13)</sup> 당시 귀주 사람들은 왕양명을 위해 何陋軒을 지어 주었다. 이에 문생들이 모여들어 하루헌은 용강서원이 되었고, 왕양명은 이곳을 강학 공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1508년(정덕 3) 용강서원의 학규인 「교조시용장제생」을 제정하였다.

「교조시용장제생」은 ‘立志’·‘勤學’·‘改過’·‘責善’ 4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양명은 이를 서로 살피고 격려하면 학문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sup>14)</sup> 4개 조목의 내용은 다른 학규와 비교해 매우 淺近한 편이다. ‘입지’조와 ‘근학’조에서는 성인·현인, 나아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세우고 공부에 부지런히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과’조와 ‘책선’조는 배우는 자가 자발적으로 행실을 개선하고 상호 간에 개선하기를 바라는 규정이다. 다른 학규처럼 구체적인 학문의 절차나 서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초학자의 학문 지침에 가깝다. 그 까닭은 ‘개과’조의 다음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諸生은 안으로 성찰하되 만일 이러한 잘못에 가깝다면, 진실로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나 스스로 가책하며 부족하다고 여겨서, 잘못을 고치고 선을 좇으려는 마음을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다만 능히 하루아침에 舊染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면, 비록 옛날에는 도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금일 군자가 되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sup>15)</sup>

용강서원이 위치한 귀주 일대는 오랫동안 이민족이 반독립적으로 통치하던 곳이었다. 원대에 토착 세력에게 관직을 주는 土司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명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貴州承宣布政使司를 설치 할 수 있었다. 명 정부는 토착민을 무력으로 통제하기도 했지만,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sup>16)</sup> 유학 장려도 회유책에 해당한다. 그런 가운데

13) 이하 왕양명과 용강서원에 대해서는 ‘박종배, 「명·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50~52쪽; 이우진, 「왕양명의 용장오도 다시 읽기 -용장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명학』 59, 한국양명학회, 2020, 27~34쪽’ 참조.

14) 『王陽明全集』卷26, 續篇 1, 「敎條示龍場諸生」, “諸生相從於此甚盛 恐無能爲助也 以四事相規 聊以答諸生之意 一曰立志 二曰勤學 三曰改過 四曰責善 其慎聽 毋忽”.

15) 『王陽明全集』卷26, 續篇 1, 「敎條示龍場諸生」, “諸生試內省 萬一有近於是者 固亦不可以不痛自悔咎 然亦不當以此自歉 遂餒於改過從善之心 但能一旦脫然洗滌舊染 雖昔爲寇盜 今日不害爲君子矣”.

16) 김홍길,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58, 동북아역사재단, 2017, 67~75쪽.

왕양명은 용강서원을 거점으로 귀주 지역에 유학의 기초를 전파하였던 것이다. 왕양명에게 있어 용강서원에서의 강학은 자신의 심학을 체계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년 講會를 통해 적극적으로 심학을 전파하였으며, 아울러 서원도 흥성하였다. 나아가 왕양명은 주자가 학규를 제정한 백록동서원에서 강학을 하고, 주자의 고향에 세워진 紫陽書院 중수에 관여함으로써, 심학의 영향력을 높여 갔다.

「대과훈규」를 제정한 담약수는 “평생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반드시 서원을 건립해서 白沙를 제사지내니 從遊하는 자들이 천하에 가득하다[平生足跡所至 必建書院以祀白沙 從遊者殆遍天下]”<sup>17)</sup>라는 『明儒學案』의 평가처럼 50여 년 동안 40여 개의 서원을 만들만큼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담약수와 관련된 주요 서원으로는 云谷書院·大科書院·天關書院·明城書院·龍潭書院·獨岡書院·蓮洞書院 등이 있다. 이중 대과서원은 담약수가 고향 廣東 增城의 西樵에서 1517년에 설립한 것이다. 대과서원의 학규인 「대과훈규」는 1520년에 제정되었다. 본문은 ‘大科訓規序’, ‘敍規’, ‘訓規圖’, 그리고 60조의 ‘大科書堂訓’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그 중 ‘대과서당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나, 諸生은 학문을 할 때 반드시 먼저 立志를 해야 한다.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먼저 그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옳다. ‘志’는 道에 뜻을 두는 것이다. ‘立’이라는 것은 바로 ‘敬’이다. 匹夫의 ‘志’도 뺏을 수 없다. 뺏을 수 없는 것이 바로 ‘志’이다. 만약 뺏을 수 있다면, 어찌 ‘志’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 한 자에 있다.

하나, 먼 지방과 가까운 곳에 德行과 道藝의 선각자로서 師法으로 삼을 자가 있으면 반드시 講席에 올라 講書해 주기를 공손히 청하여 진보하기를 구해야 한다. 듣지 못한 바를 들으니 공자와 같은 성인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었겠는가.

하나, 초하루와 보름에는 당에 올라가서 선생은 책의 1장 또는 2장을 강의하여 이 마음과 학문을 發明하는데 힘썼다. 諸生은 一場說話로 흘러들지 말고, 또한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어서 神意를 일시에 서로 주고받아 큰 보탬이 있게 한다.

하나, 諸生은 讀書함에 五經과 四書를 익히는데 힘쓸 것이며, 또한 다른 경전과 성리서, 史記 및 五倫書를 旁通하여 지식과 견문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식과 견해는 외부로부터 와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곧 우리 德性의 지식과 견해이다. 책은 단지 警發해 줄 뿐이다. 모름지기 道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나머지도 풀려 질로 文章과 科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仙·佛·莊子·列子 및 諸書가 泛濫하여 明教를 어지럽히고 心術을 무너뜨리며, 精神을 흠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 우리 유학은 유용함이 요구된다. 집안일을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兵農·錢穀·水利·馬政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本性 안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지극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 곳곳마다 모두 格物 공부이다. 이것을 함양하고 성취하면, 다른 날 세상에 쓸

17) 『明儒學案』 卷37, 甘泉 1, 「文簡湛甘泉先生若水」.

18) 담약수의 「대과훈규」에 대해서는 ‘박종배, 앞의 논문, 2013, 50쪽; 박종도,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 공부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82~84쪽’ 참조.

때 착착 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위의 조목 중에서 “학문을 할 때 반드시 먼저立志를 해야 한다”는 ‘대과서당훈’의 첫 번째 구절이다. 이는 왕양명이 「교조시용장제생」의 첫 번째 조목에서 ‘立志’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담약수는 왕양명과 서신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학문적으로 같은 길을 걸었기에 학문의 시작을 ‘立志’에서 찾은 것이다. 이어 ‘대과서당훈’에서는 스승의 초빙과 강회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서·오경과 사기 및 성리서 등에 힘쓴다면, 문장과 과업이 절로 이루어지고 선·불·장자·노자 등의 학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 배움이 병농·전곡·수리·마정 등 經世에 유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조시용장제생」과 「대과훈규」는 당시 심학이 서원을 중심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까닭을 보여준다. 명초 이후 여러 명현들은 서원의 관학화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일찍이 주자는 ‘爲己之學’을 위해 서원 학규를 제정했었다. 이후 이학자들은 서원을 매개로 도통 계보를 확립하였고, 이학은 학문적 사유체계를 넘어 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명초 서원의 관학화로 주자의 서원관과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爲人之學’에 매몰되어 과업과 명리를 다투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에 앞장섰던 것이 심학자들이었다. 활발한 강학 활동으로 ‘爲己之學’을 실천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구심점으로 서원을 선점하였다. 왕양명은 「교조시용장제생」을 통해 변경의 이민족을 교화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원에서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했다. 담약수는 「대과훈규」에서 심학이 ‘爲己之學’의 근본임을 드러내었다. 이학 보다 심학이 먼저 서원의 관학화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왕양명·담약수와 그 문인 집단의 활동으로 만력 연간까지 서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sup>20)</sup> 심학도 그만큼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이후 100년 간 심학 계열이 서원에서 진행되는 사학의 전통을 주도하는 가운데, 심학의 末流를 비판하고 정주이학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명·청 교체기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강렬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심학의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던 것이 顧憲成[1550~1612]과 東林書院이다. 동림서원은 이 무렵 학문적

19) 『泉翁大全集』卷5, 「大科書堂訓」, “一 諸生爲學 必先立志 如作室者, 先固其基址乃可 志者 志於道也 立之是敬 匹夫不可奪志 不可奪乃是志 若其可奪 豈可謂之志 自始至終 皆是此一字 … 一 遠方及近處 有德行道藝 先覺之人 可爲師法者, 必恭請升座講書 以求進益 聞所未聞 孔子之聖亦何常師 … 一 朔望升堂 先生講書一章或二章 務以發明此心此學 諸生不可作一場說話聽過 亦必虛心聽受 使神意一時相授 乃有大益 … 一 諸生讀書務令精熟五經四書 又須旁通他經性理史記及五倫書 以開發知見 此知見非由外來也 乃吾德性之知見 書但能警發之耳 須務以明道爲本而緒餘 自成文章舉業 其仙佛莊列諸書 不可泛濫以亂名教壞心術散精神 … 一 吾儒學要有用 自綜理家務 至於兵農錢穀水利馬政之類 無一不是性分內事 皆有至理 處處皆是格物工夫 以此涵養成就 他日用世 鑿鑿可行”.

20) 명대 동안 존재했던 서원 총수는 1,962개소인데, 正德~萬曆[1506~1620] 연간에 건립·복설된 서원이 모두 1,108개소에 이른다. 鄭洪波·趙偉, 앞의 논문, 2020, 277쪽.



경향을 심학에서 이학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이른바 東林學派의 중심지였다.

江蘇 無錫에 위치한 동림서원은 북송 때인 1111년(정화 1) 二程의 高弟인 楊時가 처음 설립하였으나, 金의 침략으로 폐쇄해졌고 이후 200년 동안 불교와 도교의 사원으로 활용되었다. 1604년(만력 32) 황태자 옹립 문제 등으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온 고현성은 동지들과 독서 강학의 풍조를 일으키고 程朱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관부의 협조를 받아 동림서원을 중건하였다. 그리고 「백록동서원게시」를 계승한 「會約儀式」을 제정하게 된다. 「회약의식」은 일반적으로 ‘東林會約’이라 불리고 있는데, 서원에서 진행되는 강회의 의식절차로 모두 11개조 구성되어 있다.<sup>21)</sup> 이와 관련해 주요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매년 한번 大會를 개최하되 봄 또는 가을에 이르러 결정하며, 보름 전에 첩지를 보내어 통보한다. 매월 한번 小會를 개최하되 정·6·7·12월의 흑한·흑서기는 거행하지 않는다. 2·8월은 中丁에 시작하고 나머지 달은 14일에 시작한다. 강회는 각 3일 동안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자고 오고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하나, 대회 첫날 聖像을 공손히 받들어 강당에 걸고 午時 초에 북을 세 번 울리면 각기 관등에 따라 관복을 갖추고 성상 앞으로 가서 四拜禮를 한다. 이어 道南祠로 가는데 그 예는 이와 같다. 예를 마치면 강당에 들어가 동서로 나누어 앉되, 먼저 各郡·各縣, 다음은 本郡, 다음은 本縣, 다음은 會主 순으로 하되 각기 나이를 순서로 해서 앉고 흑 같은 반열에 들 수 없는 자는 한 자리 물러나 앉는다.

하나, 대회에서는 매년 1인을 회주로 추대하고 소회에서는 매월 1인을 회주로 추대하되, 한 번 돌면 다시 시작한다.

하나, 대회에는 매년 知實 2인을 두고, 강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지빈에게 알리면 門籍에 등록한다.

하나, 매 강회 때 한 사람을 추대해서 회주로 삼고 四書 한 장을 강설하게 하되, 그 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논할 것이 있으면 의논한다. 무릇 강회 중에는 각기 허심탄회하게 청강하고 자기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兩下의 강론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단정히 발표하기를 청하되 어지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 강회 날 오래 앉은 후에는 마땅히 詩 한두 장을 노래해서 凝滯를 滌蕩하고 性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나, 매 강회 때마다 모름지기 門籍을 설치하여, 한편으로는 강회에 참여한 疏密을 기록해 지금의 근태를 증험하고, 한편으로는 강회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날 어디서부터 究竟해야 할지를 기록하여 앞으로의 法戒로 삼도록 한다.

하나, 同志들이 會集할 때는 繁文을 줄이고 실익을 추구한다. 그런 까닭에 揖은 半揖만 하고 강회를 마칠 때도 交拜하지 않는다.<sup>22)</sup>

21) 이하 「회약의식」에 대해서는 ‘박종배,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사학회, 2011’ 참조.

22) 『東林書院誌』卷2, 「會約儀式」. “一 每年一大會 或春或秋臨期酌定 先半月遣帖啟知 每月一小會 除正月六月七月十二月祁寒盛暑不舉外 二月八月以仲丁之日爲始 餘月以十四日爲始 會各三日 願赴者至 不必遍啓

「회약의식」에는 기본적으로 강회의 개최시기와 그것을 주관하는 회주 및 지빈의 역할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강회 참석자는 지빈이 작성하는 문적에 등록되어 학문적 성취를 점검할 수 있었다. 「회약의식」에서는 강회의 의식 절차와 강회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회약 의식은 공자의 聖像과 양시를 제향한 도남사에 예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分座와 읍례의 절차를 규정해 놓았는데, 設講 다음에는 ‘歌詩’를 거행하였다. ‘가시’는 우리나라 서원에서 볼 수 없는 의식이다. 性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고현성 등 동림학파의 ‘道統’ 의식도 반영되어 있다. 「회약의식」 뒤의 「歌詩」 편에는 모두 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작자는 양시·주자·陳白沙·왕양명·邵雍·程顥이다.<sup>23)</sup> 그 중 답약수의 스승인 진백사와 왕양명의 시는 2수씩 수록하였다.

앞서 고현성 등은 심학의 폐단을 지적하였지만, 그 대상은 陽明左派로 지목되는 계열이었다. 전통적인 질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있어 양명좌파의 儒·佛·道 혼용과 禪學的 경향, 서민 교육 등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현성 등은 명말의 정치·사회적 혼란도 양명좌파의 극단적인 학문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고현성 등은 말류를 극복하기 위해 ‘도통’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 방법은 이학과 심학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양명좌파를 배척하는데 있었다.<sup>24)</sup> 이러한 이학과 심학의 조화를 추구하던 고현성의 의지가 「가시」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유로운 강학 형태였다. 위의 조목에서 보듯이 강회 때 사용하는 교재와 범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四書 중 한 장을 강의한 후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동림서원의 강회는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졌다. 서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토론하였다. 명 왕조에 있어 동림서원의 자유 강학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림서원의 강학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세력을 東林黨이라고 부른다. 그런 가운데 환관 魏忠賢이 권세를 부리자 동림당은 그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는 곧 위충현 등 정부 세력에 의한 박해로 이어졌다. 동림당과 연루된 인사들이 대거 정치적 탄압을 당하였고, 1625년(천계 5)에는 동림서원 자체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동림서원 훼손은 서원의 자유 강학에 대한 전제 왕조의 통제로 볼 수 있다.<sup>25)</sup> 서원의 자

一 大會之首日 恭捧聖像懸于講堂 午初擊鼓三聲 各具本等冠服詣聖像前 行四拜禮 隨至道南祠 禮亦如之 禮畢 入講堂 東西分坐 先各郡各縣 次本郡 次本縣 次會主 各以齒爲序或分 不可同班者退一席 … 一 大會每年推一人爲主 小會每月推一人爲主 週而復始 一 大會設知賓二人 願與會者 先期通一刺于知賓 即登入門籍 一 每會推一人爲主 說四書一章 此外有問則問 有商量則商量 凡在會中 各虛懷以聽 即有所見 須俟兩下講論已畢 更端呈請 不必攙亂 … 一 每會須設門籍 一以稽赴會之疎密 驗現在之勤惰 一以稽赴會之人他日何所究竟 作將來之法戒也 … 一 同志會集 宜省繁文 以求實益 故揖止班揖 會散亦不交拜”.

23) 『東林書院誌』卷2, 「歌詩」.

24) 신현승, 「16~17세기 유교 학파의 관계성에 대한 일고찰 —중국 명대 말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원, 2018, 35~37쪽.

유 강학과 전제 왕조의 정치적 지향점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때 禁毀의 조령이 내려져 28개소에 이르는 서원이 이 무렵 함께 훼손되었다. 그런데 서원 禁毀에 관한 조령은 1625년뿐만 아니라, 1537년(가정 16)과 1538년, 1579년(만력 7)에도 내려졌다. 명 정부는 개창 이후 서원을 관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심학 및 이학자 집단에 의한 서원 설립과 증건이 이어졌다. 이들 서원에 대한 관부의 통제력은 관학화된 서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그 틈을 타 정치적 비판을 동반한 자유 강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거기다 지방 재력의 낭비도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것이 곧 서원 禁毀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명대에는 자유 강학을 추구하는 서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정의 도서관식 서원이 있었으며, 관부의 강한 영향력 속에 과거를 준비하던 서원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해 1618년 제정된 福建 福州 共學書院의 「會規」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6)</sup> 공학서원은 복주 최초의 서원인데, 1594년 福建巡撫 許孚遠이 복주 서문 거리 북쪽에 있던 懷安縣學을 개건한 것이다. 이어 1618년 提學副使 嶽和聲이 대대적으로 서원을 중수하고 「회규」를 제정하였다. 즉, 공학서원 자체가 관학에서 출발하였으며, 관부에 의해서 서원으로 확장·개편된 교육 기관이었다.

공학서원 「회규」의 강회 형식은 다른 학규와 비교해 자세한 편이다. 동림서원의 「회약의식」처럼 강회를 여는 시기와 院長 초빙 규정, 歌詩를 포함한 강회 절차 등이 보다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회규」에는 관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會課는 雲·龍·風·虎·明·照·類·求 八社로 나누어 각기 會長을 두며, 매월 초3일, 13일과 23일을 기한으로 한다. 전날 저녁 三學이 돌아가며 敎職을 맡아 本道와各司 道府堂, 刑館, 閩·候 두 縣을 차례로 돌며 문제를 수령한다. 새벽에 서원에 들어와 각 유생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 巳時에 문을 닫고 저녁이 되면, 답안지를 거두되 손수 철하고 밀봉하여 發題處로 보내 직접 채점하게 한다. 혹 主鐸에게 전달하여 대신 채점하게 한 뒤 발제처로 보내 다시 참정하게 하고, 우수한 자는 게시한다. 모름지기 일찍 채점하고 일찍 발표해야만 여러 선비들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다. 채점이 끝나면 매 20권을 1질로 철하여 서원 내청에 보내 각 유생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5일 내로 돌려받아 주탁이 보관하여 遴刻에 편리하게 한다.<sup>27)</sup>

위의 조목은 공학서원의 교육 목적이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 시험 준비에 있음을 잘 보

25) 朱漢民, 앞의 논문, 2007, 47~49쪽.

26) 공학서원 「회규」의 대략은 ‘박중배, 앞의 논문, 2011’ 참조.

27) 『共學書院誌』卷上, 「會規」, “會課分爲雲龍風虎明照類求八社 各立會長 每月以初三十三二十三爲期 先夕三學中輪一敎職 領題于本道及各司道府堂刑館閩候二縣處 以次相及 黎明入院 俟各生齊集 已刻封門 至晚收卷 隨手釘封 送發題處親閱 或轉發主鐸代閱 仍匯送發題處 再行參定 以其尤者揭示之 但須早閱早發 方能激勸多士 閱畢 每二十卷 釘爲一帙 發書院內聽 各生互閱 限五日內匯繳 主鐸收貯 以便遴刻”.

여준다. 교육 방법과 운영에서도 관학과 행정 조직이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시험 채점과 수령을 州·府·縣 三學이 맡았고, 閩·侯 두 縣의 禮房이 서원에서의 회강을 준비하였다.<sup>28)</sup> 강학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세하게 제정해 놓았다. 會課 때 유생과 교직에 대한 供給과 主鐸에 관한 급여 등을 명시하였으며,<sup>29)</sup> 멀리서 온 縉紳에게 公館을 빌려주거나 大會를 主敎한 자에게는 官銀을 지급하였다.<sup>30)</sup> 즉, 공학서원의 일반적인 교육 활동이 철저하게 관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회약의식」과 달리 공학서원 「회규」에는 尊賢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학적 성격은 다음 두 조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강 때 時政을 비판하는 것, 남의 과오를 폭로하는 것, 세력과 권리 및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 들뜨고 다투거나 희롱하는 것을 경계하며, 會長이 바로 잡는다.

서원에서는 會日에만 회식을 베푸는 것을 허용하며, 술자리를 벌이거나 연회와 악대를 동원하여 도를 해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當道에 신관이 부임하면 院志 1책을 인쇄해 보내 정성을 다하여 지킬 수 있게 한다.<sup>31)</sup>

「회규」에서는 회강 때 ‘시정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학문 외적 논쟁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政事에 대한 비판은 이전 학규에서도 금지하던 바이다. 이는 가장 오래된 서원 학규로 알려진 呂祖謙[1137~1181]의 麗澤書院 규약에서도 확인된다.<sup>32)</sup>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동림서원에서 격렬하게 시사가 논의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공학서원 운영 전반에 관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에 신임 지방관이 부임할 시 먼저 서원지를 납부하여 수호를 청탁하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이상과 같이 명 왕조는 정치·학문적 부침 속에 서원에 대한 禁毀를 지시하였다. 반면에 중앙집권적 체제 강화와 이를 보조할 관인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禁毀의 대상은 주로 자유 강학을 추구하는 서원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서원은 자연스레 관학화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대 名儒는 으레 사학의 침체에서 원인을 찾았지만, 중세 왕조의 발전에 따른 관학의 체계적인 정비보다 현실적인 역사적 배경일 것이다.

28) 『共學書院誌』卷上, 「會規」, “院中每遇會講 閩侯兩縣禮房 先一日備果餅茶水 同看院門子伺候”.

29) 『共學書院誌』卷上, 「會規」, “其會課供給 每生給銀一分五厘 敎職壹員銀一錢 … 主鐸聽有司遴選文行僉長 堪式多士者 用代彩幣儀二兩 程儀一兩敦請”.

30) 『共學書院誌』卷上, 「會規」, “大會 遠方縉紳 孝廉過從質證假館者 院長仍以官辦茶飯如會儀款留 … 春秋二大會 院中主敎不可無人 須查照講學往規 先一月禮聘境內外方聞有道者 來主敎席 發明宗旨 動支官銀 用紗幣二端 代程四兩 夫馬敦請”.

31) 『共學書院誌』卷上, 「會規」, “會講 戒刺時政 戒暴揚人過惡 戒言勢利瑣屑事 戒浮動浮爭 戒謔渝者 會長舉正之 … 院中止許會日設會饌席 不得張筵置酒及演戲鼓吹 有傷雅道 凡遇當道新任 即刷送院志一冊觀覽之 以便恪守”.

32) 『呂東萊先生遺集』卷10, 學規, 「乾道四年九月規約」, “郡邑政事 鄉閭人物 稱善不稱惡”.

## 2. 16~17세기 중반 조선 서원과 학규

1543년(중종 38) 豊基郡守 周世鵬이 옛 順興府 중심지에 설립한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다. 조선에서 서원의 등장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서도 麗末鮮初 동안 지속된 사학의 발전과 왕조의 교육 진흥책이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백운동서원 건립 1년 전인 1542년 副司果 魚得江[1470~1550]이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한나라 鄭玄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隋나라의 王通은 河汾에서 강학하였으며, 당나라 李渤은 南唐 때 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九經을 내려 장려했습니다. 周子·張子·程子·朱子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李公擇은 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으며, 朱熹는 武夷精舍를 짓고 白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을 얻어서, 생원·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들을 불러 모아 1년의 四仲月에 상하의 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州郡의 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都會 때와 겨울 3개월 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사중월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모아서, 官秩이 높은 수령을 試官으로 삼아 두 教授와 혹은 현감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勸課하여 製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의 館試·漢城試·鄉試에 응시하도록 차등 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幼學은 생원·진사시의 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sup>33)</sup>

위의 상소문에서 어득강은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송대 이학자의 서원 설립과 그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어 중국의 서원 제도를 본받은 교육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독서 방법, 교육 경비 마련, 과거 시험 대비를 위한 평가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어득강이 건의한 교육 진흥책은 명대 초 관학화된 서원의 모습에 가깝다. 수령과 敎官이 주도하여 과거 시험을 대비하는 모습은 서원 교육의 목적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보조할 인재 양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조선 정부는 개국 초부터 지방 관학인 향교 진흥을 위하여 精舍·書齋·書塾·書堂 등으로 불리던 사학 체계를 관학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었다.<sup>34)</sup>

33) 『中宗實錄』 卷98, 37年 7月 乙亥.

34) 이광우, 「고·중세 한국 사학의 전통이 서원 출현에 이르기까지」, 『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어득강을 필두로 한 공신 계열 관료의 서원관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백운동서원 설립 후 주세붕이 제정한 「원규」에도 일정부분 드러난다.

백운동서원 「원규」는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항에 5대 강령을 제시해 놓았는데, 차례대로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로서<sup>35)</sup> 존현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서원 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조목에서는 서원의 주요 경제적 기반인 學田과 寶米에 대한 운영 방안을 규정해 놓았다. 서원 재정은 선비 양성에만 집행하고 손님 접대나 경조사에 사용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또한 학전·보미의 운영 내역은 장부에 기록하여 매년 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sup>36)</sup> 재정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관부가 직·간접적으로 서원 운영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관학적 서원을 지향하는 주세붕의 의도는 열한 번째 조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司馬일 경우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初試入格者로 한다. 그러나 초시 입격자가 아니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操行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는 이는 有司가 斯文에게 고하여 맞이한다.<sup>37)</sup>

주세붕은 과거 시험 입격자에게 入院 자격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입원 자격에서 보듯이 서원 강학의 목적은 과거 시험 준비와 관료 예비군 층 양성에 있었다. 공신 계열인 어득강의 인식처럼 주세붕도 서원의 관학적 기능을 기대하였던 것이다.<sup>38)</sup> 하지만 당시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사림은 다른 서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림이 주도하는 서원의 전범은 퇴계에 의해 완성되었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전임과 달리 서원을 사림 주도의 강학·제향·유식처로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해 1559년(명종 14) 퇴계가 직접 제정한 榮川 伊山書院의 「伊山院規」 중 다음 조목이 주목된다.

하나, 諸生은 독서 하는데 四書五經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家禮』를 門戶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온갖 خوبی 본래 내게 갖추어진 것을 알고 옛 道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體를 밝히고 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2020, 53~55쪽.

35) 『竹溪志』, 雜錄後, 「院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36) 『竹溪志』, 雜錄後, 「院規」, “學田所出 每年十一月 院長成冊三件 一件申于官 一件報于斯文 一件留置院中 寶米所納 每年正月 成冊三件 其申報如前 必存本取息而用之 若不待存本而先用其息 則在民腹中而未納者 有本之名 無存之實 須以先納者充存其本 然後 用其所息 可也 今夫列邑司馬所 亦多置田立寶 然而送迎婚喪之需 或資於此 故其久保也 鮮矣 若書院則必以養賢爲主 無他耗費 然後 庶可支久 無大闕欠”.

37) 『竹溪志』, 雜錄後, 「院規」,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 有司稟于斯文而迎之”.

38)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127쪽.

史書와 子書와 문집, 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內外·本末의 輕重과 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院內에 들어 눈이 가까이해서 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 서원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알고 操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상유사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한다.

하나,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새로 길러 내는 뜻을 받드는 것이니, 누구든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하여 제도를 증가시키고 그 규약을 줄이지 않는다면 斯文에 있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sup>39)</sup>

퇴계는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고 관부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동 시기 명대의 관학적 서원이나 주세붕의 서원관과 달리 서원에서 실제 행해지는 교육 내용과 관부의 개입 정도는 완전히 달랐다.

먼저 퇴계는 원생에게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물론 史書·子集·문집 및 과거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內外·本末의 輕重과 緩急’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本意임을 드러내었다. 덧붙여 퇴계는 經史 이외의 다른 분야는 서원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이어 서원의 운영 주체인 유사는 지역 品官 중에 선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령의 역할은 제도를 마련해주고 이것을 수호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즉, 퇴계는 관부의 지원만 언급할 뿐, 직접적인 간여를 배제한 채 사대부 층에 의한 서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서원을 최초로 건립한 주세붕과 보급에 앞장선 퇴계의 서원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주세붕은 명대 관학화된 서원을 모범으로 삼았고, 퇴계는 남송대 주자의 서원관을 계승하고자 했다. 당연히 퇴계학파의 중심이 된 영남 지역에서는 퇴계의 「이산원규」가 향후 제정되는 여러 서원 학규의 전범이 되었다. 퇴계를 제향한 禮安 陶山書院은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랐으며,<sup>40)</sup> 慶州 西嶽書院과 玉山書院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와 퇴계의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제정되었다.<sup>41)</sup> 퇴계의 학규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은 1604년(선조 37)

39) 『退溪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40)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화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9, 153쪽.

鄭述의 玄風 道東書院 「院規」가 있다. 정구는 1604년 도동서원 중건을 맞이해 학규를 제정하였다. 해당 학규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 아래 ‘爲道東作’이라는 부기가 있어 당대에 실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동서원 「원규」는 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목 상단에 표제를 제시하고, 다시 그 아래 세부 조항을 기재해 놓았다. 8개 조목은 순서대로 謹享祀·尊院長·擇有事·引新進·定座次·勤講習·禮賢士·嚴禁防이다. 마지막에 脩字·點書·考廩·會討의 조목은 盧侯가 제정해 놓은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다.<sup>42)</sup> 여기서 盧侯는 1558년 성주목사 재임 중 迎鳳書院을 설립한 盧慶麟을 가리킨다. 이후 정구가 영봉서원을 川谷書院으로 개칭하였다. 두 서원 모두 정구가 간여한 만큼 학규에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sup>43)</sup> 도동서원 「원규」 8개조와 노경린의 4개조에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원규」에서 5대 강령으로 내세운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도동서원 「원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조목은 引新進과 勤講習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누구나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여 원장에게 올리되 만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중론을 모아 정한다. 만일 가하다는 판결이 난 사람을 영입할 경우에는 純點을 맞은 자만 취하고 명단에 그 성명을 기록한다.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弱冠이 채 안 되었더라도 司馬試에 합격하거나 혹은 鄉試에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유익한 벗의 반열에 끼일 만한 자로 한다. ... 의지가 약하고 해이해져 더 이상 분발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이미 鄉任을 역임했더라도 학문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서원에서 축출한다. 먼 지방의 선비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비록 그를 추천하는 자가 없더라도 학문과 행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院儒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나, 勤講習.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五經·四書 및 伊洛의 여러 性理書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시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 만일 저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혹시 이쪽에 마음을 기울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는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여야

41) 김자운, 위의 논문, 2019, 158쪽.

42) 『寒岡續集』 권4, 「院規」.

43)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 -16~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2021, 177~178쪽.



할 길은 아마도 ‘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伊川夫子가 처음 세상에 밝혔고 雲谷夫子께서 크게 천명하였다. 寒暄堂께서 일생 동안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 이 경자였다. 이에 대해 제군과 함께 노력하고 감히 중단하지 않기를 원한다. ... 조정의 利害, 변방의 소식, 관원의 제수,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사람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sup>44)</sup>

引新進은 원생 선발과 관련된 규정인데, 「이산원규」를 보완하면서도 백운동서원 「원규」와는 다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서원 운영자들의 추천을 받은 후 可否 결정에서 ‘巡點’을 얻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원을 하고 싶어도 ‘巡點’을 받지 못하면 20세 이하의 선비들과 함께 養蒙齋에서 공부해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예외를 두어 司馬試·鄉試에 합격하거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입원이 가능하였다. 반대로 鄉任을 역임한 인사라도 학문에 뜻이 없으면 축출하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즉, 입원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院儒의 공론이고, 하나는 학문적 능력이다. 덧붙여 定座次에서 앉을 때는 序齒로 한다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sup>45)</sup> 입원 자격의 예외 조항으로 검증된 학문적 능력을 두고, 序齒를 중요시 한 퇴계의 생각을<sup>46)</sup> 뒤 이은 조목에다 명시한 것으로 보아 신분적 제약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유의 ‘순점’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중간 계층 이하의 입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勤講習에서는 공부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뒤 이은 嚴禁防 조목에서 莊子·列子·老子·釋氏의 책을 금지했듯이<sup>47)</sup> 서원에서는 성리서 위주로 학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서원에서 정치·사회적 시비를 논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과거 시험에 대해서는 「이산원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원생 스스로가 학문의 목적이 ‘爲己之學’에 있음을 깨닫기를 당부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정구의 도동서원 「원규」는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서원관을 체계화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8)</sup>

퇴계의 「이산원규」와 더불어 栗谷 李珥의 학규도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율곡은 「學

44)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可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點 書于案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鄉任 不肯從事於問學者 竝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而別無顯失者 亦許入 新學小兒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 亦聽 ...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 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 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 用力之方 庶幾不越乎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 大發明之 寒暄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諸君共勉而不取已也 ...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長短得失 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

45)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定坐次 坐必序齒”.

46) 『退溪集』 권23, 書, 「與趙士敬」.

47)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嚴禁防 莊列老釋之書 棋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48) 한재훈, 앞의 논문, 2021, 179쪽.

校模範」을 비롯해 「隱屏精舍學規」, 「隱屏精舍約束」, 「文憲書院學規」 등을 제정하는 등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은병정사학규」는 퇴계의 「이산원규」처럼 16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海州 隱屏精舍는 1578년(선조 11) 율곡이 설립한 것으로 훗날 紹賢書院으로 사액 받았다. ‘精舍’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지만 주자를 제향한 祠廟를 둔 것으로 보아 실제 서원의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 III~IV장 미완

---

49)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166쪽.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竹溪志』, 『退溪集』, 『寒岡續集』,

『明史』, 『明儒學案』, 『東林書院誌』, 『共學書院誌』, 『朱子大全』, 『呂東萊先生遺集』, 『敬齋集』, 『王陽明全集』, 『泉翁大全集』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9

\_\_\_\_\_,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김홍길,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58, 동북아역사재단, 2017

邓洪波·赵伟, 「白鹿洞书院的建立背景与中国书院的变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특히 “백록동서원게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박종도,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 공부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박종배, 「명·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_\_\_\_\_,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한국교육사학』 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

\_\_\_\_\_, 「중국 역대 제학관 제도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2, 교육사학회, 2010

\_\_\_\_\_,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사학회, 2011

신현승, 「16~17세기 유교 학파의 관계성에 대한 일고찰—중국 명대 말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이광우, 「고·중세 한국 사학의 전통이 서원 출현에 이르기까지」, 『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이우진, 「왕양명의 용장오도 다시 읽기—용장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명학』 59, 한국양명학회, 202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朱漢民, 「중국 서원의 역사」,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 -16~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13, 2021

『청대인물생졸연표(清代人物生卒年表)』의 사천(四川) 존경서원(尊經書院)  
원생(院生) 기록에 대한 보정(補正)  
—『사천존경서원거공제명비(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의 관년(官年)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노소준(魯小俊), 장예(張藝)

『청대인물생졸연표(清代人物生卒年表)』는 사천 존경서원의 수많은 생도에 관한 기록을 싣고 있다. 그 가운데 왕음괴(王蔭槐), 소조규(蘇兆奎), 양예(楊銳), 이자연(李滋然), 전세휘(傅世煒), 요평(廖平) 등 인물의 생졸 연대에 관하여서는 증보(增補)가 필요하며, 추증호(鄒增祐), 소종은(邵從恩), 범용(范溶), 주봉상(周鳳翔), 정종영(鄭鍾靈), 철극등액(哲克登額), 서면(徐冕), 증배(曾培) 등의 진사(進士)의 생졸 연대 또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인수(仁壽) 본적의 모(毛)씨 성을 가진 모증(毛澄)과 모한풍(毛瀚豐) 두 사람도 한 사람으로 오기(誤記)되기 쉬우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료를 참고, 검증해보았을 때, 『사천존경서원거공제명비』에서도 관년(官年)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청대인물생졸연표(清代人物生卒年表), 존경서원(尊經書院), 사천존경서원거공제명비(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 관년(官年)

# 《清代人物生卒年表》四川尊經院生補正 -兼探《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中的官年-

魯小俊 · 張藝

## 【內容提要】

《清代人物生卒年表》著錄了不少四川尊經書院生徒，其中王蔭槐、蘇兆奎、楊銳、李滋然、傅世煒、廖平等人的生卒年需要訂補，鄒增祜、邵從恩、范溶、周鳳翔、鄭鍾靈、哲克登額、徐冕、曾培等進士的生卒年可以補充。此外，兩位仁壽籍毛姓院生毛澄和毛瀚豐，容易誤作一人，需要注意區分。根據其他資料參證可知，《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中也存在官年現象。

**關鍵詞** 《清代人物生卒年表》；尊經書院；《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官年

作者簡介 魯小俊，武漢大學文學院教授；張藝，武漢大學弘毅學堂本科生

## 《清代人物生卒年表》四川尊經院生補正 -兼探《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中的官年-

魯小俊 張藝

江慶柏先生編著的《清代人物生卒年表》(人民文學出版社2005年版,以下簡稱《年表》)是清人疑年錄的集大成之作,其中著錄了不少四川尊經書院生徒。在江先生的千辛萬苦中,也偶有疏忽和遺漏。因此補正尊經院生的生卒年及相關史實,對於深入細緻研究尊經書院,將是一件有必要的基礎性工作。

考訂生卒年,如果遇到不同文獻記載互歧,資料的可信度往往有區別。例如,科舉硃卷、同年齒錄、官員履歷,因為可能存在官年問題,其可信度較低。而且由於“年輕化”是清代官年現象的基本特點,硃卷、齒錄、履歷中的生年往往晚於實際出生年份<sup>1)</sup>。只是在沒有其他資料佐證的情況下,可暫以硃卷、齒錄、履歷所記為據。總之,需要多加考辨,不宜固守一家之說。

具體到尊經書院,譚宗浚《尊經書院十六少年歌》(以下簡稱《少年歌》)集中記錄了部分院生的年齡,可以用作佐證的參考。該詩歌詠十六位30歲以下的院生,作於光緒五年(1879)<sup>2)</sup>。但根據相關文獻判斷,詩中院生的年齡,不是按照1879年計算的。茲將詩注中的姓名和年齡列示如下(表1):

姓名	年齡	姓名	年齡	姓名	年齡	姓名	年齡
楊銳	21	范溶	24	張肇文	27	曾培	26
廖登廷	27	傅世洵	23	任國銓	23	吳昌基	22
張祥齡	22	邱晉成	30	周道洽	24	顧印愚	21
毛瀚豐	27	彭毓嵩	27	宋育仁	19	戴孟恂	28

以上十六位院生,有的後來聲名卓著,但出生年份往往有異說。如楊銳,有1855年和1857年之說(詳後文);宋育仁,有1857年和1858年之說<sup>3)</sup>。有不同文獻的明確記載且無異說者,唯有顧印

1) 參見魯小俊《清代官年問題再檢討——以多份硃卷所記不同生年為中心》,《清史研究》2015年第1期,第90-101頁。

2) 譚宗浚《荔村草堂詩鈔》卷8《使蜀集下》,《續修四庫全書》第1564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第258頁。

3) 黃宗凱等《宋育仁思想評傳》,西南交通大學出版社2007年版,第3頁。

愚，他生於“咸豐五年乙卯(1855)十二月二十日<sup>4)</sup>”。因是歲末，陽曆已入1856年；而本文僅考察尊經院生的出生年份，因此無需考慮歲末的陰曆陽曆轉換問題，仍算作1855年。顧印愚的年齡可以用作參考值，從而根據《少年歌》中歲差推算其他人的年齡。

## 一、需要訂補生卒年者

### 1、王蔭槐(P.56)

又名紀常，字蘇銘，號植青、直清，威遠人。光緒五年(1879)優貢，十一年(1885)舉人，十二年(1886)進士。歷任翰林院編修、國史館協修、則例館纂修、會典館協修。尊經書院舊有“院中八景”之謔稱，其一即“北碑王熟”，意謂“王植青慣寫北魏碑<sup>5)</sup>”。《蜀秀集》收其課藝兩篇。他的生卒年，《年表》據《光緒十二年丙戌科會試同年齒錄》記作“1852年-？”。按，光緒二十三年(1897)四月二十日，丁樹誠赴尊經書院看望宋育仁，宋言及“王植青編修，去歲亦在京下世<sup>6)</sup>”。據此可知他的卒年為光緒二十二年(1896)。

### 2、蘇兆奎(P.236)

字鳳岡，華陽人。光緒二十三年(1897)舉人，三十年(1904)進士。歷任湖南宜章知縣、洋務局候補道員、靖州知事、東川道尹。《尊經書院課藝三集》收其課藝七篇。他的生卒年，《年表》據《光緒三十年甲辰恩科會試同年齒錄》記作“1878年-？”。按，《吳虞日記》1938年8月12日(陰曆七月十七)：“蘇鳳岡去世，年六十四<sup>7)</sup>。”據此可推知其生年為光緒元年(1875)，同年齒錄所記當為官年，減了三歲。其生卒年可記作“1875-1938年”。

### 3、楊銳(P.243)

字叔嶠、鈍叔，綿竹人。光緒八年(1882)優貢，十一年(1885)舉人。十五年(1889)考授內閣中書。戊戌變法時被捕遇害，為“戊戌六君子”之一。《蜀秀集》收其課藝三十三篇，《尊經書院初集》收其課藝五篇。他的生卒年，《年表》據《楊叔嶠先生文集》附錄黃尚毅《事略》記作“1857-1898年”。按，檢黃尚毅《楊叔嶠先生事略》<sup>8)</sup>，並未見到關於生年的記載，“1857年”之說，未知何自。王夏剛《戊戌軍機四章京合譜》對此問題有過辨析：“不少記載將楊銳生年系於1857年，但根據《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中所收楊銳的檔案，楊銳在

4) 顧印愚《成都顧先生詩集》，卷首程康識語，《清代詩文集彙編》第782冊，上海古籍出版2010年版，第109頁。

5) 丁治棠《仕隱齋涉筆》卷7《雅謔》，四川人民出版社1985年版，第173頁。

6) 丁治棠《丁治棠紀行四種》卷4《晉省記》，四川人民出版社1985年版，第153頁。

7) 中國革命博物館整理《吳虞日記》下冊，四川人民出版社1986年版，第778頁。

8) 楊銳《楊叔嶠先生文集》卷首，《續修四庫全書》第1568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第260-262頁。



1898年44歲，可知他生於1855年，另外王闓運在1894年日記裡稱楊銳已經四十歲，因此筆者認為楊銳生年為1855年<sup>9)</sup>。”檢楊銳的官員履歷：光緒二十四年(1898)，“四十四歲<sup>10)</sup>”。可推知生年為咸豐五年(1855)。官員履歷中可能是實年，也有可能是官年。如果是官年，一般會更年輕。所以楊銳如果生於1857年，卻在履歷中改為1855年，這個可能性比較小。再檢王闓運《湘綺樓日記》光緒二十年(1894)十二月十日：“楊生銳、顧生印愚”“皆四十矣<sup>11)</sup>”。這則資料提示兩條信息：一是楊銳、顧印愚同歲，二是當年皆四十歲，即生於咸豐五年(1855)。關於楊、顧同歲，《少年歌》亦可為證：“綿竹楊銳，字叔嶠，年二十一。”“成都顧印愚，字華園，年二十一<sup>12)</sup>。”而前面已經提到，顧印愚生於咸豐五年(1855)年是無疑義的。由此可知，楊銳生於咸豐五年(1855)之說，更為可信。

#### 4、李滋然(P.296)

字命三，號樹齋，長壽人。光緒十四年(1888)舉人，十五年(1889)進士。歷任廣東電白等縣知縣、學部七品小京官。《尊經書院二集》收其課藝兩篇。他的生卒年，《年表》據《光緒十五年己醜科會試同年齒錄》記作“1851年-？”。按，其會試硃卷亦作：“咸豐辛亥年(1851)三月初六日吉時生<sup>13)</sup>。”又，張鑒衡《李滋然墓表並銘》：“辰正，含笑端坐逝矣。時辛酉(1921)二月二十五日，距生於道光丁未年(1847)三月初六，壽七十有五<sup>14)</sup>。”王樹楠《陶廬老人年譜》辛酉年(1921)：“二月二十四日，門人長壽李滋然卒于京師。”“年七十有五。”<sup>15)</sup>推算生年，亦是道光二十七年(1847)，可知會試硃卷、同年齒錄所記皆為官年，減了四歲。故可記其生卒年為“1847-1921年”。

#### 5、傅世煒(P.774)

字桐澄，華陽人。光緒十一年(1885)舉人，十五年(1889)進士。歷任翰林院編修、陝西鳳翔知府、西安知府。晚年參加中國地學會。其會試硃卷“受知師”一欄有“錢蘭坡夫子，浙江海昌，咸豐己未科舉人，四川候補知縣，前主講尊經書院<sup>16)</sup>”，可知他也曾肄業尊經書院。他的生卒年，《年表》據會試硃卷記作“1854年-？”。按，其弟傅世洵，也曾是尊經院生。據《少年歌》可知，傅世洵比顧印愚年長兩歲，其生年應是咸豐三年(1853)。由此可判定其兄傅世煒會試硃卷上的生年，應是官年。只是沒有其他文獻資料參證，可暫且以此記之。關於傅世煒的去世情況，民國《華陽縣志》本傳云：“及聞德宗崩，而世煒病。病革，趺坐說偈而逝。”<sup>17)</sup>清德宗卒於光緒三十

9) 王夏剛《戊戌軍機四章京合譜》，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9年版，第44頁。

10)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6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488頁。

11) 王闓運《湘綺樓日記》，嶽麓書社1997年版，第1977頁。

12) 譚宗浚《荔村草堂詩鈔》卷8《使蜀集下》，《續修四庫全書》第1564冊，上海古籍出版社2002年版，第258頁。

13)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61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351頁。

14) 民國《長壽縣志》卷14《金石》，民國33年鉛印本，第18頁b。

15) 王樹楠《陶廬老人年譜》，《北京圖書館藏珍本年譜叢刊》第182冊，第680頁。

16)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66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426頁。

17) 民國《華陽縣志》卷16《人物》第7之10，民國23年刻本，第2頁b。

四年(1908)，傅世煒之卒當在此後不久。《地學雜誌》第1年第5號(宣統二年五月)刊有訃聞：“三月十六日，評議員傅桐澄先生逝世，公議撰聯挽之<sup>18)</sup>。”可據此補充他的卒年，為宣統二年(1910)。

## 6、廖平(P.815)

原名登廷，字旭陔、勛齋，改名平，字季平，號四益，改號四譚、五譚、六譚，井研人。光緒五年(1879)舉人，十五年(1889)進士。歷任龍安府教授、射洪縣訓導、綏定府教授、四川軍政府樞密院院長、四川國學學校校長，兼任華西大學、成都高等師範學校教授。《蜀秀集》收其課藝九篇，《尊經書院初集》收其課藝一篇。他的生卒年，《年表》據章炳麟所撰墓誌銘記作“1851-1932年”。按，章炳麟《清故龍安府學教授廖君墓誌銘》：“年八十二而卒，則民國二十一年(1932)六月也。”<sup>19)</sup>以虛歲之俗例推斷其生年，當即咸豐元年(1851)。然廖平之孫廖宗澤《六譚先生年譜》則謂：“咸豐二年壬子(西元一八五二)，二月初九日亥時先生生。”<sup>20)</sup>又，據年譜，是年正月十四日，廖平之祖廖正傳卒。<sup>21)</sup>家中兩件大事在同一年，日期相隔如此之近，親屬一般不會記錯。章炳麟所記當有一年之誤。廖平之女廖幼平編《廖季平年譜》附錄《清故龍安府學教授廖君墓誌銘》，即將“年八十二而卒”徑改為“年八十一而卒”。<sup>22)</sup>故廖平的生卒年仍應以《六譚先生年譜》為據，記作“1852-1932年”。

## 二、進士生卒年可補充者

據《年表》凡例，該書收錄人物的條件之一是“考中進士者”。因此可以補充以下曾在尊經書院肄業的進士。

### 1、鄒增祜

字受丞，涪州人。光緒十七年(1891)舉人，二十一年(1895)進士。官至廣東嘉應知州。《蜀秀集》《尊經書院二集》各收其課藝三篇。按，《吳虞日記》1924年2月17日(陰曆正月十三)：“鄒受丞先生于冬月初二日午時去世，享年六十有七。”<sup>23)</sup>其卒在上年十一月初二，西曆為1923年12月9日。推算生年，當為咸豐七年(1857)。故其生卒年可記作“1857-1923年”。

18) 中國地學會《本會記事·傅桐澄先生逝世》，《地學雜誌》第一年第五號，宣統2年（1910）5月，第67頁。

19) 章太炎《太炎文錄續編》卷5下，《近代中國史料叢刊續輯》第13輯，文海出版社1975年版，第15頁。

20) 廖幼平編《廖季平年譜》，巴蜀書社1985年版，第1頁。

21) 廖幼平編《廖季平年譜》，巴蜀書社1985年版，第2頁。

22) 廖幼平編《廖季平年譜》，巴蜀書社1985年版，第95頁。

23) 中國革命博物館整理《吳虞日記》下冊，四川人民出版社1986年版，第161-162頁。

## 2、邵從恩

字銘叔(一作明叔)，青神人。光緒二十三年(1897)拔貢，二十八年(1902)舉人，三十年(1904)進士。歷任法部主事、紳班法政學堂監督、四川軍政府民政部長、國務院法制局參事兼法政大學教授。《尊經書院課藝三集》收其課藝三篇。按，彭靜中《“和平老人”邵從恩》：“一八七一年十二月二十日(清同治辛未年冬月初九日)出生於一個耕讀之家。”“79歲的和平老人邵明叔先生，帶著安慰、希望的心情，面含幸福的微笑，於1949年10月1日晨，離開了世間。”<sup>24)</sup> 據此其生卒年可記作“1871-1949年”。

## 3、范溶

字玉賓，華陽人。光緒十四年(1888)優貢，十七年(1891)舉人，二十年(1894)進士。歷任福建平和知縣、湖北道員。《蜀秀集》收其課藝十七篇，《尊經書院初集》收其課藝四篇，《尊經書院二集》收其課藝一篇。按，其官員履歷：光緒二十一年(1895)，“四十歲”<sup>25)</sup>；宣統元年(1909)，“五十四歲”<sup>26)</sup>。據此其生年當為咸豐六年(1856)，39歲成進士。然民國《華陽縣誌》本傳云：“成進士，選庶吉士，年已四十餘矣。”<sup>27)</sup> 官員履歷所記疑為官年。據《少年歌》，范溶比顧印愚年長三歲，其生當在咸豐二年(1852)。成進士之年是43歲，與縣誌本傳所記不矛盾。關於卒年，民國《華陽縣誌》本傳：“改道員湖北，引見出京，行及武昌而沒。”<sup>28)</sup> 檢官員履歷，引見之日為宣統元年(1909)十一月十六日<sup>29)</sup>，則其卒當在是年歲末或明年歲初。故可記其生卒年為“1852-1909/1910年”。

## 4、周鳳翔

改名翔，字紫庭，號嗣芬，彭山人。光緒十七年(1891)舉人，十八年(1892)進士。歷任刑部主事、員外郎、四川東文學堂監督、通省師範學堂監督、學務公所議長、高等學堂總理、四川教育總會會長、四川高等學校校長、成都高等師範學校校長。《尊經書院二集》收其課藝七篇。按，其鄉試硃卷：“咸豐十一年(1861)七月十三日吉時生。”<sup>30)</sup> 《彭山縣誌》本傳：“清咸豐十年(1860年)，7月13日生於彭山武陽鄉三角井(今彭山縣青龍鎮千佛村)。”“民國16年農曆冬月十八日病逝，終年68歲。”<sup>31)</sup> 據此則鄉試硃卷所記生年當為官年，減了一歲。故可記作“1860-1927年”。

24) 全國政協文史委編，《文史資料選輯》第1輯（總101輯），文史資料出版社1985年版，第173頁。

25)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28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193頁。

26)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8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229頁。

27) 民國《華陽縣誌》卷16《人物》第7之10，民國23年刻本，第1頁b。

28) 民國《華陽縣誌》卷16《人物》第7之10，民國23年刻本，第1頁b。

29)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8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230頁。

30)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334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49頁。

31) 四川省彭山縣誌編委會編《彭山縣誌》第26編《人物》，巴蜀書社1991年版，第648頁。

## 5、鄭鍾靈

又名敬先，字嵩生，閬中人。光緒二十一年(1895)舉人，二十四年(1898)進士。歷任廣西桂平知事、浙江富春知事、錦屏書院山長、保甯府公共學堂監督、保屬聯立中學校長。《尊經書院二集》收其課藝一篇。按，《閬中縣志》本傳記其生卒年為“1855-1932年”。<sup>32)</sup>

## 6、哲克登額

字子貞，號明軒，又名趙明軒、哲明軒，蒙古族，旗籍，成都駐防。光緒二十三年(1897)舉人，二十九年(1903)進士。歷任古宋知縣、省通志局編修、組合小學校長、成都旗民生計會會長。書院“院中八景”之一即“滿洲問道”，意謂“調滿城哲生(哲克登額)”。<sup>33)</sup>《尊經書院初集》收其課藝兩篇，《尊經書院二集》《尊經書院課藝三集》各收其課藝一篇。按，趙澤永《蒙古族進士哲克登額》：“清咸豐五年(1855年)，哲克登額就出生在這樣一個生活貧苦的八旗兵下級軍官的家庭裡。”“1940年，他85歲時安詳地病逝家中。”<sup>34)</sup>《成都滿蒙族志·文史學者哲克登額》亦稱：“清咸豐乙卯年(1855年)五月生。”“1940年歿，享年八十五歲。”<sup>35)</sup>可據此記作“1855-1940年”。

## 7、徐冕

字東平、大昕，遂寧人。光緒二十八年(1902)舉人，二十九年(1903)進士。授吏部主事，辛亥後歷任二十軍軍長秘書、四川邊防軍總司令秘書、遂寧縣男中教員、師範學校教員、女中校長。《尊經書院課藝三集》收其文一篇。《遂寧縣志》本傳記其生卒年為“1868-1935年”。<sup>36)</sup>

## 8、曾培

字松生，號篤齋，成都人。光緒五年(1879)舉人，十六年(1890)進士。歷任兵部主事、山東廣饒知縣、川漢鐵路公司總理。《蜀秀集》收其課藝十二篇。《尊經書院初集》收其課藝一篇。按，其鄉試硃卷：“咸豐壬子年(1852)三月二十日吉時生。<sup>37)</sup>”但據《少年歌》，曾培比顧印愚年長五歲，其生年當為道光三十年(1850)，鄉試硃卷所記應是官年，減了兩歲。故可記作“1850年-?”。

## 三、毛澄和毛瀚豐

毛澄(P.74)，字叔雲，又作菽畝、澍雲、叔耘，號稚澗，仁壽人。光緒二年(1876)舉人，六年

32) 四川省閬中市地方誌編委會編《閬中縣志·人物》，四川人民出版社1993年版，第1020頁。

33) 丁治棠《仕隱齋涉筆》，四川人民出版社1985年版，第173頁。

34) 成都市政協文史委編《成都文史資料》第30輯，四川人民出版社1997年版，第139、141頁。

35) 《成都滿蒙族志》，成都市滿蒙人民學習委員會1993年編印，第67、68頁。

36) 《遂寧縣志》第27篇《人物》，巴蜀書社1993年版，第978頁。

37)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332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341頁。

(1880)進士。歷任山東定陶、曆城、泰安知縣。吳宓“磊落蜀兩生”詩句自注：“吾鄉喬樹枌、毛叔雲兩先達，在尊經齊名，爲張文襄所激賞，當時有‘蜀兩生’之稱。<sup>38)</sup>”他的生卒年，《年表》據《光緒六年庚辰科會試同年齒錄》和《稚澥詩集》喬曾劬記記作“1844-1906年”。按，毛澄《稚澥詩集》喬曾劬記只有去世年份：“光緒丙午(1906)卒于滕縣任所。”<sup>39)</sup>《仁壽縣誌》本傳：“清道光二十三年(1843)生於仁壽鎮子場(今屬騎虎鄉)。”“三十二年(1906)六月五日卒于滕縣任所，終年63歲。”<sup>40)</sup>卒年無異說，唯生年記載有一歲之差。疑同年齒錄所記爲官年。

尊經書院有兩位仁壽籍毛姓生徒，另一位是毛瀚豐，字鶴西，又作霍畦、霍西。我們可以根據《少年歌》中他和顧印愚的歲差，推斷他生於道光二十九年(1849)。而“毛公叔耘原名席豐，登第後改名澄，又字稚澥”<sup>41)</sup>，因爲原名有個“豐”字，後人很容易將兩人混爲一談。如《萬首論詩絕句》：“毛瀚豐，字鶴西，仁壽人。進士，官至普洱知府。”<sup>42)</sup>毛瀚豐是舉人，官雲南<sup>43)</sup>；毛澄(毛席豐)是進士，官山東。《丁治棠紀行四種》卷三《往留錄》提到王植青、毛霍西“皆優貢北榜同年”<sup>44)</sup>，由此可知毛瀚豐與王蔭槐(號植青)一樣，都是光緒五年(1879)優貢。而毛澄(毛席豐)在此前的光緒二年(1876)已經中式舉人。新出土的《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中二人俱在，分別作：“仁壽毛澄稚澥，年四十四。”“仁壽毛瀚豐霍畦，年三十二。”<sup>45)</sup>亦可證兩者非同一人。毛席豐後來改名澄，是否有避免與同學毛瀚豐混淆之意，也未可知。

最易引起誤會之處在于，張之洞兩次提到尊經少年，既有毛席豐，又有毛瀚豐。光緒二年(1876)三月，張之洞《登眉州三蘇祠雲嶼樓》詩有句云：“共我登樓有衆賓，毛生楊生詩清新。范生書畫有蘇意，蜀才皆是同鄉人。”自注云：“仁壽學生毛席豐、綿竹學生楊銳、華陽學生范溶，皆高材生，召之從行讀書，親與講論，使孳經學。”<sup>46)</sup>這裡毛席豐，就是毛澄，應無疑義。

次年即光緒三年(1877)正月初六日，張之洞致函譚宗浚，首次提及“五少年”，稱五人“皆時文詩賦兼工，皆在書院”，“皆美質好學而皆少年，皆有志古學者，實蜀士一時之秀”。名單包括楊銳、廖登廷、張祥齡、彭毓嵩、毛瀚豐五人，毛瀚豐名下注云：“仁壽學生。深穩勤學，文筆茂美。”<sup>47)</sup>有研究者認爲，張之洞兩次提到的仁壽籍毛姓院生是同一人，都是毛澄。如李曉宇博士《尊經書院與近代蜀學的興起》指出，張之洞在光緒二年(1876)“提到的這三個人都是尊經書院的首批學生，其中‘毛席豐’應爲‘毛瀚豐’之誤。”<sup>48)</sup>《尊經·疑古·趨新——四川省城尊經書院及其學術嬗變研究》附錄三《尊經院生征略》毛澄小傳，亦稱毛澄爲“尊經五少年之一”<sup>49)</sup>。這裡實將五少

38) 吳宓著、吳學昭整理《吳宓詩話》，商務印書館2005年版，第264頁。

39) 毛澄《稚澥詩集》，民國16年成都重刻本，卷首。

40) 四川省仁壽縣誌編委會《仁壽縣誌》第27篇《人物》，四川人民出版社1990年版，第561頁。

41) 毛澄《稚澥詩集》，民國16年成都重刻本，卷首尹端跋。

42) 郭紹虞等編《萬首論詩絕句》，人民文學出版社1991年版，第1605頁。

43) 《大清縉紳全書·光緒二十三年夏·雲南省》，榮祿堂刊本，第2頁b。

44) 丁治棠《丁治棠紀行四種》卷3《往留錄》，四川人民出版社1985年版，第117頁。

45) 党躍武主編《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四川大學出版社2013年版，第14頁。

46) 苑書義等主編《張之洞全集》第12冊，河北人民出版社1998年版，第10495頁。

47) 苑書義等主編《張之洞全集》第12冊，河北人民出版社1998年版，第10133頁。

48) 李曉宇《尊經書院與近代蜀學的興起》，《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8年第5期，第43頁。

年中的毛瀚豐誤作毛澄。

按，光緒三年(1877)正月，楊銳(光緒十一年舉人)、廖登廷(光緒五年舉人)、張祥齡(光緒十一年拔貢、十四年舉人)、彭毓嵩(光緒十四年副貢，二十年舉人)皆未獲得科第，而毛澄在前一年即光緒二年秋天已經中式舉人，不當與其他四人並稱少年。此時未獲科第的毛瀚豐(兩年後即光緒五年始成優貢，鄉試科份未詳)與楊、廖、張、彭並稱，於理亦合。概言之，毛澄(毛席豐)、毛瀚豐皆曾為張之洞所拔識，提出“五少年”之說時，因毛澄已獲科名，故以毛瀚豐代之。至於後來譚宗浚作《少年歌》，裡面自然也不會有毛澄了。有的文獻中稱毛澄“號瀚豐”，如《仁壽縣誌》本傳： “毛澄字叔雲，號瀚豐，又名稚灝。”<sup>50)</sup> 很有可能緣于誤以為毛瀚豐就是毛澄，“瀚豐”是他的號。查遍第一手的文獻資料——毛澄《稚灝詩集》，找不到任何有關毛澄“號瀚豐”的說法。

#### 四、《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中的官年

2013年4月出土的《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以下簡稱《題名碑》)，共著錄院生五十人，其中三十四人注明年齡，除去兩人籍貫、姓氏有闕，實際有三十二人的年齡可供參考。列示如下(表2)：

姓名	年齡	姓名	年齡	姓名	年齡	姓名	年齡
陳況	30	王幼懷	38	吳博文	26	曾鑒	28
周道洽	33	王光棣	34	包崇祐	32	陳萱蔭	25
陳瀟	34	周紹暄	29	葉大可	34	邱晉成	38
鄒兆麟	29	毛澄	44	吳福連	32	包崇金	26
顧印愚	31	陳緯元	37	林芝蘭	26	劉全璧	23
何在清	34	王繩生	33	蒲九莖	28	戴孟恂	34
餘堃	29	羅荃	27	楊士欽	25	郭武勳	24
江俶	35	張祥齡	33	毛瀚豐	32	黃秉湘	22

據胡昭曦先生考證，碑文的撰著時間為1885年10月28日。<sup>51)</sup> 以上三十二人中，年齡有其他資料可資佐證者十七人，根據佐證資料的來源可分為三類：

(一)有詩集、墓誌、方志等資料佐證者七人，其中相合者四人：陳況、顧印愚、張祥齡、楊士欽；不合者三人：陳緯元、邱晉成、郭武勳。

陳況，顧印愚《西山歌送陳子經同年歸》有句云：“子經二十有五歲”<sup>52)</sup>，詩作於庚辰年(188

49) 李曉宇《尊經·疑古·趨新——四川省城尊經書院及其學術嬗變研究》附錄三《尊經院生征略》，四川大學2009年博士學位論文，第252頁。

50) 四川省仁壽縣誌編委會《仁壽縣誌》第27篇《人物》，四川人民出版社1990年版，第561頁。

51) 党躍武主編《四川尊經書院舉貢題名碑》，四川大學出版社2013年版，第33頁。

0)，可推知其生於1856年。顧印愚1855年生，已見前述。張祥齡，生於“咸豐癸醜(1853)四月十六申時”<sup>53)</sup>。楊士欽，民國《江津縣誌》本傳：“先生卒民國三年，年僅五十有四。<sup>54)</sup>”可推知生年為咸豐十一年(1861)。以上四人，可以確定《題名碑》所記為實年。

陳緯元，《年表》(P.450)據陳緯元《孱亭詩集》張政序記其生於1850年，1885年應為36歲。邱晉成，生於道光二十六年(1846)<sup>55)</sup>，1885年應為40歲。郭武勳，《富順縣誌》記其生卒年為“1858-1930”年<sup>56)</sup>，1885年應為28歲。以上三人，陳緯元在《題名碑》中“年長”一歲，是何原因，尚不清楚；邱晉成、郭武勳則分別“年輕”兩歲、四歲，邱、郭的《題名碑》年齡是應該是官年。

(二)可據《少年歌》推知年齡者三人：周道洽、毛瀚豐、戴孟恂。

根據《少年歌》中的年齡差和顧印愚的生年(1855年)，可推算周道洽1852年生，毛瀚豐1949年生，戴孟恂1848年生。周、毛、戴三人在《題名碑》中分別“年輕”一歲、五歲、四歲，他們的《題名碑》年齡也應該是官年。

(三)可據科舉硃卷、同年齒錄、官員履歷推知年齡者七人：余堃、江俶、王光棣、毛澄、葉大可、曾鑒、黃秉湘。

余堃，會試硃卷：“咸豐己未年(1859)九月初二日吉時生。”<sup>57)</sup>則1885年27歲。

江俶，《年表》(P.199)據同年齒錄著錄其生於1851年，則1885年35歲。

王光棣，《年表》(P.43)據同年齒錄著錄其生於1851年，則1885年35歲。

毛澄，《年表》(P.74)據同年齒錄著錄其生於1844年，則1885年42歲。

葉大可，官員履歷：光緒二十一年(1895)，“四十四歲”。<sup>58)</sup>可推知生年為1852年，則1885年34歲。

曾鑒，官員履歷：光緒三十一年(1905)，“四十一歲”<sup>59)</sup>。可推知生年為1865年，則1885年21歲。

黃秉湘的情況較為特殊，既有方志傳記，又有硃卷、履歷。《永川縣誌》本傳：“清咸豐十一年(1861)出生。”“宣統二年(1910)在武漢任中病故。”<sup>60)</sup>會試硃卷：“同治甲子年(1864)正月初四日吉時生<sup>61)</sup>。”官員履歷：光緒二十一年(1895)，“二十八歲”<sup>62)</sup>。以這三條資料推算，1885年分別

52) 顧印愚《成都顧先生詩集》卷1，《清代詩文集彙編》第782冊，上海古籍出版2010年版，第111頁。

53) 廖平《四譯館文集·清誥封朝議大夫張君曾恭人墓誌銘》，民國10年四川存古書局《六譯館叢書》本，第28頁a。

54) 民國《江津縣誌》卷7之3《文學》，民國13年刻本，第21頁a。

55) 王重豪《清代宜賓修志名人邱晉成》，《宜賓文史資料選輯》第22輯，宜賓市政協文史委1993年編印，第38頁。

56) 四川省富順縣誌編委會編《富順縣誌》卷29《人物》，四川大學出版社1993年版，第693頁。

57)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68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287頁。

58)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28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209頁。

59)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7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490頁。

60) 四川省永川縣誌編委會《永川縣誌·人物》，四川人民出版社1997年版，第883、884頁。

61) 顧廷龍主編《清代朱卷集成》第80冊，臺北成文出版社1992年版，第269頁。

62) 秦國經主編《清代官員履歷檔案全編》第28冊，華東師範大學出版社1997年版，第193頁。

爲25歲、22歲、18歲。

以上七人的硃卷、齒錄、履歷年齡與《題名碑》相比；王光棣“年長”一歲，江俶、葉大可一致，余堃、毛澄、曾鑒分別“年輕”兩歲、兩歲、七歲。黃秉湘最有典型性：縣誌本傳所記生年最早(1861)，《題名碑》、會試硃卷“年輕”三歲(1864)，官員履歷再“年輕”四歲(1868)。

從時間上看，《少年歌》、《題名碑》、會試硃卷、同年齒錄、官員履歷存在先後關係，而“年輕化”又是清代官年現象的基本趨向，由此可以判定：《題名碑》中邱晉成、郭武勳、周道洽、毛瀚豐、戴孟恂、黃秉湘的年齡是官年；余堃、毛澄、曾鑒、黃秉湘在《題名碑》後也使用過官年。在將《題名碑》視作重要文獻資料的同時，注意到這些細節問題，將有助於更準確地考辨書院和科舉的一些史實。



# 청대(清代) 의학(義學)의 서원화(書院化) 연구

장경송(張勁松)

남창사범학원 서원연구센터(南昌師範學院 書院研究中心)

## 一.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표증(表證)

의학의 서원화는 주로 의학 관명(冠名)을 ‘서원’이라고 표시하는 현상으로 표현된다. 일찍이 역사 속에서 출현한 적 있는 몇몇 의학(義學)은 서원의 기능, 제도 및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강서(江西) 지역을 예로 들면, 북송대 서창(瑞昌, 오늘날 강서 서창)의 채씨의숙(蔡氏義塾)과 원대 풍성(豐城, 강서 풍성) 게씨(揭氏)의 천강의숙(菡岡義塾), 만안(萬安, 강서 만안)의 유씨유림의숙(劉氏儒林義塾) 등은 모두 강학을 담당하는 이름난 선생들과 풍부한 학전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 비록 ‘서원’이라는 명칭은 없었으나 서원의, 실질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청대 의학의 보편적인 학습 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며, 생도는 몹시 적었고, 규모 또한 작았다. 게다가 학습의 질 또한 그리 높지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 경우 ‘서원’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서원의 내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동치(同治) 연간의 《신창현지(新昌縣志)》(강서 의풍[宜豐]) 제5권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현은 청대에 각(閣), 당(堂), 원(園), 재(齋), 별서(別墅), 가숙(家塾), 서사(書舍), 서실(書屋), 산방(山房) 및 ‘서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서원이 120여 개소가 건립되어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원’은 실질적으로 가숙, 서사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학(義學)에 해당하였다. 예컨대 남병서원(南屏書院)은 강릉별서(江陵別墅)로서, “남성 바깥에 강을 등지고 위치하며, 옹씨 일가가 함께 건립한 곳이다(在南城外河背, 熊氏眾建).” 회란서원(回瀾書院)은 “육도(六都)에서 풍계 이씨 일가가 함께 건립한 문회(文會)이며, 학조(學租)를 기부받았다(在六都, 豐溪李氏眾建成文會, 捐有學租).”, 반수서원(泮水書院)은 “십도(十都)에 위치해 있으며, 노씨 일가가 건립하였다(在十都, 盧氏眾建)”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원들은 주로 지역의 씨족 및 그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건립한 소규모 가숙에 해당한다. 신창(新昌) 비린(毗鄰)의 강서 만재(萬載)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드러난다. 예컨대 곽산(郭山) 장씨(張氏)는 강희(康熙) 46년(1707년)에 청아서원(菁莪書院)을 건립하였고, 도광(道光) 8년(1828년) 배강(排江) 구양

씨(歐陽氏)가 지은 석계서원(石溪書院), 함풍(鹹豐) 7년(1857년) 반령(半嶺) 류씨(劉氏)의 류씨서원(劉氏書院) 등도 모두 씨족 자제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 건립된 것이다. 강서 지역 외에도, 청대의 많은 직성(直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정황이 발견된다. 예컨대 호북성(湖北省)에서는 건륭 연간의 지방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원화된 의학만 해도 적지 않은데, 예컨대 면양(沔陽) 옥대서원(玉帶書院), 황강(黃岡) 평강서원(坪江書院), 진영서원(振英書院)과 관선서원(觀善書院, 이후 몽정서원[蒙正書院]으로 개명), 내봉(來鳳)의 규림서원(桂林書院, 일명 묘동의학[卯峯義學]), 이천(利川) 쌍강서원(雙江書院, 일명 충로의학[忠路義學])과 여고서원(如膏書院, 일명 남평의학[南坪義學]), 남장(南漳) 저장서원(沮漳書院), 은시(恩施) 봉산서원(鳳山書院), 운몽(雲夢) 몽택서원(夢澤書院) 등이 있다. 이상 서원화된 의학들은 대부분 관원의 기부를 통해 수복된 곳들이다. 예를 들어 건륭 9년(1744년) 황강현(黃岡縣)의 진영서원은 본래 지부(知府) 이언모(李彥瑁)의 사당이었는데, 훗날 현지의 다른 지부가 자제들을 가르치는 서원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대 호북 지역의 가계 족보와 같은 민간 문헌에 수록된 교육 사료들을 분석해보면, 이처럼 ‘서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의학이 더욱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二.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원인

첫째, 지방에서의 서원에 대한 흥미 : 서원은 당대에 출현한 이래로 줄곧 관학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원은 관방학 제도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원의 학습 경비는 주로 지역 사회의 기부에 의존하였으며, 임원들의 초빙이나 생도 선발, 관리 체계 방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탄력적이었다. 관학이 점차 어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면서, 서원은 그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바로 과거의 큰 스승들이 강학을 열고 인재들을 배양하며, 유가 문명의 전승 및 그 교육 체제를 완비한 중심지가 된 것이다. 여산(廬山)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필두로 하는 천하의 저명한 서원들은 관학을 포함한 각종 교육 기구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시설이 되었다. 청대 의학의 서원화는 의학 시행 주체가 서원 교육을 흥미하여 구현된 것으로, 의학에 서원이라는 이름을 덧씌워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학의 학습 수준을 상승시켰고, 의학의 학습 취지는 바로 서원의 교육, 서원 정신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의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비 조달과 생도 유지, 내부 관리를 조성하면서 발전 목적을 달성하였다. 동시에, 의학의 서원화는 서원의 사회적 영향력이 청대에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관리의 완화 : 청대 초기의 서원 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비교적 엄격하였다. 순치(順治) 9년(1652년) 개별적인 서원 창건을 불허한다는 명령이 공포되었고, 옹정(雍正) 원년(1723년)에는 조정으로부터 관원의 생사(生祠), 서원을 의학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명령도 하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옹정 11년(1733년)에 이르러 비로소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다. 이 해에 옹정 황제는 총독, 순무사가 주재하는 지역에 회성서원(會城書院)을 건립할 것을 명하면서 금 천 냥을 하사하였다. 이에 청 조정의 서원 정책은 비로소 전환을 이루게 되었고,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규제를 병행, 전환을 이루도록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로부터 청대 서원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조정에서 건립한 성회 서원이 시범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府), 주(州), 현(縣) 지역의 중심 서원들 또한 잇따라 흥성하기 시작하면서 관학을 대신하여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원 내부의 사무 또한 점점 복잡해졌고, 서원 산장, 생도, 학전 등은 모두 관에서 초빙, 선발, 경영을 전담하였다. 이러한 관부의 관리 양식은 일련의 폐단을 낳고 만다. 예컨대 서원 산장이 교육비를 받고도 서원에 강학을 하러 오지 않거나, 탐관들이 서원 경비를 침탈, 횡령, 은닉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들의 운영에 다양한 폐단이 속출하자 서원은 수많은 굴곡을 겪었고, 그 수준 또한 연일 하락하여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청 조정은 일찍부터 수차례 명령을 하달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원의 관리 양식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였다. 건륭 중기 이래로 서원의 사무는 점차 관부 친화적인 형태에서 지방 향신의 경영으로 이행하게 된다. 지방 향신들은 자금 출자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서원에 스며들어 행정 사무를 모두 책임지는 동사회(董事會)를 성립시켰다. 나아가 그들은 “산장은 읍내 사람들의 공동 회의를 통해 연청하며, 관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음(山長以邑人公議延請, 官吏俱不爲經理)”과 같은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관반민조(官辦民助)에서 관독민반(官督民辦)으로 서원 경영 방식을 개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원 건립에 대한 열기에 더욱 불을 지폈다. 청 조정의 서원 통제 정책의 완화는 민간 서원 건립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고, 보관존안(報官存案)과 같이 허례허식 일색인 절차를 구문(具文)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제도 차원에서의 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학습 수준이 상승하였고, 학습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의학의 서원화는 지방 향신들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 된 것이다.

셋째, 관원들의 주도 : 사법(司法), 징세(征稅), 치안(治安)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보면, 의학이나 서원과 같은 교육 기구를 부흥시키는 것은 청대 지방 관원들의 필수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관원들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오히려 체면을 잃기 쉬운 부분이기도 했다. 성현의 가르침 선전 의학의 부흥 및 창건, 또는 학궁(學宮) 수복 등의 이른바 “교화를 널리 이루는” 과업들은 언제나 탁월한 치적으로 여겨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주, 현의 관리들이 사문(斯文)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학궁의 수복, 서원 및 의학 창건 작업을 통해 지

방 향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였던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앞에서 말했듯, 옹정 11년 회성 서원의 창건, 부흥 명령이 하달된 이래로, 고차원적인 교육의 대명사와 같았던 서원은 그 전통에 현실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상부에서 시행하는 바가 있으면, 하부에서 반드시 그것을 본받았으니, 이로 인해 서원의 흥성은 주, 현 관원들이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불문율의 과업이 되었다. “앞에서 규정하면 뒤에서 따르게 되어, 모두가 부흥에 힘썼으므로(前規後隨, 皆務興起)”, 이러한 경향은 지방 관원들의 시범 및 제창에 힘입어 향촌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향촌의 더욱 많은 의학이 서원화가 된 것이다.

### 三.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영향

청대 서원 보급 및 번영의 촉진 : 의학의 서원화는 청대 신축 서원의 수량을 더욱 증가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청대에 건립된 서원만 총 5000여 개소에 달한다. 이는 당, 송, 원, 명 4대 왕조에 건립된 서원수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동시에, 서원화된 의학은 주로 넓은 향촌에 위치해 있었고, 이는 과거 서원의 분포상에서의 공백을 크게 메꾸는 작용을 하였다. 이로써 청대 서원은 총체적인 보급과 번영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서원 규제 개혁의 촉진 : 의학이 서원화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성립이 발생했다. 서원의 성숙한 제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개조한 몇몇 의학 서원들은 경비 문제로 교사를 초빙하지 않고 고정된 건물이나 강학 장소도 두지 않으면서 다만 사당(祠堂)을 임대하여 정기 시험을 실시,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유생들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학, 제사, 학전, 장서로 대표되는 서원의 기본 규제는 의학의 서원화 과정에서 고과(考課)와 과장(課獎)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사실상 서원 규제의 변혁 촉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의학과 서원 간 경계의 소실 :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의학은 주로 빈궁한 선비들의 기초 교육을 위한 장소였다. 서원은 저명한 선생들이 강학하고 의리(義理)를 토론하며, 이로부터 과거에 응시할 인재들을 배양하는 고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의학과 서원 간의 경계가 뚜렷했다. 그런데 청대에 의학이 서원화 되면서, 양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도 상호 구분이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청대 건륭 연간 이래로 전승된 지방지(地方志)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많은 지방지에서 기록하는 ‘의학’과 ‘서원’이라는 명칭은 상호 혼용되어 무엇이 원래 서원이고 의학이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심지어 호북(湖北) 가어현(嘉魚縣)의 기록을 보면 ‘의학서원’이라는 명칭도 등장한다. 이는 청대 의학, 서원 연구 작업에 있어 하나의 큰 과제가 되었다. 각자 어떻게 연

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초할 것인가? 이는 청대 교육 연구 영역에서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이다.

## 论清代义学的书院化

张劲松（南昌师范学院书院研究中心，江西南昌，330032）

### 【中文摘要】

在清代的教育体系中出现了义学与书院的合流现象，其中之一是义学的书院化。义学书院化的表征是大量义学冠以“书院”之名，从而成为书院的一部分。促使义学书院化的动因主要有地方向慕、管控松弛和官员提倡等方面。义学的书院化促进了清代书院的普及繁荣，推动书院规制变革，同时也模糊了义学与书院的边界，使在更大的范围内开展义学与书院关系的讨论成为必要。

**关键词** 义学，书院，清代

在清代官方话语体系中，义学主要包括二种类型：一种是在少数民族聚居区建立的面向少数民族子弟的教育机构，如顺治十五年（1658）题准：土司子弟有向化愿学者，令立学一所，行地方官，取文理通明者一人，充为教读，以司训督。岁给钱银八两，膏火银二十四两，地方官动正项支給。[1]（卷七十三 义学事例）再如雍正三年议准：云南威远地方，设立义学，令彝人子弟有志读书者，入塾诵习。又议准：黔省苗人皆有秀良子弟，令各府、州、县设立义学。嗣后，苗人子弟情愿读书者，许各赴该管府、州、县报名，送入义学，令教官严加督察。[1]（卷七十三 义学事例）在少数民族聚居地官为建立义学，是清政府用以加强地方控制、促进民族融合的重要措施，文献所在多有，不赘述。清代义学的另一种是内地面向贫民子弟设立的学校，此类学校亦得到清廷的大力倡导，如康熙五十二年（1713）议准：令各省府州县多立义学，延请名师，聚集孤寒生童励志读书。[1]（卷七十三 义学事例）雍正九年题准：定州县于大乡巨堡各置社学一区，俱由该管官选择生员学优行端者补充教习，免其差徭，量给廪饩。其民间自立者即概称义学，凡子弟年十二以上，有志学文者俱令入学肄业[2]，等等。

清代义学的主体相当于今天的基础教育阶段，肄业生徒以蒙童为主，内容主要为训蒙句读。如雍正元年（1723）上谕规定，近乡子弟年龄在十二以上，二十以内，有志学文者，俱令入义学肄业，“务期启发蒙童，成就俊乂”。[1]（卷七十三 义学事例）地方官员在实践中亦指义学的教育对象以蒙童为主，“义学则以启蒙童，授句读，使穷乡贫户子弟

無從師者，皆得以就學，亦古盛時鄉塾黨庠之遺意也。”[3](卷四)、“乃貧而失業之人又往往不能教其子弟，雖守令諸君設義塾于四郊，擇師而教之，捐廩而食之，亦屢滿矣。然散而不專，且小學耳，譽髦則不及焉。”[4]反之，書院則不同。書院自唐代興起以來，為成人之學，是古之大學，其教育對象、教學程度、辦學層次、組織形式與義學迥異。元儒吳澄（1249-1233）關於書院的觀點頗具代表性：

維郡邑之學亦有廢不立之時，學者無所于學，于斯時也，私設黌宮，廣集生徒以補學校之缺，如李渤之于白鹿，曹誠之于睢陽是也。上之人以其有裨于風化，賤賜額敕以風厉天下，與河南嵩陽、湖南岳麓之号，此先宋以前之書院也。宋至中叶，文治浸盛，學校大修，遠郡僻邑，莫不建學，士既各有群居肄業之所，似不類乎私家之書院矣。宋南遷而書院日多，何也？蓋自舂陵之周、共城之邵、关西之張、河南之程數大儒相繼特起，得孔聖不傳之道于千五百年之后，有志之士獲聞其說，始知記誦詞章之為末學，科舉程課之坏人心，而郡邑之間設科養士所習不出乎此。于是新安之朱、廣漢之張、東萊之呂、臨川之陸，暨夫志同道合之人讲求為己有用之學，則又自立書院，以表異于當時郡邑之學、專習科舉者，此後宋以後之書院也。[5]

因之，研究者普遍認為義學與書院分別為二個不同層次的教育組織，書院“教學的程度也比義學高，不屬於普及性教育”。[6]如李才棟先生在清代道光至清末的江西書院研究中認為，道光以後，江西書院新建的數量頗多，“然而濫極。其中相當多是私塾、會館、文會、祠廟性質的機構。在統計中，已經剔除又剔除，所余者，因缺乏進一步剔除的根據，只得彙以備考。”[7]何君揚在清代瀏陽書院研究中明確區分書院與義學的不同，縣學、書院、義學是清代瀏陽教育系統的不同組成部分，共同構成了清代瀏陽教育的主要體系。[8]

顯然，義學在辦學層次上要低于以實施高等教育為主的書院教育。但是，清代出現了義學的書院化傾向，義學與書院的邊界模糊，成為清代教育研究中亟待重視的一個問題。

## 一、清代義學書院化的表征

義學的書院化主要表現為義學冠名為“書院”成為一種現象。歷史時期，曾出現過少數義學具有書院的功能、制度與模式，以江西為例，北宋時期瑞昌（今江西瑞昌）的蔡氏義學，元代丰城（今江西丰城）揭氏的菑岡義塾、万安（今江西万安）劉氏儒林義塾

等，均有名師講學、田產丰厚、影響較大等特点，雖无“書院”之名却有書院之實。如蔡氏義學，“在瑞昌，元邑人蔡季霖建，其子士仁修室宇，贍供給，延名師以教其鄉党子弟，虞集爲之記。”[9]

与之不同的是，清代的義學普遍辦學層次較低、生徒數量較少、院產規模不大、辦學質量不高、社會影響寥寥，有“書院”之名但无書院之實。如同治《新昌縣志》（今江西宜丰）卷五記載，該縣于清代建有各類以閣、堂、園、齋、別墅、家塾、書舍、書屋、山房及“書院”爲名的書院120余所，蔚爲大觀。但其中的“書院”實与家塾、書舍等相同，均爲義學層次，如南屏書院，卽江陵別墅，“在南城外河背，熊氏衆建”；回瀾書院，“在六都，丰溪李氏衆建成文會，捐有學租”；泮水書院，“在十都，盧氏衆建”，[10]等等，這些書院主要是地方家族及其成員捐建的小規模的族塾。与新昌毗鄰的江西万載（今江西万載）也常見類似情況，如郭山張氏建于康熙四十六年（1707）的菁莪書院、道光八年（1828）排江歐陽氏的石溪書院、咸丰七年（1857）半岭劉氏的劉氏書院等，均爲本族子弟的訓蒙之所。[11]除江西外，清代其他直省也多有此類情況，如湖北省，僅乾隆時期在地方志中記載的書院化的義學就有沔陽玉帶書院、黃岡坪江書院、振英書院和觀善書院（更名蒙正書院）、來鳳桂林書院（一名卯峒義學）、利川双江書院（一名忠路義學）和如膏書院（一名南坪義學）、南漳沮漳書院、恩施鳳山書院、云夢夢澤書院等。[12]這些書院化的義學多爲官員捐廉倡修，如乾隆九年（1744）黃岡縣的振英書院，本爲知府李彥瑁祠，后知府改爲書院以訓蒙童。此外，清代鄂西的施南府（治今湖北恩施）的書院亦大多爲義學，蔡志榮称因施南地偏，人文不發達，改土歸流后學宮未設，義學、書院是地方主要教育机构，“一些義學以書院命名，如利川双江書院、如膏書院、筆峰書院。書院承担地方啓蒙基础教育的職能，如同義學。”[13]再如清代的貴州，“鄉村書院一般層次較低，主要授受蒙童，承担啓蒙教育的任務。如嘉慶年間在錦屏里卦治村上寨、中寨、下寨建立的文岳書院、文育書院、文闌書院，隆里所的圖園書院，雖名爲書院，實際相当于義學和社學”，[14]此類書院主要授受童蒙，教化鄉里子弟。由于上述區域書院研究著作的主要史料來源爲地方志，如果進一步挖掘清代江西、湖北、貴州等地家（族）譜等民間文獻中的教育史料，可以肯定此類冠以“書院”之名的義學數量會更多。

## 二、清代義學書院化的動因

清代出現義學書院化現象，其原因較爲複雜，概言之，主要有以下几方面：

（一）地方向慕。書院自唐代興起以來，一直未進入官學體系，不是官方學制的組成



部分。<sup>1)</sup> 書院的辦學經費主要依靠社會捐助，師長的聘請、生徒的遴選以及管理模式相對自由而靈活。在官學逐漸失去興賢育才的功能而淪為科舉考試預備機構後，書院成為補其不足的清流，是傳統時期大師講學、人才培養、儒家文明傳承及教育規度創置的主陣地，以廬山白鹿洞書院等為代表的天下著名書院成為包括官學在內的各類教育機構爭相仿效的對象。如江西萬載（今江西萬載）張氏的張岩書院，元臨江（今江西樟樹）儒學教授張千崖（生卒不詳）建，張氏沒，其甥萍鄉縣人榮岳孫（生卒不詳）捐資繕治，率族人子弟就學，此書院實為張氏及其姻親的家塾。元代著名學者虞集（1272-1368）在《張岩書院記》中稱：“宜春在江右之上游，其風土淳厚，其人易與為善。西瞻衡岳則岳麓書院在焉。東望廬阜則白鹿洞在焉。此昔賢之所經營，皆依乎名山大川者也”，[15]勉勵張岩書院以長沙岳麓書院、廬山白鹿洞書院為榜樣。元代江西樂安（今江西樂安）鰲溪書院，為邑人夏友蘭建，夏氏少從大儒吳澄游，“邑尉明安岱爾捐置書院田五百畝，皇慶元年賜額設官，規制與白鹿、鵝湖等。”[16]再如清代江西清江（今江西樟樹）閣皂山有紫陽書院，一名道德宮，實為羽流清修的道觀，其院門有對聯：“杏壇絳帳堪可繼，鹿洞鵝湖當并傳”，亦以鹿洞、鵝湖為楷模。[17]等等。

清代義學的書院化是義學舉辦者向慕書院教育的集中體現，將義學冠以書院之名，從形式上提升了義學的辦學層次，表明義學辦學宗旨以書院教育、書院精神為旨歸，從而擴大義學的社會影響，達到經費籌措、生徒招徠、內部管理等健康發展的目的。同時，義學的書院化也進一步表明書院的社會影響在清代達到了歷史高峰。

（二）管控松馳。出于穩定統治的目的，清初的書院管控政策較為嚴厲，如順治九年（1652）諭令不許別創書院，雍正元年（1723）責令將官員的生祠、書院改為義學，等等。這一情形直到雍正十一年（1733）才有所改觀，是年雍正皇帝諭令在督撫駐劄之地建立會城書院并各賜帑金1000兩。[18]（卷七十二）至此，清廷的書院政策才有了基本轉向，由嚴格限制向大力提倡與全面監管并行轉變，從而為清代書院的迅速發展創造了條件。在朝廷興建省會書院的示范作用下，府州縣區域中心書院接踵興起，并取代官學成為區域文化教育中心。[19]隨之而來的是書院內部事務日益龐雜，書院山長官為荐聘、

1) 历史上书院在若干时期曾出现过官学化现象，如南宋末年，部分书院山长由吏部注差，“诏吏部诸受书院山长者并视州学教授”。景定时期建康的明道书院山长由江东干扰的各级官员兼任，经费主要官为拨付，等等；元代书院管理严格，书院多委官为山长，如吉安庐陵（今吉安市吉州区）凤山书院，元初“官提其纲，长任其教，士竞其业”；饶州府万年县（今江西万年）南溪书院，原为宋提刑柴中行讲学处，后子孙建祠，元延佑间置官掌祠事。等等。明代若白鹿洞书院则长期官为经营，书院洞主多有以南康府知府、南康府推官、星子县学官等兼署，实为洞学；清代则自雍正十一年后有会城书院之建，嗣后各直省除会城书院外，尚有布政使、按察使、盐道、粮道等各级官员支持的书院，以江西为例，豫章书院则巡抚为之，友教书院则按察使主之，洪都书院则南昌府知府，东湖书院为南昌县知县，西昌书院为新建县知县，等等。书院虽在不同的历史时期出现过诸如山长授以官职、经费官为拨付、生徒进退视同官学等现象，但从总体上看，书院并未系统性地纳入官学教育体系，不是官学的组成部分。

生徒官爲甄選、院田官爲經理等官府管理模式出現了一系列弊端，如書院山長遙領束脩而不蒞院主講，書院經費屢遭貪官的侵漁、蠹吏的侵占、刁佃的隱匿，等等，虞集曾痛心疾首地稱：“今天下好事者筑室買田以資講習，然一列于學官，則行有司之事，而弦誦筮豆殆爲文具者多矣。[15]官爲運營弊竇百出，書院興廢無時，質量每況愈下，影響惡劣。爲此，清廷曾多次頒發諭旨，在加強監管的同時，不斷調适書院的管理模式。乾隆中期以來，書院事務逐漸由官府親自下場讓渡給地方士紳經營。地方士紳經由捐助院產等方式進入書院，成立全面負責行政事務的董事會，推行“山長以邑人公議延請，官吏俱不爲經理”等系統改革，實現書院經營由官辦民助向官督民辦模式的轉變，從而進一步刺激了民間興辦書院的熱情。清政府書院管控政策的松弛使民間興建書院更加靈活，報官存案等繁文縟節視同具文，在沒有制度障礙下，爲提升辦學層次，擴大辦學影響，義學的書院化成爲地方士紳的主動選擇。

（三）官員提倡。與司法、征稅、治安等比較，興辦義學、書院等教育機構不是清代地方官員的要務，但却是官員考績時容易出彩的地方，宣講聖諭、興建義學、修葺學宮等“教化興行”常被視爲“卓異”的政績而受到關注。因此，我們常見州縣官下車伊始即留意斯文，或興修學宮，或倡建書院、義學，從而獲得地方紳衆的高度評價。如前文所述，雍正十一年諭旨興建會城書院以來，書院作爲高層次和高水平教育代名詞的傳統被賦予了現實意義，上有所施，下必效之，興辦書院因此几乎成爲州縣官員爲任一方時不成文的規定。“前規后隨，皆務興起”，在州縣地方官員的示范、提倡、樂見之下，這一傾向出現了由州縣治城向鄉村漫延的趨勢，從而推動着更多的鄉村義學向書院化發展。

### 三、清代義學書院化的影響

胡昭曦先生在四川（包括今重慶市）書院研究中指出，“一般而言，省、道、府（州）、縣書院是比較規範的，而鄉鎮書院則時有變化”，他在清代梳理四川鄉村書院與義學、家塾之間的關係及異同時指出，鄉鎮書院的變化主要有以下幾種情況，一是把鄉鎮書院列爲鄉學；二是義學改爲書院；三是義學與書院不分；四是把義塾“小書院”；五是新建時就稱爲書院；六是義學爲書院的補充；七是由家塾而改爲書院等，從中可以看出清代四川鄉鎮書院與義學、鄉塾的性質基本相同，換言之，鄉鎮書院即爲義學或鄉塾。[20]馬曉春亦認爲清代存在各種等級的書院，其中既有專門培養童蒙的書院，也有類似今天研究生院程度的書院，“相當于初等學校程度的書院，一般設在小縣或鄉鎮，主要招收童蒙或童生，與族學或義學比較接近，如（杭州）新城龍山課院、會文館、桐廬三峰書院等均屬此等級。”[21]吳榕青認爲清代中后期的官辦書院按它們的所在地和創辦的官

員，可分為省、道、府、縣幾種行政級別，名義上分別由督撫、道台等各級官員主管，但“縣以下鄉村書院，多屬義學、私塾基礎教育，官員無暇管顧了”，認為不在府州縣治的鄉村書院主要為義學。[22]上舉胡昭曦、馬曉春、吳榕青等例表明，鄉村書院為義學似為普遍共識，鄉村書院為義學的實質是義學的書院化，其帶來的影響是顯而易見的，主要有：

（一）促進清代書院普及繁榮。義學的書院化使清代新建書院的數量激增，據統計，清代新建書院總數達5000余所，超過唐宋元明四代的總和。[23]同時，書院化的義學主要位於廣袤的鄉村，大量填補了歷代書院空間分布上的空白，使清代書院總體呈現出普及繁榮的特點。

（二）推動書院規制變革。義學在書院化的過程中，因地制宜，對書院成熟規制進行改造，如有的義學書院因經費支絀而不聘請師長，也沒有固定的建築與場所，僅借祠堂等地定期舉行考課，並根據考課成績給予應考士子一定的課獎。如此，講學、祭祀、學田、藏書等書院規制在義學的書院化中演變為考課與課獎，事實上推動了書院規制的變革。

（三）模糊義學與書院邊界。傳統意義上的義學主要為孤寒士子的基礎教育，書院則是大師講學、講求義理、培養科學人才的高等教育，各自的邊界相對清晰。清代義學的書院化模糊了二者之間的界限，從名稱上難以區分相互之間的差別，這在清代乾隆以來遞修的地方志中表現尤為明顯，不少地方志中的“義學”與“書院”你中有我，我中有你，混為一談，甚或湖北嘉魚縣出現了“義學書院”之名。[24]這給清代的義學與書院研究帶來挑戰，甚至一定程度上較為混亂，如何甄別義學與書院各自的研究對象、如何正確認識義學與書院的異同成為首要任務，這是清代教育研究需要正視的問題。

## 【参考文献】

- [1](清)索尔讷等纂修.霍有明,郭文海校注.钦定学政全书校注(历代科举文献整理与研究丛刊)[M]武汉:武汉大学出版社,2009:287.
- [2]清)阿桂等修,(清)刘谨之,(清)程维岳纂.钦定盛京通志(卷四十四).[M]四库全书本.
- [3](清)王庭桢,雷春沼.施南府志续编(卷四)[M].光绪十一年刻本.
- [4](清)查培继.希贤书院记,(清)谢旻等修.江西通志(卷一百三十四)[M].四库全书本.
- [5](元)吴澄.乐安鳌溪书院记,(清)王昶.天下书院总志(卷七)(史料六编)[M].台北:广文书局,1974.
- [6]陈建国.明清时期义学的经费管理[J]西安邮电学院学报,2008(4).
- [7]李才栋.江西古代书院研究[M].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3:439.
- [8]何君扬.清代浏阳书院研究[D].长沙:湖南大学,2015:5-6.
- [9](清)谢旻等修.江西通志(卷二十二)[M].四库全书本.
- [10](清)朱庆萼等纂修.(同治)新昌县志(卷五).北京:国家图书馆.
- [11]张劲松.《江西书院》家族书院补遗,胡青,黎华主编.中国书院论坛(第十一辑)[J]南昌:江西人民出版社,2021.157-158.
- [12]冯明.清代湖北义学研究[M].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4:137-139.
- [13]蔡志荣.明清书院与地方社会:以明清湖北书院为中心考察[M].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4:61.
- [14]张羽琼.贵州书院史[M].贵阳:孔堂书局,2017:165.
- [15](元)虞集.张岩书院记.(清)王昶.天下书院总志(卷七)(史料六编)[M].台北:广文书局,1974.
- [16](清)谢旻等修.江西通志(卷二十一)[M].四库全书本.
- [17]宜春学院图书馆,宜春市党史地方志工作办公室.宜春地情文化特色数据库OL/樟树紫阳书院(zxhnzq.com),2022-04-05.
- [18](清)索尔讷等纂修.霍有明,郭文海校注.钦定学政全书校注(历代科举文献整理与研究丛刊)[M]武汉:武汉大学出版社,2009:285.
- [19]张劲松.清代义宁州书院研究[D]武汉:华中师范大学,2019:88.
- [20]胡昭曦.四川书院史[M].成都:四川大学出版社,2006:218.
- [21]马晓春.杭州书院史[M].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5:113.
- [22]吴榕青.韩山书院史稿[M].深圳:深圳报业集团出版社,2019:54-55.
- [23]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M].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2:450.
- [24](清)迈柱修,(清)夏力恕等纂.湖广通志(卷二十二)[M]四库全书本.

#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

## —동아시아 서원과 조선 서원 비교—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 중 서원이 차지하는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에 대한 성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대한민국 학계에 소개된 국내와 국외 학자들의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서원 사례에 대한 성과가 대상이다.

명청대 중국 서원의 활동이다. 명 중기 이후 왕양명과 그 제자들에 의해 전국적인 서원 중건과 강학이 펼쳐졌다. 강회에서는 歌詩라는 의절이 특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개하는 강학의 특징이 있었다. 청대 서원은 관의 개입을 통한 강학 과목과 운영으로 민간교육이 진행되면서 과거가 중심에 있었다. 19세기 말 외부 학문의 도입을 위해 算學과 譯學 등의 교육을 시도했다.

일본의 막번체제 하에서 서원활동이다. 일본은 서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私塾을 사립 교육기관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古義堂 사숙과 같이 도서를 출판하고 장서를 갖추어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교육에 있어서는 신분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도 주자학 일편도가 아니었다. 도주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향사기능도 있으나 가묘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교육 내용에는 양명학을 비롯하여 문인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범위도 외국어와 의학 등과 蘭學으로 대표되는 서구학문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서원 사례는 제한적이다. 북강서원 사례는 장서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교육기관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서원 설치가 황제 등 국가에 의해 주도하였으며, 교육도 스승의 학문을 천착하기 보다 과거에 경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과 향사를 위한 반관 반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서원 사례를 통해 시대적, 내용적 다양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의 지식인과 학파에서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공유재로서 건립하고 운영했다. 도산서원도 이황의 서당을 계승하여 문도들이 건립하였으나 기본 취지는 지역과 국가 개발을 위한 성리학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신행서원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서

원은 향사인과 향사과정에 정치적 의미와 배경이 투영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성리학적 교육 이념을 경영과 연계하여 서원의 시대적 역할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17세기까지 서원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지식인의 일상지식으로 작동하면서 구미와 선산의 읍지를 통해 서원 정보가 유통 및 소비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 오천서원과 덕남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가문 중심의 향사 기능이 중시되면서 궤차로 인해 소명을 다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는 각국 역사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관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서원으로 포괄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교육 내용이나 과거와의 관련성 그리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다양성은 존재한다. 서원과 현대교육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연속성과 단절성의 특징은 아이러니 하게도 오늘날 동아시아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 东亚书院，一般性和多样性的边界

### - 东亚书院和朝鲜书院比较 -

郑铎焕(韩国学中央研究院室长)

中文摘要：该研究为了追踪书院在东亚文化价值中所占的意义，以韩国的朝鲜时代为中心，对中国、日本、越南的书院进行了比较分析。该研究范围是以在韩国学界所介绍的国内、国外学者对东亚各国书院事例的成果。以下为本论文的摘要和结语部分。

就明清时期中国书院的运营活动而言，首先可以指出明中期以后王阳明及其后学积极展开全国性书院重修、讲学活动之事实。并且在“讲会”活动中，所谓“歌诗”节目为其特点，而且在讲学层面上还有从朱子学到阳明学的学术展开趋势。至于清代书院，随着官府对书院介入的深化，在讲学科目和运营上，科举考试成为核心重点。进而到了19世纪末，由于对外国学术的需要，书院就对生徒实施算学、译学教育。

接下来，我们讨论日本幕府体制下的日本书院活动。日本的私立教育机构，其实很难说是“书院”。但是日本的“私塾”，确实可以包含在私立教育机构范畴之内。日本私塾的活动特点背后，“中央集权化的政治体制”和“科举考试的不存在”这两历史因素成为其主要动力。比如所谓“古义堂”私塾，已经具备了一些作为书院的核心功能，出版、藏书、授课。而且私塾在教育上没有限制身份，其教育内容也并不只有朱子学。另外，从藤树书院来看，虽然这一书院具有祭享功能，但实际上作为“家庙”突出其强烈特色。还是其教育内容也具有了各种，包括阳明学在内，各种生徒愿意学习的科目也都可成为主要教学课目。比如外语、医学以及以“兰学”为代表的西方学术等等。

越南的书院事例较为有限。从福江书院来看，这一书院作为藏书机构的功能比较特出，而作为教育机构的功能却有限。此外，在越南主导书院建立的是皇帝或国家，于是书院教育也把其焦点放在科举考试上，而不是师生之间的学术继承。

朝鲜书院把运营重点放在教育和祭享上，具有“官民融合”的性质。而通过朝鲜书院的多种事例，可以看出在时代、内容层面上的各种价值。从绍修书院来看，该书院是作为地区知识分子和学派成员教育的社会公有财产建立并运营的。另外，陶山书院继承了退溪李滉的“书堂”，而由退溪门人建立。但是其建立的基本宗旨在于地区和国家发展，并且其实际建立目标也是扩大性理学的价值。但是要注意的是，至于另外一些书院，比如莘巷书院与以上书院有所不同。该书院在祭祀对象或祭祀过程中渗透着一定的政治意义和背景。

还有道东书院将性理学教育理念反映在运营方式上，体现了书院的时代作用和象征性价值。直到17世纪，书院的社会、政治背景影响到知识分子的日常知识，于是当时知识分子通过龟尾、善山地区的邑志，就知道了关于书院的信息。然而19世纪以后，像梧川书院、德南书院那样，随着重视以特定家族为主的祭享功能加以强化，还发生了一些书院的毁损。

所有东亚国家，根据各国历史背景，各自具有独特的教育机构传统。但也可以将其全部包含在“书院”。即便如此，从教育内容、与科举的关联性以及空间构成角度来看，地区多样性明显存在。书院与现代教育的连通性所体现的“连续性”和“断裂性”具有讽刺意味的是，它成为了当今东亚多种文化背景。



#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

## —동아시아 서원과 조선 서원 비교—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머리말

I. 명칭, 막번, 후에 시대 서원 활동

II. 조선시대 서원 활동의 다양성

맺음말

### 머리말

한국 서원연구의 출발은 지역사회 연구에 있었다. 영남학파의 성장 배경을 경제적 기반에서 찾고 활동 양상으로 서원과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지식인의 학문활동과 경제적 이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sup>1)</sup> 서원 운영 배경을 추적하여 정치사적 의미를 규명하건, 양반의 서원과 서원에서의 학술 활동등에 대한 규명이 성취되었다.<sup>2)</sup> 그리고 서원 운영의 특징을 추적하여 제향인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문중서원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sup>3)</sup> 이러한 서원 연구의 확장을 위해 자료의 공유를 지속하면서 연구사적 반성과 연구 전환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sup>4)</sup>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제도와 운영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다면적 접근

1) 李樹健(1979),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01~107쪽; 李樹健(1995),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42쪽; 李樹煥(2001),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9~39쪽; 정수환(2017),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추구」, 『民族文化論叢』 67,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57~159쪽; 이광우, 「고·중세 한국 史學의 전통이 서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2)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4)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道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7. 이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은 서원 자료를 지속 공개하고 있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만조, 「韓國 書院의 歷史」,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民族文化論叢』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블라디미르글 룬브·마틴겔만, 「1950~60년대 북한의 서원연구」, 『韓國書院學報』 7, 韓國書院學會, 2018; 김인걸, 「서원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과제」, 『韓國書院學報』 1, 韓國書院學會, 2011; 박영환, 「魯認<<錦溪日記>>裏記의 閩文化—以學術思想, 書院文化以及科擧制度爲中心」, 『中國語文學』 61, 영남중국어문학회, 2012.

이 성취되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서원의 의미를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원 가치의 탐색을 위해 동아시아 서원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었다. 중국의 서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를 시작으로 청과 조선의 서원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sup>5)</sup> 이러한 관심은 소수서원과 백록동 서원 공간에 대한 검토는 물론 서원활동의 결과를 반영한 서원지의 의미와 교육 활동의 특징에 대한 비교 성과로 이어졌다.<sup>6)</sup> 200년 이후, 중국 학자의 연구성과가 국내 학계에 집중 소개되면서 한중 서원의 연혁과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본격화 했다. 중국 서원의 기원과 교육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sup>7)</sup> 그리고 중국 학자들의 중국 내 서원연구 성과를 집중 소개하고,<sup>8)</sup> 중국 서원 교육과 운영의 흐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sup>9)</sup> 이러한 중국서원에 대한 소개는 한국과 중국 서원에 대한 비교 연구로 연결되었다. 중국 서원을 수입한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선 서원 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sup>10)</sup>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중국 학자들에 의해 주자학에 바탕한 한국 서원의 특징을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sup>11)</sup>

중국과 한국 서원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베트남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는 한국에서 제한적인 현실이다. 일본 서원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의 서원 연구 현황을 소개하거나 서원에 대한 개념 논의와 더불어 장서현황과 몇몇 서원 사례에 대한 교육활동을 일본 교육제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에 소개되었다.<sup>12)</sup> 일본의 사례에 비해 베트남 서원과 관련한 제도 및 교육에 대한 연구성과

- 5) 金相根, 「書評: 中國書院制度研究」, 『中國學研究』 14, 중국학연구회, 1998; 박종배, 「중국 서원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사학』 30-2, 한국교육사학회, 2008; 李樹煥, 「朝鮮朝 嶺南과 清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6) 조인철,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 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징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5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9;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정낙찬·김홍화, 「한·중 초기서원 교육 비교」, 『비교교육연구』 15-3,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 7) 朱漢民, 「中國 書院의 歷程」,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朱漢民, 「書院教育과 湘學 學統」, 『韓國書院學報』 3, 韓國書院學會, 2015.
- 8) 鄧洪波, 「2006-2016년간 서원연구에 대한 검토」, 『民族文化論叢』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鄧洪波, 「83년 이래 중국의 서원연구」,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肖永明·刘艳伟, 「70년 동안의 중국 서원 연구」, 『韓國書院學報』 9, 韓國書院學會, 2019.
- 9) 朱漢民, 「中國古代書院自治權的思考」, 『한국학논총』 3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謝豐, 「岳麓書院 연구 집단과 20세기 말 중국서원 연구」, 『韓國書院學報』 3, 한국서원학회, 2015; 張曉新·鄧洪波, 「晚清書院藏書制度研究」, 『韓國書院學報』 13, 한국서원학회, 2021.
- 10) 鄧洪波·趙伟,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조선 서원 문헌을 중심으로 토론」, 『韓國書院學報』 9, 韓國書院學會, 2019; 鄧洪波·趙伟, 「白鹿洞書院的建立背景与中国書院的变化-宋元明清」, 『韓國書院學報』 11, 한국서원학회, 2020.
- 11) 張品端, 「朱子書院文化与韩国書院的发展」, 『韓國書院學報』 11, 한국서원학회, 2020. 彭鴻緒, 「理学背景下武夷精舍与玉山書院周边的“人居环境”比较研究 - 以中国武夷九曲和韩国玉山九曲为中心」, 『韓國書院學報』 11, 한국서원학회, 2020.
- 12)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야구마코토, 「일본서원의 장서구축-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韓國書院學報』 13, 한국서원학회, 2021; 김대식,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門人) 공동체와 도주서원」, 『아세아연구』 13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 이우진, 「오시오 추사이(大塩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

소개는 제한적인 현실이다.<sup>13)</sup>

한국 서원연구 성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른바 서원의 원형으로 일컬어 지는 중국 서원에 대한 국내·외의 성과가 한국에 축적되면서 한국서원의 특징을 추적하기 위한 비교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학계의 일본에 대한 연구는 ‘서원’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례가 소개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연구 검토 단계에 있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서원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시도된 부분도 있다. 동아시아 서원의 특징에 대한 분석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우진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서원에 대한 비교와 분석 성과는 2020년 현재 학위논문 5개, 단행본 1개 등을 축적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빈곤함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sup>14)</sup> 서원을 동아시아에서 교육과 향사를 기준으로 일반성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은 서재 혹은 도서관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幕藩體制와 베트남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師法 사상을 중시하지 않는 등으로 일본과 베트남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수환은 20세기 서원의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21세기 서원을 둘러싼 문화현상에 대한 미미한 연구를 타개하기 위해 개별 서원의 사례 연구를 통한 구체화를 강조하고 있다.<sup>16)</sup>

동아시아의 가치 중 하나로 유교가 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한때 주목받은 사실이 있다. 유교와 관련한 가치에서 ‘서원’을 통한 교육과 사회활동이 지니는 의미는 아시아의 유교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현재 및 미래를 향한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학계의 연구 동향-해외 연구 성과의 소개 포함-을 바탕으로 서원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재검토 하고자 한다. ‘서원’은 고대 중국에서 발현하여 동아시아로 확산했다. 그렇지만 각 지역 현실에서 작동한 시점은 다기하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서원이 작동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하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중국의 명청시대와 일본의 막번체제 및 베트남의 후예시대의 서원을 상호 검토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위상의 한 모습을 추적하고자 한다.

## I. 명청, 막번, 후에 시대 서원 활동

---

(講學) 연구(研究)』, 『韓國書院學報』7, 韓國書院學會, 2018; 이견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데키주쿠(適塾)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13)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14) 이우진, 앞의 논문, 2020, 145~145쪽.

15) 이우진, 앞의 논문, 2020, 146~147쪽.

16)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民族文化論叢』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99~152쪽.

## 가. 중국에서의 서원

중국 서원 중 특히 명청시대 서원 운영 특징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 및 국내 소개 해외 성과, 특히 중국학계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추적한다. 16세기 조선에서 서원건립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던 시기 명에서도 서원활동이 있었다.

16세기 중국 고대 서원에 뿌리를 둔 백록동서원의 장서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sup>17)</sup> 이 서원은 주희에 의해 중건된 상징성을 갖는 서원으로 명·청대에 11종의 서원지를 편찬하였으며, 이 중 16세기 편찬한 백록동 서원지에 장서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원의 출판과 도서관 기능을 가늠할 수 있다. 1554년 정정곡은 『백록동지』에 4부분류를 실현하고 176종의 서목을 수록했다. 장서는 주희의 학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정자→주희→육구연’으로 이어지는 저서로 지식 계보를 보이면서 같은 시기 조선 서원의 도학 계보를 정립하는 입장과 유사했다.<sup>18)</sup> 서원은 江西省과 南康府를 관할하는 8명의 인물로부터 61종의 서적을 기증 받고 9종의 책판으로 출판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sup>19)</sup> 그리고 16세기 백록동서원과 백운동서원, 도산서원 등 영남지역 6개 조선 서원의 장서를 비교한 결과 『성리대전』, 『주자대전』 등 20종의 공동 장서를 확인하여 같은 시기 지식의 공유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sup>20)</sup> 16세기 명나라와 조선은 서원을 통해 도서 간행과 장서 확보를 통한 지식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공히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

명대 서원의 핵심 요소를 講會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선서원과 비교할 수 있다.<sup>21)</sup> 명 중기 이후 왕양명(1472~1528)과 그의 제자들의 활발한 서원 강학 활동으로 명대에 1,500~2,000여개의 서원이 신설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sup>22)</sup> 명대 서원 會規를 토대로 정리한 강회와 관련한 개회 시기 會期, 주관자 會主, 강회의 내용 會講, 의식절차 會儀를 정리했다.

명대 서원 강회는 시기와 횟수, 기간은 서원마다 차이를 두고 있지만 회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회 주관도 강회 최고 책임자 회주, 원장에서부터 司簿, 司鼓 등 집사에 이르기까지 분장을 통해 조직화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한 강회 내용은 유생들이 과문을 짓고 평가하는 행위를 강회와 구분하여 會文·會課로 명명하면서 경서에 대해 쌍방향적이고 집단적인 토의로 진행되는 부분을 강회로 설정했다. 서원 강회에 있어 조선의 서원과 차별적인 부은 강회의식이다.

17) 임근실, 「16세기 明白鹿洞書院 藏書의 특징과 의미」, 『서강인문논총』 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8)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136~137쪽

19)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140~142쪽.

20)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144~145쪽.

21) 박종배,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사학회, 2011.

22) 박종배, 앞의 논문, 2011, 82쪽.

반차에 따라 자리를 잡고 상읍한다. 이러한 절차는 조선후기 서원 강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것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명대서원 강회만의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생략) ‘歌詩’라는 절차인데, 순서상으로 상읍 이후에 가시하고, 행강 이후에 다시 가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3)</sup>

강회의 의절은 조선과 차별성을 크게 찾기 어렵지만, 중간에 시를 읊는 가시 절차는 명대 서원의 독특한 의절로 강조되었다. 이 가시의 의미를 “막히거나 걸린 것을 씻어내고, 성령을 개발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명대 서원의 독특한 의절로 평가되었다.

서원강회와 관련하여 중구 서원과 학술연대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추적이 있었다.

강학의 기풍은 명대 중기에 이르면 더욱 본격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 파벌로까지 발전하여 정치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명대 말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동림서원(1604)의 건립과 강학 및 정치적 여론 활동은 정치 네트워크와 학술 네트워크의 결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sup>24)</sup>

인용문은 서원에서의 강학 활동이 명대 중기에 활성화한 결과 명말에 이르러 정치세력화에 이르러 동림서원의 건립과 정치화로 귀결되는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명대 서원강회 활성화에는 왕수인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양명학파가 기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작용으로 양명학과 주자학 계열의 논쟁이 있었다. 중국 서원의 역사를 살펴 보았을 때, 서원은 藏書, 供祀 그리고 講學이었음에도 송대 주희의 영향 이래 원대에 서원의 활동과 기능이 쇠락하였다가 명대 양명학의 탄생을 계기로 서원이 활발하게 되면서 명대 중엽 이후를 서원 강학의 시대 혹은 유교 학술공동체의 전성기로 평가하기도 한다.<sup>25)</sup>

양명학과에 의한 서원 부흥 움직임과 동시에 서원을 중심으로 주자학 계열의 강학과 활동은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학파대립과 정치화가 명말에 대두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펼친 경향은 동림학과(주자학적 경향), 증산학과(주왕 절충학적 경향), 양명학 좌파(양명학적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6)</sup> 서원의 강학활동을 바탕으로 한 학파간 대립 그리고 정치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동림서원이다.

스승의 行誼와 심성론의 오묘한 강의는 실로 한 개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족하였고 그들 동지의 진퇴와 존망은 천하의 정세와 유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서원의 이름은 政黨의 지목을 받게 되었는데, 송원명칭 4대에 걸쳐 여러 서원들이 이를 저울질하였으나 동

23) 박종배, 앞의 논문, 2011, 93~94쪽.

24) 辛炫承, 「명대 말기 학술공동체와 정이 네트워크 연구—동림과 복사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346쪽.

25) 辛炫承, 앞의 논문, 2020, 348~351쪽. 왕수인(1427~1528)은 龍岡書院, 貴陽書院, 濂溪書院, 稽山書院, 敷文書院을 건립, 중수하거나 문인들을 모아 강학활동을 실현하여 서원과 강학 부흥에 기여했다.

26) 辛炫承, 앞의 논문, 2020, 353쪽.

림서원보다 지나친 곳은 없었다.<sup>27)</sup>

동림서원은 학문적 동지의 강회를 진행하였는데, 1604년 중건 이후 양명학에서 주자학으로의 전환과 시정에 대한 관심을 통한 전환을 실현하여 학문적·정치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는 社團性 서원 또는 ‘강회식 서원’의 전형으로 전국적 영향력을 확보했다.<sup>28)</sup> 동림서원은 주자학을 견지하며 양명학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정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병행하게 되면서 정치적 파벌화를 거치면서 결국 환관과 집권세력에 의해 ‘동림당’으로 규정되면서 탄압을 받는 정치사건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동림서원은 동림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명대 말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 되고 왕조가 교체되는 단초가 되었으며, 유교적 학술담론으로 시작된 동림서원 강학은 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나 정치적 탄압으로 미완의 학술·정치공동체로 평가된다.<sup>29)</sup>

청대 지역사회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이 있었다. 청대 書塾, 文社는 서원과 혼용되어 사용한 명칭으로 지역사회에서 관학과 거리를 두면서 가족과 지역의 기부금에 의한 운영으로 文士 교류로 연결되면서 강한 族姓의식으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sup>30)</sup>

청대 서원 활동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청대의 서원은 명대의 일반적 성격에서 변화하여 지방관에 의해 설립되어 관의 개입을 통한 경영과 교육 운영이 있었다. 특히, 옹정 이후 서원건립 성과를 반영하면서 청대 서원의 대부분은 관에 의해 설립되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련성으로 관학적 성격을 띄고 서원이 민간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31)</sup> 이런 경향성을 악록서원이 1652년(순치 9) 중건하여 1903년(광서 29) 학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청대 전·중·후기로 구분하여 추적한 연구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順治~乾隆 전기)에 이르는 청대 전기 교육은 程朱理學 중

27) 柳詒徵, 『江蘇書院志初稿』(辛炫承, 「명대 말기 학술공동체와 정이 네트워크 연구-동림과 복사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357쪽 재인용).

28) 박종배, 「명, 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60~62쪽.

29) 辛炫承, 앞의 논문, 2020, 359쪽. 신현승은 명대말기 양명학 유행에서 청대 고증학으로 학술적 전환에는 동림서원의 학술과 정치담론의 후과에 따라 학술과 정치 담론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고 문자 고증에 바탕을 둔 고증학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명학과 서원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이우진, 「王陽明 書院講學과 理念의 實際」, 『韓國書院學報』 1, 한국서원학회, 2011; 오금성, 「陽明學과 明末 江西 吉安府의 紳士-書院 講學을 中心으로」, 『명청사학회』 21, 2004.

30) 徐雁平, 「書院, 書塾與文社: 以家族與鄉村為討論範圍」, 『한국학논총』 3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서원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은 아래의 연구가 있다.

王勝軍, 「서원 유학전파와 명청시기 남서지방 정체성 의식의 흥기(興起)-문웅, 윤진 등 인물기호를 중심으로 한 토론」,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李曉宇, 「蜀學과 官學: 19세기 중후기 사천 지역 서원의 전통과 현실」, 『한국서원학보』 3, 한국서원학회, 2015; 陳曙雯, 「清代中后期的書院與駢文」, 『中國散文研究集刊』 3, 한국중국산문학회, 2013.

31) 정락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東亞人文學』 21, 동아인문학회, 2012, 231~232쪽.

심의 학풍에 과거에 대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악록서원은 공립서원으로 官方철학으로 확립된 정주이학 교육을 수행했는데, 이 부분은 1717년(강희 56) 악록서원 원장李文炤(1672~1735)가 『백록동규게시』를 바탕으로 『악록서원학규』를 제정한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원이 사서육경을 중심으로 『사서집주』 등 송대 학자의 저서에 대한 독서를 강조하고 과거를 대비하여 『통감강목』 등의 사서와 고체시 학습을 강조한 사실은 정주이학만을 중시하고 이를 부활한 결과를 보여준다.<sup>32)</sup>

18세기 중엽에서 1850년(乾隆 중기~道光) 까지 청대 중기 악록서원은 經史考據를 강조하는 漢學을 위주로 하면서 과거에 대응했다. 이 당시 악록서원의 3대 변화는 정주이학에서 경사의 고거와 훈거를 중시하는 한학의 대두, 정부의 서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로 인한 서원의 관학화 그리고 한학 위주의 과거시험 경향에 대한 대응이었다.<sup>33)</sup> 이 과정에서 견릉제는 서원의 교육방침, 산장초빙, 생도선발, 과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詔勅을 내렸는데, 서원에서 산장으로 하여금 팔고문과 경학, 사학, 치술 등을 강학하여 서원 생도를 기술을 갖춘 예비관료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sup>34)</sup>

1851년에서 1908년(咸豐~光緒)의 청대후기 악록서원은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경세치용을 위한 학문을 견지했다. 광서 연간 악록서원 산장 王先謙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개혁했는데, 1897년(광서 23) 月課改革手諭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과정을 경학, 사학(지리학 포함), 掌故學, 수학, 譯學 다섯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경학, 사학, 장고학은 산장이 관리하고 수학은 재장이 그리고 역학은 교사를 초빙하여 관리하도록 했다.<sup>35)</sup>

이를 통해 경학, 사학의 전통과목을 유지하면서도 과목을 증설하여 서양 신문학을 제창하면서 중국 문학을 중심으로 개편한 결과였다. 그리고 외국어 교사가 譯學會를 조직하여 외국어 교사 주도로 3년 기한의 영어과정을 제정하여 서구문물 수용을 위한 외국어 과정 교육 강화를 실현했다.<sup>36)</sup> 악록서원의 이러한 변화는 대외위기에 대응한 경세치용의 학술 경향이 고조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sup>37)</sup>

32) 정락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東亞人文學』 21, 동아인문학회, 2012, 234~235쪽.

33) 정락찬, 앞의 논문, 2012, 236쪽.

34) 정락찬, 앞의 논문, 2012, 237~238쪽.

35) 王先謙(정락찬, 앞의 논문, 2012, 243~244쪽 재인용)

36) 정락찬, 앞의 논문, 2012, 245쪽.

37) 정락찬, 앞의 논문, 2012, 243쪽. 청대 서원교육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할 수 있다. 宮嵩濤, 「청대 승양서원 생원모집 및 교학활동」,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김은희, 「淸朝書院의 敎學 內容 研究」, 『언어학연구』 21-2, 한국언어연구학회, 2016; 이영란, 「淸末 서원 교학과 운영의 正體—湖南城 嶽麓書院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화진, 「桐城派 서원 강학의 역할과 의의」, 『中國語文論叢』 47, 중국어문연구회, 2010; 장의식, 「淸末의 上海 格致書院: 시대 변화와 그 한계」, 『中國史研究』 117, 중국사학회, 2018.

서원이라는 전통교육 기반은 중국이 서양식 신교육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 근대교육으로의 전환에서 서원 연관성은 1898년 무술변법에서 1900년 신정개혁을 전후한 시기 일련의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 당시 康有爲는 강희제에게 건의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서원을 일괄 학당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강유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관철시켰다.

京師大學堂과 經濟特科는 모두 중·소학당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각성에는 중소학이 거의 없으므로, 각성 부주현 및 향읍의 公私 서원·義學·社學·학숙을 모두 中西學을 겸습하는 학교로 고치되, 성회의 대서원은 고등학, 부주현의 서원은 중등학, 의학과 사학은 소학으로 고치도록 건의하였다.<sup>38)</sup>

교육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서원 등의 교육기관을 학당으로 기편을 시도했다. 중앙의 경사대학당을 설치하고 과거제 폐지와 관련하여 현실에 필요한 학문으로서 算學·譯學과 같은 경제 분야의 교육을 위한 경제특과를 설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단위에 따라 학당을 설치하고 소·중·고등학으로 편제했다. 그렇지만 1898년 9월 江陰의 南菁書院이 1898년 9월 남청고등학당으로 재편되는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무술정변으로 이런 개편은 후퇴하였다.<sup>39)</sup> 그렇지만 신정개혁있고 이듬해 9월 중앙의 경사대학당과 주현, 각부 및 省급 서원을 소·중·고등학당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山東巡撫 袁世凱가 가장 먼저 山東大學堂을 설립하고 「山東大學堂章程」을 보고하여 개편의 모델을 제시했다.<sup>40)</sup> 서원을 학당으로 개편한 배경이 있었다.

학당의 설립은 법에 맞도록 하자면 서양식 건물을 모방하여 따로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나, 지금은 창고가 찢은 듯이 텅비어 실로 재력이 미치지 못하니 기존의 서원에서 적당히 개설하는 수밖에 없다.<sup>41)</sup>

경제적 한계에 따라 신학문을 교육하는 공간을 준비하지 못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서원이 이미 관학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전환에 용이했던 사정도 고려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청말 근대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서원의 학당 개편의 의미와 전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말 근대교육의 발전과정은 학당으로 대변되는 서양식 신교육의 도입과정이자, 서원·義學·私塾등 전통교육기구가 학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전통교육기구 중에서도

38) 「康有爲請飭各省改書院淫祠爲學堂折(광서24년 5월 15일)」(김유리, 「清末 書院의 學堂改編과 近代學制的 成立過程」, 『東洋史學研究』 75, 동양사학회, 2001, 84쪽 재인용).

39) 김유리, 「清末 書院의 學堂改編과 近代學制的 成立過程」, 『東洋史學研究』 75, 동양사학회, 2001, 86쪽.

40) 김유리, 앞의 논문, 2001, 93~94쪽.

41) 「兩廣總督陶模奏設廣東大學堂請廢科舉并附片」(김유리, 앞의 논문, 2001, 98쪽 재인용).



서원은 청대 중추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과거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1901년 청조가 八股文을 폐지하고 각성의 서원을 일률 학당으로 개편하도록 명한 것은 청조 지배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관리육성교육의 중심이 서원제에서 학교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1902년과 1904년 청조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제를 제정·반포하고 1905년 과거제를 즉시 폐기한 것은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서원의 학당 개편이 신교육의 도입과정이었으며 이는 과거제 폐지와 연동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는 이어지는 부침이 있었으나 1905년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제를 마련하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 나. 일본에서의 서원

17세기 초~19세기 후반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한 幕藩體制 동안 무사는 藩校에서 文武를 학습하고 농민과 상인 등 서민은 郷校에서 교육 받았으며, 19세기 막번체제 붕괴 후에는 서양 열강의 침공에 대응하여 지방의 번교와 향교가 새로 건립되면서 초등교육을 위해 약 3,000종의 私塾과 家塾이 개설되었다.<sup>43)</sup> 이우진은 일본 서원을 藤樹書院을 초기 私塾의 전형으로, 양명학 서원의 독자성을 지닌 洗心洞學堂 그리고 근세와 근대 교육의 교량으로 기능한 사숙으로 適塾과 松下村塾으로 의미를 부여했다.<sup>44)</sup>

일본은 서원은 書齋를 갖춘 건물로 지칭하면서 ‘書院造’라는 주택양식이 사용되었으며, 사립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는 ‘私塾’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교육과 향사를 위한 서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일본적 특징에 대한 고려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육 기관에 대해 관학과 사학 혹은 교육내용과 대상에 따라 사숙을 서원에 비견할 수 있거나 중앙집권적 특징이 희박한 막번체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완전한 관리 육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 藩校도 서원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sup>45)</sup> 이로 본다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의 서원에 견줄 수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숙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일본에

42) 김유리, 앞의 논문, 2001, 81~82쪽. 중국 근대교육 전환과 서원과의 관련성은 다음의 성과를 참고 할 수 있다.

龚抗云, 「왕선겸의 서원교육이념과 실천」,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王勝軍·邓洪波, 「黃舒髡의 청말 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 『한국서원학보』 3, 한국서원학회, 2015; 張萍, 「書院, 學堂, 學校:晚清民國陝西的學政改革與地方社會變動」, 『中國史研究』 69, 중국사학회, 2010; 张晓新·邓洪波, 「晚清书院藏书制度研究」, 『韓國書院學報』 13, 한국서원학회, 2021; 강인규, 「英華書院이 中國 近代 教育에 미친 影響」, 『中國史研究』 70, 중국사학회, 2011; 이영란, 「戊戌變法時期 湖南省의 新式書院—嶽麓書院과 時務學堂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31, 명청사학회, 2009; 이영란, 「變法運動時期 湖南省 知識人の 書院改革 構想」, 『中國史研究』 71, 중국사학회, 2011.

43)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61~62쪽.

44)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151쪽.

45) 이우진, 앞의 논문, 2020, 146~149쪽.

존재했던 서원을 포함하는 사숙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에도시대 사숙에서 출발해 근대까지 운영한 문고를 서원의 관점에서 파악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1662년(寬文 2) 교토 자택에 호리카숙(堀川塾) 혹은 고의당(古義堂)이라는 사숙을 설치하고 1906년까지 240여 년 동안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했다. 고의당은 남색표지를 사용한 특색있는 출판물을 간행하면서 비교적 화합하고 온화한 교육 분위기에서 유교 경전 강의를 진행하여 교토를 대표하는 사숙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문인도 황실·귀족부터 번사(藩士)·농민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민간 학원으로 존재했다.<sup>46)</sup>

고의당에서 기원하는 이 사숙의 학풍은 주자학에 반대하면서 공자를 극도로 존중했다. 진사이는 “무릇 천지간은 하나의 원기 뿐”이라고 강조하며 氣一元論을 주장했으며, “夫子의 성스러움은 요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공자를 선왕보다 높이 평가하여 그의 ‘古義學’은 도쿠가와막부의 관학이었던 주자학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경전 해석으로 학풍을 확립했다.<sup>47)</sup> 그의 기일원론과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 의식은 名物學, 本草學으로 이어져 醫學派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토 가문의 후손들이 塾主를 세습하면서 고의당의 학문을 계승했다.

에도시대 학자의 학문과 후학 육성이 사숙, 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에도시대 유학자로 일본 양명학의 기조인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1608~1648)가 서원 등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문인들이 이를 계승하여 서원을 경영한 사례이다. 그의 교육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29세부터 세상을 떠나는 41세까지 모두 15명을 육성하고 장례 때 참석 문인이 300명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문인 교육은 居家形으로 찾아온 문인이 배우기 원하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의학서도 교육했는데, 교육 방법은 素讀, 講義, 會業을 실시하며 문답으로 정리하는 유교의 전통적 교육 형태를 계승했다.<sup>48)</sup>

나카에 도주는 문인 육서를 도모하고 그 작용으로 문인들 주도로 서원건립을 달성했다. 그는 32세 때 문인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藤樹規, 學事左右戒를 마련했는데, 전자는 「白鹿洞規」를 차용하여 오류가치를 강조하면서 문인들의 성인의 가르침 실천을 강조했으며 후자는 장유유서에 바탕 한 문인사이 화목을 강조했다.<sup>49)</sup> 2년 뒤 엄격한 규범과 예의를 준수하는 이들 내용이 문인간의 결속을 저해한다고 반성하고 규범에 구애되기보다 본심을 찾아 화합하기를 당부했다. 나카에 도주 사후에 그의 후손들이 중추가 되면서 문인이 참여한 모임을 만들었다. 학문 강학을 위한 문인들의 모임 성격을 강조하는 「江西小川講堂之

46) 야규 마코토, 「일본서원의 장서구축-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고(古義堂文庫)」, 『韓國書院學報』13, 한국서원학회, 2021, 51쪽.

47) 야규 마코토, 앞의 논문, 2021, 55~57쪽.

48) 김대식,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門人) 공동체와 도주서원」, 『아세아연구』13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 109~111쪽.

49) 김대식, 앞의 논문, 2020, 112~113쪽.

會約」이나 독서와 무예수련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 규범을 골자로 구성했던 花園會가 조직되었다.

문인들 주도로 도주서원이 형성되고 운영되었다. 서원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주서원은 한 채의 일본 전통 가옥형 건물로서 나카에 도주가 태어나 생활하던 자택의 舊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도주서원의 내부에는 제단이 위치한 사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단에는 나카에 도주와 그의 부인 등의 신위가 안치되어 있다.<sup>50)</sup>

1647년 나카에 도주가 41세에 문인들의 지원으로 완성한 도주서원으로 강학과 향사가 강당 한공간에 이루어 지고 있어 형태적으로 조선의 그것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향사대상도 문인이란기 보다 가족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나카에 도주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강학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초기 그 명칭은 강당이었으며 1727년 즈음 서원으로 명명되거 1763년 편액이 갖추어 지면서 명실공히 서원이 되었다.<sup>51)</sup> 이처럼 거가형 문인교육은 문인들 주도로 서원으로 확대되고 학문강학과 제향 공간으로 발전되었다.

서원 교육의 측면 비교를 위해 강학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오시오 츠사이(大塩中齋, 1793~1837)의 洗心洞 강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일본 양명학의 거두로 막부에 대항한 인물로 양명학에 바탕한 세심동 학당 강학으로 제자를 육성했다.<sup>52)</sup> 그는 24세이던 1816년에 양명학에 입문하고 이듬해부터 세심동 학당을 설립하고 강학하다 1825년 교육의 방향과 생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서숙 혹은 서원 교육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오시오 츠사이는 세심동 학당에 3개의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學堂東揭」, 「學堂徐揭」, 「學堂揭示」로 학당의 동·서재 등에 게시하는 목적이었다. 게시 내용은 왕양명의 문장이나 오시오 츠사이가 양명학의 깨달음을 얻은 전거 그리고 왕양명 제자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명학적 가르침’을 향하고 있었다.<sup>53)</sup> 예를 들면 「학당서게」는 왕양명이 용강서원에서 제자들에게 제시한 ‘立志·勤學·改過·責善’의 4개의 조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오시오 츠사이가 왕양명의 太虛論과 致良知論을 결합하여 마음을 良知自然의 영명함으로 되돌리는 ‘歸太虛’ 공부론을 함축하고 있었다.<sup>54)</sup> 이러한 방향에 따른 세심동 학당의 일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 경에 마무리 한다. 기상과 함께 자리 정돈하고 용모를 바

50) 김대식, 앞의 논문, 2020, 118쪽.

51) 김대식, 앞의 논문, 2020, 119쪽.

52) 이우진, 「오시오 츠사이(大塩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 『韓國書院學報』7, 韓國書院學會, 2018.

53) 이우진, 앞의 논문, 2018, 44쪽.

54) 이우진, 앞의 논문, 2018, 35쪽.

로하고 스승앞에서 양명학 서적을 읽는다. 읽고 자기방에 돌아와 10번 더 읽고 의심나는 부분은 스승에게 묻고 바로 잡는다. 양명학 서적을 공부한 다음에는 주자학 서적을 공부한다.<sup>55)</sup>

재가형 교육을 바탕으로 일과를 갖추고 독서와 문답으로 공부하는 형식이었다. 공부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자학을 참고하고 있다.

사숙에서 진행한 교육 형태에 대한 사례로 일본에서의 서원교육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막부말기 2개의 사숙을 대상으로 전통적 교육이 근대교육으로 전환한 비교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sup>56)</sup>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 데키주쿠(適塾)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이 배교사례로 이들은 藩校에서 행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했다.

데키주쿠는 막부 말기의 대표적 蘭學으로 대표되는 양학 교육 기관으로 문하생이 1,000명에 이르렀다. 오가타 고안은 17세이던 1816년 오사카에서 蘭醫 나카텐유(中天游)의 시시사이주쿠(思思齋塾)에서 4년동안 난학을 배운 이후 에도와 나가사키에서 蘭學塾 안카이도(安懷堂) 등에서 8년간 서양의학과 네덜란드어를 습득하고 1838년 오사카로 돌아와 절음시절 스승의 학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데키주쿠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의사와 兵學, 本草, 化學 등과 관련한 네덜란드 문헌을 해독했다.

수학 방법은 경쟁에 입각하고 있었다. 외국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초급자부터 학력에 따라 10단계로 나누고 시험을 통해 성적을 기준을 진급하도록했다. 이러한 사숙에서의 교육은 네덜란드 원전을 직접 독해하고 이해하는 原典主義를 토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自學主義를 견지하면서 신분이나 선후배와 관계없이 철저한 자유경쟁을 강조했다.<sup>57)</sup>

요시다 쇼인은 2년 동안 쇼카손주쿠에서 막부말기 藩校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92명의 塾生 전수한 교육기관이다. 1830년 출생인 요시다 쇼인은 가학 교육을 받은 뒤 22세가 되는 1851년 洋學者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1854년 옥중에서 『맹자』 등을 독학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1857년 고향으로 돌아와 쇼카손주쿠의 主宰者가 되었다.<sup>58)</sup> 쇼카손주쿠는 그가 어린시절 공부한 家塾이기도 했다.

쇼카손주쿠의 교육은 정해진 인원, 수업과목, 통학 규칙, 신분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인간의 사고 방식에 있었는데, 각 지역의 숙생들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정세를 주목하면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일대일로 무릎을 맞대고 개별 지도를 실현했다. 교육 특징은 신분, 성별, 직업을 구분하지 않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으로 직업과 국가에 대한 관심 연결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어 실천을 목표로 실

55) 「兒童日課大略」(이우진, 앞의 논문, 2018, 43쪽 재인용).

56) 이견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데키주쿠(適塾)와 쇼카손주쿠(松下村塾)을 중심으로」, 『일어 일문학』 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57) 이견상, 앞의 논문, 2006, 5~6쪽.

58) 이견상, 앞의 논문, 2006, 8쪽.

용과 실리를 지향하고 있었다.<sup>59)</sup>

일본서원이 중국과 한국서원과 지니는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일본이 과거가 없고 무사와 서민의 고정적인 계급차이로 관료가 세습되는 특징에서 학교와 서원의 특징을 유발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 서원이 과거를 대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규정한데 따른 이해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사숙 중 中江藤樹의 藤樹書院, 橘木端山の 鳳鳴書院이 있지만 주자학과 양명학을 교육하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사숙을 서원으로 규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sup>60)</sup> 이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한국과 중국의 서원에 해당하는 개념이 일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우진은 일본의 서원과 관련하여 사숙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17세기 초기 사숙에서 강학과 제향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특징을 19세기 설립자의 공부론과 학규를 연결하여 양명학적 가르침에 따른 독창적 학규 마련 그리고 같은 19세기 신분제에서 벗어난 평등주의에 입각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서양의학 등을 가르치는 근대적인 교육기관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을 일본 서원의 특징으로 분석했다.<sup>61)</sup>

일본은 1862년(명치 5) ‘學制’ 반포를 계기로 전근대의 학교 藩校·郷校·塾·寺子室이 근대화 교육으로 전환했다. 봉건제도 각 藩의 지방분권에 맡겨져 있던 문교사업에 대해 중앙집권적으로 정리하고 무사와 서민에 대해 서구형의 근대화 교육을 실현했으며, 일본 교육이 전근대 서원적 성격의 기관이 근대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교육을 조화시키고 새로운 동아시아 교육’을 이루어 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sup>62)</sup>

#### 다. 베트남에서의 서원

베트남 역사에서 서원에 대한 한국의 연구성과는 미진하다.<sup>63)</sup> 18세기 후반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伊+瑩)의 福江書院의 사례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서원은 도서관의 의미로 제한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 서원의 본래 기능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베트남 역사에서 현존하는 자료를 근거로 할 때, 爛柯書院, 崇正書院, 복강서원 정도가 확

59) 이건상, 앞의 논문, 2006, 10쪽.

60)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63쪽.

61) 이우진, 앞의 논문, 2020, 152~154쪽.

62) 難波征男, 앞의 논문, 2007, 65~67쪽.

63) 이하의 서술은 이우진(앞의 논문, 2020)의 논문을 정리하였다. 그는 응우옌 쿠안 쿠옹(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인되며,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학교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난가서원은 췌(陣)왕조(1226~1400)에서 건립한 서원으로 유학자 췌통(陣統)을 원장으로 명명하여 생도를 가르치게 하고 왕도 서원을 방문하기도 한 대표적 서원이다. 이 부분에서 베트남 서원도 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베트남 서원 사례는 승정서원과 북강서원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떠이선(西山) 왕조(1778~1802)의 광중(光中)황제가 설치한 서원이 승정서원이다. 황제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응우옌 띠엡(阮沔, 1723~1824)을 위해 그가 은퇴한 지역 ‘응헤 안’에 승정서원을 건립했다. 응우옌 띠엡 생시에 그를 원장으로 임명하고 서원을 건립한 결과였다. 서원은 유교경전들을 쯔놈(字喃)으로 번역하고 인쇄하여 배포하여 베트남에서 유교를 확산하는 거점이 되었다. 여기에는 광중황제가 응헤 안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 서원이 떠이선 왕조의 중앙서원으로 기능한 데에도 요인이 있었다.

북강서원의 사례이다. 이 서원은 북베트남이 아닌 지방의 외진지역 응허 툰 지역을 대표하는 사설 교육 기관으로 베트남의 대표적 사례이다. 서원 건립의 배경은 서원 설립자 응우옌 후이 오한이 북경에 사신으로 악록서원 등을 방문한 경험이 작용했다. 그는 악록서원 건립과 육성에 기여한 인물을 배향한 육군자사(六君子祠)에서 서원교육과 향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국 후 이를 모델로 자신의 서원 건립을 시도했다. 이를 위한 토대는 그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던 사설 학교였으며, 그는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여 1732년 학교를 개설하고 후에 북강서원으로 확장했다.

북강서원은 운영면에 있어서 조선서원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응우옌 후이 오한은 아버지가 건립한 사설 학교의 제도를 계승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설 학교로 수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자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료 지원을 위해 書院學田에 해당하는 ‘科名田’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를 계승하여 북강서원 학생들을 위해 ‘一等田’을 마련하고 부친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계승했다. 서원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 문중서원의 면모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서원은 응우옌 후이 오한 등의 개인 저술을 비롯하여 유교 경전들을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반질함으로서 ‘서원본’을 확산했다. 서원전 운영, 문중서원의 성격 그리고 도서출간은 조선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규에 있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강서원은 1767년 응우옌 후이 호안에 의해 「북강서원규례」를 독자적으로 마련했다.

- ① 교육 시작 의례
- ② 졸업자 및 모범자 축하례
- ③ 연간 서원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 규정
- ④ 학생의 도덕적 요구
- ⑤ 유학에서 찾은 교육 및 도덕관련 격언

이 원규는 일본과 한국의 서원에서 「백록동규」를 지역화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내용적으로는 「백록동규」와 완전히 벗어나면서 베트남의 독자성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규 외에도 서원의 기능에 있어 차별성도 있다. 베트남은 스승의 가르침을 천착하는 ‘師法’ 사상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서원에서도 유교경전의 탐구 보다 과거를 위한 지식 제공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급제자를 배출했다. 이와 같은 학규에서의 토착화는 베트남의 학문 분위기 그와 연계한 서원활동의 방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강조되면서 베트남에서는 서원을 ‘존현과 강학을 위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거의 정의하지 않으면서 중국이나 한국의 서원처럼 전국적 확산과 영향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 II. 조선시대 서원활동의 다양성

### 가. 사회적 공유자산,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알려진 바와 같이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1543년(중종 38) 처음 건립했을 때에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다. 그는 고려시대 성리학을 공부했던 선배인 안향(安珦, 1243~1306)의 고향에 그를 흠모하는 공부방 개설을 결심했다. 서원의 이름은 거북했다. 주희(朱熹, 1130~1200)가 정리한 학문의 요체인 성리학, 즉 주자학을 공부의 지향점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것은 주희의 공부 행적 중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당나라 때부터 대표적인 과거 합숙학교였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중흥한 것이었다.

서원운영은 결의에 바탕하고 있었으며, 서원 기금 운영이 그 출발이었다. 소수서원의 운영은 설립초기에 그러하듯이 원장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장은 독단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유생의 중의를 수렴한 집단 의사결정의 의장이었을 분이었다. 이러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서원의 중요한 기금 중 하나인 곡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생들의 여러 결의 내용을 반영한 완의 혹은 입의이다. 1582년 2월에는 서원의 보곡의 이자율 조정을 위한 입의(立議)가 있었다.

이웃 고을 보조(寶租) 이자는 모두 1말에 석 되를 취하는데, 우리 고을 서원에서만 유독 다섯 되를 취하니 실로 온당하지 못하다. 상의하여 결정하는 바로서, 앞으로는 다른 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1말에 석 되의 이자를 취하도록 한다(『운원잡록(雲院雜錄)』에 수록된 1582년 2월 27일 입의 중에서).

백운동서원 건립당시부터 적용되어 오던 서원 곡물에 대한 대여와 이에 대한 이자율의

문제를 조정 하도록 결의한 내용이다. 당시의 시세에 맞춘 보조의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서원 운영을 도모했다. 1629년 ‘사림입의(士林立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에 의하면 보곡을 받아먹고 갚지 않은 사람은 서원의 재정을 운영하는 유사를 임용하지 말도록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서원 5~7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도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 본다면 서원의 공동재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서원 경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원 인근에 살면서 서원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와 검증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1637년 보미의 운영과 관련한 유동적인 운영 결정을 결의한 입의에는 집단경영으로서의 서원운영의 실태를 보여준다.

원중의 보미 원수 30석 내에서 28석을 의량(義糧)으로 지출한 뒤에 쓸 것이 부족하므로 무명 10필로 쌀을 사들여 유생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축년 9월 초2일. 전 현감 안(安), 박사 황(黃), 원장 남(南), 유생 권(權)·남(南)·진(秦)·곽(郭)·황(黃)·남(南)·남(南)·서(徐)·진(秦)·남(南)·안(安)·황(黃)·권(權)·진(秦)·황(黃)(『잡록(雜錄)』 1637년 9월 2일 원중입의 중에서).

서원의 곡물 기금이 30석이었으며, 이들 중 절대다수를 용처를 알 수 없는 특별한 용도로 지출함에 따라 재원 운영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의 독단이 아닌 원장을 비롯한 18명에 이르는 유생, 즉 사문(斯文)의 결의에 의해 경영 방침이 결정되고 있었다. 서원의 곡물이 부족하므로 다른 자산으로 당시 화폐의 가치를 지니고 있던 면포를 이용해 유생들의 공부를 지원할 음식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서원 건립초기 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었으나 이러한 기금의 관리는 서원 관계자 중의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원 운영을 위한 핵심 자산인 학전(學田) 수호노력을 함께 경주했다. 17세기 이후 서원의 경영을 위해서는 노비보다 점차 토지에 대한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서원의 곡물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서원 운영 기금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원전으로도 일컬어지는 이 토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 또한 유생 혹은 사문과의 결의로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

원둔전(院屯田)을 서원 유생이 혹시라도 억눌러 감하는 일이 있거나 수직하는 이가 제멋대로 경작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이를 범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만력(萬曆) 42년 정월 일. 안(安)·안(安)·곽(郭)·권(權)·곽(郭)·황(黃)·황(黃)·황(黃)·황(黃)·곽(郭)·김(金)·김(金)·곽(郭)·곽(郭)·김(金)(『운원잡록』중 1614년 정월 원중입의(院中立議) 중에서).



서원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관청에 세금을 면제받아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운영 지침이었다. 서원소유의 토지에 대해 어느덧 시간이 흐르자 서원의 유생이 임의로 경작하면서 관련한 비용을 납입하지 않거나 운영진 중 누군가가 사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서서히 대두하기 시작했다. 경상도 현풍의 도동서원 사례에서 보듯이 이 시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원의 사문 15명이 결의한 ‘원중입의’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적용은 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사 등이 담당하도록 했다.

서원 운영은 특정 가문이나 인물이 독단으로 진행하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의 형식을 취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원에 대한 통제 논의가 촉발 되면서 15세기 초기 서원의 입지에 해당하는 국가의 지원은 축소되는 경향이였다. 이와 더불어 서원 내부에 있어서도 정치 세력의 기반으로 변화 하거나 문중 서원의 대두로 인해 전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때 소수서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변화가 모색되었다.

서원의 범사가 근래에 더없이 허술하다. 앞으로는 매월 말에 원장과 별유사 3인이 모여 일일이 점검하여 한 달의 회계를 분명하게 하여 유실이 없게 한다. 본원 장리(長利) 곡식을 분급할 때에 서원 하인이 받아가고 한 되도 고을의 유생이나 품관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한다. 이 입의를 어길 때에는 사람이 서원 유사 3인을 퇴출시킨다(『잡록』의 1662년 12월 22일 입의 중에서).

서원 경영을 둘러싼 변화가 위기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장과 별유사에 의한 보다 조밀한 경영의 점검이 요구되었다. 이로서 회계의 엄격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서원 곡물을 이용한 이자 증식의 범주를 서원과 관련한 하층인들에게 집중되었다. 여기에는 유생이나 양반가에서 빌려간 후 이자는 물론 원곡도 갚지 않음에 따라 서원의 회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할 경우 유사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결의가 명기되었다.

이 서원의 재정이 풍족하고 부족하게 되는 것은 상유사(上有司)의 능력에 달려있어 그 소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근래에 법이 오래 되면서 폐단이 생겨 고을 내외 사람이 뒤섞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고을 내에 있는 자에게 이 소임을 맡기면 임무를 살피지 않는 것을 보통 일로 여긴다. 상유사를 둔 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한 것이겠는가. 앞으로는 일체 고을 내에서 의망하여 뽑고, 뽑은 뒤에 전과 같이 단자를 올려 체임을 도모하는 자가 있으면 향당에 통문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잡록』의 1693년 4월 당중완의(堂中完議) 중에서).

17세기 말 서원 운영은 원장을 정점으로 하던 초기 양상과는 달리하고 있었다. 경영의 측면은 원장보다 여러 유사들을 총괄하는 상유사에 일임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물며, 서원 경영에 관여하는 인사는 백운동서원 건립당시부터 서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항상 서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말 상유사가 순흥 고을 사람이 아닌 사람도 관여하게 되면서 이른바 책임경영을 위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원의 사문들은 모여서 서원 경영을 책임질 상유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서원 유생의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었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원 본연의 기능이 축소됨과 동시에 경제적인 경영에도 심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었다. 서원 건립 확립된 학규가 여러번 개정 된 것은 물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원규마저도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었다.

서원 중흥을 꿈꾸었던 구성원들은 다시금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강학을 위한 재원을 새로이 설정했다. 그러나 그들도 직접 토로하고 있듯이 예전과 같은 경제적 기반도 기반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원생들의 확보와 강학 열기는 더 이상 보장하기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새로이 마련한 재원마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더불어 서원에서 200년이 넘도록 고수해온 학전이 예전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한계였다. 토지도 관리되지 못해 척박해지는 것은 물론 인근의 양반들이 서원의 토지를 침탈하여 서원의 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완의에 새로이 마련한 원규를 엄격히 지킬 것과 이를 준수하지 못한 담당자들에 대한 엄벌을 부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하기마저 하다.

18세기 말부터 서원에 향사되던 인물의 후손 및 그와 관련한 특정 문중의 인사들이 서원의 경영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도산서원에서 마저도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서원은 끝까지 특정 문중인사가 아닌 서원인근을 비롯한 순흥의 선비가 후손들, 즉 건립 및 운영에 관여했던 복잡한 이해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 나. 현실학문을 위한 도량, 도산서원

이황이 신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서당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실행에 옮길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어쩌면 일생동안 학자로서 자기를 수양하면서 꿈꾸었던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궁극의 목표는 바로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길러내겠다는데 있었을 것이다.

恒産과 恒心의 治産理財를 통한 교육 실현공간이 서원이었다. 육영사업은 사회적 환원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황은 이를 위한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손자 이안도(李安道, 1541~1584)를 비롯한 손자녀들

이 조상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서에는 이황 당시의 재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 이황의 종가에는 남자중 203명과 여자중 164명으로 모두 367명을 비롯하여 논이 77석에 밭이 119석으로 토지가 196석에 달했다. 노비의 숫자도 적지 않지만, 토지의 규모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10만평 정도가 된다.

이황은 할아버지로부터 전수 받은 이러한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으로 증식할 수 있었다. 그가 도산서당(陶山書堂) 일대에 여러 차례 주택을 옮겨 짓고 또 여러 정자 등의 건물을 지은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항심(恒心)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넉넉한 재산인 향산(恒産)에 있었다. 그 결정적 기여가 바로 할아버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녀교육의 요체인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어머니의 정보력’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이황에게는 있었다.

물론, 그가 남 다른 점은 자신이 이룩한 학문적 성취와 풍요로운 삶을 자신만을 위한 영광으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바로 사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여와 환원이다. 그의 지는 ‘도산서당’의 건립이며, 그 유훈을 이은 ‘도산서원’의 운영이었다.

도산서원의 출발이 이황이 직접 배산임수의 명승을 가려 뽑아 신축한 도산서당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출발은 1561년 이황이 61세 되던 해로서, 그가 30대의 관직생활, 40대 이후 학문 몰두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비로소 후학 양성의 설계를 실천에 옮긴 순간이었다.

이황은 ‘소박’한 3칸짜리 서당을 짓고 곧 이어 그 곁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배치했다. 건물을 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역사였다. 여기에는 비단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뿐만 아니라 장인의 동원과 지원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것을 이황이 주관하여 달성했다는 것은 그의 학문적 재능과 향산적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그가 학문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밝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황은 서원에서 구성원 사이의 조화롭고 서로 존중하는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 즉 반상의 구분이 엄격하여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학생이 교직원-상유사는 제외하고-에 대해 항상 갑(甲)의 지위에 있었다. 서당과 서원에 출입하는 학생은 바로 지역 유지의 고명한 아들이었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도량인 서원에서 만든 상호 존중을 실현하고자 했다. 공부하는 학생이 교직원에 대해, 그리고 교직원은 학생에 대해 서로 예의로서 존중하라는 파격적인 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황이 서원 건립에 아주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본인도 서당을 건립하고 운영하여 후진 양상에 매진한 것은 후학들에게 깊은 암시이자 과제로 다가왔다. 이황의 도산서당을 서원으로 승격시켜 국가공인 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황이 기대했던 시대를 이

끌어갈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16세기 서원 건립은 이제 국가와 지역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특히 이황의 후학들은 선생이 남긴 유지를 확고하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원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서원의 살림살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도산서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1570년(선조 3) 이황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남긴 유업인 ‘도산서당’은 ‘도산서원’으로 승격되었다. 후학들은 19세기 후반 서당에서 서원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했다. 여기에는 서원이 정착하기 전까지 국가와 조정의 기부를 통한 후원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570년(선조 3)에 앞 시대의 현인이 돌아가시고 1574년(선조 7) 봄에 사람들은 그 터를 쫓아 서원을 건립하였으나 미처 신주를 모시지는 못했다. 1575년(선조 8) 여름에 왕의 특명으로 서원에 편액이 내려지고 제사를 지냈다. 1576년(선조 9) 2월에 위패를 받들어 모셨다. (중간생략) 이 해에 제사에 쓰는 술 향아리 한 개, 『춘추(春秋)』 10책, 『오경백편(五經百篇)』, 『정충록(精忠錄)』 등의 책을 하사 하시고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 주셨다. (1868년 『도산서원사적』 중)

이황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하기 위해 서원 건립을 기획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상도 안동과 예안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유력하고 뜻 있는 선비들이 서원 건립에 참여하고 4년의 역사 뒤 1574년(선조 7)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사액을 받은 뒤 선조로부터 여러 하사품을 받았다. 도산서원이 이황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그의 공부를 ‘따라 배우는’ 공간이라는 점이 하사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선조는 제기를 비롯해 공부를 위한 교재를 도산서원에 내렸다.

조정의 하사 중 가장 핵심은 서원 운영 재원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서원의 운영을 위한 토지와 노비의 하사가 있었음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액되는 서원에는 여러 특전이 내려졌다. 서원에 소속된 평민 학생들에게는 각종 세금과 군대복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7명의 노비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서원의 발전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서원전(書院田)’이라 이름하고 3결(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1결의 면적에 대해서는 생산량이나 측량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여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5,000평 정도로 본다면 15,000평 정도의 토지에 대해 면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도산서원은 당연히 3결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혜택이 바로 조정으로 부터의 후언이었다.

도산서원을 건립하고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선비들의 재정적 기부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황이 적극 후원했던 경상

도 영천의 임고서원(臨臯書院) 건립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방의 선비들이 자원과 재원을 각출하고는 선현을 배우고자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서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전(學田)과 노비를 모두 백운동서원의 전례에 따라서 요청했습니다. 그것으로 서원을 지키고 보호하며 여러 지출을 하도록 해서 학교를 보충하려는 뜻이 충분히 가늠함이 있습니다. (『명종실록』의 1554년 6월 14일 자 기사 중에서)

임고서원 건립 과정에서 김응생(金應生, 1496~1555), 정윤량(鄭允良, 1515~1580), 노수(盧遂, 1515~1584)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선비들의 협업이 있었다. 그들은 서원 건립과정에서 재원을 각출하여 완성했다. 그리고 서원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고자 토지와 노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원 건물을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나라의 공인을 상징 하는 ‘사액’을 위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17세기 중엽 울산의 구강서원(龜江書院)의 경우에는 건축에 대략 7,500냥이 소요되었고 사액을 받기위한 시도에 900냥 정도 지출되었다. 공사 책임자인 도목수(都木手)의 3년 임금이 30냥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도산서원의 건립과 사액과정에 많은 선비들의 동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황과 제자사이에 형성된 일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산서당 인근에 있던 ‘역락서재(亦樂書齋)’는 기부에 의해 건립된 것이었다.

부친(鄭科)께서 선생님(鄭士誠)을 위하여 도산에 조그만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셨다. 선생(李滉)께서 그 집의 이름을 ‘동몽(童蒙)’이라 지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공부방을 지었으니 학문을 구하는 뜻이 칭찬 할만하다. 그러니 너는 모름지기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사성의 문집 『지헌집(芝軒集)』 중에서)

1564년 건립된 역락서재에는 관련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정사성의 아버지 정두는 이황에게 아들을 서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자 이황은 공부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마땅히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황의 뜻에 따라 정두는 아들과 다른 학생들의 공부 편의를 위해 서재를 지어 이황에 뜻에 부응했던 것이다. 사실 이 서재의 건립은 어느 한 사람의 재원과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황상 여러 독지가들의 협업에 의한 것이었음이 알려져 있다.

서당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공조는 이 시기의 미담으로 대대로 전수되었다. 이러한 전통의 창출은 결국 서당뿐만 아니라 서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승되어 예안뿐만 아니라 안동일대의 이름난 선비는 물론 이황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독지가들의 기부가 잇따랐다.

#### 다. 정치적 상징 활동 공간, 신향서원

서원이 정치 활동의 수단과 배경이 되기도 했다.<sup>64)</sup> 송상현이 동래부사로 전사한 뒤 청주에 묻히고 충렬사에 향사하면서 그의 자손들은 청주의 사족 일원으로 활동했다. 임란이 종결된 17세기 이후 송상현을 추모하고 그를 향사하는 움직임이 그와 그의 가계 인물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여기에는 그의 죽음이 순절로 평가되고 그를 충절의 상징으로 전통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고 여기에 신향서원이 관련되어 있었다.

17세기 초 송상현 가계는 청주를 지역기반으로 하면서 안동김씨, 청주한씨 등 서인세력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뒷받침할 성혼을 중심으로 한 송상인의 학통 및 정치적 함의도 반정세력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조조에는 송상현에 대한 추숭이 본격화 했다. 인조반정 직후 1624년(인조 2) 동래에 忠烈祠에 대한 사액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송상현에 대한 적극적인 恤典이 검토되었다.<sup>65)</sup> 송상현에 대한 추모와 추숭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인세력에 의해 현실화 하고 있었다. 이제 청주에 세거하고 있던 송상현의 후손들은 지역의 사족, 특히 노론 성향 사족들과 연대를 통해 송상현에 대한 추숭과 서원 향사 실현을 도모했다.

17세기 중엽 산림 宋時烈(1607~1689)의 후원으로 1650년(효종 1) 송상현이 有定書院에 追享되는 것은 물론 이 서원은 후일 莘巷書院으로 사액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출발은 효종의 즉위 이후부터 본격화 했다. 1653년(효종 4) 송상현에게 贈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1657년(효종 8) 비로소 그에게 ‘忠烈’의 시호가 내려졌다.<sup>66)</sup> 뿐만 아니라 응교 趙復陽(1609~1671)의 건의에 따라 1658년(효종 9) 효종은 송상현의 충절을 상징하는 묘표석을 세우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효종의 행장에도 비중 있게 언급되었다.<sup>67)</sup> 그리고 1660년(현종 1) 현종의 즉위와 함께 유정서원이 신향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송상현에 대한 추모와 추숭 움직임은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유정서원에서 시작했다.

1650년(효종 1) 송상현을 신향서원에 추향하고 서원에서의 입지를 강화한 인물은 宋浚吉(1606~1672)과 송시열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그의 종증조부 송인수를 향사하는 유정서원에 송상현을 추향하고, 사액서원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송상현에 대한 절의의 가치 증대를 도모했다. 1650년(효종 1) 유정서원에 송상현을 추향하는 통문은 송준길이 청주목사를 대신하여 지었으며, 이 글에 그의 송상현에 대한 평가와 추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64) 정수환,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송상현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9, 2019, 韓國書院學會

65) 『인조실록』권7, 인조 2년 10월 계묘; 『인조실록』권15, 인조 5년 3월 계유.

66) 『효종실록』권10, 효종 4년 3월 경오; 『효종실록』권19, 효종 8년 11월 임인. 시호 ‘忠烈’에 대한 諡註는 “危身奉上忠, 剛克爲伐烈”이다(『忠烈祠志』卷1, 議諡).

67) 『효종실록』권20, 효종 9년 6월 무진; 『효종실록』권1,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송준길은 송상현을 유정서원에 추향하고 봉안례를 알리는 이 통문에서 청주 사림의 공의에 따라 시행된 당연한 귀결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송상현이 전란 중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의리를 지킨 무거운 공이 있음을 강조한 뒤, 이는 곧 백세의 사표로 의미를 부여했다. 송준길의 송상현에 대한 평가는 결국 “精忠大節”과 “師表百世”로 요약되었다.

효종조 중앙정계의 비중이 상승한 송시열과 송준길이 1654년(효종 5년) 유정서원에 대한 사액을 추진하면서 청주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다가 1660년(현종 1) 사액이 달성되자 이이에 대한 향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대의 서인세력과 남인·소론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sup>6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준길과 송시열은 중앙정계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송상현에 대한 추숭을 멈추지 않았다.

현종은 신항서원을 사액할 당시 서원에 내린 치제문에서 서원 향사 인물들과 관련한 치제의 취지를 “尊道尙賢 王政之大, 表忠旌孝 民彝是楷”로 밝힘으로써 송상현의 충효를 암시했다.<sup>69)</sup> 그리고 송상현을 치제했다.

위태로움에 처하여 절의를 지켜 깨끗이 정도를 지키고, 조용히 칼날을 받아 이 의로운 목숨을 편안히 하였으니 이 風聲이 미치는 곳에 누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리오.<sup>70)</sup>

신항서원 사액의 명분과 관련하여 목숨으로 절의를 지킨 송상현을 형상화 하고 있었다. 사액 후에도 1665년(현종 6) 송준길의 건의에 따라 기묘·을사사화에 연루된 명현 김정과 송인수를 송상현과 함께 치제하기도 했다.<sup>71)</sup>

청주 지역과 중앙 정계의 동향과의 관련 속에서 신항서원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은 확대하고 있었으며, 송상현에 대한 추숭도 그 궤와 함께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1673년(현종 14) 4월 신항서원을 중수할 때 기문을 통해 향사 인물들의 “精忠高節 震耀今昔”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송상현을 忠節로 묘사했다.<sup>72)</sup> 뿐만 아니라 金壽恒(1629~1689)은 신항서원이 사액된 뒤 이견할 때 지은 상량문에서 송상현에 대해 “泉谷之殉節 可與日月而爭光 君臣父子之間 判輕重於恩義”라고 평가하면서 순절과 의리를 강조했다.<sup>73)</sup> 효종조 착수한 송상현에 대한 충절의 평가는 현종조 순절로 귀결되어 정리되었으며, 그 배경에 송시열이 있었다.

송상현 현창의 배경은 17세기라는 시대적 배경도 작용했다. 17세기는 왜란 이후 사회적 혼란과 두 번의 호란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17세기 중반 대외정세의 불확실성과 도적 창궐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이어 17세기 말 대기근으로 불안 요소가 끊이지 않았다.<sup>74)</sup> 이

68) 李政祐, 앞의 논문, pp.101~102.

69) 『莘巷書院誌』, 「懸鍾朝御製 賜額莘巷書院致祭文」.

70) 『泉谷先生文集』卷2, 「顯廟庚子 賜額莘巷書院文(尹鏞製進)」.

71) 『현종개수실록』권13, 현종 6년 5월 임인.

72) 宋時烈, 『宋子大全』卷143, 記一清州莘巷書院重修記.

73) 金壽恒, 『文谷集』권25, 上梁文一莘巷書院重建上梁文.

74) 정수환, 「17세기 경주 국당리(菊堂里) 동계(洞契)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42-4, 2019, pp.46~

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이른바 北伐을 통해 사회를 결속시키고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 했던 송시열에게는 송상현이 필요했다. 이 시기 정몽주에 대한 의리를 주도한 점도 충효 가치를 점유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었다.<sup>75)</sup> 따라서 송준길과 송시열은 17세기 중엽 이른바 북벌의 분위기 속에서 송상현과 같은 충절인사의 발굴과 현창을 지속했다.<sup>76)</sup> 서원향사를 통한 추모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한 형성화와 의미 부여도 동시에 진행했다. 송준길은 1650년(효종 1) 신항서원 사액에서 향중에 보낸 통문의 내용에 송상현의 행적 중 ‘충’을 우위에 둔 ‘효’의 실천과 관련 한 행적을 언급했다. 송준길의 이러한 입장과 행보의 이면에는 역시 송시열이 있었다.

송시열은 행장을 통해 전란당시 송상현의 행적을 1655년(효종 6)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1657년(효종 8) 송상현 신도비명에도 그대로 전개했다.<sup>77)</sup> 송시열이 정리한 송상현의 행적 내용은 서인들에 의해 1657년(효종 8) 완성한 『선조수정실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sup>78)</sup> 송시열은 송상현의 최후에 대한 서사를 다섯 주제로 분류하였다. 전쟁 초기 그의 전사와 행적에 대한 논란을 모두 일소한 정리된 입장을 기초로 하면서 몇 가지 추가된 사실을 포함하였다. 류성룡이 서술했던 ‘死守’의 모습과는 다른 ‘충절’을 향한 죽음, 즉 순절을 암시했다. 즉, 송시열이 서술한 송상현의 행적은 전란 초기 단순한 죽음 묘사와는 상이하며, 인조조 이래 절의로 평가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송준길도 강조한 사실과 동일하게 “君臣義重 父子恩經”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송시열이 형상화 한 송상현은 의리의 상징으로 이를 선점한 노론의 정치적 성취였다. 송시열은 새로운 ‘忠臣’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이제 송상현은 17세기적 충신, 즉 국가적 위기에 부모에 대한 효 보다는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인간상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17세기 중엽 이미 정몽주 등으로 상징되는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에 대한 추숭작업의 연장선에서 송상현을 새로운 의리의 인물로 승화시키는 데 있었다. 즉, 17세기 중엽 북벌이라는 정치적 명분 속에 사회적으로 송상현의 죽음을 순절로 평가하고 그의 의리가 바로 충에 있음을 강조한 결과로 송시열은 정치적 명분과 의리를 모두 취하고자 했다.

48.

75) 정몽주 종가의 계후와 관련해서도 17세기 중반 송시열은 정몽주의 의리를 강조하고 현창했다(김학수,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圃隱學研究』10, 2012, pp.224~228).

76) 송시열이 송상현을 위해 지은 묘갈명은 북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임란당시 목숨을 바친 인물들을 칭송하면서 忠君愛國정신을 강조했다(趙赫相,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東方漢文學』60, 東方漢文學會, 2014, p.153). 송시열은 효종조 동안 존주론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북벌론을 거듭 전개했다(李迎春, 「尤庵 宋時烈의 尊周思想」, 『淸溪史學』2, 1985, pp.151~152; 李京燦,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5, 1988, pp.244~246).

77) 『忠烈祠志』卷1, 「東萊府使贈吏曹判書泉谷宋先生行狀(宋時烈)」; 宋時烈, 『宋子大全』159, 碑—泉谷宋公神道碑銘 并序. 신도비명은 1657년(효종 8)에 지었으나 신도비 건립은 1661년(현종 2) 실행했다.

78)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계묘.



## 라. 이념과 경영의 연결, 도동서원

도동서원 ‘중정당’에 담긴 성리학적 가치는 학문과 경영에 반영되었다.<sup>79)</sup> 도동서원 강당은 ‘中正堂’이다. 서원을 설계하고 ‘중정당’을 기획한 인물은 鄭述(1543~1620)이다. 그가 金宏弼(1454~1504)을 주향으로 1605년(선조 38) 도동서원을 건립한 것은 바로 李滉(1501~1570)의 유지를 계승한 것이었다.<sup>80)</sup> 정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 사액 글씨를 이황의 필적을 집자해 완성했다. 따라서 ‘중정당’은 도동서원이 지양하는 공부의 방향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정’은 비단 공부뿐만 아니라 서원 경영에까지 확대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정’은 『中庸』에서 ‘敬’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다.<sup>81)</sup> ‘齊莊中正’, 즉 ‘중정’은 ‘敬’의 가치와 연결된다. 따라서 서원 강당 ‘중정당’에 새겨진 ‘중정’은 곧 ‘경’을 의미한다. 정구가 도동서원을 건립한 철학적 배경과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중용』에서 ‘중정’은 ‘時中’과 연관되어 있다.<sup>82)</sup> ‘시중’은 때에 알맞게, 그리고 균형 있게 상황에 맞추는 자세로 해석되면서 실천함에 있어서의 상황성(Situationality)을 강조했다.<sup>83)</sup> 정구가 제시한 서원의 지향점은 ‘中正’에 있었다. 『중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도동서원의 강학과 운영이 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中正’은 서원이 지양하는 공부와 경영의 지침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잡물의 전장과 서원 운영에서의 중정의 가치를 적용했다. 현풍 도동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재정 및 물력의 운영 실태를 수록한 대표적 기록 자료는 『雜物傳掌記』이다. 『잡물전장기』는 1693년(숙종 19)부터 1752년(영조 28)에 이르는 120년 동안 서원의 재물과 재산 현황에 대한 傳與와 傳受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sup>84)</sup> 『전장기』는 1678년(숙종 4) 3월 26일은 정구가 도동서원에 중향된 이후 기록이다.<sup>85)</sup> 따라서 『전장기』는 정구에 의해 설계된 도동서원과 운영의 방향인 ‘중정’의 가치가 정착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79) 조선 중기 도동서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특징은 정수환(앞의 글)의 논고를 다시 정리한 결과이다.

80) 鄭述, 『寒岡先生續集』 권2, 雜著-書道東書院額板下. 정구는 이황의 서원 건립 운동에 부응하여 도동서원 院規를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考凜會討’ 등에 대해서는 盧慶麟이 제정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鄭述,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院規爲道東作).

81) 『中庸』第39章; 李基東, 『大學·中庸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8, 212쪽; Legge, James. (1966) *The Four Books—Confucian Analects, The Great Learning, The Doctrine of the Mean, and The Works of Mencius*,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pp. 418~419.

82) 『中庸』第2章; 李基東, 앞의 책, 102쪽; Gardner, Daniel K. (2007) *The Four Books—The Basic Teachings of the Later Confucian Tradition*,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p.113.

83) ibid, p.113.

84) 『잡물전장기』와 별도로 甲戌~癸巳年 전여기록을 수록한 『典穀有司 傳掌記』가 있다. 이 자료는 전국 유사가 별도로 『전장기』를 작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85)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11월 기묘; 『奉安時諸執事分定記』, 文穆公寒岡鄭先生奉安時諸執事分定記(戊午3월 26일). 정구 봉안 당시 초헌은 유학 金處中이었으며, 郭壽漢은 司尊으로 참여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는 서원 경영에서 위기의 시기였다. 18세기를 즈음하여 국가의 서원에 대한 재정의 지원은 ‘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또 서원이 토지와 노동력을 목적으로 민생을 침탈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1703년(숙종 29)을 계기로 이전의 서원 장려책은 통제책으로 전환되었으며, 1714년(숙종 40)의 私建書院에 대한 훼손 시도에 이어 1741년(영조 17)에도 훼손이 다시 추진됨으로써 서원에 대한 통제와 훼손 정책이 유지되고 있었다.<sup>86)</sup> 그리고 서원에 지원해 주던 면세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사액서원에 한해 3結로 한정된 것도 이 시기였다.<sup>87)</sup> 따라서 18세기 전반은 서원이 濫說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서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통제되던 시기였으며, 도동서원도 경영에 있어 일대 전환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잡물전장기』를 토대로 17~18세기 서원 경영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장기』 중 17세기 말 기록은 각종 제기와 집물을 기록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원에서 파악한 전답 현황을 포괄하였다. 17세기 말 『전장기』 기록 항목은 祭器, 沙祭器 그리고 田畝에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1693년(숙종 19) 기록에는 神廚에 소장된 제기를 비롯하여 묘제 때 소용되는 沙祭器, 그리고 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토지 현황이 ‘田畝’ 조항으로 수록되었다.<sup>88)</sup> 그러나 이러한 항목 분류는 1695년(숙종 21)~1697년(숙종 23) 사이의 전여기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단지 기존 기록항목을 준수하되, 수록된 내용은 기명의 破毀, 遺失 그리고 新備로 인한 수량의 변화와 같은 부분으로 간소화 되었다.

18세기 초 『전장기』는 유사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했다. 기존 전여에서 유사는 姓만 쓰고 署押했다. 그러나 1698년(숙종 24)부터 전여와 전수에 참여한 담당 유사들은 모두 성은 물론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압을 했다. 전여와 전수 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다. 『전장기』 기록이 세분화 되었다. 기록 항목은 17세기 말의 3개에서 1698년(숙종 24)~1730년(영조 6) 사이 7개로 증가했다. 1698년(숙종 24) 확립된 5개의 전여 항목은 1713년(숙종 38)까지 준수 되었다.<sup>89)</sup> 그리고 田畝와 新備 항목을 추가했다. 1716년(숙종 42) 이후에는 田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田畝’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1730년(영조 6)에는 서원에서 새로 마련한 집물에 대해 ‘新備’로 항목을 새로 설정했다.

18세기 중엽에 실시된 전여에서는 傳掌 내용 정비와 항목의 체계화가 강조되었다. 『전장

86) 鄭萬祚, 앞의 책, 253~267쪽. 1717년(숙종 43) 경상도의 80여개 서원을 대상으로 훼손 논의가 있었다.

87) 『續大典』 戶典, 學田條.

88) 『잡물전장기』의 전반부는 결락되어 있으나, 1698년의 전여 기록과 대조하였을 경우 神廚에 소장되어 있는 제기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추론된다.

89) 1698년과 1700년은 ‘祭器 神廚所藏’에 대해 間行法만 적용하였으며, 1705년과 1707년은 ‘田畝’만 제외하고 일제히 격자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1711년은 일괄 격자법을 적용한 데 반해 1712년과 1713년은 ‘沙祭器’에 대해서만 間行法으로 기재하였다.

기』의 전여에 있어서의 적시성과 정확성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 1738년(영조 14) 6월 25일의 『전장기』 기록에는 이러한 문제가 명시되었다.

임원이 다만 종이위의 문서만으로 傳與하고 실재 수량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비로소 어떤 것은 앞서 잃어 버렸던 것을 찾아내어 손에 넣고 설명을 기록하고, 혹은 잡물을 새로이 갖추고 그 나머지를 요약해서 기록했다. 문서 중에 앞서 잃어버려 지금 없는 것은 다시 기록하지 않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을 구별하고 가려 적어서 傳掌한다.<sup>90)</sup>

도동서원에서는 1730년(영조 6) 이후 전여가 엄밀하지 못했던 상황을 소상하게 밝혔다. 『전장기』에서 1730년 4월 1일 전여와 전수가 있는 후 8년이 지난 1738년에야 전장 기록이 확인되는 점은 인용문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sup>91)</sup> 18세기 중엽 『전장기』의 전장 항목은 3부분으로 체계화되어 정리되었다. 1738년 전장에는 ‘講堂雜物’과 ‘藏中雜物’의 두 항목이 추가 되고 기존의 ‘전답’은 제외되었으며, 이 기준은 이후의 전장에 적용되었다. ‘전답’에 대한 삭제는 18세기 전반에 이미 항목에 대한 구분은 사라지고 내용 서술만 잔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1738년(영조 14) 이후 도동서원의 토지경영과 관련해서 『잡물전장기』는 더 이상 중정한 경영의 가치를 투영할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道東書院田畝修正記』 기록으로 대체되었다. 서원은 원위전을 운영함에 있어 원임들의 관리 소홀로 토지의 소재와 수입현황 파악이 정확하지 않거나, 서원전이 隱占, 冒耕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되자 전답 대장을 작성하고 고을 수령의 踏印을 받기도 했다.<sup>92)</sup> 도동서원의 경우도 전장 과정에서 수노, 고직 등에 의한 私耕 현상이 18세기 초부터 대두되고 있었음을 『전장기』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시기 국가로부터 서원에 획급된 토지가 환속되거나 토지 획급이 제한되기 시작했다.<sup>93)</sup>

도동서원은 사액 받는 과정에서 향사자의 내·외손과 향촌사림의 공동협찬 및 관의 협조로 형성된 경제적 기반이 있었다.<sup>94)</sup> 사액서원의 회계구조는 서원이 재정 전반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이 원장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95)</sup> 도동서원 또한 1738년 현풍현감 조진태가 도동서원 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동서원은 토지에 대한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전환이 필요했다. 이러한 국가라는 외부로부터

90) 『雜物傳掌記』, 戊午 6月 25日 傳與傳受.

91) 물론, 1719년(숙종 45) 이후 1730년(영조 6)까지 10년 동안 전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도동서원 창건 이래 처음으로 1720년(숙종 46) 단일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역사가 시작되어 廟宇重修가 있었던 사실(李樹煥, 앞의 글, 2000, 124쪽.)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가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다고 본다.

92) 윤희면, 앞의 책, 525~526쪽.

93) 『書院謄錄』4, 경진 12월 2일; 『경종실록』권14, 경종 4년 3월 신축.

94) 李樹煥, 앞의 글, 2000, 122~123쪽.

95) 崔元奎, 앞의 글, 579쪽.

그리고 서원제정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로 부터의 중첩적이고 복잡한 현실 앞에 도동서원은 토지 관리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답수정기』를 작성하게 되었다.

#### 마. 사회의 일상 지식으로서 서원

선산지역의 서원현황과 이들 서원의 지식으로서의 기능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17세기 사찬읍지와 서원기록의 관련성이다. 『일선지』는 1630년대 까지 선산일대의 현황을 수록한 사찬 읍지이다. 이 읍지는 최현의 연보에 의하면 1618년(광해 10) 간행으로 밝히고 있으나 최현이 기존 서술내용을 저본으로 1630년대 중반까지 내용을 지속 보완한 결과물이었다.<sup>96)</sup> 읍지에는 금오서원과 월암서당을 수록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형원이 1656년(효종 7) 편찬한 『동국여지지』와 동일하다. 이 기록은 금오서원(남산서원)과 월암서당(월암서원)이 17세기 중반 선산지역 사림 강학의 중심지였던 사실과 당시 서원관련 지식과 상식의 범주를 보여준다. 17세기 기록을 토대로 두 서원의 건립과 이와 관련한 인물들의 활동을 정리 할 수 있다.

『일선지』에는 서원으로 금오서원만 수록하고 있다. 선산 지역의 선비들은 길재가 성리학 적 가치를 실현한 사문의 선현이며, 그의 유허가 남아 있는 선산은 도통의 위상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금오산에 사당을 갖춘 서원을 건립하여 의미를 강조할 필요성을 호소했다. 1572년(선조 5) 봄 길재를 위한 묘우를 건립하자 최응룡은 금오서원에 길재를 봉안하는 제문에 ‘덕현오향(德顯吾鄉)’의 명분을 살렸다고 강조했다.<sup>97)</sup> 금오서원의 사례는 서원유생이나 지방관의 요청을 받아 감사가 추진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고, 사액기준도 엄격하게 작용하고 정과 사이의 정치적 목적에 좌우되지 않았던 현실과 부합한다.<sup>98)</sup> 금오서원 건립 과정과 의미에 대한 기록은 ‘선산=길재=금오서원’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은 서원과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논리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주도권을 부여하고 지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국여지지』는 남산서원과 월암서당을 수록하고 있다. 유형원이 1656년(효종 7) 편찬할 당시 선산 지역 기술과 관련하여 『일선지』를 인용서목에 직접 인용하고 있어<sup>99)</sup> 『일선지』의 기록과 지식이 선산 외부에 공유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남산서원에 대해서는 선조 초년에 ‘사자(士子)’들이 길재가 말년을 보낸 곳에 서원을 건립하고 선조로부터 ‘금오서원’으로 사액받고 김종직, 정봉, 박영을 배향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00)</sup> 전란 뒤 금오서원을 이 건한 남산서

96) 박인호(2021), 『인재 최현』, 에드게이트, 83~87쪽.

97) 『一善志』 권1, 「秩祀第六」 金烏書院奉安祭文(崔應龍).

98) 李樹煥, 앞의 책, 30쪽.

99) 朴仁鎬(1989), 앞의 논문, 50~51쪽.

100) 『東國輿地志』 권4下, 「善山都護府」 學校書堂條.

원의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적었다. 월암서당은 인조 때 ‘읍인(邑人)’이 김주를 위해 내격묘를 세우고 뒤에 하위지, 이맹전을 병향한 다음 삼인묘로 개칭했다고 기록했다.<sup>101)</sup> 금오서원 건립은 ‘사자’들이 주도한 사실을 밝힘에 반해 월암서당은 ‘읍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서원건립은 향중 사림의 동의에 기반 했으며, 서당은 일부 읍인에 의한 활동임을 구분하고 있다. 설립주체를 ‘사자’와 ‘읍인’으로 구분하여 서원과 서당의 위상을 달리하여 정밀한 지식의 기록을 도모했다. 이러한 기록은 선산지역의 지식이 외부로 확산 및 유통하면서 일상지식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상을 반영하고 있다.

18~19세기 서원기록의 변화와 서원의 가치이다. 18세기 중엽 『여지도서』와 『연려실기술』에 수록한 선산부의 서원, 사우, 영당은 17세기 2개에서 5개로 증가했다. 『여지도서』는 단묘의 내용에 선산의 서원 기록을 수록했다. 금오서원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新增 尙賢廟. 선산부의 남쪽 5리 남산 남향에 있는데 바로 금오서원이다. 야은 길재, 점필재 김종직, 신당 정봉, 송당 박영, 여헌 장현광을 향사하고 있다. 만력 을해년(1575)에 사액되었다.<sup>102)</sup>

서원의 묘우와 더불어 영당의 위치 그리고 향사인과 사액연도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sup>103)</sup> 『여지도서』는 사액서원인 금오서원과 월암서원을 비롯하여 비 사액서원 낙봉서원과 무동서원 그리고 장현광의 영당 내용을 수록했다. 그리고 『연려실기술』은 서원과 영당에 대한 건립과 사액 사실 그리고 향사 내용을 기록으로 담았다. 금오서원, 월암서원, 낙봉서원과 더불어 무동향현사와 장현광 영당이 대상이었다.

19세기 서원관련 기록은 김성은(1765~1830)의 『동국문헌』과 김정호(1804~1866)의 『대동지지』가 3개로 동일한 반면 지방지를 수합한 『경상도읍지』는 5개의 서원과 1개의 영당을 포함하고 있다. 17세기 상황을 반영하여 18세기 편찬한 『동국문헌』과 19세기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 『대동지지』는 선산지역이 아닌 전국단위의 정보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리학 도통과 인물 등의 종합 정보를 수록 대상으로 표명했던 『동국문헌』은 전국의 원우 현황을 별도로 정리하며 동일한 규칙을 적용했다. 기록 규칙은 서원의 건립과 사액여부 그리고 향사 인물에 대한 간략 정보 수록이었다. 지리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대동지지』는 사우와 서원도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건립과 사액 내용 그리고 향사인을 상징하는 자호 등을 포함했다. 이들 두 자료는 서원 사실에 대한 정보와 기록이 달랐으며, 이에 따라 이 시기 일상지식을 위한 제공 정보와 지식 활용의 방향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국문헌』과 『대동지지』 기록에는 향사인에 대한 차이가 있다. 금오서원의 경우 길재를

101) 『東國輿地志』 권4下, 「善山都護府」 學校書堂條.

102) 『輿地圖書』, 「金烏鎮善山都護府」 壇廟條.

103) 이견한 금오서원의 위치는 藍山이었는데, 전란 뒤 계기로 금오산에서 옮겨온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수향으로 하면서도 박영과 정봉의 선후를 달리 수록했으며, 월암서원도 이맹전과 하위지의 선후를 달리 기재했다. 『동국문헌』은 18세기 이전 기록에서 일관하고 있는 정봉과 박영 그리고 하위지와 이맹전의 선후를 간과했다. 여기에는 『동국문헌』을 편찬한 김성은이 전라도 고부·정읍에 세거하던 광산김씨로서 노론 성향 김원행(1702~1772)의 재전제자이자 황윤석(1729~1791)에게 사사한 배경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적 거리 차이와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여 지식정보를 확보하고 선택하는데 제약과 차등이 발생하면서 일상지식의 차이가 생겼다. 『동국문헌』보다 2세대 뒤에 편찬한 『대동지지』는 낙봉서원의 사액 사실을 포괄하면서 향사인 정보를 선산지역과 일치하여 기록하고 있다.

1832년(순조 32) 경 전국의 읍지 제작 결과인 『경상도읍지』 중 「선산읍지」는 서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의 변화 환경과 정보를 포함했다. 이보다 뒤에 간행한 『대동지지』와 비교해 서도 무동서원과 송산서원 그리고 장현광 영당을 기록에 포함하여 선산 지역의 일상지식의 깊이를 반영하고 있다. 「선산읍지」는 선산의 수원인 금오서원에 대해 사액 및 납산 이건 과정을 비롯하여 5현 향사내용을 기재했다. 나머지 서원과 영당은 위치와 향사인만 간략히 밝혀 적어 구별했다.

선산과 인동 지역을 포괄하는 선산일대의 서원의 건립과 운영 결과는 기록으로서 정보가 되고 이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정보로 유통되었다. 건립 원우의 흐름은 17세기 선산 지역 2개와 인동 지역 3개에서 18세기 중엽 선산일대 9개의 원우 그리고 1832년 경 10개의 서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이 중 지역의 상황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읍지에 비해 『동국문헌』이나 『대동지지』와 같은 전국 범위의 정보를 종합하고 있는 사례에는 정보의 제한이 확인된다. 이들 전국단위 정보를 기록으로 담은 문헌에서 상정한 서원기록의 수요는 서원에서 향사하고 있는 선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지역 동향에 대한 일목요역한 정보제공과 파악은 물론 서원 봉심 등과 같은 실용적 목적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었다.<sup>104)</sup>

서원관련 정보를 선택하고 기록으로 남겨 유통을 고려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류운룡은 1588년(선조 21) 오산서원을 길재의 묘소 옆에 창건하고 『오산지』를 간행하여 이 사실을 자세히 정리했다. 이에 반해 장류는 17세기 말 『옥산지』를 간행하며 오산서원에 대해 서원의 건립 시도는 이미 1569년(선조 2)부터 시작했으며, 1574년(선조 7) 서원이 건립된 사실로 강조했다.<sup>105)</sup> 『옥산지』에서 서원의 연혁과 경제적 기반을 수록한 이유는 사람세력들이 지역에서 향권을 장악하는데 중요했으며, 서인과 남인사이의 갈등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06)</sup> 이로 본다면 정보의 선택과 기록을 통한 지식 그리고 그 유통의 의도에 정파적

104) 영일의 오천서원 「심원록」에는 전국 각지에서 향사인의 일족은 물론 여행자들이 봉심하고 있다(정수환(2015), 앞의 논문).

105) 『옥산지』學校第五, 吳山書院.

106) 박인호(2009), 앞의 논문, 71쪽.

입장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서원건립과 기록에 학파의 작용했다. 금오서원에는 선산십현은 물론 김취성·박운 등 박영의 고제도 향론의 불일치로 입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타지출신 인사 장현광은 이론 없이 금오서원에 배향되었다. 17세기 초반 길재를 중심으로 한 원우 기록과 유통 이후 17세기 후반 장현광 중심으로 원우 기록이 전환한 현상과 그 과정에서 장현광의 행적이 서원기록에 권위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은 정보의 기록과 기록의 지식화 그리고 지식의 유통을 계기로 일상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물과 학파의 영향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바. 문중 이해를 반영한 서원

서원 건립 초기부터 향사를 우위에 두고 문중과 결합한 사례는 오천에 위치한 오천정씨의 오천서원 사례가 있다.<sup>107)</sup> 정습명을 오천정씨의 정점으로 상징하였음에도 분묘가 실전된 상황에서는 그를 위한 향사와 묘단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7세기 오천서원(烏川書院)을 통한 향사, 그리고 18세기 정습명 묘단의 설치를 통해 실현되었다. 정습명과 정몽주를 향사하는 오천서원의 사례에서 문중과 서원이 결합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습명의 분묘가 현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를 향사하기 위한 서원이 건립되었다. 정습명의 10세손인 정몽주가 16세기에 이학조종(理學祖宗)으로 숭앙되고 중종 때(1517) 문묘에 종사된 이후, 임고서원, 송양서원, 충렬서원을 비롯하여 정몽주와 인연이 있는 지역에 서원과 사우가 건립되었다.<sup>108)</sup> 경상도 영일현 오천에 오천서원이 건립된 것은 이 지역에 정몽주의 생장지-문충리, 구정리-와 관련한 유적이 산재하고 있었던 배경이 작용했으며, 여기에 정습명 향사가 논의된 것도 또한 그가 정몽주의 선조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오천서원은 1588년(선조 21) 건립되고 1613년(광해군 5) 사액되었다.<sup>109)</sup>

오천서원의 건립은 영일 및 영천지역 사람과 정씨일족의 노력으로 달성되었다. 서원의 건립과정에서 1588년(선조 21) 영일현감 이광악(李光岳)의 꿈에 정몽주가 현몽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sup>110)</sup> 이러한 설화는 비록 후대에 가공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107) 정수환, 「조선후기 오천정씨(烏川鄭氏) 가문의 전통 발견-정습명(鄭襲明) 묘단(墓壇) 설치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15, 圃隱學會, 2015. 90~12쪽.

108) 김인호, 「정몽주 숭배의 변화와 위인상(偉人像)」,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260~262쪽.

109) 『新增東國輿地勝覽』, 迎日縣, 書院條.

11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6(경북편), 1979, 219쪽. 조선초기 이래 지속된 이성계의 5대조 李陽武의 능을 찾기 위한 노력은 1640년(인조 18) 현몽 사건을 계기로 재론 되었는데(이육, 「조선시대 왕실 원조(遠祖)의 무덤 찾기」, 『종교연구』 60, 한국종교학회, 2010, 10~11쪽), 이러한 측면에서 정몽주와 관

내용은 서원건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사람의 정몽주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몽주를 계기로 정습명을 함께 향사하게 된 것은 정몽주의 선조로서 정습명을 평가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립된 오천서원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인해 서원이 소실되었다.

서원은 왜란 후 현재의 오천읍 원리(院里)로 옮겨 중건되었으며, 1613년(광해군 5) 사액 받았다. 이에 앞서 1612년(광해군 4) 서원이 재건되자 정구(鄭逋)는 정몽주를 봉안하는 축문에서 영일지역과 정몽주와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그를 ‘만고이륜(萬古彝倫)’으로 칭송했다.<sup>111)</sup> 서원 중건과 사액 과정에서 정몽주가 부각된 이후에는 처음 서원 건립 당시의 취지에 따라 정습명을 다시 오천서원에 봉안했다.<sup>112)</sup> 정습명을 봉안하는 과정에서 장현광(張顯光)은 정습명과 정몽주에 대한 합향(合享) 사건에 대해 ‘응생전후(應生前後)’<sup>113)</sup>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정구와 장현광의 언급은 충효에 바탕 한 연원이 정습명과 정몽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축문을 지어 올린 배경에는 오천서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정사물(鄭四勿), 정극후(鄭克後) 형제가 정구와 장현광의 문인이라는 사실이 작용했다.

18세기 초부터 鄭思道와 鄭澈에 대한 오천서원 추가 향사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중앙정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서원에 투사되었다. 17세기 중엽까지 오천서원은 영일을 중심으로 이 일대 사람의 강학처로서 원생에 대한 특전이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의 예에 따라 유지되는 등 그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sup>114)</sup> 그러나 18세기 당색과 신분계층간의 대립으로 인한 향론분열을 계기로 향촌사회에서 소외된 세력이 중앙 정치권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sup>115)</sup>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천서원에서도 정구와 장현광이 관여한 17세기에는 정치적으로 남인이 주도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18세기 초부터 서인의 대표적 인물인 정철을 추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사도는 정몽주에 있어 一族의 尊屬으로 道德이 아주 드러나서 정몽주에게 뒤지지 않는 데 (중략) 정사도 또한 정습명의 후손이고 정몽주에 있어서도 이 또한 同宗의 선배입니다. (중략) 만일 끝내 불가능하다면 비록 별묘를 세워서 향사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sup>116)</sup>

정사도와 정몽주는 정습명을 선조로 하는 일족이라 전제하면서 이 경우 정사도는 정몽주

련한 구전은 그 관련성을 보여준다.

111) 鄭逋, 「祝文-烏川書院重新奉安文」, 『寒岡先生文集』 권11.

112) 『輿地圖書』, 慶尙道 延日, 壇廟條.

113) 張顯光, 「祝文-烏川書院合享祝文」, 『旅軒先生文集』 권11.

114) 『비변사등록』, 숙종 2년 11월 13일.

115)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294~295쪽.

116) 『승정원일기』 권600, 영조 1년 9월 2일 丙申.



에게 있어 가문의 선배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또한 그는 영일에 정습명, 정몽주, 정사도의 유적이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영일 사람들이 이 셋을 ‘승국삼현(勝國三賢)’으로 추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정사도가 서원 향사에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처럼 영일을 본관으로 하는 정씨, 그리고 정습명과 연결성을 이유로 제기된 정사도의 오천서원 추향 논의는 1740년(영조 16) 정사도와 함께 정철이 향사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정습명을 정점으로 하는 정씨들은 오천서원 향사, 묘단의 설치 및 재사(齋舍) 운영을 통해 그들의 전통을 발견하고 계승하고자 했다. 17세기에는 오천서원을 건립하여 정습명과 정몽주를 향사했으며, 18세기부터 정습명의 묘단 건립을 계기로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작용한 전통의 요소는 ‘충’과 ‘오천’이었다. 조선초기 정몽주가 충신으로 묘사되면서 정씨들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확립되었음에도 성리학적 질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모본(慕本)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치 제도로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정씨들은 ‘충’의 전통을 시각화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17세기에 족보를 간행했다. 사회적으로 충의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관향지가 영일이 아닌 ‘오천’으로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습명에서 정몽주로 이어지는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19세기 서원 건립 사례는 밀양의 덕만서원(德南書院)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117)</sup> 밀성박씨는 1833년(순조 33) 덕남사(德南祠)를 창건하고 종중원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고 밀양 유림의 공의를 얻어 이듬해 덕남서원으로 승격했다. 서원은 려말선초의 인물 박익(1332~1398)을 비롯하여 그의 두 아들 박용(?~1424), 박소(1347~1426)와 같은 성리학자를 봉안한 서원이다. 이 서원은 19세기 문중 인물을 향사하는 서원으로 문중이 운영을 주도하는 문중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덕남서원 운영은 밀양의 밀성박씨 고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우에서 서원으로 승격하면서 사회적 대우를 확보하고자 했다. 1833년에는 서원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우 건립을 밀양의 향교와 오봉서원을 비롯하여 김해, 진해, 감사 일대의 서원 10곳에 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1834년 덕남서원 유생은 박익을 旌忠 해 줄 것을 조정에 청원하고, 박익과 함께 고려에 충성을 다한 정몽주와 길재를 주향하고 있는 임고서원과 금오서원에 박익 합향을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원은 밀양의 읍지 개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물조에 박수견과 박호를 수록해 줄 것을 청원하는 의송을 올렸다. 덕남서원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1833년 덕남사에 관으로부터 제수를 제공받던 전례를 제시하고 다른 서원의 전례를 언급하여 향사에 祭需를 요청하는 稟目을 밀양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밀양의 담당 아전이 서둘러 시행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했다.

서원은 원생 관리, 문집간행 등의 활동을 했다.<sup>118)</sup> 덕남서원은 밀양관청으로부터 식년마

117) 이하 서술은 박병련·정수환의 원고(「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古文書集成』76-密陽 密城朴氏·德南書院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49쪽·65~66쪽)를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다.

다 원생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서원의 관리 도서관이 대응하였다. 1836년에는 서원 운영을 위한 절목을 밀양에서 인준받아 완문을 완성했다. 완문의 절목에는 재임 선발에서부터 문중 관계자의 항례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남서원은 향사 인물인 박익의 문집 간행을 추진하여 1837년 완성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서 적극적이었다. 1868년 서원은 인근의 산지에 대한 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방매자에게 환퇴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적 매매에 대한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자 밀양 관청에 이를 요청하는 소지를 올려 대응했다. 덕남서원은 밀양의 밀성박씨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1868년(고종 5) 조선 정부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

## 맺음말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 중 서원이 차지하는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에 대한 성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대한민국 학계에 소개된 국내와 국외 학자들의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서원 사례에 대한 성과가 대상이다.

명청대 중국 서원의 활동이다. 명 중기 이후 왕양명과 그 제자들에 의해 전국적인 서원 증건과 강학이 펼쳐졌다. 강회에서는 歌詩라는 의절이 특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개하는 강학의 특징이 있었다. 청대 서원은 관의 개입을 통한 강학 과목과 운영으로 민간교육이 진행되면서 과거가 중심에 있었다. 19세기 말 외부 학문의 도입을 위해 算學과 譯學 등의 교육을 시도했다.

일본의 막번체제 하에서 서원활동이다. 일본은 서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私塾을 사립 교육기관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古義堂 사숙과 같이 도서를 출판하고 장서를 갖추어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교육에 있어서는 신분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도 주자학 일편도가 아니었다. 도주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향사기능도 있으나 가묘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교육 내용에는 양명학을 비롯하여 문인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범위도 외국어와 의학 등과 蘭學으로 대표되는 서구학문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서원 사례는 제한적이다. 복강서원 사례는 장서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교육기관의 기능은 제

118) 밀양지역의 19세기 전후한 서원 사례는 창녕조씨 주도로 건립한 오봉서원이 있다. 1780년(정조 4) 오봉사를 건립하고 밀양의 향중 공의를 도출하여 1796년(정조 20)에 오봉서원으로 승격하다 1868년(고종 5) 철폐되었다. 서원은 1815년 8월 밀양 향교로부터 오봉서원 원생이 납부하는 예납전을 면제받는 완문을 확보하였다(박병련·정수환, 「밀양 창녕조씨·의령남씨의 가계와 고문서」, 『古文書集成』70-密陽昌寧曹氏(五峯書院)·宜寧南氏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45~48쪽).

한적이었다. 그리고 서원 설치가 황제 등 국가에 의해 주도하였으며, 교육도 스승의 학문을 천착하기 보다 과거에 경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과 향사를 위한 반관 반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서원 사례를 통해 시대적, 내용적 다양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의 지식인과 학파에서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공유재로서 건립하고 운영했다. 도산서원도 이황의 서당을 계승하여 문도들이 건립하였으나 기본 취지는 지역과 국가 개발을 위한 성리학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신허서원 사례에서와 같이 일부 서원은 향사인과 향사과정에 정치적 의미와 배경이 투영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성리학 교육 이념을 경영과 연계하여 서원의 시대적 역할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17세기까지 서원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지식인의 일상지식으로 작동하면서 구미와 선산의 읍지를 통해 서원 정보가 유통 및 소비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 오천서원과 덕남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가문 중심의 향사 기능이 중시되면서 궤차로 인해 소명을 다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는 각국 역사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관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서원으로 포괄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교육 내용이나 과거와의 관련성 그리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다양성은 존재한다. 서원과 현대교육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연속성과 단절성의 특징은 아 이러니 하계도 오늘날 동아시아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 관학에서 서원으로 —명·청 시기 교육 중심의 전환—

류염위(劉豔偉)

서화사범대학(西華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曆史文化學院)

### 【국문초록】

명-청대에 걸쳐 교육의 중심이 관학으로부터 서원으로 이행하는 추세가 발생하였다. 명대 전기에는 관방에서 완전한 학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서원은 배척되었다. 그런데 명중기 이후, 지방 관원과 제학(提學) 관원들이 학교 외부에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서원을 “학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匡翼夫學校之不逮)”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청대 옹정(雍正), 건륭(乾隆) 연간, 관방은 서원을 지지하여 그 발전을 촉진하였고, 서원에서 생도들을 모으고 선비들을 가르치며, 배양하는 등 여러 우수한 성과에 힘입어 교육의 중심 또한 점차 서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로써 “선비 교육의 실질로는 서원 만한 곳이 없다(敎士之實, 莫如書院)”라는 관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체 교육 체계 가운데 서원의 지위 및 사인(士人) 서원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당시 교육 시행 차원에서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대 중국 교육 구조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관학, 유학, 서원, 교육 중심

## 从官学到书院：明清教育重心之转移

刘艳伟(西华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

### 【中文摘要】

明清两代，教育重心有由官学向书院转移的趋势。明前期官方构建了完整的学校体系，书院被排除在外；明中期以后，地方官员、提学官开始寻求学校之外培养人才的途径，认可了书院“匡翼夫学校之不逮”的地位；清代雍正、乾隆两朝，官方对书院的支持促进了书院的发展，随着书院在聚徒课士、膏火养士等方面优势的凸显，教育之重心逐渐转向书院，以致产生了“教士之实，莫如书院”的观念。书院在整个教育系统中的地位及士人书院观念的变化，不仅影响到实践层面，并最终影响了近代中国教育格局的形成。

**关键词：**官学 儒学 书院 教育重心

## 從官學到書院：明清教育重心之轉移

刘艳伟(西华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

書院在宋代興起之后，一直延續到清代，成為官學之外最為重要的教育機構。然而，書院的歷史並非直線發展，不同時期的書院在整個教育系統中的地位亦時有升降。與其它時代相較，明清兩代堪稱書院史上的特殊時期。有明一代，書院在教育體系中處於邊緣地位，其影響不及宋、元。而至清代，書院則達到了歷史高峰，不僅數量為歷代之最，且在教育中的地位也非其它朝代可比。以往的書院史研究，學者們通過計量統計，呈現明、清書院的數量、規模，及其在歷史時期的發展狀況。<sup>1)</sup>就書院在當時整個教育系統中的地位與影響，學者們或有論及<sup>2)</sup>，但并未作系統性地考察。有鑒于此，筆者試圖將書院放至當時教育發展的整體脈絡之中，探究明清兩代書院在整個教育系統中的結構性地位及其變化，從另一角度呈現書院發展變化的歷史圖景。

### 一、“明代學校之盛”

明建國后，統治者建立了完備的官學系統。洪武元年(1368)，“令品官子弟及民俊秀通文義者，并充學生”<sup>3)</sup>。洪武二年(1369)，“令郡縣皆立學校，延師儒，授生徒，講論聖道，使人日漸月化，以夏先王之旧”<sup>4)</sup>。在此政策下，“天下府州縣衛所皆建儒學”。<sup>5)</sup>洪武八年(1375)正月，因“京師及縣皆有學，而鄉社之民未睹教化”，乃詔諭全國，設立社學，“延師儒以教民間子弟”。<sup>6)</sup>通過這一系列的舉措，官方建立起從中央到地方的教育體系。明人評價國初的教育政策，稱：“天啓皇明大一統之治，開萬載太平之業，在內則立胄監，在外則府州若縣莫不有學，而學之教法規制蓋已超

1) 如曹松叶《宋元明清書院概況》(《中山大學語言歷史研究所周刊》，1930年第113、114期)、鄧洪波《中國書院史(增訂版)》(武漢大學出版社，2012)、白新良《明清書院研究》(故宮出版社，2012)，對清代書院的總量、分布都有統計。

2) 鄧洪波曾指出，“書院與科舉結合而趨于取代官學”是乾隆時期書院發展的一個特點。見鄧洪波《中國書院史(增訂版)》，武漢大學出版社，2012，第489-490頁。

3) 《明史》卷69《選舉一》，中華書局，1974，第1676頁。

4) 《明史》卷69《選舉一》，第1686頁。

5) 據吳宣德統計，到洪武末年，全國府州縣共有儒學1054所，占當時全國府州縣總數的73%。至萬歷年間，儒學總數超過了1435所，當時府州縣有94%左右都設立了儒學。由此可見儒學設立的普遍性與規範性。見吳宣德：《中國教育制度通史》(明代卷)，山東教育出版社，2000，第172-175頁。

6) 《明太祖實錄》卷96，洪武八年正月丁亥。

軼漢唐宋，而娓娓乎唐虞三代之隆矣。”<sup>7)</sup>“我朝受命以來，圣圣相承，稽古右文，崇儒重道，无地而无學，无人而不教，立臥碑，頒書籍，簡命重臣以維持之，又敕憲臣以專主之，其所以惠學校裨治化甚盛大也。”<sup>8)</sup>清人修《明史》之時，也盛稱明代的官學教育：“蓋无地而不設之學，无人而不納之教，庠聲序音，重規迭矩，无間于下邑荒徼，山陬海涯。此明代學校之盛，唐宋以來所不及也。”<sup>9)</sup>

与日臻完備的官學相較，明初的書院則甚為沉寂。建國之后，官方先是改山長為訓導，將書院主持者納入國家的官僚體系中，書院被當作官方教育機構對待。洪武三年(1370)全國遍設儒學之后，又革罷書院訓導，令書院生徒歸于地方儒學。少數書院在政府的倡導下重建，但其功能主要在于祭祀，不少宋元以來的書院被并入官學和社學，宋元以來的著名書院大都處于无人管理的閑置狀態，少數地方官重修或新建的研習程朱理學的書院，規模及影響都很小。<sup>10)</sup>一些書院即便有文化活動，也以個人藏修為主。<sup>11)</sup>此外，統治者對書院也不甚重視。弘治元年(1488)，常熟士人周木請求修葺常熟縣學道書院，禮部認為學道書院祭祀孔門弟子言偃，宜准其奏，并免除偃氏后裔徭役，“以慰其鄉人景仰先哲之心”。孝宗皇帝則“以本朝无書院之制，且偃已通祀于學校，不宜重勞民創建”<sup>12)</sup>為由，沒有批准。

明前期書院的沉寂，實受官學發展的影響。民國學者盛朗西即稱：“宋元之間，書院最盛，至明而浸衰。蓋國學網絡人才，士之散處書院者，皆聚之于兩雍，雖有書院，其風不盛。”<sup>13)</sup>就明代士人而言，他們在回憶明初的教育情形時，也往往突出官學的地位。弘治十二年(1499)，舒城縣主簿何雍修建龍眠書院，工竣后，邑紳秦民悅為之作記。在記文中，秦氏提及創建書院之目的時稱：“肆惟祖宗創業垂統，建學育才，在在有之，若无俟于書院也。”<sup>14)</sup>盡管此言是為后文書院建設之必要性張本，但也反映出當時官學的主導地位。弘治十三年(1500)，溫州知府鄧淮建鹿城書院，祀二程、張、朱，以溫州地方門人從祀，又輯泉諸人墓志、家傳、問答等內容，匯為《鹿城書院集》。鄧淮為該書作序，在序文中，鄧氏也提到“夫以宋朝學校遍天下，若无俟于書院者”<sup>15)</sup>。

## 二、“匡翼夫學校之不逮”

### (一)明代官学教育的衰落

7) (明)楊榮：《文敏公集》卷10，明正德十年刻本。

8) (正德)《光化縣志》卷2《學校類》，明正德刻本。

9) 《明史》卷69《選舉一》，第1686頁。

10) 李國鈞主編：《中國書院史》，湖南教育出版社，1994，第544-545頁。

11) 白新良：《明清書院研究》，故宮出版社，2012，第66頁。

12) 《明孝宗實錄》卷14，弘治元年五月丁卯。

13) 盛朗西：《中國書院制度》，“民國叢書”第3編第45冊，上海書店1989年影印版，第77頁。

14) 雍正《舒城縣志》卷31《藝文》，清雍正九年刻本。

15) 弘治《溫州府志》卷20《詞翰二》，明弘治十六年刻本。



明初建立起完備的教育體系，官學教育興盛。但政府將學校定為“諸才以應科目”的科舉預備場所，為後來儒學教育的衰敗埋下了隱患。洪武朝選官不拘資格，科舉、學校、荐舉、吏員多途并用，地方儒學生員可依例進入國子監，獲得入仕資格，且位居通顯者甚多。隨着科舉制度的穩定推行，明中叶后，科舉一途日趨重要，其它三途已不復有明初“典史授都御史，貢士授布政，秀才授尚書”的盛況。而且，在科舉的影響下，原本需要在學肄業、研習經史的士子們尋求科場得雋之捷徑，放棄對四書、經義的鉅研，熱衷於背誦程文。正統元年(1436)，戶部尚書黃福上書揭露學校的弊端，稱：“近年以來，各處儒學生員不肯熟讀四書、經史、講義理，惟記誦旧文，待開科入士，以圖幸中。”<sup>16)</sup>清人評價明代學校，也表達出類似的觀點：“嘉隆以還，教官不過具員，弓舍竟同虛設。學使者歲科考校惟論文藝，雖有修法博習之士，无所用之。由是士日濡首于八股之中，揣摩掇拾，以求科第而博富貴，即詩書六藝亦且視為贅疣，置之不講……”<sup>17)</sup>

除了受科舉影響之外，儒學在制度設計之初，便存在問題。儒學教官品卑俸薄、久任難遷，且時常面臨其它進士出身官員的官威凌壓、師道不尊等，<sup>18)</sup>造成了教官隊伍素質低下的局面，這無疑會影響地方儒學的教學。生員不在地方儒學肄業是官學另一個問題。朝廷規定“師生每日坐齋讀書，及日逐會饌，有司簽與齋夫、膳夫”<sup>19)</sup>，但到了弘治年間，已然出現“生徒无復在學肄業，入其庭，不見其人，如廢寺然”<sup>20)</sup>的情況。今人陳寶良論及明代的儒學，稱：“自明代中期以後，教官之黜陟，生員之充發，均廢格不行，即使臥碑所列各種禁例，亦只是一紙具文。地方儒學更是有堂不升，有齋不講，凡飲、射、讀法、膳會禮儀并一些規條課業，更是久已廢置不行。就拿儒學學宮來說，其後也日漸陵替，只是用作供奉先師、居停學博，或者有司春秋二時丁祭、朔望行香之地而已，甚或廡為牧，泮為漁，圃為蔬，舍為薪，无怪乎士習日偷，放蕩于禮法之外。”<sup>21)</sup>

面對學校的弊端，官方一直在進行整頓。其中最具標志意義的當是提學官的設置。正統元年(1436)少保黃福奏請加強對儒學的監督管理，明廷遂在各省設按察司官一員，南北直隸各設御史一員，專一提調學校，并頒給提學官敕諭，作為施政綱領。<sup>22)</sup>但從地方官學最終的情況來看，提學制度的實施，其效果并不理想，地方儒學鮮有改觀。

## (二) 书院的发展

官學教育功能的衰落，促使地方官員、提督學校官思考補救之途徑，他們將目光投向了書院。書院在擴展教育範圍、擴大教育規模、集中優秀學生進行科舉訓練等方面適應了當時的需求，官員在書院建設上表現出極大的熱情。<sup>23)</sup>據學者統計，有明一代各類官員創建書院972所，占明代書

16) 《明英宗實錄》卷17，正統元年五月壬辰。

17) 康熙《新會縣志》卷八《學校》，清康熙二十九年刻本。

18) 吳智和：《明代的儒學教官》，台灣學生書局，1991，第9-19頁。

19) 《大明會典》卷78《禮部三十六》，明萬曆內府刻本。

20) (明)陸容：《菽園雜記》卷13，中華書局，1993，第158頁。

21) 陳寶良：《明代儒學生員與地方社會》，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5，第110頁。

22) 郭培貴：《試論明代提學制度的發展》，《文獻》1997年第4期。

23) 吳德宣：《中國教育制度通史》(明代卷)，第365頁。

院總數的57.21%。<sup>24)</sup>自成化朝開始，明代書院進入快速發展時期，官員創建、修葺書院亦興盛起來。<sup>25)</sup>提學官興建書院的活動，甚至引領了明代書院建設的風潮。<sup>26)</sup>隨着書院在教育中持續發揮作用，士人、官員對書院的認識已不同于明初，他們認可了書院補官學之不足的地位。正德間，江西提學副使李夢陽(1473-1530)曾為蒲州河中書院作《河中書院賦(有序)》，又為江西余干東山書院、進賢鐘陵書院作碑文，在這三篇文章中，李夢陽“基本上把官學體系視為唯一的培育士人的場域”，在科舉必由學校的選士制度下，將書院作為官學的延伸。<sup>27)</sup>

隆慶五年(1571)，御史李明谷增建橘園書院，馮承芳為之作記，在記文中提及書院的功能：“學校所以教士也。學校荒矣，于學校之傍為書院，所以輔學校之不及也。士業其中，而无以養之，則治生不暇，而暇精于業哉？科目乏人，无怪其然也。今既有書院以居士，又有學田以養之，擇嚴師以教之，將來人材造就，為時効用，裨益國家，端有望矣。”<sup>28)</sup>認為書院之建，可以居士、養士、擇師教士，能够“輔學校之不及”。

嘉靖四年(1525)，巡按御史潘仿增修杭州萬松書院，選俊彥肄業其中，王陽明為之作記，在記文中，王氏稱：

惟我皇明，自國都至于郡邑，咸建廟學，群士之秀，專官列職而教育之。其于學校之制，可謂詳且備矣。而名區胜地，往往復有書院之設，何哉？所以匡翼夫學校之不逮也。夫三代之學皆所以明人倫，今之學宮皆以“明倫”名堂，則其所以立學者固未嘗非三代意也。然自科舉之業盛，士皆馳騁于記誦辭章，而功利得喪分惑其心，于是師之所教、弟子之學者，遂不復知有明倫之意矣。懷世道之忱者，思挽而復之，則亦未知所措其力。譬之兵事，當玩弛偷惰之余，則必選將閱伍，更其号令旌旗，懸非格之賞，以倡勇敢，然后士氣可得而振也。今書院之設，固亦此类也歟！士之集于此者，其必相與思之曰：既進我于學校矣，而復仇我于是，何為乎？寧獨以精吾之舉業而已乎？便吾之進取而已乎？是固期我以古圣贤之學也！<sup>29)</sup>

王陽明關於書院的論述，代表了另一部分士人對書院功能的理解。就士人而言，受儒家經典的影響，他們理想中的學校，是三代的庠序之教，其宗旨在明倫，以此為基，至于天下大治。<sup>30)</sup>學

24) 鄧洪波：《中國書院史(增訂版)》，第285頁。

25) 據吳德宣統計，自成化朝開始，官員興建書院的數量有了很大的增長。見吳德宣：《中國教育制度通史》(明代卷)，第364頁。

26) 參見趙偉、鄧洪波：《明代提學官的書院建設與張居正的學政改革》，《學術研究》2021年第5期。

27) 王昌偉：《李夢陽與書院文化》，《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9年第3期。

28) (乾隆)《岑溪縣志》卷2，民國二十三年鉛印本。

29) (明)王守仁：《王陽明全集》卷7《萬松書院記》，上海古籍出版社，2011，第281-283頁。

30) 成化二十二年(1486)，朝廷申明王府婚姻禁例，明憲宗諭各王府時即稱“倫理明則風化行，紀綱正，斯天下定”(《明憲宗實錄》卷279，成化二十二年六月乙酉)。地方士人也深以明倫為重要：“學校之設所以明倫也，倫理明則賢才興，賢才興則風俗厚，此唐、虞三代所以致雍熙泰和之治也。”((明)張孟儀：《永嘉縣儒學新修廟學記》，收入金柏東主編：《溫州歷代碑刻集》，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2，第81頁)。

校受科舉制度的影響，士子致力於辭章利祿之學，同原來的宗旨漸行漸遠。而書院能够講求古圣贤之學，正是“怀世道之憂者”挽救學校沉溺俗學“措力”之所在，能够匡正學校，彌補其不足。王陽明的這一觀點頗具代表性，嘉靖三十七年(1558)夏浚纂《怀玉書院志》，在論及“名區胜地复有書院之設者何”的問題時，也沿用了王陽明的說法。<sup>31)</sup>

万歷間，提學御史楊廷筠在為《虞山書院志》所作的序文中，也表達出書院可以輔助官學的觀點。楊氏稱：“或者乃謂，当今國有學，若郡若縣莫不有學，書院所講之學獨何學与……故養之以學校，其防甚峻；作之以書院，其門似广。防峻犹馴習于耳目，而門广足洗發其精神。苟人之精神一經洗發，將還顧其尋常耳目，亦自有曠然一新者。是書院也，豈不為學校之忠臣哉？”<sup>32)</sup>楊廷筠將書院比作學校的忠臣，認為書院能够奮士人，洗刷學校之頹廢風氣。這依旧沒有脱离書院輔助學校之不足的范疇。叶向高甚至稱：“(學校)末流之弊，逐功利而迷本真，乃反甚于漢唐。賢士大夫欲起而維之，不得不复修濂洛關閩之余業，使人知所向往。于是通都大邑，所在皆有書院。”<sup>33)</sup>將書院之興起与官學之弊端聯系起來。明代文獻涉及書院時，將其作為官學輔助的論述頗多。甚至在為官學所作的記文中，也提到了書院輔助官學的作用。<sup>34)</sup>

要之，明中期以后，因官學在聚士、教士等方面存在一些問題，兼之地方官員、士人普遍興建書院產生的影響，社會上流行起一種觀念：書院可以“匡翼夫學校之不逮”。就書院如何能彌補官學之不足，上面的例子中，馮承芳稱書院可以居士、養士、教士，此一概括頗為全面，文獻中論及書院補充官學的功能无外乎此。另外，上文中王陽明、楊廷筠認為書院可以使士子遠離科舉俗學，以古圣贤之學自期，則是書院補充官學不足的另外一層意涵。盡管他們在表達書院的具体作用時或有差別，但將書院作為官學的補充，這一理念却是一致的。實際上，至晚明万歷年間，書院作為官學必要補充的觀念，已經深入人心。<sup>35)</sup>

### 三、清代書院地位之确立

清軍入關之后，明代的學校政策為清廷所繼承。科舉依旧是士子最為重要的進身之途，學校儲備參加科舉的人才。入清后官方恢复、重建旧有地方儒學，在新拓疆土上設立儒學，這在權力象征和官學普及層面上具有意義，但對官學教學的改善則并未產生太大影響。書院在教育方面依旧

31) (明)夏浚：《月川類草》卷6《怀玉書院志目》，清抄本。

32) (明)張鼎、耿橘：《虞山書院志》序，姜亞沙、經莉、陳湛綺編：《中國書院志》第1冊，全國圖書館文獻縮微复制中心，2005，第8-12頁。

33) 孫承澤著，王劍英点校：《春明夢余錄》(下)，北京出版社，2018，第1134頁。

34) 嘉靖三十五年(1556)，霍州知州褚相重修儒學明倫堂，州人劉煦撰文記其事，在文中提到褚相創建霍山書院，“豈直輔學校之不逮而已哉”。見(道光)《直隸霍州志》卷25，清道光六年刻本。

35) 書院作為官學補充的觀念，在地方志的編纂中也有反映。明前期，不少士人、官員在編纂地方志之時，將書院置入“古迹”“宮宇”。万歷以后，書院多被置于“學校”之后。參見陳時龍：《明人對書院的態度——以明代地方志的書院記載為考察對象》，《明史研究論叢》第12輯，中國廣播電視出版社，2014，第36-47頁。

發揮重要作用，其作為官學補充的功用仍在。大規模戰爭結束後，各地書院逐漸恢夏。<sup>36)</sup>

雍正、乾隆兩朝的書院政策，改變了自明代以來書院在教育體系中的邊緣地位。雍正十一年(1773)，世宗皇帝在諭旨中稱：“建立書院擇一省文行兼優之士讀書其中，使之朝夕講誦，整躬勵行，有所成就，俾遠近士子觀感奮發，亦興賢育材之一道也。”<sup>37)</sup>為後來官方支持書院發展確定了基調。在乾隆朝，高宗認可了書院“廣學校所不及”的功用，並以省會書院為“古侯國之學”<sup>38)</sup>，將其置入儒學(府州縣)－省會書院(省)這一教育體系之內。官方的政策刺激了清代書院的發展，到乾隆朝，地方普遍設立了書院。<sup>39)</sup>

書院的普遍設立及其影響，使得其在整個教育體系中的地位愈發重要。就官方而言，明代朝廷頒發給提學官作為施政綱領的敕諭中未涉及書院，乾隆三十九年(1774)朝廷所頒《學政全書》中已增入“書院事例”一項。乾隆朝以後，書院已然被視為地方行政的重要內容之一。對書院中存在的一些問題，官員屢有上奏，請求朝廷下令整頓。<sup>40)</sup>而在官方整飭學校的奏疏中，亦將書院包括在內。如嘉慶二十二年(1817)御史周鳴鑾奏請整飭學校、道光十七年(1837)御史巫宜楔奏振興學校、同治十年(1871)御史吳鎮敬陳時政以資治理、光緒九年(1883)御史陳啟泰奏請整飭學校以端吏治之本，都涉及到書院。<sup>41)</sup>

書院在教育中的地位愈發重要，但官學狀況並未改善。“府州縣學除了作為教官的衙署和在固定的時間舉行祀孔典禮外，幾乎沒有其他用途，以致或被用來充作義學、社學之址，或被塾師作為授徒之館舍，或被農民作為晾晒之場”，教官主要工作是掌管生童冊籍、歲科送考，既不能教化訓導士子，亦無須為參加科舉的生童教授應考的技能，是“雖缺官百年，要無缺於得失”的閑職。<sup>42)</sup>清代專門記錄地方儒學歷史的儒學志，所載多是朝廷對孔子的尊崇、儒學祭祀等內容，並未涉及到對生員的教育、考課。<sup>43)</sup>可見清代在官辦教育方面雖有府州縣學之設，卻無教養之實。

與官學的頹廢相較，書院顯示出其巨大優勢。清代“一鄉一邑皆有書院”，其數量遠超官學，在教育普及方面作用明顯。多數書院有詳細章程，規定生徒選拔、山長選聘、學生肄業、膏火發放等辦法，在這些方面，官學很難與書院相比。粵華書院山長梁廷枏即稱：“未有書院之前，則教育

36) 以往學界認為清初官方“不許別創書院”，採取了壓制書院發展的政策。但有學者提出了不同的觀點，趙偉認為，“不許別創書院”系針對提學官而言，此政策對地方書院之建設並未產生太大影響，順治、康熙、雍正三朝書院興建依旧頻繁。見趙偉：《清代省會書院制度研究》，湖南大學博士學位論文，2021年，第35-36頁。

37) 《世宗憲皇帝實錄》卷127，雍正十一年正月壬辰。

38) 《高宗純皇帝實錄》卷20，乾隆元年六月甲子。

39) 白新良：《明清書院研究》，第177-190頁。

40) 就整飭直省書院而言，先後有嘉慶二十四年御史張元模、道光二年松筠、光緒九年給事中劉瑞祺奏請。

41) 王煒編：《清實錄科學史料匯編》，武漢大學出版社，2015，第670頁、769-770頁、930-931頁、第981頁。

42) 霍紅偉：《晚清教育轉型與府州縣學的變遷》，《學術月刊》2010年第2期。

43) 成書于康熙四十七年(1708)的《太倉州儒學志》，主要記載“宮牆、基址、堂舍、門廡、樂舞、彝器，以及師儒之官、科貢之姓名人物”。見(清)俞天倬：《太倉州儒學志》，收入《四庫未收書輯刊》第2輯第26冊，北京出版社，2000，第5頁。同治《長沙縣學宮志》亦只是記載朝廷對孔子的褒獎、官方崇祀歷史、孔廟祭祀典禮、儒學財產等內容。見(清)周玉麒輯《長沙縣學宮志》，同治七年刻本。

專于學校，士子雖得讀書于學，實則散處其鄉，博士月有考課，或應或否，亦等若具文，規約之頒，既不如書院之嚴且密，而歲延名宿聚一堂，而與爲問難，與爲勸勉，其諄諄誘導之意，實較諸郡邑博士之半官半師者情事不啻倍蓰。又优待鼓舞之意，月有資，課有獎，單寒縫掖，担簦至止，如入其家。贍給一出，于是安心向學，無旅居之困，尤稱便焉。所以培植人才月异而歲不同，有由來也。”<sup>44)</sup>非但書院山長認爲書院在教育士子方面遠較官學爲優，主持教育的官員也有同樣認識。光緒二十六年(1900)，福建學政戴鴻慈在爲《詩山書院志》所作序文中稱：“國家廣勵學官，季有課，月有考，立法綦備，而諸生居處或百里或數十里外，或生事維系，終歲不一至郭門，講解切劘，獲益犹眇。書院則生童并肄，弦誦一堂，例延名宿耑掌教事，有膏火以供其朝夕，有朋友以備其觀摩，有書策以資其流覽，賞奇而析疑，稽古而居今。卜子曰：‘百工居肆以成其事，君子學以致其道。’此之謂也。”<sup>45)</sup>

一方面，官學失職，喪失了教育職能；另一方面，書院大規模興建，其在教育中的地位日益受到社會認可。朝野對書院的關注日多，書院的地位實際上發生了轉變，成爲最重要的教育機構。書院掌教、主管地方教育的官員對此感受最深。曾在兩廣多處書院掌教的鄭獻甫(1801-1872)曾作《學宮議》一文，他稱：“今之學宮乃古之所謂孔子廟，今之書院乃古之所謂學宮也。今之國子監犹存古法，而今之國子生遍天下，皆由納粟而入，發名成業，固有終身未至者。其余鄉學，但有孔子廟耳，非學宮也。其教職但作奉祠官耳，非學師也。學師之名其殆主書院者尸之乎？”<sup>46)</sup>鄭氏視學宮爲孔子廟，以學官爲奉祠官，而將書院掌教當作真正的學師。同治十二年(1873)十月，陝西學政許振祜上奏請求創建書院，許氏在奏疏中稱：“國家作育人才，府縣設學，夏听所在舉行書院，法良意美，得人稱盛。惟奉行日久，教官往往視爲具文，平時因循居半。迨學政按臨，所駐不過旬日，而又不逐日校藝，即有所牖迪，亦不過布條教、舉大綱，至于教士之實，窃以爲莫如書院。”也視書院在教育中的作用优于官學。<sup>47)</sup>

實際上，“教士之實莫如書院”的觀念，在乾隆朝書院大發展之時即已有之，當時的學者程廷祚就敏銳地觀察到了這一點。他稱：“方今用與取之法不可謂不詳矣，而所謂教者，惟各省之書院。”<sup>48)</sup>至清后期，隨着書院在養士、教士方面產生的巨大影響，這一觀念更爲普及，以至民國修《清史稿》的時候，史館館臣即認爲“儒學寢衰，教官不舉其職，所賴以造士者，獨在書院”<sup>49)</sup>。民國學者評價清代學校時也稱：“清代的特殊學校爲書院，而書院實爲清代唯一的教育人材機關。”<sup>50)</sup>

44) (清)梁廷樞：《粵秀書院志》卷13《科名略》，收入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3冊，江蘇教育出版社，1995，第166—167頁。

45) 戴鳳儀纂，南安市詩山教育史志編纂委員會點校：《詩山書院志》卷首，廈門大學出版社，1995，第3頁。

46) (清)鄭獻甫：《補學軒文集》卷2《學宮議》，收入《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第22輯，文海出版社，1975，第751頁。

47) (清)盛康輯：《皇朝經世文續編》卷65《學校下》，清光緒二十三年刻本。

48) (清)程廷祚撰，宋效永校點：《青溪集》卷9《與陳東臯論書院書》，黃山書社，2004，第208頁。

49) 《清史稿》卷160《選舉志一》，中華書局，1977，第3119頁。

## 結 語

明清五百多年，傳統帝國的教育確實存在一種趨勢。明前期官方構建了完整的學校體系，書院被排除在此體系之外，影響甚微。明中期以後，地方官員、提學官開始尋求學校之外培養人才的途徑，將目光轉向書院，引發明代書院建設的一個浪潮。在此背景之下，不少士人重新定位書院，認為它能夠“匡翼夫學校之不逮”，這種認識一直延續到清代。雍正末、乾隆初，朝廷對書院的支持，激發地方官員、士人建設書院的熱潮。隨着書院在地方的普及，以及在聚徒課士、膏火養士等方面較于官學的優勢，教育之重心轉向了書院，以致產生了“教士之實，莫如書院”的觀念。

誠如清人黃以周所言：“學校興，書院自無異教；學校衰，書院所以扶其弊也。”<sup>51)</sup>書院在教育系統中地位的改變，其決定因素之一即是官學能否履行其教育職能。明清兩代，朝廷不能有效祛除官學弊端，而士人接受教育的需求一直存在，這兩種現實促成了書院的持續發展。書院在教育系統中的地位及士人書院觀念的變化，最終影響到實踐層面，這不僅反映在士人、官員為培植人才建設書院的熱情上，更為重要的是，清末書院改制之時，政府選擇以書院為核心，重建了一套新的教育體系，最終影響了近代中國教育格局的形成。

---

50) 周予同：《中國學校制度》，“民國叢書”第三編第45冊，第110頁。

51) (清)黃以周：《儆季雜著·史說略》卷4《論書院》，清光緒二十年南菁講舍刻本。

【Abstract】

## From State-run Schools to Academies —The Shift of Educational Focus in Ming and Qing Dynasties—

Liu Yanwei

During Ming and Qing dynasties, the focus of education tended to shift from state-run schools to academies. In the early years of Ming Dynasty, a complete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authorities. However, the academies were excluded. And after the middle period of Ming Dynasty, local officials and Tixue(提学) began to seek some other ways to cultivate talents which were beyond the state-run schools, and recognized the status of academy as “supplementing the deficiencies of schools”. In Yongzheng(雍正) and Qianlong(乾隆) dynasties, the development of academies was promoted by the authorities’ support. With the prominent advantages of academies in gathering scholars and teaching scholars, the educational focus gradually turned to academies, which brought about the idea that “the reality of teaching in schools is inferior to academies”. The status of academy in the whole education system and the changes of scholars’ concept towards academy have affected the educational practice, and also influenced the formation of Chinese modern education pattern ultimately.

**Key words** : state-run school; Confucianism; academy; educational focus





## 청말(淸末) 서학(西學) 전파 추세 속 산장(山長)의 유학 고수(固守)

－유월(兪樾)의 고경정사(詒經精舍)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종요(宗堯)

### 【국문초록】

청대 말기, 열강의 중국 침략이라는 위기의 국면 속에서 구국(救國) 자강(自強)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서양의 과학 기술과 문화 지식이 중국 교육에 편입되었다. 서학 도입은 청대 말기 교육 내용에 혁신을 일으킨 것과 동시에, 전통 유학이 설 자리를 압박하게 되었다. 서학의 충돌에 대면하여, 고경정사(詒經精舍)의 산장 유월(兪樾)은 서원을 통해 유학의 발전 및 전승이 어려워진 상황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갑오(甲午) 이전, 유학의 통치술(治術)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던 때, 유월은 서원의 ‘치용(致用)’ 기능을 회복하여 서학과의 투쟁을 도모하였다. 갑오 이후, 양무운동의 실패와 더불어 유학의 ‘구세(救世)’라는 기대 효과는 부정당하고 말았고, 이에 유월은 서원을 유학 보존의 장소로 삼고자 하였다. 유월의 활동은 “도를 보위하고(衛道)”, “도를 전한다(傳道)”라는 이중적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던 청대 말기 서원 산장들의 실태를 드러낸다. 과거 ‘인문화성(人文化成)’을 주요 사회 통치 방식으로 삼았던 전통 정교(政敎) 질서가 붕괴하던 당시, 유월의 활동은 민족 문화의 앞길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보여준다.

**주제어** : 서원 산장, 유학교육, 서학, 정교질서, 민족문화, 고경정사(詒經精舍), 유월(兪樾)

## 晚清西学流布下书院山长的儒学坚守

—以俞樾在诂经精舍的活动为例—

宗尧

### 【中文摘要】

晚清时期，在列强交侵的变局下，出于救亡自强的需要，西方科技文化知识被引入本土教育之中。引进西学在促进晚清教育内容更新的同时，也挤压着传统儒学的生存空间。面对西学的冲击，诂经精舍山长俞樾试图通过书院来打破儒学在发展和传承上的困境。甲午前，当儒学的“治术”价值仍被认可时，俞樾希望通过在书院中对其“致用”功能的重振，来与西学争夺传播的领地；甲午后，在洋务运动失败，儒学“救世”功效基本被否的情况下，俞樾又企求通过对书院的保留，来作为儒学延续的基地。俞樾的行为，展现了负有“卫道”与“传道”双重责任的晚清山长群体，在近代以“人文化成”为主要社会治理方式的传统政教秩序崩溃之际，对民族文化出路的探索与思考。

**关键词：**书院山长；儒学教育；西学；政教秩序；民族文化；诂经精舍；俞樾

## 晚清西學流布下書院山長的儒學堅守

### —以俞樾在詒經精舍的活動為例—

宗堯

晚清時期，由於“所賴以造士者，獨在書院”<sup>1)</sup>，書院成為進行儒學教育和維系其發展的主要機構，其與儒學的一體化達到了最高峰<sup>2)</sup>。書院山長作為“書院的學術帶頭人、主講者兼行政首腦”<sup>3)</sup>，具體負責儒學教育的貫徹實施，對維護以儒學為核心的傳統政教秩序起着至關重要的作用。近代以降，引進、推行西學在着力解決國家政治、經濟危機的同時，也削弱着本土儒學在社會上的影響力，減少着儒學的受眾範圍，使民族文化的教育和傳承開始出現危機。山長群體因處在儒學教育的最前沿，所以對西學傳播妨碍儒學發展的態勢，更具有敏感性。“師者”與“學者”的雙重身份，使得他們在近代政治、經濟的更新發展之外，更關注與“國民性”相關的民族教育與文化的存亡問題，而通過堅守傳統教育以維護傳統文化，則成為他們在近代社會轉型中努力解決儒學傳承問題的主要途徑<sup>4)</sup>。

俞樾作為晚清時期主持考據學派最高學府詒經精舍<sup>5)</sup>達三十一年之久的一代“東南大師”<sup>6)</sup>，在甲午前後一直探索着振興和延續儒學教育的途徑。甲午前，其以書院為依托，集中心力於挖掘儒學的“治術”價值，欲通過在“救世”能力上的競爭，來與西學爭奪傳播的領地。甲午后，洋務運動破滅，在“孔、孟、程、朱亦不足法，專講西學，方有實用”<sup>7)</sup>的論調下，俞樾不再過分強調中學的致

1) 趙爾巽等：《清史稿·選舉一》，中華書局1977年版，第3119頁。

2) 于祥成：《清代書院儒學傳播途徑探微》，《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4年第3期。

3) 陳谷嘉、鄧洪波：《中國書院制度研究》，浙江教育出版社1997年版，第105頁。

4) 晚清時期，書院山長多由知名學者擔任。除俞樾主浙江杭州詒經精舍外，還有廖平主四川成都尊經書院、繆荃孫主山東濟南泺源書院、朱一新主廣東廣州廣雅書院、吳汝綸主河北保定蓮池書院、王先謙主湖南長沙岳麓書院、皮錫瑞主江西南昌經訓書院、黃休芳主江蘇江陰縣南菁書院、蔡元培主浙江嵊縣剡山書院等等。在書院主要承擔國家教育任務的情況下，書院山長群體無論在文化、學術界，還是在教育界的影響力都是首屈一指的。現今學界對書院山長群體的研究，多集中在近代以前。對晚清山長的研究還比較薄弱，既有成果主要集中在對山長生平事迹的考述上，詳見楊布生：《岳麓書院山長考》，華東師範大學出版社1986年版；周寧：《吳汝綸三辭保定蓮池書院》，《歷史檔案》2012年第2期；孟義昭：《李聯琇任鐘山書院院長時間考》，《江海學刊》2016年第5期；吳懷東、馬玉：《一次命中注定的“失之交臂”——王闓運落選保定蓮池書院山長史實述論》，《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7年第5期。對晚清西學東漸下，山長群體的態度反應及其依靠書院教育來維護儒學發展及傳承方面活動的考察，至今尚無相關成果問世。

5) 李國鈞：《清代考據學派的最高學府》，《岳麓書院通訊》1983年第1期。

6) 徐世昌：《清儒學案》卷183《俞樾曲園學案》，《清儒學案》第4冊，中國書店1990年版，第374頁。俞樾(1821—1907)，字蔭甫，號曲園，浙江德清人，晚清著名經學家。同治七年(1868)至光緒二十四年(1898)任杭州詒經精舍山長。

7) 皮錫瑞：《皮鹿門學長南學會第四次講義》，皮錫瑞著，吳仰湘編：《皮錫瑞全集》第8冊，中華書局2015年版，第23頁。

用功能，出于挽救民族文化危亡的考慮，他希望通過保留書院來作為儒學承續的專有基地。作為晚清時期在學術、教育兩界都舉足輕重的人物，俞樾的行為，代表了近代國家新旧轉型過程中，書院山長這一傳統士人群體，對保留、傳承民族文化的普遍態度和基本看法。

## 一、甲午前：“通經致用”下的“不涉時趨”

俞樾初主詁經精舍的十九世紀六七十年代，雖然西學伴隨洋務運動開始進入中國教育領域，但剿滅太平天國后，清廷的文教重建工作也在落實。一方面，儒學在意識形態中的統治地位被重新加強，另一方面，各地書院也在持續不斷地建設之中。此時俞樾關注的只是如何扭轉士人“厭實學而喜空談”的虛浮之風<sup>8)</sup>，其目所及，仍不出儒學的內部範圍。進入八十年代，國家的文教重建事務告一段落，而西學在近二十年的傳播中，在中國已形成一定的气候。在西學流布開始危及儒學發展的現實情況下，俞樾等一批傳統學人，急于從本土學術中找出一个回擊的辦法。

### (一)“西學難為用”

光緒七年(1881)，面對西學在中國愈發洶湧的傳播態勢，俞樾表達了頗為憂憤的心情：

今士大夫讀孔子之書而所孜孜講求者，則在外國之學……海外之書譯行于中國者，日以增益，推論微眇，創造新奇，誠若可愕可喜，而視孔子之書反覺平淡而无奇。聞彼中人或譏吾孔子能守旧章而不能出新法，如此議論，漢唐以來未之前聞，風會遷流，不知其所既極，故曰：“孔子之道將廢也。”<sup>9)</sup>

俞樾認為在自强道路中片面強調對西學的學習，于中國非但不利，反而有大害，原因在三个方面。第一，每個國家的具体國情不同，實現富强的方法也必然不同，為此，他強調：

一國有一國之富、教，不能通于他國……即如“方里而井，井九百畝”，此或可施于七十里之滕耳，齊梁大國，能用之乎？<sup>10)</sup>

第二，不顧中外差异，對西學不作變通地單純模仿，永遠不能實現赶超西方，應對外患的目的，光緒七年(1881)，他在所作《自强論》中有所陳述：

自泰西諸邦交于中國，而近又踵之以東洋海外各國，皆与我抗衡，而不能相下……于是賢知之士爭言自强而又不得其術，徒見其器械之巧，技藝之精，乃從而效之，奉其人以為師，曰非此不足以自强也。嗟乎！彼之智巧日出而不窮，而我乃區區襲其已成之迹，窃其唾弃之余，刻舟而求其劍，削足以合其屨，庸有濟乎！<sup>11)</sup>

8) 俞樾：《致吳存義》，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453頁。

9) 俞樾：《賓萌集》卷6《三大憂論》，《春在堂全書》第3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854頁。

10) 俞樾：《致宋恕》，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342頁。

至于第三点，他指出，中國民風淳朴，西方的“机巧之學”必會禍亂我國百姓之心，使上下离心离德，外人反有机可乘，為此他舉出子貢的事例以作說明：

子貢以桔槔教漢陰丈人，丈人不從，曰：“有机械者必有机事，有机事者必有机心”。烏呼！其所見遠矣！自泰西之說行于中國，而凡農事、織事皆欲以機器行之，大朴散而大偽興，吾惡知所底止也。<sup>12)</sup>

爲避免片面強調學習西學所產生的弊端，俞樾以儒家經典爲依据，提出了他“通經致用”以自强的构想。

## (二)“修孔孟之法以胜之”

与“西學爲用”相對，俞樾提出“苟于經史并通，即于体用兼備”<sup>13)</sup>，強調广大士人應在“博觀当世之務”<sup>14)</sup>的前提下“通經致用”。俞樾認爲傳統經史中的治國理政經驗，其正确性已被几千年的歷史實踐所証明，不但充分符合中國的國情，而且有着极强的可行性，所謂“觀其斷制乎古者不謬，則其施設于今者可知”<sup>15)</sup>。在從日本儒官竹添光鴻那里得知，其國明治維新中“孔孟之道，几乎掃地，一時殆有焚書之議。近時風俗偷薄，廟堂亦頗悔悟，稍知圣道。”<sup>16)</sup>的情况后，俞樾以儒學強國的信心更加充足。光緒十年(1884)，他在給竹添的夏信里，詳談了他“以經術自强”的构想：

夢見以西法盛行，欲修周孔之遺法以胜之，大哉言乎！鄙意則謂，居今之世，只須《孟子》七篇便是救時良藥，盖孟子時有善戰者、連諸侯者、辟土地者，人人自以爲得富强之策，亦犹今人之爭言新法也。使孟子而亦操此說，則无以駕乎其上矣，故盡掃而空之曰：“盍亦反其本矣。”所謂反本者，无他，省刑罰也，薄稅斂也，使耕者愿耕于其野，商賈愿藏于其市，久之并能使鄰國之人仰之如父母。誠如是也，在孟子之世，不過朝秦楚而莅中國，若在今日，則海外大九州，莫不來享，莫不來王矣。迂闊之見，因尊論而一發之，聊博万里一笑。<sup>17)</sup>

雖自謙爲“迂闊之見”，俞樾却早已着手實踐他的构想，作爲詁經精舍的山長，他的方法就是于西學流布的同時，在精舍中嚴格遵守阮元制定的成法，突出強調對經解古學的研習。爲此，其在光緒八年(1882)、十一年(1885)、二十年(1894)，再三向書院內外申明自己的辦學宗旨：

至詁經精舍，則專課經義，即旁及詞章，亦多收古体，不涉時趨。余頻年執此以定月旦之評，選刻課藝亦存此意，非敢愛古而薄今，盖精舍体例然也。<sup>18)</sup>

11) 俞樾：《賓萌集》卷6《自强論》，《春在堂全書》第3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852頁。

12) 俞樾：《春在堂雜文五編》卷6《王夢薇本務述聞序》，《春在堂全書》第4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440頁。

13) 俞樾：《致王凱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408頁。

14) 俞樾：《春在堂雜文四編》卷7《皇朝經世文續集序》，《春在堂全書》第4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28頁。

15) 俞樾：《春在堂雜文四編》卷7《皇朝經世文續集序》，《春在堂全書》第4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28頁。

16) 俞樾著，方霽点校：《春在堂隨筆》卷7，江蘇古籍出版社2000年版，第94頁。

17) 俞樾：《致竹添光鴻》，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689頁。

夫詁經精舍所課者，古學也。余所選經解詩賦，皆求合乎古，而不求合乎今。<sup>19)</sup>

余自戊辰之歲忝主斯席，迄今二十八年。區區之愚與精舍諸生所忝懽者，務在不囿時趨，力追古始。<sup>20)</sup>

對於通過研習經義以致用的效果，俞樾有着極高的期待與憧憬：

伏念內治修，斯能外侮勝。富教語本孔，省薄策用孟。行見光緒年，追夏乾隆盛。仁者自無敵，制梃不待刃。彼海外諸國，來享兼來王。豈敢以鱗介，而妨我冠裳。年年賀正月，國國列職方。司天班正朔，普及東西洋。奉到時憲書，一例陳旂羊。<sup>21)</sup>

但隨着清廷在甲午海戰中的戰敗，俞樾“以經術自強”的構想也隨之毀滅。

## 二、甲午後：“守先待後”中的“不通時變”

光緒二十年(1894)，北洋海軍在中日戰爭中的覆沒，使得洋務運動以失敗告終，可是受日本通過明治維新迅速崛起的刺激，西學在中國非但沒有被棄置一旁，反而在“強國”層面更加受到世人的追捧。以英、美傳教士所辦譯書機構上海廣學會為例，其在華銷售額，由甲午前1893年的洋銀八百餘圓，猛增至1898年的一萬八千餘圓，六年間翻了22.5倍<sup>22)</sup>，此時俞樾的得意門生章太炎，在與其信中，也充分表達了對西學大行於世的憂慮：“舉世皆談西學者，無阮儀征、魏邵陽之識，吾道孤矣”<sup>23)</sup>。

儒學既在西學的“肆虐”下人心大失，那麼其教育、傳播的載體——書院也開始面臨被革廢的境遇。光緒二十二年(1896)，山西巡撫胡聘之、刑部左侍郎李端棻、翰林院侍講學士秦綬章相繼向朝廷上書，要求改革書院，添設西學，其中李端棻甚至要求：“可令每省每縣各改其一院，增廣功課，變通章程，以為學堂”<sup>24)</sup>。面對孔孟之學受損，書院朝不保夕的態勢，在強烈的文化危機意識下，俞樾把書院的存留視為儒學存續的屏障，希望通過對書院的堅守，來為儒學保留下一片延續和傳承的基地。

### (一)“勉守講席待後賢”

18) 俞樾：《詁經精舍課藝五集》卷首《詁經課藝五集序》，鄧洪波主編：《中國書院文獻叢刊》第2輯第54冊，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9年版，第5頁。

19) 俞樾：《詁經精舍課藝六集》卷首《詁經精舍六集序》，鄧洪波主編：《中國書院文獻叢刊》第2輯第55冊，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9年版，第7頁。

20) 俞樾：《詁經精舍課藝七集》卷首《詁經精舍七集序》，鄧洪波主編：《中國書院文獻叢刊》第2輯第56冊，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9年版，第275頁。

21) 俞樾：《致鄭文焯》，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註》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646頁。

22) 叶小青：《近代西方科技的引进及其影响》，《历史研究》1982年第1期。

23) 俞國林、朱兆虎：《章太炎上曲園老人手札考釋》，《文獻》2016年第1期。

24) 朱壽朋編，張靜廬等校點：《光緒朝東華彙》卷134《光緒二十二年丙申年五月》，《光緒朝東華彙》第4冊，中華書局1958年版，第3792頁。

光緒二十年(1894)，惊于世事的逐日變遷，年過古稀的俞樾已生退隱之心，在致杭州籍官員陳豪的信中，他吐露了這一心迹：“兄年已七十有四，精力日衰，學業日退，詒經一席，尸素多年，不久亦当引去矣。生平豪无實學，浪博虛名，老運屯遭，門庭凋落，職此之由，不足爲知我者道也。”<sup>25)</sup>是年，在与學生章梈的信中，俞樾再次提及退院的想法，但精舍日漸慘淡的境況，使其又不得不留下來爲書院强撐門面，“近來当事諸公皆无意于此，故官課每有以一文一詩了事者，然則鄙人去后，精舍之廢興亦可知矣”<sup>26)</sup>。從浙江省府官員消极的態度中，俞樾隱隱地看到了書院的結局。很快，這種消极的應付就變爲了公開的指責。光緒二十一年(1895)，浙江巡撫廖壽丰借爲精舍課藝集作序之机，對書院的辦學宗旨提出了批評：

顧學所以御世變也，文達当日以經義故訓提倡后學，士風爲之一振。然其失也，以新奇餽釘爲事，以抄撮剽襲爲工，泥古而不能通今，即其所爲古者，亦陳言而无心得。由是言之，古學之弊，一前明之帖括也。夫道有窮而必通，勢積重而思返。<sup>27)</sup>

廖巡撫的“道窮必通，勢重思返”暗示着浙江書院改革的勢在必行。光緒二十二年(1896)，在胡聘之提議通過變通書院章程來兼容西學后，廖壽丰当即就浙江書院改革一事，飭令杭州各書院監院集中商議。俞樾得知此事后，在立足于書院內外現實情況的基础上，向廖去信，發表了自己的意見。

俞樾認爲，在列强交侵，中國遠遠落后于西方的現實下，广大士子不能不通曉西學，所以改革書院自然是当務之急，但是不考慮現實困難，驟然變通，則必會欲速而不達。他提出，浙江書院，除詒經精舍專課經義外，其他書院都以時文爲主業，書院的學生，均爲年歲已長之人，精力有限，心力難專，即使强迫其學習西學，他們也僅是學得皮毛而不能深入，故推广西學最好的辦法，莫過於“挑選年輕聰敏子弟粗通中國文法者，取入學堂，使之先學西人語言文字，然后次第授以西學，數年之后，可望有成”<sup>28)</sup>。至于另創學堂的經費，俞樾也作了考慮：“杭城中敷文、崇文、紫陽、詒經、學海暨東城講舍，書院凡六，自山長束脩至監院薪水、考生膏火，酌減一二成或二三成，即以節省之費設立中西學堂。”<sup>29)</sup>俞樾最后向廖壽丰強調，惟有在保留書院的基础上另設學堂，才能“既不失中國旧有之規模，而可以收西學將來之效驗”<sup>30)</sup>。爲了澄清自己以山長身份回護書院之嫌，他還不忘向廖申明：“然此非鄙人之自爲謀也。弟自承乏詒經，二十九年矣，私心初愿，以爲若再忝一年滿三十年，便宜辭退。今變通之際，苟自揣力不能胜，即当引避賢路。所以陳此

25) 俞樾：《致陳豪》，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22頁。

26) 俞樾：《致章梈》，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622頁。

27) 廖壽丰：《詒經精舍七集序》，俞樾編：《詒經精舍課藝七集》卷首，光緒二十一年刻本。

28) 俞樾：《致廖壽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186頁。

29) 俞樾：《致廖壽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2014年，第186頁。

30) 俞樾：《致廖壽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186頁。

區區者，乃敬獻芻蕘，以助集思之益，非貪戀棧豆而爲自便之謀，想公亦必鑒之而諒之也。”<sup>31)</sup>廖壽丰在收到俞樾的信后，經過認真考慮，採納了他的意見。光緒二十三年(1897)，杭州新設兼課中西實學的求是書院，變通舊書院的動議暫時告終。

書院雖然未被大改，可是相較于西學的炙手可熱，儒學的發展前景始終暗淡。求是書院創辦的當年，正值俞樾主詁經講席滿三十年，在年初開課之日，他寫下了對傳統學術命運的憂慮：

三十春秋成一世，天時人事從而異。梨棗爭刊新譯書，丹鉛競寫旁行字。萬國同文西學興，西方教士發鬚髻。已愁禹迹淹將盡，更恐秦坑燄又騰。……今朝循例來開課，吾道非歟无乃左。痛哭先師許鄭前，一杯難勝車薪火。老我行將與世辭，諸生努力強支持。守先待後百年事，會有天元極盛時。<sup>32)</sup>

時局雖使書院山長的位置已不值得留戀，可是“守先待後”的文化責任感與教育使命感，卻又讓俞樾決心爲書院與“道”的存續再作一番努力。故在當年山長任期已滿，巡撫廖壽丰又致禮續聘時，俞樾雖有意推辭，但念及如若離去，精舍規模必大變，故又勉強接受了聘請。對於留下來的考慮，他有一番表露：

自擁臯比三十年，衰齡何敢再流連。但思興廢關吾道，猶把修明待後賢。滄海狂流无計挽，夕陽殘景暫時延。明年一掬憂時淚，重洒先師許鄭前。<sup>33)</sup>

在詩中，俞樾把存續和復興孔孟之道的希望，寄托在了書院年輕一輩身上，而他要做的，就是以自身的影響力把精舍保留下來，然后把畢生所學傳之後人，通過教育授受的方式來維持儒學的綿延不絕。爲此，他甚至不在乎世人的議論與嘲諷：

嗟乎！此三年中，時局一變，風會大開，人人爭言西學矣。而余與精舍諸君子，猶蹉跎焉抱遺經而究終始，此叔孫通所謂鄙儒不通時變者也。……精舍奉許、鄭先師栗主，家法所在，其敢違諸風雨鷄鳴？愿與諸君子共勉也。<sup>34)</sup>

此番言論發表后的光緒二十四年(1898)四月，由康、梁主導的維新變法運動開始。五月，在《奏擬京師大學堂章程》頒布后，光緒帝批准康有爲請求改各省書院、淫祠爲學堂的上奏，于同月二十二日，發布改書院爲學堂的上諭，“着各該督撫督飭地方官各將所屬書院坐落處所、經費數目，限兩個月詳查具奏，即將各省府廳州縣現有之大小書院，一律改爲兼習中學、西學之學校。”<sup>35)</sup>

俞樾得知消息后，“驚時局之驟新，誦《兔爰》之詩，爲之太息”<sup>36)</sup>。朝廷對書院的撤廢，使他

31) 俞樾：《致廖壽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186頁。

32) 俞樾：《春在堂詩編》卷16《余主詁經精舍講席至今歲三十年矣，開課之日慨然有作》，《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26頁。

33) 俞樾：《春在堂詩編》卷16《余主講詁經三十年矣，明歲中丞又致禮幣，宜以衰朽辭。然念近來時局日新，余去后，精舍規模必大變矣。姑藉孱軀，稍留殘局》，《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30頁。

34) 俞樾：《詁經精舍課藝八集》卷首《詁經精舍八集序》，鄧洪波主編：《中國書院文獻叢刊》第2輯第58冊，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9年版，第4頁。

35) 《清實錄·德宗實錄》卷420《光緒二十四年五月下》，《清實錄》第57冊，中華書局1986年版，第504頁。

36) 俞樾：《致瞿鴻禨》，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



意識到，儒學也很可能會面臨同樣的結局，其通過師承來堅守儒學的決心開始動搖，當年六月，他向廖壽丰遞了辭呈<sup>37)</sup>。

辭呈遞上后，不料維新運動在兩個月后即夭折，慈禧太后在廢止運動的次月，又下達了各省書院不必改為學校的懿旨。可其中“書院之設，原以講求實學，并非專尚訓詁、詞章，凡天文、輿地、兵法、算學等經世之務，皆儒生分內之事，學堂亦不外乎此。”<sup>38)</sup>的申述，又使俞樾清楚地看到，與幾個月前的上諭相比，書院保留下來的只是名，教學內容的改變已不可避免，這依然不利於儒學教育的發展。但“從俗浮沉，既所不欲；固執不變，又所不能”<sup>39)</sup>，在“世上從無不散席，人生難得好收場”<sup>40)</sup>的考慮下，俞樾再三拒絕了巡撫廖壽丰的挽留。

光緒二十四年(1898)十月，俞樾由蘇至杭，二十日，在精舍舉行了自己任內最后一次師課。二十八日，在“赴各大憲衙門及紳士處辭成”<sup>41)</sup>后，他返回了蘇州。離開精舍前，俞樾不忘向先師許慎、鄭玄表白自己辭職的苦衷：“老夫一掬憂時淚，屢洒先師許鄭前。先師許鄭鑒微誠，精力衰頹竊自程。縱使豹皮猶護惜，不煩螳臂再支撐。”<sup>42)</sup>對於精舍諸生，他也有所期許和交待：“節堂維繫非无意，講舍攀留更有情。寄語諸君仍努力，他年會有濟南生。”<sup>43)</sup>希望院中生徒能够堅守孔孟之學，直到其晦而夏明的一天。

## (二)“常愿師承牢守旧”

離開書院后，俞樾並沒有放棄對“守先待后”的堅持，作為詁經精舍的前任山長，他仍然密切關注着精舍和儒學的發展。光緒二十五年(1899)五月，在舉荐的繼任山長黃体芳去世后，俞樾又向新任巡撫劉樹堂推荐了自己的學生汪鳴鑾。是年七月，在得知其已于精舍開課后，俞樾在欣喜之余，寫下了對高徒的期望：“好尋嘉道流傳派，莫負儀征創建情。我似老僧宜退院，敢將衣鉢屈先生。”<sup>44)</sup>希望汪鳴鑾能接續自己的事業，并將之發揚光大。

但“常愿師承牢守旧”<sup>45)</sup>的心愿，終究不能實現，在俞樾將精舍托付給學生的第三年，即光緒二

---

社2014年版，第292頁。

37) 俞樾：《致廖壽丰》，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上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188頁。

38) 《清實錄·德宗實錄》卷430《光緒二十四年九月下》，《清實錄》第57冊，中華書局1986年版，第654—655頁。

39) 俞樾：《致王同》，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429頁。

40) 俞樾：《春在堂詩編》卷17《詁經精舍今歲又虛講席，劉景韓中丞兩次來書，請夏主詁經，而精舍諸生亦同稟中丞，力申是請，率賦小詩謝之》，《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37頁。

41) 《西湖佳話》，《申報》1898年12月19日，第3版。

42) 俞樾：《春在堂詩編》卷16《戊戌冬日留別詁經精舍》，《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35頁。

43) 俞樾：《春在堂詩編》卷16《戊戌冬日留別詁經精舍》，《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35頁。

44) 俞樾：《春在堂詩編》卷17《余言于景韓中丞，請以汪柳門侍郎主詁經講席，聞開課有日，喜贈一詩》，《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37頁。

45) 俞樾：《春在堂詩編》卷17《八十自悼》，《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47

十七年八月初二日(1901年9月14日)，清廷正式下達了改書院爲學堂的上諭，這意味着全國書院都將陸續被改革并納入學堂的軌道，与之配套，科舉制的改革与新學制的編訂也在緊鑼密鼓地進行之中。

制度變革對社會人心的影響無疑是巨大的，就在新制起步的這年，上海一批言新學者，当即要求廢除儒經，俞樾聽聞后，憤然作詩一首：

公然倡議廢群經，異論高談不可听。萬古秋陽常皜皜，一朝秦燄又熒熒。鋪張海國新聞見，播弄尼山旧典型。昔抱三憂今竟驗，坐看白日變幽冥。<sup>46)</sup>

但怒歸怒，現實終究无法改變，“坐看白日變幽冥”的無奈，使俞樾對依靠師徒授受來傳承儒學的方式亦心生渺茫，在与學生于鬯的信中，他寫道：

方今時局至此，吾道將廢，非百年之后，恐无人哀理此業，雖有伏生，亦不能待。鄙人年老心灰矣，足下年未五十，或尚可努力乎？<sup>47)</sup>

在如此時局下，精舍的教學內容也開始發生變化。光緒二十九年(1903)，汪鳴鸞在精舍余屋中設置中學堂一所，開始了新式課程的探索<sup>48)</sup>。但新式學制的頒行和各級學堂的建立，使得書院早已成爲教育組織中的邊緣和末流，被全面裁廢，只是時間的問題。

光緒三十年(1904)，俞樾曾任山長的蘇州紫陽書院被廢，他在感時傷世之余，作詩嘆之：“昔時吳下寄琴罇，一再春風講席溫。白發門生猶有在，紫陽書院竟无存。百年喬木今蕭瑟，兩地名山旧弟兄。小小雪泥留不得，那堪天上問巢痕。”<sup>49)</sup>紫陽書院被廢的次年，在科舉改革的影響下，精舍的撤廢也提上了議程，眼看自己依靠生徒在書院中傳承儒學的希望即將落空，俞樾在危急中致書巡撫聶緝槩，懇請暫留書院：

昨得杭友書，言敷文、詒經兩院生徒風聞有裁撤之說，吁懇暫留……伏思功令雖停止科舉，未始不体恤寒微，是以展行优拔之說。如蒙推广朝廷德意，略留寒士生涯，未始非杜厦白裘之雅意也。敷文弟未深悉，詒經每歲支領，不過二千餘金，即使撥入學堂，亦屬鉤金杯水。聞江蘇、安徽、湖南、湖北各留片席，安頓老生，未知吾浙亦可仿行否？第三十一年詒經老山長，不能忘情，冒昧瀆陳，伏求裁定。<sup>50)</sup>

信發出后，精舍当年沒有被廢，可是兩年來其成法改變，勉強辦學的現狀，使俞樾意識到僅依靠生徒來“守先待后”的安排，也是极不穩妥的，爲使自己一生的儒學著作不至絕滅，他效仿秦時“焚書坑儒”下儒生的做法，開始了自己“藏書以存道”的行動。光緒三十一年(1905)四月至三十二年(1906)三月，俞樾先后給學生毛子云修書近二十封<sup>51)</sup>，請其在杭州城中擇干燥之處開鑿書藏，用

頁。

46) 俞樾：《春在堂詩編》卷18《憤言》，《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262頁。

47) 俞樾：《致于鬯》，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596—597頁。

48) 《添設學堂》，《申報》1903年5月10日，第3版。

49) 俞樾：《春在堂詩編》卷21《聞吳下紫陽書院廢，詩以嘆之》，《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08—309頁。

50) 俞樾：《致聶緝槩》，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247頁。

來貯存自己畢生所著之《春在堂全書》，并反復向其叮囑，此乃“千秋萬古之事”<sup>52)</sup>。

光緒三十二年(1906)三月初九日，俞樾的藏書之事最終完成。兩天后的三月十一日，《申報》發布消息，“杭省之學海、詁經、敷文三書院，今歲一律停課，所有常年款項并入師範學堂”<sup>53)</sup>。精舍的撤廢，使俞樾在短期內看不到廣續儒學的希望，他作《詁經精舍歌》以志失落之情：

功令新頒罷場屋，精廬一律同零落。八集詁經文可燒，重修精舍碑應仆。回首前塵總惘然，重重春夢化為烟。難將一掬憂時淚，重洒先師許鄭前。年來已悟浮生寄，掃盡巢痕何足計。海山兜率尚茫茫，莫問西湖旧游地。<sup>54)</sup>

但很快，儒學的復興似乎又有了轉機。書院、科舉相繼被廢后，儒學影響力和認可度的降低，使朝廷又必須要加強對社會人心的引導和管控。光緒三十二年(1906)十一月，清廷先是將祭祀孔子的等級由中祀升為上祀，后又下旨在曲阜設立專門教授儒學的學堂，這些舉動使俞樾的寂然之心重又燃起，他前后作詩兩首，以表內心的欣喜之情：

江漢秋陽孰與倫，巍巍道德配乾坤。外人方欲群經廢，明詔還將至聖尊。

俎豆森嚴升上祀，章縫歌頌滿橋門。從前私慮今全釋，始信斯文萬古存。<sup>55)</sup>

危言日出奈非倫，曼衍將盈大地坤。欲使百家消異喙，須為萬世定常尊。

羅陳俎豆昌平里，屏絕桓文孔氏門。想見詩書崇正術，無論漢宋總長存。<sup>56)</sup>

朝廷對孔子文教地位的提升和對儒學傳承的關注，使俞樾相信在國家行政力量的保證下，儒學各個派別的存續與發展都將不成問題，自己長久以來的憂慮也終於可以棄置一旁。兩首詩寫完的次月，俞樾去世。僅僅五年后，清王朝即宣告滅亡。次年，民國新學制停廢經學科目，儒學在學校教育中被清除。

### 三、俞樾通過書院堅守儒學的出發點及分析

中國傳統時代以文化立國，儒學是國家內政外交圍繞的核心。在對外關係上，對儒家文化的認同是區分“華夏”與“夷狄”的標準，在內政處理中，儒學是規範社會運行的“治術”。這種以“學術”為“治術”的社會統治模式，把教育、教化作為進行社會治理、統一國家秩序的主要手段，通過“借儒

51) 俞樾：《致毛子云》，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226—234頁。

52) 俞樾：《致毛子云》，張劍、徐雁平、彭國忠主編；張燕嬰整理：《俞樾函札輯証》下冊，鳳凰出版社2014年版，第229頁。

53) 《查復三書院公款》，《申報》1906年4月4日，第9版。

54) 俞樾：《春在堂詩編》卷23《詁經精舍歌》，《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48頁。

55) 俞樾：《春在堂詩編》卷23《光緒三十二年十一月十五日，詔升孔子為上祀，恭紀》，《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65頁。

56) 俞樾：《春在堂詩編》卷23《是月二十三日，又有詔于曲阜縣特設一學堂，仍用前韻恭紀》，《春在堂全書》第5冊，鳳凰出版社2010年版，第365頁。

學義理的灌溉薰化，使生息于民間的芸芸衆生由各安其心而各安其分，由各安其分而安己安人”<sup>57)</sup>。作為中國傳統文化的主体，儒學對國人精神氣質和價值觀念的統一，既塑造了國人的民族性，保證了中華民族几千年綿延不絕，也在國人內心深處形成了“規矩”，維持着傳統社會的和諧與穩定。

這種以教化為治理的施政方針和統治模式，使得政治、文化、教育三者共同構成了一種密不可分的政教秩序。一方面政治秩序和文化秩序互為表里，相互依存，另一方面政治、文化秩序的運行又必須借助教育秩序的建立來實現。教育的缺失，直接威脅着政治和文化發揮作用的效力。由于士為四民之首，“士習端則民俗一，民俗一則德教易以施”<sup>58)</sup>，故讀書人對儒學思想的接受程度，直接決定着官府社會治理的成效。隋唐以後，科舉制度的推行，調動了社會各界接受儒學教育的熱情，提高了學校的就學率，有利于官府教化的推行。所以在以“儒學－科舉－學校”為主要形式的教育秩序形成後，歷代統治者都十分重視對其的繼承和發展。晚清時期，學校的職能主要由書院來發揮，故“讀書窮理，繼承聖賢，專研儒學”也成為“書院的重任”<sup>59)</sup>。

晚清以“師夷長技以制夷”為指導思想的自強運動，首先波及教育領域。隨着西學在學堂中的傳播和在書院中的蔓延，儒學的傳播受到西學的挑戰，中國傳統的教育秩序開始出現不穩定因素。由于中國的教育秩序與文化、政治秩序緊密相連，教育秩序的崩潰引發的必將是傳統政治的解體和民族文化的消亡。以俞樾為代表的書院山長群體具體負責儒學教育的實施，處在維護政教秩序的最前沿，對西學傳播沖擊儒學教育的現實感受最深，對由此引發的傳統政教秩序崩潰及民族文化消亡的危機意識也更為強烈。“學者”和“師者”的雙重身份，使他們相較于其他士人群體，既負有“衛道”的責任，也負有“傳道”的責任，而基于“衛道”的“傳道”，則使他們格外強調儒學對教育的掌控，在書院主要承擔造士功能的情況下，也就是格外強調儒學和書院的統一關係，這在當時的山長群體中是一種普遍的態度。

光緒十五年(1889)，李用清任山西晉陽書院山長，每日必為諸生講解《小學》、詩書數章，在院中強調：“此做人根本也。近日異學充塞，正道几于不明，吾黨其力持之。”<sup>60)</sup>光緒二十四年(1898)，張謇在其主教的南京文正書院中也對生徒加以加以誠告：“中學為立身始基，從學者往往揚西抑中，未免舍本逐末”<sup>61)</sup>。同一時期，浙江黃岩九峰精舍山長王棻認為通過改革書院來推行西法西學的行為，乃“舍旧圖新，用夷變夏”<sup>62)</sup>之舉。所以當黃岩縣令就改并“灵石、樊川兩書院，瑞岩、灵江二義塾”四處學校以創立“西學書院”之事征求其意見時，王棻提出“書院宜增不宜裁”，如必專務

57) 楊國強：《科舉制度的歷史思考》，楊國強著：《衰世與西法——晚清中國的旧邦新命和社會脫樞》，中華書局2014年版，第429頁。

58) 賀濤：《賀濤文集》卷1《大名書院增膏火記》，華東師範大學出版社2011年版，第16頁。

59) 張傳燧、袁浪華：《傳統書院何以消亡？》，《大學教育科學》2017年第1期。

60) 崇綺：《李菊圃中丞墓志銘》，李用清著：《李用清課士語彙》，中國文史出版社2011年版，第312頁。

61) 張謇：《金陵文正書院西學堂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第1卷，中西書局2011年版，第200頁。

62) 王棻：《柔橋文鈔》卷13《夏王子裳書》，《清代詩文集匯編》編纂委員會編：《清代詩文集匯編》第707冊，上海古籍出版社2010年版，第764頁。

西學，最好在不觸動旧有書院和儒學教育的情況下，另設一新院，“分考算法兼天文，史學兼輿地，性理兼格致，兵法兼製造諸務”<sup>63)</sup>。

甲午前，西學作為一種教育內容，僅在為數不多的新式學堂中推行，在教育領域中不居于主流。甲午后，書院、科學在官府的主持下，由改到廢，隨之學堂逐漸取代書院成為學校的主体，西學也在教育領域對儒學形成了壓倒性優勢，出現了“西學暢行，誰復留心經史旧業？”<sup>64)</sup>的局面。所以同樣強調書院與儒學的統一關係，在書院主要承擔國家教育職能的甲午前，其側重點在使儒學依靠書院來實現對教育領域的掌控，以遏制西學的傳播與發展。在學堂逐漸取代書院成為主流教育組織的甲午后，其重心則在保留書院以作為儒學賡續的專有基地。從“通經致用”到“守先待后”展現的是儒學由“治術”退歸“學術”過程中對挽救時局的無能為力，而由“不涉時趨”到“不通時變”展現的則是傳統政教秩序崩潰之際，教育組織對承載儒學的力不從心。

近代中國通過對西方文化、制度的學習借鑒，逐步完成了從古代王朝向現代國家的更替，隨着傳統政教秩序的崩潰，以“人文化成”為主要手段的社會治理方式逐漸被“以法治國”所取代，伴隨傳統政治的消亡，傳統文化也面臨被舍弃的危險。雖然儒學中的落后因素確實不利于中國近代政治、經濟的現代化進程，這也是以俞樾為代表的山長群體難以按照旧有模式不做變通地在書院中守護儒學的根本原因。但是作為在几千年深厚歷史實踐中形成的中華民族的“精神血脉和文化之根”<sup>65)</sup>，儒學中的積極因素，却是在列強交侵、西學蔓延的險峻形勢下，維系民族認同，維護國家統一的精神源泉和文化紐帶，這則是俞樾等人堅持通過保留書院來確保儒學承續的出發點。

晚清書院、科學相繼廢除后，對如何確保儒學這條民族文化之根的教育傳承，國人探索和嘗試過多种方式，但無論是晚清以保存國粹為目的的存古學堂的設立，還是民國時期以復興民族傳統文化為主旨的書院復興運動及無錫國專、湖南國專的創建，最終都以失敗告終，難見成效。歷經百余年的侵蝕與沖擊，“儒家文化正處於不斷流失，甚至瓦解的地步”<sup>66)</sup>，由此引發的民族虛無主義、崇洋媚外問題也日益凸顯。至于在新的歷史時期，應怎樣守護儒學發展，進行儒學傳承，仍是中華民族偉大復興征程中，值得引起國人深思和不斷探索的一個問題。

63) 王棻：《柔橋文鈔》卷13《與關次琛書》，《清代詩文集匯編》編纂委員會編：《清代詩文集匯編》第707冊，上海古籍出版社2010年版，第764頁。

64) 吳汝綸：《答方倫叔》，《吳汝綸全集》第3冊，黃山書社2002年版，第381頁。

65) 陳先達：《厚植文化自信 增強戰略定力》，《紅旗文稿》2019年第17期。

66) 董衛國：《作為“文化信仰”的儒學及其現實意義》，陳明、朱漢民主編：《原道》第33輯，湖南大學出版社2017年版。

Abstract

The Principal's Persistence to Confucianism under the spread  
of Western learning in the Late Qing Dynasty  
—A Case Study of Yu Yue's Activities in the GuJing Academy—

ZONG Yao

(Yuelu Academy, Hunan University, Changsha 410082, Hunan, China)

In the late Qing Dynasty,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Western powers invading China, Western Learning were introduced into local education in order to save and strengthen the countr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learning not only updated the educational content, but also squeezed the living spac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Facing the assault of Western learning, Yuyue, the principal of the GuJing Academy, tried to break the predicament of Confucianism in development and inheritance through the academy. Before 1894, when the value of Confucianism in governing the country was still recognized, Yu Yue hoped to compete with Western learning for the territory of dissemination by revitalizing the practical functions of Confucianism in the academy. After 1894, When the Westernization Movement failed and the effect of Confucianism in saving the destiny of the country is basically denied, Yu Yue sought to retain the academy as a base for the continuation of Confucianism. Yu Yue's behavior shows at the time of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political civilization order with "civilization through humanities" as the main social governance method, the principal group that had the dual responsibility of "defending the doctrine" and "spreading the doctrine", explored and considered the future of Chinese national culture.

**Key words :** principal ; Western Learning ; Confucian education ; Political Civilization Order ; national culture ; GuJing Academy ; Yu Yue

## 세션 1. 한중서원의 제향과 관련인물





##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 —강서(江西) 일대 서원을 중심으로—

배다빈

#### 【국문초록】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본원(本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서원 문화는 당대(唐代)로부터 오랜 기간 변화를 겪으며 발전과 확장을 거듭해왔다. 그 발전의 배후에는 민(民), 관(官)으로 구분되는 운영 주체의 상호 협력과 유(儒), 불(佛), 도(道)의 긴장 및 융합, 그리고 유가 학술 사조의 변천이라는 다양한 요소 및 역사적 사건들이 변화 기제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중국의 많은 지역 가운데 전통 서원 문화 완비의 중심이자 송명(宋明) 신유학과 함께 발전한 강서(江西)지역 주요 서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서원의 제향 인물 변천 양상을 확인,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강서지역의 사상적 특징과 지역성을 고찰해본다. 강서지역 서원 문화의 대표성과 지역성은 중국 서원 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선진 유가, 정주이학 및 양명학이라는 다양한 유가 사상의 역사적 지층(地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주제어 : 중국 서원, 유학, 제향 인물, 제사, 강서(江西)

## 从祭祀人物的变化来看中国书院的思想特质

### —以江西书院为中心—

裴多彬<sup>1)</sup>

#### 【中文摘要】

作为东亚书院文化本源，中国书院文化从唐代开始经历了长期的变化历程，不断发展和扩张。其发展的背后存有各种理由：民、官运营主体的相互合作、儒、佛、道的紧张及融合、以及儒学术思潮变迁等，如是多种因素及历史事件起到了变化的作用。本文将关注在中国许多地区中传统书院文化完备的中心——江西地区，江西书院确实与宋明新儒学共同发展，其中笔者特别着眼书院祭祀人物变迁情况，进而相互比较来考察江西地区的思想特征和地区性。江西书院文化的代表性与地域性，实际上体现了中国书院文化的开放性和多样性，以及先进儒家、程朱理学及阳明学等儒家各思想的历史地层。

**关键词：**中国书院；儒学；祭祀；祭祀人物；江西

---

1) 韩国岭南大学校哲学系讲师、民族文化研究所共同研究者。

#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 —강서(江西) 일대 서원을 중심으로—

배다빈(영남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 강서성 일대 주요 서원의 제향 인물과 그 변천 양상 파악을 통해 중국 서원의 사상적 보편성과 지역성을 고찰해보는 데 있다. 서원의 제향 인물은 곧 그 서원의 학술적 정체성과 학문 경향, 그리고 학맥의 정통성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원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 테마이다. 그러나 중국 서원의 제향 인물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그간 국내에 이루어진 동일 테마의 한국 서원 관련 연구성과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현승(2021)은 강서성과 서원 문화라는 연구 테마와 관련해 본 연구의 주제적 합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sup>2)</sup> 범혜한의 논문은 강서 백록동서원의 연혁과 운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sup>3)</sup> 그러나 중국 서원 제향 문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강서 몇몇 서원의 제향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서 일대의 유학 학풍과의 관련성 및 주요 서원의 성격을 알아보고, 나아가 제향 인물의 역사적 변천으로부터 발견되는 일련의 사상적 보편성과 지역성에 그 이론적, 실질적 당위성을 기하는 일련의 해석을 부여해보려 한다.

필자는 우선 ‘강서’, ‘제향 인물’, ‘지역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상적 변천’이라는 용어로 연구 범위를 특정하게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연구 지역에 관하여 말하면, 강서성<sup>4)</sup>은 중국에서 명-청대에 걸쳐 가장 많은 서원이 설립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전통 서원의 형태와 학술적 의미를 정초한 주희(朱熹)의 백록동서원이 속한 지역이

2)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6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3)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4) 현재 강서는 ‘성(省)’급 행정단위로 분류되어 강서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당대(唐代)부터 강서성의 지역 구획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여, 이하 ‘강서지역’ 혹은 ‘강서 일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표현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다.

기도 하다. 이는 곧 강서 일대의 서원 조성과 발전이 중국 전체의 서원사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향 인물은 한 서원의 건립 이념, 학술 경향 및 정통 학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서원의 원임 계보 및 강학 내용과 더불어 그 서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역성’과 ‘보편성’은 일종의 상대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지역성’은 시공(時空)의 변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 서원의 개성적 특징을 의미하고, ‘보편성’은 각 서원이 지리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의미한다. ‘사상적 변천’은 곧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강서성 일대 주요 서원 제향 인물의 보편화 양상 및 지역성의 유지 가운데 ‘사상적 특징’으로 규명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한다.

사실 이처럼 시공적, 주제적 특징을 충분히 밝히는 것은, 기존의 한국 서원의 제향 인물에 관한 연구 접근법을 중국 서원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대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중국 서원의 최대 부흥기였던 명, 청대 강서 일대에 건립, 유지된 서원은 각각 221, 282개소<sup>5)</sup>에 달한다. 따라서 강서지역에 소재한 서원들의 모든 제향 인물을 열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니와, 이로부터 귀납할 수 있는 연구 결론 또한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각 서원의 제향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선현(善賢), 선유(先儒) 및 향현(鄉賢), 명환(名宦)의 양상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부(府), 현(縣) 단위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 지역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갖는 중국 서원의 특징을 고찰해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연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는 국내에서는 중국 특정 지역의 향현, 명신의 출신과 학맥뿐만 아니라 그들과 주요 유가 학파와의 긴밀한 연관 관계가 아직 실증적으로 면밀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는 인식이 작용한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서원 연구가 그간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서지역 내부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서원을 위주로 그 사례를 확인해봄으로써, 나름의 연구 정당성과 내용적 가치 및 연구 결론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강서 4대 서원으로 알려진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백로주서원(白鷺洲書院), 예장서원(豫章書院), 아호서원(鵝湖書院)을 비롯하여, 송대 유학자 육상산(陸象山)을 조사(祖師)로 삼는 상산서원(象山書院)과 여러 서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포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시론적이거나 중국 전통 서원의 제향 특징, 지역성, 보편성을 다각도로 확인해볼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 서원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 서원과의 비교 연구에도 유의미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啟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10쪽 도표 참조.

## II. 중국 서원의 발생부터 서원 기능의 완비

중국 서원의 제향 인물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서원의 번영 시기 및 그 원인, 그리고 경과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른 서원 제향 인물의 변화 양상은 각 시대의 서원 발전도 및 그 배후의 서원 건립 주체, 교학 이념과 같은 근본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서원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서원의 시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sup>6)</sup>, 대부분 중국 연구자들은 당대(唐代)에 존재했던 몇몇 서원들을 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시기를 구분하면 당대 전체-오대(五代) 말기(618-960년)를 서원사의 초기로 간주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원은 중국 전역에 걸쳐 그리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립 주체 또한 민(民), 관(官)으로 나뉘어 있었고, 당연히 건립 목적 또한 각기 달랐다. 예컨대 최초의 민간서원으로 알려진 유현(攸縣) 광석산서원(光石山書院)은 당시 사인(士人)들이 사적으로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던 곳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의 기초적인 제도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비하여 관(官)에 의해 설립된 여정서원(麗正書院), 집현서원(集賢書院) 또한 사실 조정의 서적을 관리, 보관하는 목적으로 건립, 운영되었던 기관으로, 강학, 제사, 학전와 같은 오늘날 서원의 주요 기능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서원의 원시적 체제는 북송 시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정부의 주도 아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인다. 즉 북송 초기 중앙 정부가 관원을 양성하는 관학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원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변통으로서 서원을 관방 교육의 대체재(代替財)로 적극 활용한 것이었다. 물론 당시 서원 건립 주체들은 민, 관을 막론하고 다양했으며, 이때부터 점차 강학 기능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나, 그 강학 내용은 조정의 관원 양성이라는 수요에 부응하여 비교적 정형화된 과거지학(科擧之學)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서원 또한 운영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사서(賜書), 사액(賜額), 사전(賜田) 등을 포상 형식으로 원조받으면서 발전했다. 이후 조정이 관학 체제를 완비하게 되자, 활용도가 떨어진 수많은 서원이 다시 훼손(毀撤)되거나 아예 관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편입되고 만다.<sup>7)</sup> 대표적으로 북송 말엽 이미 명성이 드높았던 응천부서원(應天府書院), 석고서원(石鼓書院)은 각급 지방 행정 구역의 관학으로 예속되었고, 강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은 아예 훼손되었다.

그러나 북송 시기에 정부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 재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

6) 이 기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는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13쪽에 압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7)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년, 77쪽.

날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이 확립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강학(講學), 장서(藏書), 학전(學田), 그리고 제사(祭祀)라는 4대 기능이 관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한 중앙 정부 혹은 지방 관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송 후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많은 서원이 훼손, 방치되기 전까지, 관학과 더불어 완비된 북송 서원의 주요 기능들은 남송 이후 서원 재건 과정에서 다시 전승된다.

북송 시기 중국 서원의 보편적 특징을 관학화된 교육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남송의 서원 제도와 건립은 과거와 확연한 대비를 이루는 동력 및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련 연구자들은 이학자 주희(朱熹)와 그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재건 작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남송 서원 전통은 민간 사학으로서 중국 서원 전통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확립된 시기로, 이에 이르러 비로소 원임 구성 방식이나 경비 마련 경로 등 후대 서원 내부 요소들을 확립하는 데 모범이 된 체계적인 틀이 조성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는 강학 내용, 장서 자료, 제향 인물 모두에 이학적 특징이 스며들게 된 학술적 전환기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백록동서원은 강서 소재 서원일뿐만 아니라, 강서 4대 서원, 나아가 중국 전체에서도 ‘천하 4대 서원’으로 꼽히는 대표서원이다. 그러므로 강서의 유풍(儒風) 전승, 이학의 집대성과 보급, 그리고 민간 사학으로서의 중국 서원의 풍부한 기능 완비와 확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상호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강서지역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이 영향력은 이후 명, 청대에 이르러서도 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계속된다.

### III. 강서 지역의 학풍(學風)과 서원의 번영

중국사 전체를 조망해보면, 대부분 왕조에서 국가의 정치 이념이자 학자들에 의해 심화된 주류학술 사조는 바로 유학(儒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대(漢代) 이후로는 갖가지 사회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에 당면하여 유학자들의 사상적 반성 혹은 학술적 회의(懷疑)가 있었을지언정, 유학 자체는 결코 관학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지역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공자가 출현하고 선진 유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제로(齊魯) 지역, 즉 산둥(山東) 일대가 줄곧 유학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송대 이후 왕조의 교체로 인해 정치적 중심이 남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리고 사상적 패러다임의 변혁과 더불어 중국 남방 지역이 유학 중흥의 거점이 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북송 주요 이학자(理學者)로부터 발발하여 남송(南宋) 주희(朱熹)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新儒學)이 탄생한 11-13세기의 송대(宋代)이다. 그리고 강서지역은 이 신유학의 발전과 중국 서원의 발

전에 있어서 모두 핵심적인 사건과 활동이 발생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서는 중국의 주요 사상인 유(儒), 불(佛), 도(道)가 모두 흥성했던 지역이다. 예컨대 중국 불교 정토종(淨土宗)의 근원인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나 도교의 근거지인 용호산(龍虎山)이 모두 강서지역에 속해 있으며, 당대(唐代) 이래로 수많은 사찰과 사원이 이 지역에 건립, 운영되었다. 강서지역에서는 불교, 도교가 유학보다 더욱 일찍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송 시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중건하고자 결심한 데에도 이러한 당시 풍토가 하나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다. 『백록동서원지』에는 주희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산(廬山)에 불로(佛老)의 사원이 거의 백여 곳이 있었는데, 병화(兵禍) 이후 남은 것들이 점차 부흥하여 대부분 그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오직 이 유관(儒館)만이 가시덤불에 우거진 모양새였다.”<sup>8)</sup> 이러한 비교 언급 속에는 당시 쇠락한 유풍(儒風)의 부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이 깃들여 있다. 그러나 강서 출신 유학자 가운데, 남송 이전부터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저명한 구양수(歐陽脩), 증공(曾鞏), 왕안석(王安石)이 모두 강서 출신이다. 이들은 시문(詩文), 역사, 그리고 사상 방면에서 모두 강서를 대표하는 명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생전에 풍부한 정무 업적으로도 명성을 남긴 인물들이다. 아울러 신현승에 따르면 당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조에서 강서 출신 진사는 총 10,495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비율의 10.99%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장원급제자가 48명이다. 동시에 『명사·유림전(明史·儒林傳)』에서는 총 115명의 저명한 유학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서 출신이 35명으로 가장 많다.<sup>9)</sup> 그러므로 강서지역이 고래로 전통 있는 유풍(儒風)을 가진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송 이래 강서지역의 유학이 더욱 발전, 확장은 곧 서원의 부흥과 직결되며, 그 중심에는 주희의 백록동서원 중건(重建)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학(理學)의 기초를 닦은 주돈이(周敦頤)를 비롯하여, 장재(張載), 이정(二程)이 활동하던 북송 시기만 해도, 서원이라는 민간 교육기관과 이학의 관계는 그리 긴밀하지 못했다. 주돈이가 생전에 교육 전과를 위해 강서 남창부(南昌府)에 염산서원(潁山書院)<sup>10)</sup>을 건립하고 학자들을 초빙하였지만, 이학 자체는 관학화된 대부분 서원과는 기능적으로 결이 맞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 자체가 북송대 이학 발전 및 보급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송 시기에 주희가 중건한 백록동서원은 당대(唐代)부터 존재했던 여산국학(廬山國學)을 기원으로 본다. 이후 역사적 굴곡 끝에 순희(淳熙) 6년(1179년), 주희가 남강군(南康軍)의

8) 毛德琦, 『白鹿書院志』 卷二, 「乞賜白鹿洞書院敕額」: “此山佛老之祠, 蓋以白數, 兵亂之餘, 次第興葺, 鮮不複其舊者, 獨此儒館, 莽爲荊荊榛.”

9)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6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46쪽.

10) 후대의 강서 염계서원(潁溪書院)의 전신(前身)이다.

지사(知事)로 부임한 뒤 황폐화된 백록동서원 부흥에 착수하면서 서원의 원규, 강학 교재, 방법 및 학전 유치, 사우 건립 등 거의 모든 구성요소에 개입, 혁신을 이루었고, 이 모든 요소가 곧 남송 이래 중국 서원의 전형(典型)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의 서원 건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희가 백록동서원 중건 당시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작성한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는 이후 거의 모든 서원의 원규 작성의 모범이 되었다. 이 게시문은 사인(士人)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근본, 즉 오륜(五倫)의 뜻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수신(修身)법에 대해 환기,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1)</sup> 이는 금계(禁戒)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종래의 서원 원규(院規)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공명(功名)과 이록(利祿)을 추구하는 과거시험을 위한 주춧돌의 기능에서 벗어나, 서원이 생도들에게 있어 유학자로서 진정한 수신(修身)과 궁리(窮理)에 힘을 쏟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주희의 교육관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울러 백록동서원게시는 주희가 직접 편찬한 사서(四書)의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학(理學)이 유학의 적통 학문이라는 그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나아가, 주희가 채택한 강학 교재나 강학, 집무를 위해 초빙한 유학자 모두 이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당시 서원의 발전과 교류는 이학의 발전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남송 이래 서원 발전의 중심이 주희였고, 그 교학, 운영의 사상적 기조(基調)가 이학이었다는 점은 바로 신유학의 학문 수양 및 학술 전파의 거점이 백록동서원이 위치한 강서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주희는 생애 수많은 서원을 건설, 중수하였는데, 그가 복원과 건립에 관여한 서원만 67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위 ‘서원과 이학의 일체화’ 양상이 서원 문화 발전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학 전통은 중국 남방 전체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원의 건립과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백록동서원을 기점으로 한 강서지역의 활발한 발전 양상이 실제로 드러난다. 아래 표는 당대(唐代)부터 서원이 존재했던 중국 각지의 역대 신설 서원 통계이다.

	강서	사천	절강	광둥	호남	하남	북진	섬서
당(唐)	5	2	3	2	6	1	5	1
북송(北宋)	23	4	4	4	8	5	3	1

11)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 254-255쪽: 「白鹿洞書院揭示」,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教, 即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學問思辨四者, 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 則自修身以至於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欲,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12)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羅爽, 「從白鹿洞書院看宋代書院的發展」, 『語文教學與研究(大眾版)』, 2011年 第2期 참고.



남송(南宋)	94	15	60	17	26	0	47	0
원(元)	53	6	36	3	22	16	15	0

표1) 중국 당~원대 신설 서원 개수<sup>13)</sup>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까지만 해도 서원 개소 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송-원대에 접어들면서 강서 일대에 신설된 서원은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다. 이러한 강서지역 우세 양상은 서원이 제도와 사회적 영향 각 방면에서 완비되었다고 평가되는 명대에 이르러서도 서원 자체의 번영과 더불어 절정을 맞이한다. 명대 중국 전역에서, 서원이 최소 100개소 이상 존재했던 지역은 여덟 곳이다. 그 서원 분포 수는 아래와 같다.

지역	강서	광둥	북건	절강	안휘	강소	호북	호남
서원(수)	221	207	180	170	144	119	112	100

표2) 명대 중국 서원 분포수(100개소 이상 지역)<sup>14)</sup>

북-남송 양대에 걸쳐 서원의 기본 제도와 강학 이념 등이 완비되었고, 아울러 남송 시기에 전개된 ‘서원건설운동’에 힘입어 서원 건립이 크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명대 홍무(洪武)-선덕(宣德) 연간(1368-1435년)에는 조정에서 문교(文教) 사업을 중시하여, 관학과 이에 부합하는 과거제도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서원의 강학 기능이 감퇴하는 한편, 금천서원(金川書院), 안호서원(安湖書院)과 같은 강서 서원은 사우(祠宇)를 새로 건립하거나 아예 이름을 명현사(名賢祠)로 고치는 등, 그 주요 기능을 제사 위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正統)-홍치(弘治) 연간(1436-1505년)에는 다시 관학이 점점 쇠퇴하면서 서원이 다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덕(正德)-만력(萬曆) 연간에는 또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즉 양명학의 전파와 확산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발전을 거듭했다. 이렇듯 강서 서원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욱 뚜렷하게 주류학술과 국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청대에 이르면 강서지역에만 282개 소의 서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강서 일대의 많은 서원과 이로부터 이루어졌을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주희와 그의

13) 당대부터 서원이 존재했던 지역만 표기함. 白新良, 『明清書院研究』, 古宮出版社, 2012년, 2-45쪽 참고.

14)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啟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년, 11쪽.

이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중국 서원사에서 서원 문화의 발전은 강서 이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선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서원 문화는 그 주류 사조의 일관성에 부합하여, 줄곧 주자학을 모태로 다양한 학술 전승을 진행하고 또 각 지역 재지사족의 학맥 특성을 보여주었던 반면, 중국 서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송, 원, 명, 청 각 왕조와 민간에서 전파된 다양한 주류 학문 및 민간 신앙의 영향을 골고루 섭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정주이학(程朱理學)과 육왕심학(陸王心學)은 서원의 원임, 강학, 제사 각 방면에 반영되어 그 실제 운영 내용에 있어 더욱 다기(多歧)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특히 제사 방면에서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해볼 것이다.

#### IV. 강서 서원의 제향 인물의 역사적 변천과 그 함의

##### 1.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과 특징

앞서 중국 서원의 원시 형태의 기능에서 엿볼 수 있었듯이, 서원 초기 주요 기능 가운데 제사는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었다. 서원 내부에서 중요 인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서원이 본격적으로 관학의 영향을 받게 된 북송대부터였다. 이학(理學)이 아직 흥성하지 못했던 북송대까지만 해도 서원의 제향 인물은 대부분 공자 혹은 공자와 그 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공자 제자에 대한 배향은 또 사배(四配), 십철(十哲), 심지어 72제자 규모로 나뉜다. 사배는 안회(顔回), 증삼(曾參),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가리키며, 십철은 당대(唐代)에 정립된 공자의 뛰어난 고제(高弟) 10명, 즉 안연(顔淵),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계로(季路), 자유(子遊), 자하(子夏)를 가리킨다. 72제자는 공자 문하에서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72인이다. 이상 공자와 공문(孔門) 주요 제자를 배향하는 것은 각 서원의 학파적 개성과 건립 이념과는 별개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제향 인물 구성의 차이는 남송 이후 전국 각 서원에서 선진제유(先秦諸儒)뿐만 아니라 서원과 관련된 이학자를 제향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우선 남송 이래 중국 전통 서원의 핵심 기능과 운영 모델 형성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한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 구성을 살펴 보도록 하자. 오국부(吳國富)가 편찬한 『신찬백록동서원지(新纂白鹿洞書院志)』 제사(祭祀) 항목에는 아래 장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백록동에서 제사를 지내는 선유(先儒) 선현(先賢)은 선진(先秦) 제유(諸儒)와 이학(理學) 명유(名儒), 그리고 현지의 명현(名賢) 및 공헌이 있는(有功) 이들로 나뉜다.

선진 제유(諸儒)는 공자 및 그 제자들, 특히 사배십철(四配十哲)이다. 사배(四配)는 안회, 증삼, 자사, 맹자이며, 십철(十哲)은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 재아, 자공, 염유, 계로, 자유, 자하이다. 그 전체로 말하면 72 제자이다.

(중략) 이학 명유(名儒)의 제사로는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가 있다. 개희(開禧) 원년(1205년), 산장 이중주(李中主)가 주돈이, 이정 및 주희 선생을 강당(講堂)에 합사하였다. (명대) 적부복(翟溥福)이 군수가 되자, 주돈이, 주희에 대한 제사를 멈추었으며, 소보(邵寶, 1460-1527)가 주자를 따라 백록동에서 강학하였던 14인을 배향하였다. 이 14인은 임택지(林擇之), 채심(蔡沈), 황간(黃幹), 여염(呂炎), 여도(呂燾), 호영(胡泳), 이번(李燔), 황호(黃灝), 팽방(彭方), 주사(周耜), 팽려(彭蠡), 풍의(馮椅), 장흡(張治), 진복(陳宓)이다. 제학(提學) 조연(趙淵)이 이에 더하여 육구연(陸九淵)을 배향하였다. 만력 31년, 제학 전가(錢價)가 왕양명을 함께 제사 지냈으며, 진호(陳澹) 또한 더하여 배향하였다. 청 강희 연간에 자양사(紫陽祠)를 따로 건립하여 주문공을 제사지냈고, 14명의 제자와 진호 또한 옮겨서 배향하였다. 또한, 정호, 정이를 함께 제사 지내고, 장재, 소옹을 더하였다. 홍치 연간 이전에는, 이학 명유 및 현지 명현이 한 곳에 합사되었다. 소규(蘇葵, 1450-1509)<sup>15)</sup>가 이발(李渤)의 위패를 별실로 옮겼다. 종유사(宗儒祠), 선현사(先賢祠) 두 곳으로 나누어 배향하였다. 주희 또한 자양사와 종유사로 나누어 모셨다.

현지의 명현(名賢)과 공(功)이 있는 유학자로는 도연명(陶淵明), 류환(劉渙), 이상(李常), 류서(劉恕), 진관(陳瓘) 5인으로, 이들은 광산(匡山) 명현(名賢)들이다. 또 제갈량(諸葛亮)은 주문공(주희)이 찬양하였기에 함께 제사를 지냈다. 또 이발(李渤), 이선도(李善道), 주필(朱弼), 명기(明起), 류원형(劉元亨)이 있다. 사신행(查慎行)이 여산(廬山)을 유람할 때, 이섭(李涉), 안익(顏翊), 주필(朱弼), 황이(黃異), 탕래하(湯來賀)를 더하여 제향하였다. 이 10명은 백록동서원의 인물들이다. 또 왕위(王禕), 이령(李齡), 호거인(胡居仁), 소규(蘇葵), 진전(陳銓), 소보(邵寶), 채청(蔡淸), 이몽양(李夢陽), 당용(唐龍)이 있다. 사신행이 여산을 유람할 당시, 왕위는 백록동 사우(祠宇)에서 배향하지 않았으며, 전문시(錢聞詩)를 더하여 배향하였다. 이 10명은 백록동서원에 공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선현사에 함께 모셨다. 만력(萬曆) 연간에 충절사(忠節祠)에 제갈량과 도연명을 따로 모셨다.<sup>16)</sup>

이상 기록에는 남송 이래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비록 각 제사 인물에 대한 정확한 배향 시점을 기록해놓지는 않았지만, 제향 주체의 생몰연대를 통해 대략적으로 그 선후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은 공자를 비롯한 선진시대 공문(孔門) 유학자들, 저명한 이학자, 그리고 강서지역이나 본원(本院) 관련 인물 총 세 분류로 크게 나뉜다.

15) 명대 강서 첨사(僉事). 백록동서원을 증수하였다.

16)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 341쪽.

그런데 우선 지적할 점은, 선진제유(先秦諸儒) 가운데 사배(四配)에 포함된 인물 구성이다. 상술하였듯 공자와 그 제자들은 선성(先聖, 또는 先師)과 선현(先賢)으로 분류되어 북송 시기 전국 서원 대부분에서 이미 그 제향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성(亞聖)이라 불리는 맹자와 술성자(述聖子)로 기록된 자사(子思) 두 사람은 후대에 알려진 소위 사맹학과(思孟學派)로, 공자의 직전제자군(直傳弟子群)이 아니라 공자 사후 송대 이학과 의 정통성, 연속성을 함의하는 개별 학파에 속한다. 이는 중당(中唐) 한유(韓愈)로부터 시작되어, 주희에 의해 정립된 정주이학의 도통(道統) 관념이 반영된 흔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배(四配)는 최소한 남송 이후에 생겨난 제향 기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영명은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중수할 때 공자와 심철의 상을 세웠다. (중략) 그러나 순희(淳熙) 8년(1181년), 주희가 백록동서원 중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도, 서원의 제사 대상은 여전히 공자와 그 제자들뿐이었다. 이는 곧 당시의 서원 제사 대상이 여전히 공자 등 선진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7)</sup>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희 생전(1130-1200)에는 공자와 심철의 제사만 이루어졌을 뿐, 공문의 사배(四配) 4인이나 주희가 사숙했던 선배 이학자들은 아직 제사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공문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그룹을 지칭하는 소위 사과십철(四科十哲)은 『논어·선진』편에 나오는 뛰어난 10인의 공자 제자에 관한 언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대부터 존재했던 일종의 고제(高弟) 분류법이었다. 따라서 이 분류법은 북송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향 방식이었다고 보더라도 시기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학 명유로는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 4인이 먼저 등장한다. 이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희 사후 1205년 무렵 당시 백록동 산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합사(合祀) 형태이다. 특별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송오자 가운데 소옹과 장재는 명대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제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sup>18)</sup> 그리고 나머지 배향 인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백록동서원만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배향 인물들로, 주희와 더불어 백록동에서 강학하였던 14명의 유학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당대의 이발(李渤)<sup>19)</sup> 이하 10인은 모두 백록동서원의 창건, 중수에 관련이 있는 선비, 지방관이거나 역대 산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14인 가운데 육상산(陸九淵)은 후일 육왕심학(陸王心學)의 개조(開祖)로 알려져 주희를 대표로 삼는 정주이학과는

17)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5쪽.

18) 이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희가 백록동서원보다 더욱 일찍 서원의 제사형식을 완비한 곳으로 평가받는 죽림정사(竹林精舍)의 제향 인물이다. 주희는 소희(紹熙) 5년(1194년) 죽림정사에서 공자, 안희, 증자, 자사, 맹자뿐만 아니라 송대 이학이 개창된 시기의 몇몇 주요 인물들, 즉 주돈이, 이정 형제뿐만 아니라, 소옹, 사마광, 장재, 그리고 자신의 스승 이동(李侗)을 포함하였다.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6쪽.

19) ‘백록동’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해당하는 인물로, 남당(南唐) 시기 여산학관에서 흰 사슴을 길렀다 하여 백록동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사상적, 학문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인물이나, 백록동서원 중건 당시 주희가 초빙하여 『중용』을 강학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육상산의 제향은 학문적 차이를 떠나 당시 저명한 학자 가운데 백록동서원에서 강학을 진행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백록동서원에서 제갈량(諸葛亮)을 제향하였다는 점인데, 오국부(吳國富)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주희가 생전에 제갈량을 찬미하였기에 원내에 제향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후한 인물인 제갈량은 강서 출신이 아니거니와, 당연히 백록동서원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주희를 추존하는 수많은 서원 가운데에서도 백록동서원만의 특징으로 보인다. 제갈량과 더불어 충절사에 합사된 도연명의 경우, 원래 강서 출신 명인으로 향현(鄉縣)에 속하기에 제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다른 한편으로 시대사조의 변화에 따른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의 보편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주이학, 육왕심학으로 학파적 구분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제사 대상들이 출향되지 않고 양가(兩家)를 모두 통섭하는 양상을 의미하기에 ‘보편화’ 또는 ‘회통(會通)’의 양상이라 표현할 수 있다. 명 만력 연간은 양명학이 중국에서 유행하던 시기로, 만력 31년에 제학 전가(錢樞)가 왕양명을 제향하였다. 청대 강희(康熙) 연간에 이르면 백록동서원은 각급 지방관의 관리, 개입을 거치면서 중수를 거듭하는데, 원내에 자양사(紫陽祠)를 건립하여 주희의 직속 문인들을 제향하고, 기존의 종유사(宗儒祠)에는 주자학, 양명학이 학파적 구분을 두지 않고 선유(先儒)를 제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장횡거, 소강절, 육상산, 왕양명 등 여러 선생을 제사 지냈다.”<sup>21)</sup> 이상 강서 백록동서원 제향 인물의 구성과 변천은 중국 서원사에서 백록동서원이 갖는 선구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기타 서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강서 지역에 소재한 다른 저명한 서원의 제향 구성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기타 강서 주요 서원의 제향 인물과 특징

강서성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저명한 서원들이 많지만, 특히 오늘날 강서사대서원(江西四大書院)으로 여겨지는 주요 서원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4대 서원은 앞서 언급한 여산(廬山) 백록동서원을 포함하여, 길안(吉安) 백로주서원(白鷺洲書院), 연산(鉛山) 아호서원(鵝湖書院), 그리고 남창(南昌) 예장서원(豫章書院)이다. 비록 각 서원에 따라 기록이 완전히 일실(逸失)되거나 간접 기록 또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엄밀한 상호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 반열에 오른 서원인 만큼 그 대강의 사료는 확인할 수 있다.

20)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年, 362쪽 참조.

21) 周偉,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年, 1082쪽: “今祀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張橫渠, 邵康節, 陸象山, 王陽明諸先生.”

우선 백로주서원이 소재한 길안(吉安) 지역은 일찍부터 많은 유학자, 명신이 배출된 곳으로, 이 지역에 건설된 역대 서원만 거의 300개소에 달한다. 남송 순우(淳祐) 원년(1241), 길주(吉州) 지군(知軍) 강만리(江萬裏)가 백로주서원을 창건하였다. 강만리는 주희의 재전제자(再傳弟子)였으며, 그 창건 목적 또한 정주이학의 전수에 있었다. 강만리는 서원 창건 즉시 주요 제향 인물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묘(文廟), 영성문(櫺星門), 그리고 육군자사(六君子祠)를 세워 공자 및 선진제유, 그리고 6명의 이학자를 배향하였다.: “또 사당을 세워, 이정(二程) 선생들을 제사 지내고, 주렴계, 장재, 소옹, 주자를 더하여, 이로써 육군자사(六君子祠)로 지었다.”<sup>22)</sup> 백로주서원 창건 당시 강만리에 의해 구성된 여섯 명의 제향 인물은 북송오자와 주희로, 곧 순수하게 정주이학을 전승하려는 서원의 학술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술한 백록동서원과 유사한 제향 인물의 변천이 드러난다. 『백로주서원지(白鷺洲書院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원대 지원(至元) 3년, 고심사(古心祠)를 증축하였다. 명 가정(嘉定) 임인년에 서원을 인수산(人壽山)으로 이관하였다. 병오년에 이각(李珣), 납속아정(納速兒丁), 황종명(黃宗明)을 고심사에 배향하였다. ……만력 병술(丙戌)년에 양명사(陽明祠)를 성내에 지었다. 백로주 동곽에는 주 선생과 이하 12공을 배향하였고, 고심사를 양명사로 고쳐 동편(東偏)에서 약간 남측으로 배치하였다. 이각 이하 삼공(三公)을 이렇게 배향하였다. 임진년에 서원을 원래 위치로 이관하였는데, 이정 선생을 모시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음풍농월(吟風弄月)”의 뜻을 취하여 풍월루(風月樓)에 모셔 제사 지냈으니, 일봉(一峯), 정암(整庵) 두 나(羅) 선생을 제향하였다.

육군자사(六君子祠) : 주돈이, 장재, 소옹, 정명도, 정이천, 주희.

명유(明儒) : 왕수인(王守仁), 나륜(羅倫), 나흠순(羅欽順), 추수익(鄒守益), 구양덕, 섭표(聶豹), 나홍선(羅洪先), 왕사(王思), 류괴(劉魁), 류양(劉陽), 구양유(歐陽瑜), 윤일인(尹一仁), 류문민(劉文敏), 류방채(劉邦燾), 주녹(周祿), 왕시괴(王時槐), 류원경(劉元卿), 하지(賀訖), 진가모(陳嘉謨), 증고(曾臯), 류봉익(劉鳳翼), 그리고 또 류일승(劉日升), 감우(甘雨), 윤학공(尹學孔)을 제사 지냄.<sup>23)</sup>

명대 이전 사전(祀典)이 수시로 증보, 수정되었고 제사 인물 또한 수시로 달라졌다. 명유 24인은 명환(名宦) 및 향현과 병렬되어 있으며,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제향한 위패(木主) 또한 각기 어디에 두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제사지냈다”고 적은 3인은 어떠한 근거로 그리하였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인산서원(仁山書院) 경현사 내부에서는 명환과 향현을 나누어 합사하고 있다.

강공사(江公祠), 사공사(四公祠), 현후사(賢侯祠)에 명환, 향현을 따로 나누어 배향하였다. 강공사에는 서원 창건자인 길안 태수 강만리를, 사공사에는 원명(元明) 시기 서원을 수복, 중건한 인물들을, 그리고 현후사에는 명대 길안 태수(太守) 4인과 송대 현령(縣令)을 1인 제

22) 劉鐸, 『白鷺洲書院志』卷一, 『建置』, 清同治十年白鷺書院刻本, 『中國曆代書院志』, 江蘇教育出版社, 1995年版, 第2冊, 568쪽: “又建祠祀二程夫子, 益以周張邵朱爲六君子祠.”

23) 원문에는 모두 성(姓)+명(名)+자(字)+선생(先生)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성명으로 표기함.

향하였다.……(이하 생략)<sup>24)</sup>

이상 서원지의 내용은 원, 명대 이후 백로주서원 제향 인물의 변천 과정을 간명하게 보여 준다. 이각, 남속아정, 황중명은 모두 원-명대에 서원을 보수, 증건한 현지 지방관이다. 그 보다 눈에 띄는 점은, 만력 14년(1586년) 서원 측면에 양명사를 건립하였고 동쪽에는 추수익 이하 12공을 배향하였다는 것이다. 양명사의 명칭은 왕양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수익은 왕양명의 제자이다. 서원지에는 명유(明儒) 항목을 따로 분류하여 24명의 유학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뒤의 제향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언급된 세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양명의 제자이거나 양명학파의 문인들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기록은 송대 이전부터 수시로 증보, 수정된 것으로, 각 인물이 정확히 언제 제향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명 만력 이후부터는 백로주서원에서 송대 유학자 6인을 ‘송대유(宋大儒)’, 명대 유학자 24인을 ‘명유(明儒)’로 분류하여 모두 제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대 말기 본 서원의 운영과 교학 이념에 있어서 정주이학과 양명심학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학(理學)이라는 대범주로 서원 제향이 진행되었음을 좌증한다.

이러할 뿐만 아니라, 만력 20년(1592년), 지부(知府) 왕가수(汪可受)가 서원을 다시 백로주로 이건하면서, “선현사(先賢祠)를 지어 이정(二程)에 대해 제사 지내고 나륜(羅倫), 나흠순(羅欽順)을 배향하였다. 또 이학(理學), 충절(忠節), 명신(名臣)이라는 불후방(不朽坊) 삼개소를 건립하였다.”<sup>25)</sup>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학방에는 구양수(歐陽脩), 주필대(周必大) 등 26명을 배향하였고, 충절방에는 진교(陳喬), 양방의(楊邦義) 등 61명, 명신방에는 관련 명신 37명을 배향하여 위패를 안치하였다. 여기에서 구양수, 주필대, 진교, 양방의 등은 모두 길안(吉安) 혹은 현지 출신 명인들에 속한다. 호장춘은 지부 왕가수의 이러한 대대적인 증축을 통해 이루어진 현지 유현(儒賢) 및 관인 배향 작업은 곧 당시 제향의 중심이 더는 양명학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지적한다.<sup>26)</sup> 즉 남송 이래로 백로주서원은 정주이학자-양명학자-이상 유현(儒賢)을 포함한 다수의 향현, 명신 배향으로 그 규모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백로주서원이 주로 제향한 인물을 크게 구분해보면, 송대, 명대 이학자 및 서원과 관련된 향현과 명신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청대 이후에는 현지 명신 이외에는 저명한 인물의 제향 변동이 없고 다만 일련의 제향 장소의 변화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상 송-명대 정주이학과 양명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제향이 줄곧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4)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년, 17-18쪽.

25) 劉鐸, 『白鷺洲書院志』, 卷一, 江蘇教育出版社, 『中國歷代書院志』, 1995년 판본

26)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第十輯, 2017년, 135쪽.

다음으로 아호서원과 예장서원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아호서원도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공자를 우선적으로 제향하였다. 그러나 타 서원과는 달리, 아호서원에서는 문묘(文廟), 대성전(大聖殿)과 같은 공자를 전문으로 모시는 사우가 한 차례도 건립되지 않았고 다만 서원 강당(講堂)에 공자의 위패를 안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호서원만의 특징은 바로 1175년 아호서원이 건립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아호사(鵝湖寺)에서 학문의 방법을 두고 발생한 아호논변(또는 아호지회[鵝湖之會])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당시 논변의 주역이었던 주희, 육구령, 육구연 형제 및 여조겸 4인을 제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호논변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학문을 할 것인가라는 교학(敎學)과 수양(修養)의 구체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논변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강조하여 선현의 경전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과 이치의 궁구(窮究),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 학습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후대 양명 심학의 이론적 모태가 된 육구연, 육구령은 내심(內心)의 체인(體認)을 더욱 중시하여 본심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학문의 요지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다독(多讀), 외재 사물에 대한 궁구(窮究)는 우선 사항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실 양자는 실재 학문과 심득(心得)을 모두 중시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학(爲學)의 ‘근본’에 있어 그 경중의 견해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내심의 덕성을 밝히는 것이 중심인가, 아니면 구체적 학문의 철저한 실행이 우선인가라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분계가 논변의 형태로 발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서원은 태생적으로 고유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아호서원 창건 당시부터 사현사(四賢祠)가 건립되어, 청대 말기에 서원이 학당으로 개조될 때까지 이 4명을 주로 배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예장서원은 강서 남창(南昌) 지역에 건립된 서원이다. 당시 주희 이학의 영향 아래 정주이학을 전파하는 거점이 되었다. 예장이라는 명칭은 서원이 건립된 지역이 고대로부터 예장이라는 지역으로 불리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예장 나씨(羅氏)’ 가운데 저명한 이학자 나종언(羅從彦)의 학문을 특별히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종언은 양시(楊時)의 제자로 생전에 정이천과 교류하였으며, 이후 이동(李侗)을 가르쳤다. 이동은 주희의 스승이므로, 나종언은 정주이학의 학맥상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정좌(靜坐), 무욕(無欲) 등 수양법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창하여 예장학파를 이루었는데, 예장서원을 건립한 것 또한 나종언의 후대(後代)와 그 제자들이었다. 예장서원의 제향 인물에 관해서는 『남창부지(南昌府志)』 「예장서원기(豫章書院記)」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남송부터 명 만력 사이에 순무사 준운익(淩雲翼), 반계훈(潘季馴)이 서원을 보수하였다. 사우(祠宇)를 송, 원, 명의 여러 유학자를 모시는 곳으로 바꾸면서 ‘예장24선생사(豫章二十四先生祠)’로 이름을 고쳤다. 강희 28년, 순무사 송락(宋瑨)이 이학명현사(理學名賢祠)로 이름을 고쳤다. 31년, 순무사 마여룡(馬如龍)이 사우(祠宇)를 보수하였는데, 서원이 오래되어 무



너졌다. 56년 순무사 백항(白潢)이 옛터에 서원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측에는 강당을, 좌측에는 사당으로 삼았으니, 여전히 선현(先賢), 명유(名儒)를 배열하여 사관(舍觀)이라 불렀다.<sup>27)</sup>

여기에서 예장 24선생은 나중언(羅從彦), 삼육(三陸), 이번(李燾), 황호(黃灝), 장흡(張治), 오징(吳澄), 오여필(吳與弼), 나륜(羅倫), 호거인(胡居仁), 장원정(張元禎), 구양덕(歐陽德), 추수익(鄒守益), 나홍선(羅洪先), 위양필(魏良弼), 서분(徐芬), 나흠순(羅欽順), 호직(胡直), 나여방(羅汝芳), 왕시괴(王時槐), 등이찬(鄧以贊), 이재(李材), 등원석(鄧元錫)이다. 이 제향 인물 구성은 사상적으로 정주이학, 육왕심학을 막론하고 모두 강서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장서원의 지역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나중언은 송대 신유학 형성의 과정에서 핵심으로 추존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대의 이학, 심학과 같은 학문적 분계는 간단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청 강희 연간, 순무사 송락이 이 사우를 ‘이학명현사’로 고치면서 기존 24인에 범녕(範寧), 한유(韓愈), 범중엄(範仲淹), 구양수, 주돈이, 주희, 장식(張栻), 황간(黃幹) 등 23명을 더 추가하여 총 47명을 제향하기 시작했다.<sup>28)</sup> 이들은 동진(東晉) 시기부터 당, 북-남송대에 걸쳐 활약한 저명한 유학자들로, 그 출신 지역 또한 모두 다르다. 특히 범녕, 범중엄은 이학(理學)과 사상적인 관계가 없으며 각각 동진, 북송 시기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정치인일 따름이다. 심지어 건륭 8년(1743년)에는 “순무사 진평모(陳宏謀)가 다시 정호, 정이, 웅직(熊直), 섭표를 추가로 제향하여 총 51명이 되었다.”<sup>29)</sup>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서 웅직은 강서 출신 거인(舉人)으로, 명대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생졸 연대는 불명확하다. 섭표(聶豹)는 생전에 양명을 사숙(私淑)했음을 자처한 인물로 양명학자에 가까우며, 지현(知縣),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한 고관이었다. 그러므로 예장서원 또한 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유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제향 인물이 점점 보편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제향 인물의 확대 및 학파의 회통 양상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초영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록동서원의 경우, 명대에도 주돈이, 주희, 육상산 세 사람을 종유사(宗儒祠)에서 함께 제사 지냈다. 이처럼 주희, 육상산을 함께 제사 지내는 현상은 (당시) 학술계에서 주희와 육상산이 서로 화합하는 흐름을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즉 그들의 이론적 가치는 일치하며, 다만 위학(僞學) 방법, 그리고 도를 구하는(求道)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학문의 목적은 동일했다.”<sup>30)</sup> 오늘날에도 육상산과 주희가

27) 『南昌府志』卷十七, 「豫章書院記」, 清同治十二年刻本, 942쪽. “自南宋明萬曆間巡撫凌雲翼, 潘季馴, 先後修葺, 改祀宋元明諸儒, 稱豫章二十四先生祠, 國朝康熙二十八年, 巡撫宋犖改立理學名賢祠. 三十一年巡撫馬如龍復葺祠右, 書院歲久傾圮. 五十六年巡撫白潢即舊址重建書院, 有記. 右爲講堂左爲祠, 仍祀先賢名儒旁列, 號舍觀.”

28)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第十輯, 2017年, 136쪽.

29) 『南昌縣志』卷十五, 中國方志叢書本, 1935年版: “巡撫陳宏謀, 復增祀程顥程頤熊直聶豹, 共五十一人.”

생전에 학문적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 이론적으로 모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위학의 중점과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적인 학문 목적이 동일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명대 당시 다양한 학술 사조의 공존 양상에 빗대어 일종의 합리적 추론을 한 것으로, 사실 증유사에 주돈이, 주희, 육상산이 합사될 수 있었던 까닭을 설명하는 근거 사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변화의 원인은 남송-명말 기간에 발생한 유가 주류학술 사조의 일대 전환에서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추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왕양명은 명 정덕 15년, 16년(1520, 1521년) 두 차례 백록동서원에 찾아와 강학하였다. 당시 백록동서원 산장은 그의 문인이자 태학조교(太學助教), 입학교수(入學教授)를 지낸 채종연(蔡宗兗)이었으며, 양명은 직전제자 추수익에게도 각지 문도(門徒)를 이끌고 백록동서원에서 강학하고 학문을 닦을 것을 권하였다.<sup>31)</sup> 이러한 사실에 관련하여, 등홍과는 양명이 용장오도(龍場悟道) 이후 정덕 12년 무렵부터 순무사 신분으로 강서 각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서원 강학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자신의 문도들을 통해 주자학의 성채였던 백록동서원을 왕학의 진지(陣地)로 만들고자 하였다”<sup>32)</sup>고 지적하고 있다. 등홍과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사실 명대 백록동서원 제향 인물의 확대와 학파적 회통은 양명의 적극적인 서원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른 한편으로, 명대 이후 백로주서원에서 양명학자를 제향하게 된 것은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로주서원지』 「서원사사기부(書院祠祀起附)」에는 “명 만력 14년 지부(知府) 양유교(楊維喬), 지현(知縣) 전일본(錢一本)이 북성(北城) 백로서원에 양명사(陽明祠)를 세웠다.”<sup>33)</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전일본은 양명의 재전제자인 왕시괴(王時槐)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비록 이러한 간접적 연관성은 정주이학을 근본으로 하는 서원의 왕학화(王學化)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명말 당시 서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방관들 가운데 학자로서 양명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 의사 결정 또한 지방관 개인의 학술 경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강서의 모든 서원이 이러한 학파적 회통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명, 청대에 건립되었음에도, 정주이학을 추존하여 주희 혹은 정주이학자만을 제사 대상으로 삼는 서원이 있었고, 또 양명을 추존하는 서원의 경우에도 그러한 학파적 특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서지역에서는 존라서원(尊羅書院), 임여서원(臨汝書院), 근성서원(近聖書院), 복진서원(復眞書院), 종림정사(宗濂精舍), 매강서원(梅江書院), 호동서원(湖東書院), 지

30)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8쪽.

31) 王守仁, 『王陽明全集』, 卷五, 「與趙謙之」,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178쪽.

32)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307쪽.

33)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年, 21쪽.

산서원(芝山書院), 망산서원(芒山書院), 자양서원(紫陽書院), 문강서원(聞講書院), 호산서원(湖山書院), 백운서원(白雲書院) 등은 주희 혹은 정주이학자를 주로 제향하는 서원이고, 복고서원(復古書院), 양명서원(陽明書院), 복진서원(復眞書院)은 양명과 그 문인을 제향하는 서원에 속한다.<sup>34)</sup> 이처럼 명대 이후에도 제향 인물상에서 명확한 학파적 특색을 줄곧 유지하였거나 창건된 서원 또한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시대의 추이에 따라 강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독특한 대상이 있다. 청 강희 56년(1717년), 아호서원에 어서루(禦書樓)가 건립된 후, 그 좌측 단층 건물에 문창제군(文昌帝君)을, 그리고 우측에는 관성제군(關聖帝君)을 제향하였다. 문창제군은 북두칠성의 제1성부터 제4성 사이 여섯 별을 신격화한 것으로, 도교 신앙 문화에서 비롯된 신앙 대상이다. 문창제군은 학문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과거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명-청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유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일례로 상산서원(象山書院)을 눈여겨볼 만하다. 남송 순희 14년(1187년)에 건립된 이 서원은 육구연이 강학한 귀계(貴溪) 상산정사(象山精舍)를 그 전신으로 삼는 곳이다. 이 서원은 육구연 사망 후 1231년에 삼봉산(三峯山)에 재건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후학들의 제사 대상은 육구연, 육구령(陸九齡), 육구소(陸九韶) 삼 형제였고, 그 강학 교재도 육구연의 심학사상이 담긴 저서가 많았다. 그러나 여러 경제 상황과 병화 등의 이유로 이건과 쇠퇴를 거듭한 상산서원은 청 동치 2년(1863년) 재건되는데, 이때 재건을 주도하였던 현령(縣令) 주가포(周葭浦)가 원내에 다른 사우는 특별히 재건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문창궁(文昌宮)을 지었다.<sup>35)</sup>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범리연은 명, 청대 서원에서 문창각(文昌閣), 괴성루(魁星樓) 등을 지어 제사를 지낸 것은 서원이 점점 과거시험을 위한 부수적 용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보편, 정형화된 현상이라 보고 있다.<sup>36)</sup> 그리고 관성제군은 후한말 촉의 장군 관우(關羽)를 가리킨다. 관우 또한 민, 관을 막론하고 충(忠), 의(義)의 대명사로 존경받았으며, 신격화된 인물이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각지 서원에서 이러한 도교적 성분이 깃든 신(神)을 모시는 것은 비교적 보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 서원, 그리고 도교와 유학의 융합 현상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호서원지』에서도 문창제군을 제사 지낸 것은 학자들의 과거급제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관성제군은 사인(士人)의 충의(忠義) 사상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고 소개되어 있다.<sup>37)</sup> 이러한 도교 신앙에서 비롯된 존재를 제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초기 서원의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유생들의 입신양명의 관문이었던 과거시험의 중요성과 민간 신앙에 대한 서원의 개방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4)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啟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42-46쪽 참고.

35) 王立斌, 『象山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7年, 101쪽.

36)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啟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17쪽.

37) 陳連生 編, 『鵝湖書院志』, 黃山書社, 1994年, 118쪽.

## V. 나가는 말

중국 서원 문화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변화, 발전을 겪었다. 당, 송,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각지 서원은 운영에 있어 민-관의 융합, 종속,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주류학술 사상의 전환과 국가 정책의 영향도가 다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서원의 경우 그 문화의 본산인 만큼 대량의 서원이 대륙 각지에서 발생,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중국 특정 지역 서원들의 운영 특색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모델이 요청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원이 제향 인물은 각 서원의 건립 이념, 구성원이 추구하는 학술적 풍토, 그리고 민관의 협력 관계 변천 양상을 입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원의 특색을 밝히는 데 유용한 시각이다. 본문에서는 제사 인물의 변천 양상을 통해, 강서지역 주요 서원들의 사상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원 제향 인물의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강서지역 서원은 남송 주희 이래 가장 주도적으로 신유학과의 일체화가 이루어진 곳인 만큼, 그 제향 인물 또한 대부분 저명한 이학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생전에 강서에서 활동하거나, 강서 출신 이학자에게 영향을 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강서 서원의 이학자 제향은 외부적으로는 강서 이학의 보편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현지 출신 명인임과 동시에 저명한 이학자를 제향함으로써 그 지역성을 부각하고 있다. 강서 4대 서원 제향 인물들이 모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예장서원의 24인 제향 활동이 그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강서 서원 문화의 지역적 핵심성과 보편적 영향력은 주희와 백록동서원이 그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대와 주류 사상의 추이에 따라, 강서 주요 서원들에서도 제향 인물의 변화가 나타난다. 북송 이전까지는 대부분 서원이 공자와 문인을, 남송 이래로는 정주이학자와 육산을, 그리고 명 중후기 이후로는 양명학과를 제향하기 시작하는 변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각 서원의 건립 이념과 학술 경향에 따라 정주이학 혹은 육왕심학자를 위주로 제향하는 서원도 지속 출현한다. 이러한 서원 제향 인물 구성의 다양한 형태는 주류 사상 간의 회통과 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명대 서원 운영에 있어 양명과 그 문인들이 서원 운영에 강력하게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이학자 제향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정주이학과 육왕심학이 사상사적인 차원에서는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으나 서원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양대 대가(大家)들에 대한 존숭(尊崇) 의식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양명학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명대에도 정주이학자만을 제향하는 서원

이 지속 출현하였다는 점 또한 명대 유학 사조의 다양성에 대한 방증이다.

셋째, 명-청대에 이르러 서원 곳곳에서 도교 신앙에서 비롯된 문창제군과 관성제군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이는 한국 서원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서원의 독특한 현상으로, 당시 중국 서원의 문화적 개방성을 다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이상 서원 제향 인물의 특징 분석은 유학의 주류 사상의 변천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서원의 제향 의도와 변화 원인 또한 그 사상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프레임은 서원 제사 대상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인 향현과 현지 명환(名宦) 분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현과 명환 분석을 통한 지역성과 학맥 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차후 강서 현지의 서원을 둘러싼 지역 사료를 간접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더욱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강서 서원 제향 인물 분석 연구 또한 더욱 완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38) 사실 중국의 서원 연구자들은 중국 서원이 역사상 불교, 도교 학관의 기능들을 적절히 흡수하면서 발전하였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서원의 강학 방법인 승당강설(升堂講說)은 불교 선종(禪宗)이나 선림(禪林)이 행하던 교학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李勤松, 「論朱熹興復白鹿洞書院的曆史淵源及其教學改革」, 江西社會科學, 2008年, 4月. 131쪽.

## 【참고 문헌】

-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제6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 陳連生 編, 『鵝湖書院志』, 黃山書社, 1994年
- 王立斌, 『象山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7年
-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年
-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年
- 劉繹, 『白鷺洲書院志』, 卷一, 江蘇教育出版社, 『中國歷代書院志』, 1995年
- 周偉,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年
-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年
- 白新良, 『明清書院研究』, 古宮出版社, 2012年
-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啟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 第十輯, 2017年
-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 羅爽, 「從白鹿洞書院看宋代書院的發展」, 『語文教學與研究(大眾版)』, 2011年 第2期
- 李勁松, 「論朱熹興復白鹿洞書院的曆史淵源及其教學改革」, 江西社會科學, 2008年, 4月.

abstract

##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onfucian Academy through the Change of figures in ancestral rites — Focusing on the Confucian Academy in the Jiang-xi region

Bae, Da-bin\*

Chinese confucian academ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East Asian Confucian academy culture, has undergone long-term changes since Tang dynasty and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expand. Behind its development were various factors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government agencies as the founders, tension and converg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is paper, among many regions in China, attention is paid to major Confucian academies in Jiang-xi, which are the center of the completion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academy culture and share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Confucianism. Among them,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of Confucian Academy in Jiang-xi area are examined by confirming and comparing the changes of figures in the ancestral rites of each Confucian academy. The representation and locality of the Confucian academy culture in the Jiang-xi region embodies the openness and diversity of the Confucian academy culture in China, as well as the ideological strata of Pre-Qin Confucianism, Cheng-Zhu Li xue, and Yang Ming Xue.

Key words : Chinense Confucian Academy; Confucianism; Figures in ancestral rites; memorial ceremony; Jiang-xi Region





# 명(明)·청(淸) 시대 하남성 서원 (書院) 제사(祭祀)에 관한 연구

##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를 중심으로－

유명명(劉明明, 호남대학 악록서원 박사과정)

### 【국문초록】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은 하남성 서원의 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표성을 띄고 있다.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는 유명한 서원이 많았으며 제사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의 제사대상으로는 공자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지방 관리, 문창제군(文昌帝君), 규성(奎星) 등이 있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서원은 제사규정이 상세하고 제도화된 제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서원에서 제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사 경비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학전(學田)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제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두 지역의 관리들도 기부 등을 통해 서원 제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서원에서 제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제사경비 지원이 필요하며,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제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도덕과 학문을 향상시키고 서원 제사활동을 지원한 지역 관리들에게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교 도통(道統)을 계승하고 지역 통치에 봉사함으로써 치통(治統)을 촉진시키는 도통(道統)의 역할을 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중요한 부급 도시로, 당시 하남성의 많은 대표적인 서원이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부에서의 서원 제사 활동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명·청 시대 하남지역 서원들의 제사활동 정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주제어 : 하남부(河南府), 개봉부(開封府), 제사 대상, 제사 규정, 제사 의식, 제사 경비

# 明清河南书院祭祀研究

-以河南府和开封府为例-

劉明明

## 【中文摘要】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在明清河南书院发展史中占有重要地位，具有代表性。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数量大，名书院众多，祭祀内容详实。祭祀是书院的重要活动，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对象包含孔孟、程朱、地方名宦、文昌帝君、奎星等。二府书院具有祭祀规章详密，祭祀仪式制度化等特点。书院祭祀活动的开展，需要坚实的祭祀经费支持，其中学田收入对祭祀活动影响较大。二府地方官员也积极通过捐资等方式支持书院祭祀活动。二府书院祭祀不仅教化生徒进德修业和表达对地方名宦支持书院祭祀活动的感激之情，而且积极传承儒家道统和服务于地方治理，实现道统对治统的促进作用。河南府和开封府是明清河南省重要的府级单位，当时河南省较多有代表性的书院均位于二府，通过探析二府书院祭祀活动的情形，更好地揭示了明清河南书院的祭祀情况。

**关键词：**河南府 开封府 祭祀对象 祭祀规章 祭祀仪式 祭祀经费

# 명(明)·청(淸) 시대 하남성 서원 (書院) 제사(祭祀)에 관한 연구

##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를 중심으로—

유명명(劉明明, 호남대학 약록서원 박사과정)서론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며, 제사, 강학(講學), 장서(藏書)를 "서원의 3대 사업"이라고 한다. 1) 서원 제사내용은 상세하며 뚜렷한 특징과 더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서원 제사에 관심이 있으며, 서원 제사가 교육에 미친 영향, 서원 제사 대상의 변화와 시대적 학문적 유행의 변화와의 연관성, 서원 제사 기호의 표징, 문화전파 방면에서의 서원 제사의 역할<sup>2)</sup>을 논술하였다. 지역 서원 제사 연구에서 현재 학계는 주로 명·청 시대 섬서서원, 귀주서원, 강서서원, 서남서원의 제사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3)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학계에서는 이 두 지역의 서원 제사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제사활동 내용을 예로 들어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을 분석하고 제사 대상, 제사 규정과 의식, 제사 경비, 제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제사의 풍부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 I.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소개

- 1) 성량시: <중국서원제도>, 베이징: 중화서국, 1934년, 47쪽.
- 2) 샤오융밍, 탕야양: <서원 제사의 교육 및 사회교화 기능>, <호남대학교학보(사회과학판)> 2005년 3호. 등즈샤: <서원의 제사와 그 교육기능 연구>, <대학교육과학> 2006년 4호, 쑤오웨이, 왕홍: <고대서원의 제사 발전의 변천과 교육적 의미>, <교육연구와 실험> 2016년 5호, 샤오융밍, 다이슈홍: <서원제사와 시대 학술풍상의 변천>, <동남학술> 2011년 6호, 왕성권: <중국 고대 서원 제사의 기호 표징>, <중외문화와 문론> 2015년 3호, 장젠궈: <의식승배와 문화전파—고대서원제사의 사회적 공간> <현대철학> 2006년 3호.
- 3) 리원리: <명·청시대 섬서서원의 제사와 그 사회적 의미>, <서북대학보(철학사회과학판)> 2018년 6호, 장위징: <명·청시대 귀주서원의 제사 연구>, <교육문화포럼> 2016년 1호, 판리취안: <명·청시대 강서서원 제사활동과 계시연구>, 강서사범대학 2019년 석사논문, 왕성권: <명·청시대 서남서원 제사와 유학전파> <귀주사회과학> 2016년 9호.
- 4) 위샤오흥: <청대 하남서원 제사에 관한 연구>, 귀주대학 2016년 석사 논문.

서원은 당(唐)나라 개원(開園) 시대 이전에 민간에서 개인이 독서하고 학문을 배우던 곳이다. 정부에서 명명한 여정(麗正)서원과 집현(集賢)서원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그 당시 서원에는 제사활동이 없었다. 서원은 당나라에 출현 되었으며, 관아와 민간 두 가지 길을 따라 발전하였다.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서원은 여전히 이 발전 경로를 따랐다. 당나라와 오대(618-960)시대는 서원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 북송과 남송은 서원의 발전이 번영한 시대로, 총 서원의 수는 720개에 달하였다. 특히 남송 시대에는 서원의 제도적 규제가 확립되어 학술 연구, 강의, 장서, 각서, 제사, 학전(學田) 등 6개 주요 사업이 형성되었다. 서원의 제사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찍이 송나라 초기에 서원에서 제사활동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북송(北宋)시대에 하남의 응천부서원에서 제사활동을 진행하였다.<sup>5)</sup> 북송시대에 이미 제사활동이 나타났고, 하남성의 응천부서원에 제사장소가 나타났다. 남송 시대에 이르러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남성은 금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금나라가 서원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은 오랫동안 침체 되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옹호하고 지지하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원나라는 100년이 되지 않아 멸망했지만 "원나라는 서원을 가장 많이 설립한 왕조"<sup>6)</sup>이며 전체 서원 수는 406개에 달하였다. 원나라의 서원은 장강 중하류에 집중되어 있었고, 하남성은 원나라의 서원의 낙후된 지역에 속했으며 서원 제사활동의 발전이 느렸다.

명대는 서원 발전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명나라 초기에 정부는 관학(官學)을 강력하게 활성화하고 서원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홍무(洪武)연간에서 천순(天順)연간에 이르기까지 서원은 거의 100년 동안 침체기를 거쳤다. 명나라 서원은 성화와 홍치(弘治) 시대 발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명나라 중기부터 발전 추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왕담(王湛)의 학설과 결합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조선에도 전해 졌지만, 가경, 만력, 천계 연간에 세 차례 서원을 금지하고 파괴하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명나라 말기에 쇠퇴하였다. 전체적으로 명나라의 서원 발전은 이전 세대 훨씬 능가했으며 서원의 수가 1962개에 달하였다.<sup>7)</sup>

명나라 초기에 정부는 과거시험을 옹호하고 관학(官學)을 옹호했기 때문에 명나라 초기에 하남성 서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하남서원의 제사활동은 비교적 침체 되었다. 명

5) 肖永明：《儒學·書院·社會：社會文化史視野中的書院》，北京：商務印書館，2018年，第334頁。：“書院祭祀活動具體起源於何時，限於資料，目前尚無法明確考證。但可以肯定的是，早在宋初，書院中已存在祭祀活動。”

6) (清) 於敏中等編纂：《日下舊聞考》，北京：北京古籍出版社，1985年，第775頁。：“書院之設，莫盛於元。”

7) 鄧洪波：《中國書院史（增訂版）》，武漢：武漢大學出版社，2012年，第275頁。：“明代……有書院1962所。”

나라 중기에는 관학(官學)의 허점이 잇달아 나타나 점차 과거시험의 예측물이 되었다. 왕수인(王守仁)과 담약수(湛若水)를 대표로 하는 학자들은 현재의 잘못을 시정하고 서원을 기반으로 강학을 하여 인심을 얻은 동시에 정부에서도 서원 설립을 주장하여 공동으로 서원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명나라 중기에는 하남서원도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명나라 영종천순 5년(1461)에 도성인 개봉에 대량의 서원이 세워지면서 다른 하남지역에도 서원이 건설되었다. 가정, 만리, 천치 시대에 명나라 서원은 여러 번 금지되고 파괴되었으며, 하남성 서원도 같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도로 파괴되어 서원 제사활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명나라 하남성 서원의 발전은 침체-번영-금지 및 훼손의 과정을 거쳤고, 서원의 제사활동의 발전 추세도 이에 부합된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5836개의 서원을 복원 및 설립"하는 서원 발전사에서 번영한 시기였다. 청대의 서원정책은 견제에서 개방으로 가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였다. 옹정 11년(1733년)에 정부에서 성도 서원을 설립하라는 칙령을 공포하여 서원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시켰다. 청나라 중기에는 서원이 급속히 발전하여 한학을 기치로 하는 서원의 계단적 특징을 보였으며 일본, 미국, 이탈리아에 진출하였다. 19세기 후반 40년,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원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교회 서원이 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새로운 서원을 설립하였다. 광서 27년(1901)에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서원을 학당으로 변경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며, 이로써 고대 서원의 역사는 끝이 났다. 하남성 서원에 있어서 명나라 말기 하남성에서 빈번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고 청나라 초기의 통치자들이 서원의 발전을 억제하였기에 청나라 초기에 하남성 서원의 발전이 느렸으며, 제사활동은 침체되어 있었다. 한편, 청나라 초기에 손기봉을 대표하는 유명 학자들이 서원에서 강학을 하고, 하남성 각급 관리들이 서원을 설립했는데 이로부터 서원의 강한 활력을 보아낼 수 있다. 청나라 중기 정부에서 서원에 대한 정책을 억제에서 지지로 전환하였다. 옹정 11년(1733년)에 성도 서원을 설립할 것을 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하남성 서원은 크게 발전하였다. 청세종이 칙령을 내린 1840년부터道光 20년(1840년)까지 허난성에 102개의 서원을 복원 및 설립 하였다.<sup>8)</sup>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하남서원의 제사활동도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청나라 말기에는 서양학이 도입되어 외세를 주시하고 하남서원도 개혁의 조짐을 보였다. 개혁과정에서 청나라 정부는 광서 27년에 갑자기 서원을 학당으로 변경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하남성 서원도 점차 학당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교육기관 형태로 발전하였다. 숫자 면에서 보면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수는 이전 왕조를 훨씬 뛰어 넘었다. 덩홍보가 <중국 서원사>에서 집계한 수량에 따르면 총 383개이며 리귀권 등이 <중국서원사>에서 집계한 수량에 따르면 277개로서 모두 200개를 넘었으며 분포 지역이 넓었다. 이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외에도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은

8) 劉衛東, 高尚剛: 《河南書院教育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年, 第60頁。: “河南省自清世宗上諭下達之時到道光二十年(1840), 共設立和興複書院102所。”

제사와 과거시험의 연결을 더욱 강조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모두 명·청 시대의 서원 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청 시대 하남성(河南省)의 성도는 개봉부(開封府)였고, 하남부(河南府)는 또한 하남성(河南省)의 중요한 부(府)급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곳이였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대량서원(大樑書院), 명도서원(明道書院), 유량서원(游梁書院), 이산서원(彝山書院) 등 유명한 서원이 있었고, 하남부(河南府)에는 송양서원(嵩陽書院), 낙서서원, 이락서원, 소산서원 등 유명서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곳의 서원은 그 수가 많고, 지명도가 높고, 규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왕홍루이의 <하남서원 지리에 대한 예비 연구><sup>9)</sup>에서 개봉부(開封府)는 명나라와 청나라 하남성에서 서원이 발달한 지역에 속했고, 하남부(河南府)는 명나라 하남성 서원의 일반 지역에 속했다고 언급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모두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발달 지역이었다. 결론적으로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하남성 서원 발전역사에서 대표적인 의의가 있는 곳으로 두 서원의 제사활동을 사례로 들어 하남성 서원 제사활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제사 내용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은 풍부한 내용과 심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사 대상은 주로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상세한 규정과 제사 의식, 제사경비 등 내용이 있었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하남성의 서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었고, 서원에는 다양한 제사활동이 있었으며 관련 제사활동 사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하남성 서원 제사활동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제사대상

명·청 시대 하남서원의 제사대상은 주로 공자와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지방 관리, 문창제군(文昌帝君) 규성(奎星) 등이 있다. 서원별로 제사 대상에는 많은 유사점과 특징이 있다. 다음에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유명한 서원을 사례로 들어 논술하고자 한다.

#### 1. 지극히 거룩한 공자와 아성(亞聖) 맹자

9) 王洪瑞：《河南書院地理初探》，陝西師範大學2000年碩士論文。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은 개봉부(開封府) 양성현(襄城縣)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성(襄城) 사람인 저장안찰사(浙江按察使) 이민(李敏)이 지었다. 명나라의 유명 재상인 유건(劉健)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남(河南)의 번사(藩司)와 일사(臬司)관리와 군수(郡守)와 현령(縣令)들은 제사에 더욱 신경을 썼으며 공사를 감독하고 대성전(大成殿)을 지었다. 동서 사랑채는 앞에 있었으며, 공자와 기타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명륜당(明倫堂)은 좌우 서재가 뒤에 있었으며 선생과 학생이 거주하였으며 모두 근대학교의 규정을 따랐다.”<sup>10)</sup> 공자를 대성지성(大成至聖) 선생이라고 존칭했기 때문에 공자묘의 대전을 대성전(大成殿)이라고 하였다. 선성((宣聖)도 또한 공자에 대한 존칭이다. 이 이름은 한평제(漢平帝)시기 공자에 대한 시호에서 따온 것이다. 대성전(大成殿)은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에서 공자를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것으로 유교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한 것이다. 명나라 유량서원(游梁書院)은 개봉부(開封府) 상부현(祥符縣)에 위치하였다. 명나라 만력 31년(1603년), 순방어사(巡方禦史) 방대미(方大美)가 사원을 재건하고 성내에서 맹자묘 터에 유량서원(游梁書院)을 세웠다. <유량서원(游梁書院) 비록>에는 “유량(游梁)에 맹자를 모시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그리고 제사의 대상이 맹자와 그의 제자라고 자세히 나와 있다.” 중간에는 맹자를 모시는 여섯 기둥의 대전이 있었고, 만장(萬章)과 공손추(公孫醜) 등 맹자의 제자도 모셨다.”<sup>12)</sup> 청나라 때 하남부(河南府)에 있는 숭양서원(嵩陽書院)에서 공자를 모시는 최초의 선성전(先聖殿)을 지었다. <sup>13)</sup>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 상부현(祥符縣) 명도서원(明道書院)에서는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안회(顏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 등 네 성인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sup>14)</sup>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안회(顏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 네 명 성인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 그들은 유교의 출현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서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는 유교에 대한 서원의 숭상을 반영한다.

## 2.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10)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詔賜名紫雲書院，於是河南藩臬諸公暨郡縣守令重其事，稍董工役，遂易以崇垣，建大成殿、東西廡於前，祀宣聖及從祀諸賢，明倫堂、左右齋於後，居師生，悉如近時學校之制。”

11) (清)王士俊修，(清)顧棟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清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游梁有祠以祀孟子，其規制故隘，可撤而新也。”

12) (清)王士俊修，(清)顧棟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清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中為殿六楹，祀孟夫子其上，以萬章、公孫醜諸弟子配。”

13) (清)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鄭州：中州古籍出版社，2003年，第18頁。：“祀吾夫子。”

14) (清)呂永輝：《明道書院志》，轉引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六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年，第325頁。“至聖先師孔子、複聖顏子、宗聖曾子、述聖思子、亞聖孟子。”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송나라 경유 2년(1035) 정식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교학 사업이 번성했으나 금, 원나라 시기에 훼손되었다. 명나라 가경 7년(1528)에 하남성 등봉현 지현(知縣) 후태(侯泰)가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고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여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사당을 세웠다. "후태(侯泰)는 송양서원(嵩陽書院)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조각상을 세우고 봄과 가을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냈다."<sup>15)</sup> 송양서원(嵩陽書院)은 명나라 때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사당을 세우고 그들의 상을 조각했으며, 이 두 개의 조각상에 대해 봄과 가을에 각기 한번씩 특별히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말에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전쟁으로 훼손되었다. 청나라 강희제 13년(1674)에 하남성 등봉현 지현(知縣) 엽봉(葉封)이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였다. 경개(耿介)의 <창건송양서원전사정주자비기(創建嵩陽書院專祀程朱子碑記)>에는 "나는 서원이 도통(道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의 전 독학관인 장정암(莊靜庵)선생과 외사촌형 부숙감(傅叔甘)과 동갑 곽원보(郭元甫)에게 편지를 썼다. 같은 해에 그들은 모두 학원에 기금을 기부하였다. 기금 액수는 다양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원 바로 남쪽에 대전을 설치하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재되었다.<sup>16)</sup> 경개(耿介)는 송양서원(嵩陽書院)이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전문적으로 제향하고 유가도통(道統)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경개가 지은 <송양서원지사전(嵩陽書院誌祀典)>에는 "강희(康熙) 연간에 어떤 관원은 가축과 달콤한 술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의 신상(神像)에 제사지내면서 성학을 널리 알렸다."라는 고문이 있다.<sup>17)</sup> 고문에는 삼현(三賢) 제사의 제사대상이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임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제사하는 동안 제사의식은 엄숙해야 함을 밝혔다. 명나라에 비해 청나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제사대상에는 주희(朱熹)가 늘어났다. 주희(朱熹)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세번째 제자 이통(李侗)의 제자였다. 주희(朱熹)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낙학(洛學)'을 계승했으며 삼현(三賢)사당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를 함께 모셨다. 이는 위대한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유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의 대량서원(大樑書院)은 규모가 컸으며 전신은 여택(麗澤)대학으로 명나라 천순 5년(1461) 하남 제학부사(提學副使) 유장(劉昌)이 개봉부(開封府) 성남 훈문(薰門)내 채하(蔡河) 북안에 세웠다. 대량서원(大樑書院)은 초기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게만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 대상

15) (隆慶) 《登封縣志》 卷三 《壇祠》， 明隆慶三年刻本。：“侯泰即嵩陽書院塑像， 特設春秋二祭。”

16) (清) 耿介撰， 李遠點校：《嵩陽書院志》， 第95頁。：“余謂書院宜重道統， 程朱例有專祀， 寓書于前督學使者莊靜庵先生及傅叔甘表兄、郭元甫同年， 多寡鹹有捐資， 於是直南為殿， 專祀程朱。”

17) (清) 耿介撰， 李遠點校：《嵩陽書院志》， 第23頁。：“維康熙年月日， 某官謹以犧醴之儀， 致祭于先賢程子純公、程子正公、朱子文公之神曰：惟神表章聖學， 昭若日星。”



을 넓혀 십현사(十賢祠)를 지어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사마광(司馬光), 주희(朱熹), 여조겸(呂祖謙), 장식(張栻), 허형(許衡) 등 10명의 현인에게 제사를 지냈다.<sup>18)</sup> 10명의 현인 중에는 송대 이학의 창시자 "북송의 오자(北宋五子)", 남송의 성리학자, "동남의 삼현(東南三賢)", 그리고 원나라의 이학 대표인물 허형(許衡)이 있다. 사마광은 정치적 재능으로 유명했지만 성리학가 였다. 사마광은 유교의 "천명(天命)" 사상을 계승하고 실행하여 사람들에게 봉건사회의 원칙과 유명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정치적으로 요구하였다. "사마광의 성리학은 북송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이자 북송 성리학의 중요한 창시자 중 하나이다. 주희(朱熹)는 사마광을 주돈이(周敦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함께 '도학 육선생(道學六先生)'이라고 불렀다.<sup>19)</sup> 대량서원(大樑書院) 십현(十賢) 사당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원나라의 유명한 성리학자들을 조대의 순서에 따라 모셨다. 위의 10명의 현인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이론은 유교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원은 그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이는 성리학에서 서원에 대한 중시와 유교와 도교의 전승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준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의 이정서원은 전문적으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제사를 지냈으며, 결국 서원은 홍수로 인해 훼손되었다. "명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서원은 성 동남쪽 2리 되는 번탑(繁塔) 곁에 있었으며 옛날의 대량서원(大樑書院)이다. 이 서원에서는 정호(程顥), 정이(程頤)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명나라 말기에 홍수에 의해 훼손되었다."<sup>20)</sup> 이정서원은 청나라 때 여러 차례 재건되었으며, 도광 2년(1822)에 지방 관리들이 이정서원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책임지는 전문 인원을 배치하였다. 서원에는 비문이 있었다. 도광 20년에 대부분의 서원이 물에 잠겼지만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모시는 사당과 숭덕사(崇德祠)는 다행히 보존되었다."<sup>21)</sup> 당시 서원은 여전히 정호(程顥)와 정이(程頤)를 제사 대상으로 삼고 명도서원(明道書院) 후전에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부친, 조부, 증조부를 포함한 3대 정씨 조상들을 모셨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서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 대한 존경심과 성리학에 대한 확고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이정서원의 제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8) (萬曆) 《開封府志》卷十五《祠祀》，明萬曆十三年刻本。：“內祀周敦頤、程顥、程頤、邵雍、張載、司馬光、朱熹、呂祖謙、張栻、許衡。”

19) 潘富恩，徐洪興：《中國理學 第2卷》，上海：東方出版中心，2002年，第334頁。：“司馬光的理學思想是北宋理學的重要組成部分，是北宋理學的重要奠基人之一，朱熹將其與周敦頤、邵雍、張載、二程並稱為北宋‘道學六先生’。”

20) (清) 呂永輝：《明道書院志》，第316頁。：“明二程書院在城東南二裡繁塔側，即舊大樑書院，祀宋程顥、程頤，明末河水沒。”

21) (清) 呂永輝：《明道書院志》，第317頁。：“並置奉祀生有碑記，二十年沒于水，二程夫子祠並崇德祠存。”

### 3. 지방 관리

서원의 발전은 지방 관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명·청 시대 하남 지방의 많은 관리들은 서원 건설에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서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에 많은 서원의 예배를 받았다. 동시에 유명한 관리에게 지내는 제사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성취를 이루길 바라는 서원의 기대를 보여주었다. 청나라 강희제 25년(1688년) 향신 경개(耿介)는 송양서원(嵩陽書院)에 유교를 건립하고 발전에 이바지한 관리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송유사(崇儒祠)를 지었다. 송유사(崇儒祠)는 명나라 때 현 지현(知縣)후태(侯泰)와 부매(傅梅), 청나라 하남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 청나라 때 하남제학도 임요영(林堯英), 청나라 등봉현 지현(知縣) 왕우단(王又旦) 등을 기념하였다. 지현(知縣)후태(侯泰)는 명나라 가정(嘉靖)연간에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고 교사를 모집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서원의 부흥에 공을 세웠다. 부매(傅梅)는 등봉현에서 관리로 있을 때 정사에 근면하고 민심을 살피고 감옥 관리에 능숙하고 도덕을 엄격히 다스렸으며 상당한 정치적 업적을 이뤘다. 강희제 23년(1684)에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가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위해 5개 기둥의 도서관 건물을 지었다. 서원은 책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왕일조(王日藻)도 서원에 모셨다. 제학(提學) 임요영(林堯英)은 서원을 위해 3개 기둥의 강의실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강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개(耿介)와 문제를 논의하여 <송양서원강학기(嵩陽書院講學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별원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선생을 에워싸고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은 논어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잘못을 짐작하지 않고, <극기복례쇄설>을 선생께 올려 시정을 받으려 했으나 선생은 그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22)</sup> 지현(知縣) 왕우단은 서원을 위해 3개 기둥 삼익재와 5개 기둥 사무재를 지었다. 위에서 언급한 명·청 시대 하남성의 관리들은 송양서원(嵩陽書院)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서원 강의에 참여하는데 열정이 가득하여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운영과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청나라 명도서원(明道書院)은 개봉부 상부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서 20년(1894년)에 학정 소송년(邵松年)이 지었다. 청나라 <명도서원지(明道書院志)>에 따르면 서원은 명나라 하남순무(巡撫) 서공찬(徐公讚), 남경호부상서 하남순무(巡撫) 등공장(鄧公璋)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명무사(名撫祠)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sup>23)</sup> 명나라 관리 27명과 청나라 관리 14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명도서원(明道書院)에 모셔진 명·청 시대의 관리들은 모두 하남성에서 직책을 맡았거나, 서원 건립을 지원했거나,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서원에서는

22) (清) 耿介撰, 李遠點校: 《嵩陽書院志》, 第91頁。: “于別院, 諸生環列, 請先生開導益切, 始講《論語》一貫章。餘不揣謬, 呈《克己復禮瑣說》以救正, 先生以為可與語道。”

23) (清) 呂永輝: 《明道書院志》, 第320-321頁。: “明河南巡撫徐公讚, 南京戶部尚書河南巡撫鄧公璋……”

서원건설에 공로가 많은 유명한 관리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으며 무엇보다 그 서원의 학생들이 유명한 관리를 본보기로 삼고 서원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랐다.

#### 4. 문창제군(文昌帝君)과 규성(奎星)

명나라 장원진(張元楨)은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敕賜紫雲書院文昌祠碑記)>에는 "서원의 동남쪽 모퉁이에 공터가 있었는데, 문창사(文昌祠)를 복원하고, 그 가운데 신위(神位)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었다.<sup>24)</sup> 개봉부(開封府)에 자운서원(紫雲書院)이 세워진 후 건축가들은 서원의 남동쪽 구석에 있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창사(文昌祠)를 지었으며 문창제군(文昌帝君)을 그곳에 모셨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후에 문창제군(文昌帝君) 신상을 만들었고, 관학(官學)과 비교하였다. "천하의 서원에는 신상을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의 서원은 실제로 고대 마을 학교에서 발전된 것이다. 서원에 이미 사당을 마련했기 때문에 신상을 조각하지 않으면 의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공예가들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였다."<sup>25)</sup>라고 적었는데 이는 서원에서 문창제군(文昌帝君)을 위해 장중하게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문창제군(文昌帝君)은 고대 중국인에게 학자의 명성과 지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정받았다. 자운서원(紫雲書院)에 문창사(文昌祠)를 설립하는 것은 문창제군(文昌帝君)에 대한 존경을 표명하는 것 외에도 서원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하고 공로를 세우고 서원과 과거시험의 연계를 보여준다. 청나라 때 하남부(河南府) 낙양현(洛陽縣)에 있는 규광서원(奎光書院)에 대해서는 "규광서원(奎光書院)은 현 동남쪽에 있는 부학궁(府學宮) 앞쪽, 규광각(奎光閣) 부근에 있다"서술되어 있다.<sup>26)</sup> 규광각(奎光閣)의 제사대상은 문창제군(文昌帝君)으로 "문창제군(文昌帝君)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규광각(奎光閣)을 세웠다."<sup>27)</sup> "규광각(奎光閣)에는 문창제군(文昌帝君)이 모셔져 있다."<sup>28)</sup>이라는 설이 있다. 규광서원(奎光書院)은 부학궁(府學宮) 앞쪽, 규광각(奎光閣) 부근에 있었다. 이는 규광각이 서원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서원이 부학(府學)과 인접해 있어 관학(官學)과 서원의 연계성을 반영하고 있다.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개봉현 상푸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道光 8년(1828)에 지부 율옥미와 지현(知縣) 유음당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치창(史致昌)은 산장으로 재직하는

24)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書院巽隅有隙地，複立文昌祠，揭神位於其中。”

25)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故天下學宮皆立祠，塑像以祀。今書院即古鄉學遺制，祠既立，不像祀神，不缺典歟？遂捐貲命工刻神像。”

26) (乾隆)《重修洛陽縣志》卷五《學校》，清乾隆十年刊本。：“奎光書院，在縣東南隅府學宮前奎光閣下。”

27) (清)賀長齡：《耐菴詩文存》卷一《重修貴陽府學文廟記》，清咸豐十年刻本。：“後創奎光閣以祀文昌。”

28) (清)李富孫：《校經廬文稿》卷十六《遊東藕塘記》，清道光刻本。：“後有奎光閣奉文昌星。”

동안 서원 건설에 기여하였다. 사치창(史致昌)은 서원의 규약을 제정하고 작품을 출판했으며 <이산서원지(彝山書院志)>를 저술하였다. 규성(奎星)은 고대에 문장의 흥망성쇠를 지배한 신으로 학자들이 숭상 하였다. <이산서원(彝山書院)연대기(彝山書院志)>에서는 학교 헌장에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활동을 기입하고 매년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명시하였다. “등교하는 날 현령은 동자(童子)들을 거느리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후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냈다.”<sup>29)</sup>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활동과 신입생의 입학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공자를 예배한후 규성(奎星)에게 예배를 올렸다.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자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원은 또한 규성각(奎星閣)의 일일 유지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규성각(奎星閣)을 새롭게 유지하며 문명을 보여주기 위해 2 년마다 색칠하기로 결정하였다.”<sup>30)</sup> 규성각(奎星閣)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서원의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물감으로 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나라 때 대량서원(大樑書院)에도 또한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기기 위해 규성각(奎星閣)을 세웠다.

명·청 시대 하남·개봉 서원의 제사대상은 대부분 공자,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였다. 공자와 맹자는 초기 유교의 대표인물이었으며,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였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는 유학을 발전시켜 결국 유학을 봉건왕조의 통치사상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고대 중국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주로 유교 대표적인 인물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이는 유교에 대한 서원의 존경과 유교와 도교의 계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서원은 유명한 관리들에게도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그들이 서원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공로를 표창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또한 공권력이 서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문창제군(文昌帝君)과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서원과 과거시험의 연결을 반영하고 서원의 인재육성 목표를 보여준다.

## (2) 제사의 규정과 의식

명·청 시대의 하남성 서원은 제사활동을 존중하고 많은 제사건물을 건축하여 제사건물에서 정기적으로 제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제사는 매우 엄숙한 활동으로서 많은 서원에서는 제사활동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상세한 제사의 규정과 의식을 제정하였다. 서원의 제사활동은 동적인 활동으로, 서원 제사의 규정과 의식에 대한 논의는 서원 제사활동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서원 제사활동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일부 대표적인 서원을 사례로 하여 명·청 시대 하남성

29) (清) 史致昌：《彝山書院志》，轉引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 第六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年，第236頁。：“定於送學之日，本府率諸童拜至聖先師後致祭。”

30) (清) 史致昌：《彝山書院志》，第237頁。“奎星閣宜永久輝煥，以昭文明之象，嗣後定於兩年油飾一次。”

서원의 제사규정과 의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이락서원(伊洛書院)

명나라 이락서원(伊洛書院)은 하남부(河南府) 낙양현에 있는 서원으로, 명나라 성화 17년(1481)에 제학부사(提學副使) 오백통(吳伯通)이 설립하였다. 또 십선사(十先寺)를 설치하고 이락의 여러 유교성인들을 모셨다. <이락서원기(伊洛書院記)>에는 “서원에서 10명 현인의 조각상을 만들게 하였다. 10명 현인의 순서는 초려(草廬)오선생이 저술한 책 <낙인장순중십현당기(洛人張順中十賢堂記)>을 근거로 하여 10명 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한다. 매월 15일에는 10명 현인의 조각상을 예배하고 해마다 석전례(釋奠禮)로 10명 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정한 제사의식을 형성하였다.”라고 기재 되었다.<sup>31)</sup> 이로부터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여러 유교성인들의 조각상을 십선사(十先寺)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10 개의 현인들의 조각상을 세부적인 순서로 배치하고 상서로운 날을 선택하여 제사를 지냈다. 매월 1일에 서원의 학생들은 십선사(十先寺)의 조각상에 절을 하고, 매년 석전예(釋奠禮) 의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석전예(釋奠禮)는 고대 학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양과 돼지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분위기가 더욱 엄숙하였다.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엄숙한 석전예(釋奠禮)로 10명의 유교 현인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10명의 현인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보여 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서원의 제사에서는 자세한 제사 진행 시간, 제사 대상의 순서 및 제사 의식을 규정하였다.

## 2. 송양서원(嵩陽書院)

청나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은 하남부(河南府) 등봉현에 자리잡고 있으며 제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의식이 있었다. 경계(耿介)의 <송양서원(嵩陽書院)지·사전(嵩陽書院志·祀典)>에서는 먼저 제사의 목적은 복잡한 제사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인에 대한 존경과 성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석채례(釋菜禮)는 제사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예의로, 제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제자의 정성을 돋보이게 한다.”<sup>32)</sup> 제사를 지낼 때는 간소한 예절과 엄숙하고 높은 규격의 예절이 있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에게 제물을 바친후 두번째 날, 현령(縣令)이나 학박(學博)들은 소뢰례(少牢禮)로 선현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해마다 제사는 석채례(釋菜禮)로도 지내고, 제사에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다.”<sup>33)</sup> 소뢰례(少牢禮)는 태뢰(太牢)

31) (乾隆) 《重修洛陽縣志》卷十五《藝文·記》，清乾隆十年刊本。“命所司肖所祠十賢像，而位次則據草廬吳先生所著《洛人張順中十賢堂記》以為序，擇日安慰如禮，每月朔參謁，歲以釋奠之明日致祭，著為儀。”

32) (清)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第23頁。：“釋菜禮之至簡者也，不在多品，貴其誠也。”

보다 낮은 고대 제사의 규격으로 양과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일반적으로 제후와 경대부(卿大夫)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뢰례(少牢禮)를 사용하였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소뢰례(少牢禮)의 규격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고, 현령이나 교사들이 제사를 참여하였다. 이는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최고 제사기준으로 현인들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강조한다. 석채례(釋菜禮)는 간소한 제사로서 제물은 주로 채소와 과일이다. 송양서원(嵩陽書院)에서도 석채례(釋菜禮)로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정해진 날짜에 산장(山長)이 학생들을 거느리고 가서 공자에게 절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석채례(釋菜禮)는 소뢰례(少牢禮)에 비해 간소한 의식에 속한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제사 중 제사에 따라 제문(祭文)을 다르게 반포하는데, 선현사(先賢祠) 제문(祭文)과 삼현사(三賢祠) 제문(祭文), 도통사(道統祠) 제문(祭文)이 있다. 제문(祭文)은 제사의 취지와 의미를 서원 학생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제사대상을 숭배하고 제사대상의 덕행, 학식, 공훈을 따라 배워 사회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제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정하고 제사 참여인원, 제사 예절, 제문(祭文) 등을 규정하였다.

### 3. 자운서원(紫雲書院)

자운서원(紫雲書院)은 명나라 말기에 훼손되었다.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제사 규정과 의례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거의 없다. 청나라 강희제 때 중주 출신의 학자 이래장(李來章)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재건하고 청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제사 의식에 대한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담고 있는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를 편찬하였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청대에도 양성현에 위치하고 있었다. 양성현은 명대에는 개봉부(開封府) 관할내에 속하였다. 청대에는 개봉부(開封府) 관할에 변화가 있었으며, 양성현은 옹정 2년에 허주(許州)에 속하였다. <청사고지리지(淸史稿地理誌)>에는“청나라 초기에 개봉부(開封府)는 하남성의 성도였으며 관할 아래 4개의 주(州)와 30개의 현(縣)이 있었다. 옹정(雍正) 2년에 진(陳), 허(許), 정(鄭), 우(禹) 네개 지역이 개봉부(開封府)에서 분리되어 원래 개봉부(開封府)에 속해 있던 14개 현을 관할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sup>34)</sup> 이로부터 청나라 옹정 2년 이전에는 양성현(襄城縣)이 여전히 개봉부(開封府)의 관할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는 강희(康熙)연간에 인쇄 되었기에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가 여전히 청나라 개봉부(開封府) 서원의 역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33) (淸) 耿介撰, 李遠点校: 《嵩陽書院志》, 第23頁。: “一每春秋祭丁之次日, 以少牢一祀先賢祠, 或縣令親祭, 或委學博代祭。一每春秋二仲朔日, 做古釋菜之禮, 用諸果品菜蔬十二器祀先聖, 書院山長率肄業諸生行禮。”

34) 趙爾巽等: 《淸史稿》卷六十二《地理志》, 北京: 中華書局, 1977年, 第2068頁。: “開封府: 淸初, 河南省治, 仍領州四, 縣三十。雍正二年, 陳、許、鄭、禹直隸, 割縣十四隸之。”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에서 이래장(李來章)이 직접 편찬한 "자운서원학칙(紫雲書院學規)"에서는 학습사항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제사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래장(李來章)은 고대인들이 학교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서원은 글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제사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운서원학칙(紫雲書院學規)>에서 제사의 의식을 처음으로 기재하고 이를 제1의 학문의 핵심으로 여겼다.<자운서원학칙(紫雲書院學規)>에는 "서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먼저 성전에 네번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강당으로 가서 예배한다. 매월 1일과 15일 전날 밤에는 당직자가 서원의 제자들을 이끌고 조각상을 꼼꼼히 청소한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가 일어나 세수를 한후 당번자는 북을 다섯 번 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강당에 공수례(拱手禮)를 한다. 중간의 학생들은 동서 두 줄로 나누어 서로 두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며 나이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퇴장한다. "라고 기록되었다. 35) 학칙에 따르면 서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먼저 성전에 네번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강당으로 가서 예배한다. 강당 가기전에 성전에서 참배를 하는 것은 특히 서원의 제사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 전날 밤에는 당직자가 서원의 제자들을 이끌고 조각상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가 일어나 세수를 한후 당번자는 북을 다섯 번 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강당에 공수례(拱手禮)를 한다. 중간의 학생들은 동서 두 줄로 나누어 서로 두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며 나이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퇴장한다. "제사를 지낼 때 일부 학생들은 일부러 예배 하러 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며, 어떤 학생들은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신나게 놀기도 한다. 서원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과오를 한번 기록하며, 강당 벽에 붙인다."36) 예의를 갖추어 서로 인사를 할 때 고의로 핑계를 찾지 못하거나 인사가 장난스럽고 엄숙하지 않은 경우, 서원은 벌점을 기록해 강당 벽에 붙인다. 제사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조용하고 엄숙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찰에 참배할 때 모든 사람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성심성의로 유언을 낭독해야 한다. 이것이 서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37)

<자운서원학칙(紫雲書院學規)>에서는 제사 진행시간, 제사 전 청소, 제사 중 제자들의 의식, 제사의 절차, 제사에 대한 제지 및 처벌 조치, 제사활동을 거행하는 사람들의 의복 등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생생하고 질서정연한 제사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5) (清) 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轉引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六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年，第146頁。：“今凡入書院受學者，皆先詣聖殿階前，伏，興，行四拜禮，然後詣講堂投刺，以文為贊。至逢朔望日前夕，值日者督率院中同人，拂拭神幾，務期潔靜。至日黎明，擊板盥洗既畢。值日者，鳴鼓五聲畢，詣聖殿階前行伏，興，四拜禮，再集講堂向上一揖，又分班東西對揖，相引而退皆以齒序。”

36) (清) 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第146頁。：“或托故不至，或跛倚笑語，禮貌不肅者，各記過一次，實貼講堂壁上。”

37) (清) 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第146頁。：“故凡瞻仰廟貌，誦讀遺言，皆當正冠整襟，昭如在之誠，此為學第一義也。”

#### 4. 이산서원(彝山書院)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규성(奎星)은 고대 기물의 홍망성쇠를 주관한 신으로 학자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 해마다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냈다.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학생들이 개학을 할 때이다. 규성(奎星)의 제사는 공자의 제사를 진행한 후에 한다. 이는 규성(奎星)의 지위가 높지만 여전히 유교의 창시자 공자보다 열등함을 보여준다.”<sup>38)</sup>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학생들이 개학을 할 때이다. 규성(奎星)의 제사는 공자의 제사를 진행한 후에 한다. 이는 규성(奎星)의 지위가 높지만 여전히 유교의 창시자 공자보다 열등함을 보여준다. “규성각(奎星閣)의 웅대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서원에서는 규성각(奎星閣)에 대해 2년마다 색칠하고 장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월 1일과 15일에 서원 원장은 제자들을 이끌고 규성(奎星)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낸다. 서원 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원(監院)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sup>39)</sup> 규성각(奎星閣)의 웅대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서원에서는 규성각(奎星閣)에 대해 2년마다 색칠하고 장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월 1일과 15일에 서원 원장은 제자들을 이끌고 규성(奎星)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낸다. 서원 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원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순서, 규성각(奎星閣)의 유지 관리,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 의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의 다양한 내용은 서원의 헌장에 포함되었다. 세심한 방법과 운용성을 강조하여 서원 제사활동의 제도화된 특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명·청 시대 하남서원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규정의 내용이 풍부하고 제사예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원의 제사 규정은 상세하며 제사 전 준비사항, 제사 진행시간, 제물 배치, 제사 참가자, 제문, 규정을 위반한 제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사예의에는 석전례, 석채례, 소뢰례, 사배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사규정과 예의는 상세하고 실행 가능하였다. 상세한 제사규정과 제도화된 제사예의를 통해 서원 학생들이 직접 제사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에서 현인들의 훌륭한 자질을 느끼며,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38) (清) 史致昌：《彝山書院志》，第236頁。：“每年祭奎星，定於送學之日，本府率諸童拜至聖先師後致祭。”

39) (清) 史致昌：《彝山書院志》，第237頁。：“奎星閣宜永久輝煥以昭文明之象，嗣後定於兩年油飾一次。每月朔望，院長率諸童行香，院長出省，監院行香。”



### (3) 제사 경비

제사활동은 서원의 중요한 활동으로, 제사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제사물품 구입, 제사당직 및 관리인의 급여, 제사건물의 일일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명·청 시대의 하남서원은 서원 제사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를 모았는데, 서원의 경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학전(學田)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서원의 수입은 서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이른바 "서원에 학전(學田)이 있으면 서생을 모을 수 있고, 서원은 기회를 잡아 강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서원에 학전(學田)이 없으면 서생을 모으기 어려워 서원이 망하게 되는데 어찌 강학을 할 수 있는가?"<sup>40)</sup> 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많은 지방 관료들이 제답(祭田) 마련, 서원 경비 기부 등 서원의 제사를 위한 경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명나라 대량서원(大樑書院)은 개봉부(開封府)의 공식 서원이었다. 명나라 이몽양의 <대량서원전비(大樑書院田碑)>에는 "서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찰을 세워 스승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학전(學田)이 없으면 제사의 경비는 어디서 마련하는가?"라고 기록되었다.<sup>41)</sup> 이는 서원 제답(祭田)에 대한 서언 제사의 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책을 모으는 서원이 있고, 제사에 사용되는 학전(學田)이 있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sup>42)</sup> 제사에 사용되는 학전(學田)은 제답(祭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답(祭田)은 서원 제물비용을 모으는데 전념하였다. 이몽양(李夢陽)은 학전(學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서원은 학전(學田)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재능 있는 학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활동을 중시했으며 규성각(奎星閣)을 건축하였다. 규성각(奎星閣)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마련하였다. "제사에 사용된 향과 양초, 페인트는 서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기부한 한달 고화은(膏火銀)으로 구입한다. 이 일은 감원(監院)에 맡겨 처리된다."<sup>43)</sup> 규성각(奎星閣)의 유지자금은 고화은(膏火銀)에서 할당되며 감원(監院)이 책임을 졌다. 나중에 규성각(奎星閣)이 재건되었을 때 많은 현지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하여 규성각(奎星閣)을 재건하였다.

청나라 강희제 13년(1674)에 하남성 등봉현 현령이 숭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였다. 그는 서원의 제사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숭양서원(嵩陽書院)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북쪽에는 송나라의 숭복궁(崇福宮) 터가 자리 잡고 있다. 문

40) (明) 婁性：《白鹿洞學田記》，轉引朱瑞熙：《白鹿洞書院古志五種》，北京：中華書局，1995年，第101頁。：“院有田則士集，而講道者千載一時；院無田則士難久集，院隨以費，如講道何載？”

41) (明) 李夢陽：《空同集》卷四十一《大樑書院田碑》，《文淵閣四庫全書》（影印本）第1262冊，臺北：臺灣商務印書館，1986年，第369頁。：“聚人之所，必廟其所師，廟必有祭，祭非田，何出矣！”

42) (明) 李夢陽：《空同集》卷四十一《大樑書院田碑》，第369頁。：“有積書之院，祭養之田，又以異士而考成也。”

43) (清) 史致昌：《彝山書院志》，第237頁。：“香燭油飾之資，出正、副課科歲試進學之月所捐一月膏火銀兩，此項入監院交代，屆時敬謹辦理。”

헌을 찾아보니 송나라 사마광을 비롯한 12명이 한 때 재집(宰執)대신으로 숭복궁(崇福宮)을 관리했는데, 서원에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서원에서는 학생을 선택하여 강의를 하고 학전(學田)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였다.”<sup>44)</sup> 조두(俎豆)는 원래 제사와 축제 때 음식을 담은 제기였으나 나중에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제사활동을 위해 엽봉(葉封)은 특별히 학전(學田)을 사들였다. 엽봉(葉封)은 지방 관료로서 송양서원(嵩陽書院)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서원의 제사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방 관리가 제사대상의 본보기역할을 빌어 학생을 교육하고 제사 민속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Ⅲ.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 제사의 의의

명·청 시대에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있는 서원의 제사활동은 의미가 풍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서원 제사활동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한 형태로, 학생들이 제사 활동에 참여하여 제사대상에 대한 존경심과 배움의 욕망을 갖게 하고 은밀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서원 제사활동은 먼저 공자와 성현, 지방 관리 등에 대한 서원 학생의 존경을 표한다. 서원 제사활동의 예배 대상은 주로 유교의 대표인물인 공자,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로, 이는 서원의 유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유교와 도교 전통의 계승을 추진하였다. 현지 유명한 관리들에 대한 제사는 서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학업에서 성공을 한 후 서원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규성(奎星)과 문창제군(文昌帝君)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서원 제사활동은 유교 도교를 계승하고 지방 통치관리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1) 유교와 도교의 계승에 대한 추진 역할

주희(朱熹)는 제사활동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사는 도통(道統)을 계승해야 한다. 천하의 학자들이 도통(道統)의 계승을 알게 하고 제사 의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조각상을 전시하고, 예복을 입고, 고급 제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sup>45)</sup> 주희(朱熹)는 제사의 목적이 도교를 계승하고 학자들이 사모

44) (道光) 《黃陂縣誌稿·人物》, 民國十二年鉛印本。: “嵩陽書院舊祀二程子, 北側為宋崇福宮故址, 廢且久。封稽史籍, 得宋司馬文正公以下, 曾以宰執領宮使者, 凡十有二人, 為主祠之, 時其祭祀。選博士弟子肄業其中, 又置田以為俎豆飲食之需。”

45) (宋)朱熹: 《朱子全書》卷八十 《晦庵先生朱文公文集》,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2年, 第3806頁。: “蓋將以明夫道之有統, 使天下之學者皆知有所嚮往而及之, 非徒修其牆屋、設其貌像、盛其器服

하는 바를 알게 하는 것이지 제사의 형태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유교는 중국 봉건사회의 정통 사상이다. 명나라 초기에는 성주 성리학이 존경받았고, 중기에는 왕담(王湛)의 심학(心學)이 번성하였다가 명나라 말기에 성리학으로 복귀하였다. 성리학은 유교에 속하는 것으로, 유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명나라 이민(李敏)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설립한 목적에는 유교 도통(道統)을 계승하는 것이 있다. “저장 안찰사(按察使)양성현(襄城) 이민(李敏)이 공터에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세운 목적은 서원 학생들이 이윤(伊尹), 주공(周公), 공자(孔子), 정호(程顥), 정이(程頤)를 스승으로 삼고, 주희의 이론을 배우고 허형의 품격을 배우는 것이었다.”<sup>46)</sup> 명나라 장원정(張元楨)의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敕賜紫雲書院文昌祠碑記)”에서 서원의 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백성을 도와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신의 도움이라면 누구나 신을 공경하고 경배해야 한다. 불교와 도교의 허무맹랑함이나 사찰 건설이 백성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sup>47)</sup> 사람들의 불교와 도교의 허무함과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학계에서 유교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나라 때 경개(耿介)는 그의 <송양서원도(嵩陽書院圖)>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백록서원지(白鹿書院志)를 살펴보면, 백록서원(白鹿書院) 중앙에는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성전(禮聖殿)이 있고, 그 옆에는 선현을 제사지내는 종유사(宗儒祠)가 세워져 있어 백록서원(白鹿書院)이 도통(道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송양서원(嵩陽書院)에도 백록서원(白鹿書院)의 제사제도를 본떠서 삼현사(三賢祠)를 세워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다.”<sup>48)</sup> 경개(耿介)는 서원이 도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를 예배하기 위한 선현사(先賢祠)를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하였다. “먼저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의 제사를 제현사(諸賢祠)에서 함께 지냈다. 경개(耿介)는 서원의 도통(道統)을 선양하기 위해 삼현사(三賢祠)를 지어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다.”<sup>49)</sup> 하남성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의 <송양서원비기(嵩陽書院碑記)>에는 “정호(程顥), 정이(程頤)는 때맞춰 나와 송산의 숭복궁(崇福宮)을 주관하며 유학을 전파했고,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 주희(朱熹)가 대대로 계승하여 온 유교를 전파하였다.”<sup>50)</sup>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원은

升降俯仰之容以為觀美而已也。”

46) (清) 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第153頁。：“欲仰師伊尹、周公、孔子以及程氏，又考古朱徽公正學善教之功，期如魯齋河東之有遇，而或曠無甯居理，固有未安者，此浙江按察使襄城李公紫雲書院所以作歟。”

47)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傳曰：‘有功於民則祀之，若神之功，是宜士君子所當尊崇而敬祀之，豈釋老之徒事虛寂而寺觀之建為徒費民財者，可同日語哉！’”

48) (清) 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第11頁。：“考《白鹿書院志》，中辟禮聖殿祀先聖，旁建宗儒祠祀先賢，重道統也。今嵩陽書院亦仿此制，別為三賢祠，祀二程、朱子。”

49) (清) 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第19頁。：“先是程朱三子合祀於諸賢祠，介以書院宜重道統，故專祀焉。”

유교와 도교의 유산을 매우 중시하였다.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의 명도서원(明道書院)은 공자, 맹자, 주돈이,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등의 유교 대표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도통사(道統祠)를 설립하여 유교와 도교가 서원에서 계승되도록 하였다. 광서20년(1894)에 하남성 학정(學政) 소송년(邵松年)은 <중건명도서원(明道書院)비기>에서 유교와 도교의 유산을 중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학자는 명도서원(明道書院)에서 공부하여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이학을 계승하고, 성현(聖賢)과 같은 일을 성취하도록 격려하였다.”<sup>51)</sup>

## (2) 지역 통치관리에 도움이 됨

명·청 시대에는 서원이 번성했으며 정부는 점차 서원의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세력이 되었다.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는 서원이 많았고 정부는 서원 건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사건물 건축과 제사활동의 발전을 중시하였다. 서원의 제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 유량서원(游梁書院)은 순방어사(巡方禦史) 방대미(方大美)는 <유량서원비기(游梁書院碑記)>에서 사람과 관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본보기를 세우는 것보다 선현을 숭상하는 것이 낫고, 주물을 잘 만드는 것보다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낫다. 맹자의 인의지학은 서생들의 학습 목표이다. 많은 서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성현의 정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sup>52)</sup>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량서원(游梁書院)에서 맹자의 사당을 지은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사찰이 완성되면 선현(先賢)을 존중하는 의식이 있게 되고, 관(館)을 설치하면 직업의 처소가 마련되며, 선현(先賢)을 추앙하여 모범을 보이고, 직업은 고주(鼓鑄)로 표현된다.”<sup>53)</sup> “오늘 나와 다른 관리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행동은, 매우 영광스럽다. 후손들이 우리 사업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로 적어 기록한다.”<sup>54)</sup> 성인에 대한 제사는 모범 교육의 역할을 하고, 주변 성인들의 고상한 품성이 제자들을 감화시켜 진덕수업(進德修業)하고 궁극적으로 제사의 민속화를 추진하기 위함이 었다.

명·청 시대 봉건사회의 공명과 관록을 지배했던 문창제군(文昌帝君)은 서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문창제군(文昌帝君)에 대한 제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덕을 수호하게 하여 지방 정부의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시행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명대 개봉부

50) (清) 耿介撰, 李遠點校: 《嵩陽書院志》, 第81-82頁。: “兩程夫子應期而出, 先後提點嵩山崇福宮, 昌明正學于時, 濂洛關閩遞結薪傳。”

51) (清) 呂永輝: 《明道書院志》, 第334頁。: “學者讀書其中, 溯伊洛之淵源, 勉聖賢之事業是也。”

52) (清) 王士俊修, (清) 顧棟高纂: (雍正) 《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 清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 “樹標莫如崇賢, 善鑄莫如敬業。孟氏仁義之學, 士人之標也。倘惠邀聖賢之靈, 群弟子而講習之, 爐冶之。”

53) (清) 王士俊修, (清) 顧棟高纂: (雍正) 《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 清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 “祠修, 則崇賢有儀; 館備, 則敬業有所。崇賢以示之標, 敬業以鼓之鑄。”

54) (清) 王士俊修, (清) 顧棟高纂: (雍正) 《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 清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 “予與諸大夫今日作人之舉, 不有榮施哉! 是所望於諸來學者, 爰書之, 為此祠記。”

(開封府)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이민건(李敏建)이 세웠다. 명나라 사람 장원정이(程頤)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敕賜紫雲書院文昌祠碑記)>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신이 신이 된 것도, 정부에서 인재를 뽑은 것도 충효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 경고와 백성을 교화한 공적이 컸다. 훗날 양성현(襄城縣)의 서생들은 서원에서 유흥을 배울 때 경건한 마음으로 장엄한 신상을 우러러보고, 신의 감독하에 자신의 덕행을 살펴보았다.”<sup>55)</sup> 이는 문창제(文昌帝)에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 중 하나가 신앙의 힘으로 학생들을 엄하게 교육하고 덕을 기르며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친절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문창제군(文昌帝君)을 숭배하며 학생들의 과거시험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성과 자기 계발을 장려하였다.

서원은 도통(道統)을 존중하는 것으로 치통(治統)에 도움을 주었다. 청나라 하남부(河南府)에 있는 숭양서원(嵩陽書院)은 등봉현 엽봉(葉封)이 재건하였다. 전 하남성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는 <숭양서원비기(嵩陽書院碑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나는 허난성에서 일하며 문화전파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다. 지금은 서원을 개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되지 않으면 도통(道統)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할 수 없고 유교 연구를 장려할 수 없다.”<sup>56)</sup> 왕일조(王日藻)의 주된 의도는 도교를 홍보하고 유덕한 학자들을 포상하여 지역 문화와 교육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문화와 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왕일조(王日藻)의 의무이며 지방 관리의 문화와 교육 진흥의 목적은 백성을 교육하여 봉건체제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엽홍방(閻興邦)은 또한 하남 순무(巡撫)를 역임했으며 그의 <숭양서원신립도통사기(嵩陽書院新立道統祠記)>에는 다음이 기재하였다. “고대와 현대에는 치통(治統)과 도통(道統)이 있었고 모두 군주, 신하, 유교 학자들이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신은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유교를 전파하기 위해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무주공(文武周公)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모두 나라의 통치자였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교를 더 잘 계승하였다. 신은 유교학설을 통해 사회통치를 보조하기 위해 공자를 탄생 시켰고, 공자는 백성들에게 유교를 적극적으로 선양하였다.”<sup>57)</sup> 치통(治統)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전통을 말하며, 도통(道統)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유교의 전통이다. 치통(治統)과 도통(道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완한다. 봉건 통치자는 유교사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유교와 도교를 중시하고 도교를 통치 사상으로 간주하였

55)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神之所以為神，與夫所以取士，亦惟本之忠孝，其警世弼教之功不亦大矣乎！……後自今襄之諸士子遊歌於書院，而拜瞻神像之儼然，知神考德察行之，由必惕然，戒謹恐懼。”

56) (清)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第82頁。“余奉命撫豫方，以興起文教為首圖，值茲書院鼎新，而無一言紀其事，非所以崇道統、勵儒修也。”

57) (清)耿介撰，李遠點校：《嵩陽書院志》，第83頁。：“古今有治統，有道統，皆君相師儒共為任之者也。以治行道，天於是生堯舜禹湯、文武周公，以立乎上而治益隆。以道佐治，天於是生孔子，以修乎下而道不墜。”

다. 소위 "도교의 통치는 번영하고 도교는 통치에 달려 있다." 도교를 활용하여 통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였다.

#### IV. 결론

제사는 서원의 4대 기본규정 중 하나이며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명·청 시대에는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많은 서원이 있었고 유명한 서원도 많았다. 이러한 서원의 제사는 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에서는 많은 계승성을 보여주었다. 명·청 시대에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제사대상에는 공자와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지방 관리, 문창제군(文昌帝君), 규성(奎星) 등이 포함되었다. 제사대상을 통해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서원에서는 유교를 존중하고, 유교와 도교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유명한 관리를 예배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는 하남성 서원에서의 제사대상의 선택을 반영한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제사규정이 상세하고 제사의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학전(學田)이 없으면 서원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서원의 제사활동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제사경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지역 관리들은 제사경비의 조달에 도움을 주었다. 서원의 제사활동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현인들을 따라 배우도록 했을 뿐더러 지방 관리의 업적을 표창하였다. 서원의 제사는 유교와 도교를 계승하고 지방 통치관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중요한 현급 도시로 당시 하남성의 많은 대표적인 서원이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관할되었다. 명·청 시대의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을 논의하고 소개함으로써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 현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고대 서적

(송)주희: <주자전서>, 상해고서출판사, 안후이 교육출판사, 2002년.

(명)누성: <백록동학전기>, 주서희 인용: 백록동서원고지오종, 베이징: 중화서국, 1995년.

(명)리명양: <공동집>, <문연각사고전서>(영인본) 제1262권, 타이베이: 대만 상무인서관, 1986년.

(륭경) <등봉현지>, 명대 룽경 3년 각본.

(만력) <개봉부지>, 명대 만력 13년 각본.

(강희) <양성현지>, 청대 강희 증각본.

(청)우민중 등 편찬: <일하구문고>, 북경: 북경고서출판사, 1985년.

(청)왕사준 수정, (청)고동고 편찬: (옹정)<하남통지>, 청대 도광6년 보각 광서28년 재보 각본.

(청)경개 편찬, 이원 점교: <송양서원지>, 정주: 중주고적출판사, 2003년.

(청)여영휘: <명도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권 난징: 장쑤 교육출판사, 1995년.

(건륭) <낙양현지 중수>, 청대 건륭 10년 간행본.

(청)하장령: <내암시문존>, 청대 함풍 10년.

(청)이부손: <교경경문고>, 청대 도광 각본.

(청)사치창: <이산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권, 남경: 강소 교육출판사, 1995년.

(청)이래장 등: <칙사자운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책, 남경: 강소 교육출판사, 1995년.

(도광)<황피현지고>, 민국 12년 연판본.

자오열쑨 등: <청사고>, 베이징: 중화서국, 1977년.

### 2. 현대 서적

성량서: <중국서원제도>, 베이징: 중화서국, 1934년.

유위동, 고상강: <하남서원교육사>, 정주: 중주고적출판사, 1991년.

이국균 편집장: <중국 서원사>, 창사: 호남교육출판사, 1994년.

판푸은, 쉬홍싱: <중국 이학 2권>, 상하이: 동방출판센터, 2002년.

덩홍보: <중국서원사(증정판)>, 우한: 우한대학출판사, 2012년.

샤오융밍: <유학·서원·사회·사회문화사 관점에서의 서원>, 베이징: 상무인서관, 2018년.

### 3. 정기 간행물 논문

샤오융밍, 탕야양: <서원 제사의 교육 및 사회교화 기능> 호남대학교학보(사회과학판) 2005년 3호.

동지하: <서원의 제사와 그 교육기능의 예비 연구>, <대학교육과학> 2006년 제4호.

장젠귀: <의식승배와 문화전파-고대서원 제사의 사회공간>, <현대철학> 2006년 3호.

샤오융밍, 다이슈홍: <서원제사와 시대학술의 변천>, <동남학술> 2011년 6호.

왕성권: <중국 고대 서원 제사의 기호 표징>, <중외문화와 문론> 2015년 3호.

장우경: <명청시대 귀주서원의 제사>, <교육문화포럼> 2016년 1호.

좌위, 왕홍: <고대서원 제사의 발전적 변천과 교육의 의미>, <교육연구와 실험> 2016년 제 5기.

왕승균: <명청시대 서남서원 제사와 유학전파>, <귀주사회과학> 2016년 9호.

리원리: <명청시대 산시서원의 제사와 그 사회적 의미>, <서북대학교 학보(철학사회과학판)> 2018년 6호.

#### 4. 학위논문

왕홍서: <하남서원 지리연구>, 산시사범대학 2000년 석사논문.

위샤오흥: <청대 하남서원 제사에 관한 연구>, 구이저우대 2016년 석사논문.

범리연: <명청시대 강서서원 제사행사와 그 시사점 연구>, 강서사범대학교 2019년 석사논문.



Abstract

## Research on sacrifices in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Taking Henan and Kaifeng Prefecture as examples—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in Ming and Qing Dynasties play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history of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had a large number of famous academies and detailed sacrificial contents. Sacrifice is an important activity of academies. The sacrificial objects of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included Confucius and Mencius, Cheng Hao, Cheng Yi, Zhu Xi, Local famous officials, Wenchang, Kui star and so on. The academies of two prefectures had the characteristics of detailed and dense sacrificial rul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acrificial ceremony. The development of academy sacrificial activities needed solid support of sacrificial funds, among which the income of school fields had a great impact on the sacrificial activities. Local officials in the two prefectures also actively supported the academy sacrificial activities through donations. The academies of two prefectures sacrifice activities not only educated students to study morality and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local officials to support the academy sacrifice activities, but also actively inherited the Confucian tradition and served the local governance, and realized the promoting role of the Confucian tradition on the governance.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were important prefectural units in Henan Province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t that time, many representative academies in Henan Province were located in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By analyzing the sacrificial activities of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the sacrificial contents of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better revealed.

**Key words :** Henan Prefecture ; Kaifeng Prefecture ; sacrificial objects ; sacrificial rules ; sacrificial ceremonies ; sacrificial funds



##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 목적

—경주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이병훈(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국문초록】

서원은 강학과 제향을 통해 院生을 교육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서원에는 원생들만 출입한 것이 아니었다. 서원의 운영을 담당하는 院任과 院屬 등은 고정 출입자였으며, 부정기적으로 地方官과 中央官僚뿐만 아니라 일반 過客 및 謁廟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儒生들도 있었다. 서원 방문객은 해당 서원의 위상이 높을수록 그 수가 많았으며,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중서원 모두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서원 위상은 한국에서는 제향인과 賜額의 유무가 기본이었다. 제향인의 위상이 높을수록 서원의 위상도 높았으며, 사액은 국학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였다. 18세기 이후 각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건립이 증가하고, 19세기에는 가계단위로도 서원이 건립되면서 더욱 그 수가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원을 건립한 주체와 서원 강학을 주도한 인물, 나아가 과거 급제자의 배출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졌다.

특히 청대의 서원은 관학화가 심화되어 국자감 다음의 위상을 가진 省會書院은 주·부·현의 관학보다 우위에 있었다. 또한 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縣·州·府·道·省·聯省의 各級 서원의 건립과 더불어 사사로이 건립한 가족서원부터 향촌에서 운영하는 향촌서원까지 민간서원의 건립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학술대가가 창건한 서원이거나 그들의 주도하에 운영된 서원은 관립이나 민립에 상관없이 모두 가장 높은 등급의 서원으로 취급되었다.

서원의 위상은 실제 방문객의 수에도 영향을 주었다. 실제 중국 악록서원과 같이 오랜 역사와 강학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유명한 학술토론이 진행할 때는 수천명이 모이기도 했다. 또한 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19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관립 서원에서는 원생들의 기숙과 강학이 이어졌다. 반면, 한국 서원의 경우에는 17세기 이래로 서원 강학이 쇠퇴하여 옥산서원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에서만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들도 18세기 중반이후부터 재정난으로 인하여 점차 강학 기능은 쇠퇴해갔다. 그러나 한국 서원의 경우 유생들의 聚會所로 역할하면서 정치·사회적 기능을 수반해왔다. 그 결과 한국 서원은 원생뿐만 아니라 일반 유생들의 방문도 수시로 이어졌다. 옥산서원과 같이 위상이 높은 곳

은 더욱 많은 유생들의 방문이 있었다.

한국 서원은 在地土族들의 전유물로서 일반민이나 中人[庶孽·鄉吏]들은 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또한 사족이라고 해도 서원의 방명록인 『尋院錄』에는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만이 姓名을 기록할 수 있었다. 중국서원은 학업에 뜻을 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입원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유생들만이 출입을 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서원을 방문했던 인사들의 명단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부 전하는 명부는 방문객이 아닌 서원에서 수학하였던 원생이나 서원 건립과 운영자금을 義捐했던 자들의 명단이다.

본 연구는 1887년 廣州城에 건립된 廣雅書院의 『同舍錄』과 『東省諸生夏季功課部』를 참고하였다. 광아서원은 洋務派의 영수였던 張之洞이 건립한 省級서원으로서 주부현학의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들만이 입원하여 수학했다. 이곳에서는 교육 부문을 經學, 史學, 理學, 經濟로 나누어,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각 100명의 학생을 입원시켜 동·서재에 머물며 학문을 익히도록 했다. 광아서원 자료를 보면, 科業을 준비하기 위하여 州學·府學·縣學의 優廩生·廩生·附生·增生과 舉人, 監生, 副貢, 拔貢, 優貢, 貢士, 增貢生 등 다양한 신분의 학생들이 입원하였다. 이들은 광주성 내에 각 州府縣에서 세거해온 이들이었다. 이들은 각 2개월씩 서원에 기숙하면서 경학·사학·이학·文學 등을 익히고 시험을 치렀다. 또한 진사 출신의 梁鼎芬, 朱一新, 廖廷相, 鄧蓉鏡 등이 역대 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어 청말 광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보면 19세기의 청대 서원은 각급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로 위상이 높은 곳일수록 출입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서원도 오랜 역사와 높은 위상을 가진 곳은 각종 기문과 비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인물들이 방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 士人들의 방문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 서원의 경우 중국서원에 비하여 현재 다양한 인명부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서원에 소속된 원임과 원생의 명단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심원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심원록』에는 서원이 위치한 고을의 인물들은 수록하지 않았기에 가장 많이 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고을의 방문객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주 옥산서원은 다른 고을에서 방문했던 자들의 명부인 『심원록』(1572~현재)뿐만 아니라 서원이 위치한 경주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기록한 『本鄉尋院錄』(1756~1950)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서원 방문객들의 규모와 분포, 지위뿐만 아니라 방문목적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한된 자료를 통해 본 옥산서원의 경우 지방관과 중앙관료들 뿐만 아니라 제향인의 후손들의 방문이 많았다. 아울러 서원이 위치한 경주지역 유생들의 방문이 많았는데, 주로 朔望焚香이나 春秋享禮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儒會가 서원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이때는 『심원록』이 아닌 時到記(到記)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서원은 강학 기능보다는 제향과 유생들의 취회소로서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세기 옥산서원에서는 1839년 강당인 求仁堂 화재로 인한 重建사업이 있었으며, 1826~1827년, 1852~1853년, 1883~1884년 사이에는 입원과 원임직 許通을 요구하는 庶派, 新鄕들과 무력을 동반한 鄕戰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서원 운영에 참여해온 慶州 孫氏가문과 제향자인 李彦迪의 후손들 사이에 學問淵源에 관한 是非가 1850년대 중반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鄕內와 道內의 유생들이 서원에 모였었다. 19세기 옥산서원에서 특정시기마다 방문객이 증가하였던 이유는 이처럼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길에 비바람을 피하려 들리거나, 과거에 급제한 후 사당에 알묘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지방관이 부임하면서 경주를 지나는 경우 알묘하거나, 새로운 경주부윤이 부임할 때 알묘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던 것도 확인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중서원은 일반민의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대체로 지방관이 관여한 서원일수록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서원의 경우 교육활동이 19세기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중국서원은 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관인양성을 위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입원하는 학생들도 서원의 등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말 서원은 사회적 변화에 동반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서원의 제의와 각종 의례의 전승과 변화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론의 취회소로서의 역할 등은 추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 书院来访及其目的

### —以庆州玉山书院和广雅书院为中心—

李炳勋(岭南大学校 民族文化研究所)

#### 【中文摘要】

书院是通过讲学、祭祀进行教育的地方。但是，出入书院的并不限于院生。主管书院运营的，比如院任、院属也常年出入，而且中央、地方官、甚至普通的过客和儒生也由谒庙等的目的会来访书院。书院访客，该书院的地位越高，访客就越多，同一人也曾多次访问过。这似乎是韩、中书院共同的现象。

就书院的地位而言，书院的祭祀对象和赐额成为标准。祭祀对象的社会地位越高，其书院的地位就越高。而且，赐额的存在保障了国学的地位。18世纪以后，以各门众为中心建立书院增加，19世纪以家族为中心建立书院，书院数量进一步增加。在中国，根据建立书院的主体和主导书院讲学的人物，乃至科举合格者的配出程度等，书院的地位就发生了变化。

特别是清代的书院，随着其官学化深化，地位仅次于国子监的“省会书院”比州、府、县的官学更具优势。另外，在官方的积极支持下，在县、州、府、道、省、连省级的书院的建立的同时，从私自建立的家族书院到在乡村运营的乡村书院等，民间书院的建立也大幅增加。在这种情况下，学术大师创建或他们运营的书院，不论官立或民立，都被视为最高等级的书院。

书院的地位也影响了实际访客的人数。实际上，在中国岳麓书院等具有悠久历史和讲学传统的书院，进行著名的学术讨论时，聚集了数千的访客。另外，在官方的积极支持下，19世纪官立书院仍然有很多学生寄宿和讲学。相反，自17世纪以来，朝鲜书院的讲学功能渐渐衰退，只在玉山书院等代表地区的书院延续了其命脉。但是，这些书院也从18世纪中期开始，因财政困难，其讲学功能逐渐衰退。但朝鲜书院被用作儒生们的集会场所，所以一直履行着政治、社会性功能。其结果，不仅是书院的院生，普通儒生的访问也持续了。像玉山书院这样地位较高的地方，有更多的儒生来访。

韩国书院是所谓“在地士族”的专有物，所以普通百姓或中人(庶孽·郷吏)出入书院时受到严格限制。另外，即使是士族，在书院的芳名录——《寻院录》中，只有著名的家族的后代才能记录自己的姓名。我们看来，在中国书院，如有志于学业的人都可以入学书

院，但实际上只有儒生出入。但是，没有明确留下访问书院的人士名单，因此很难详细确认其出入史实。其中流传下来的几个名册，只记录在书院学习的生徒或捐赠书院建立和运营资金的人物，而几乎看不到外部人的出入名单记录。

本研究主要参考1887年在广州建立的广雅书院的《同史录》和《东城诸生夏季功课部》。广雅书院是洋务派的领袖张之东建立的省级书院，是只有在州、府、县学考试中取得优秀成绩的人才能入学的。在广雅书院，将教育科目分为经学、史学、理学、经济，由广东和广西各安排100名学生入学，使之住在东、西斋学习。根据材料，由州學、府學、縣學的優廩生、廩生、附生、增生以及舉人、監生、副貢、拔貢、優貢、貢士、增貢生等等，许多不同身份的人为科举入学。他们本来是代代居住在广州内的各州、府、县的。他们各自居在书院内大概两个月，学习经学、史学、理学、文学等而参加了考试。另外，进士出身的梁鼎芬，朱一新，廖廷相，鄧蓉鏡等人物担任院长而教授学生，其结果培养出了许多优秀的学生，广雅就成长为清代末期代表广州的书院。由此可推测，19世纪的清代书院，大体上越是社会地位高的地方，出入上就越有各种限制。

另外，通过各种记文和碑文等文献看出，具有悠久的历史 and 较高地位的中国书院，有各种人物访问过。我们看来，其中普通士人的访问也很多，但目前无法确认其具体名单。相反，韩国书院与中国书院相比，目前保存多种名簿。其中最代表性的文件是《尋源錄》。但是，由于《尋源錄》中没有收录书院所在的郡邑的人物，所以我们很难确认出入人数最多的邑中访客。相对来看，庆州玉山书院还在保存着收录来自其他地区的访客的《尋源錄》(从1572-今日)，还有《本鄉尋院錄》(从1756至1950年)，是在庆州来访的名簿，所以我们不仅可以确认书院访客的规模、分布、地位，还可以看出一些访客的来访目的。

如是，从有限的资料来看，玉山书院的访客，不仅有地方官和中央官员，祭祀对象的后代也访问了很多。同时，书院所在的庆州地区儒生的访问也很多，其来访目的主要是为了参加朔望焚香或者春秋享禮。不但如此，有了特定事件时，为了讨论相关事情，就在书院举行了“儒会”。此时，在书院分别制作了叫《時到記》(或称《到記》)的文件。可见，当时韩国书院的主要功能与讲学相比，作为祭享和儒生们的聚会的作用更大一些。到了1839年，玉山书院讲堂九仁堂因火灾进行了重建工作。而且从1826到1827年、1852-1853年、1883-1884年之间，在要求允许入学和担任院任职务的“庶派”、“新乡”之间发生了武力相伴的乡战。另外，1850年代中期，在长期参与书院运营的庆州孙氏家族和祭享对象李彦迪的后代之间发生了关于学问渊源的是非讨论。每当讨论这些问题时，乡内、道内的儒生们都会聚集到书院。也就是说，19世纪玉山书院每逢特定时期访客增加的原因就是为了讨论各种事情。此外，还有路过时为躲避风雨而访问书院，或有人科

举及第后，来访书院内祠堂谒庙。另外，随着新地方官上任，经过庆州地区时也有前来祭拜的情况。而且，新上任的庆州府尹来书院谒圣也是悠久的传统。

总之，就韩国、中国的书院而言，较为罕见普通民众对书院的出入记录，而且大体上说，有地方官的介入的书院，其社会地位也较高。到了19世纪，韩国书院几乎失去了教育活动，相反，中国书院在官方的积极支持下，为培养官人的教育更加活跃。而且书院的等级越高，入学生徒也相对越多。清末书院顺应社会变化，努力改编教育课程。但是，韩国、中国书院的祭礼和各种礼仪的传承及变化，以及作为舆论聚集地的作用问题也有必要后续讨论。



#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 목적

## —경주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이병훈(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I. 머리말

동아시아 서원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서원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주도로 건립된 남가서원과 승정서원, 민간이 건립한 복강서원이 확인된다. 이들 서원은 모두 교육을 담당하였던 스승의 학문적 위상에 따라서 원생들의 규모에서 차이가 났으며, 해당 스승이 사망했을 때에는 서원이 사라지기도 했다.<sup>1)</sup> 일본에서 서원은 에도시대의 유학자인 나카에 후지키(中江藤樹)가 1648년에 건립한 후지키서원(藤樹書院), 쿠스모토 바타야마(楠本端山)가 1882년 설립한 봉명서원(鳳鳴書院) 등이 확인된다.<sup>2)</sup> 이곳들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교육하는 점에서 한중서원과 유사했지만 강학과 제향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한국서원과 관인양성을 위한 과거 공부를 시행한 중국서원과는 성격이 달랐다. 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유학교육기관 역시 메이지유신이후에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무사를 교육하는 藩校와 일반농민·상민 민 각 직능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였던 郷校, 寺子室, 私塾이 있었다. 이 가운데 漢學塾에서는 명말청초 東林書院의 新朱子學과 劉宗周의 新陽明學이 학습되었다. 일본의 서원 내지 한학숙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명망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가 달랐다. 즉 스승의 명망이 해당 서원의 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중국의 서원은 국가와 민간에서 건립한 것이 양립하였다. 이들 서원은 국가[지방관]가 건립할 경우 서원이 위치한 고을의 등급에 따라서 서원의 등급도 차이가 났다. 청대에는 省會書院이 건립되면서 중앙의 국자감 다음의 위상을 가졌으며, 국학인 주·부·현학에 비교해도 더 높은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설립 서원은 그 주체에 따라 가족서원과

1)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The Netherlands) pp.89~125.

2)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pp.61~74.

향촌서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국학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다. 이런 민간 서원 가운데에도 예외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졌던 서원들은 명망있는 학자가 건립하고, 그의 학통을 이어서 학술적 지위를 확보한 서원들이었다.<sup>3)</sup> 이처럼 중국서원은 건립주체에 따라서 서원의 위상이 구분되었다. 이것은 청대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우수한 스승에게 수학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관립서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스승을 초빙함으로써 학문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서원의 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로 이어지면서 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의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은 유학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국의 사회·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관인양성과 교양함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그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여 학파로 발전하는 모습은 중국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서원을 출입하였던 자들은 일상생활을 보조하던 인물들을 제외하면 주로 그곳에서 수학하던 학생들로 추정된다. 국가의 관심이 컸던 서원에는 관료와 지방의 유력자들이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서원의 경우에도 人名簿는 대부분 서원에서 기숙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했던 자들의 명단과 서원 내 성적 우수자들뿐이다.<sup>4)</sup> 이들 자료는 대체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로서 19세기 이전의 서원 출입자는 산장과 훈장 및 의연금을 내었던 기부자들의 명단이 일부 전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들 자료 역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산재되어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던 한국은 유생의 도덕수양을 교육이념으로 삼았던 주자의 서원 건립취지를 강학과 제향, 그리고 건물의 구성과 명칭 등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중반 처음 백운동서원을 건립할 때에는 쇠퇴한 관학을 대신하여 관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서원의 기본 이념을 강학과 제향을 통한 全人教育으로 바꾼 자가 퇴계 이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유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서원은 외면상 과거를 등한시했지만 실제로는 유생들의 과거 준비를 지원하였다. 조정에서도 서원의 역할을 인정하여 사액을 통해 관학에 준하는 자격과 지원을 하면서 서원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조선의 서원은 임진왜란 이후 정치·사회적 기능이 커지면서 강학과 제향만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유생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단이 나타났다. 또한 서원의 남설로 인해 제향된 인물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면서 서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서원

3) 陳谷嘉·鄧洪波, 「第二章 書院的等級差異」,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中國], 1997, pp.55~103.

4) 鄧洪波 主編,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8, 參照.

5) 鄧洪波, 『書院學檔案』, 武漢大學出版社, 2017 ; 鄧洪波 主編, 앞의 책, 2018.

의 교육·교화적 순기능이 쇠퇴하면서 조정에서는 서원에 대한 통제책을 강력히 시행하였다. 한편으로는 문묘종사 대현을 제향하는 사액서원에는 이전의 혜택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관의 지원이 없는 서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강학보다는 제향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나아가 일반서원은 장서를 갖추거나 유희를 주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것은 사액서원과 일반서원, 문묘종사대현 서원과 일반 유현 서원 사이의 위계를 더욱 분명하게 나누었다. 이런 차이는 각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적, 질적인 면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의 서원도 유명한 학자가 건립을 주도하거나, 강학을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름난 스승이 없더라도 문묘종사대현과 같이 제향인의 위상이 높아도 해당 서원을 방문하여 알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 서원을 방문하는 자들은 조선의 엘리트계층인 사족들로서 서원에서 강학을 하거나, 謁廟 혹은 儒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들렀다. 서원 측은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방문한 자들의 신분이 높거나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이 많을 경우 그것은 서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효과가 컸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방문객의 성명을 『尋院錄』, 『到記』로 남겨서 서원과의 관계를 이어갔는데, 『심원록』은 他고을 출신으로서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만이 성명을 남길 수 있었다. 반면 『도기』는 서원에서 발생하였던 향사 내지 유희 등에 참석하고자 방문했던 인물들의 명단으로서 그만큼 서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서원이 위치한 本邑뿐만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타고을 인물들도 함께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서원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과 원생들의 명부도 많이 남아있다. 한국서원에는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된 인명부가 다수 남아있다.

본고는 서원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그들이 방문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베트남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일부 자료가 남아있는 중국과 한국 서원만을 비교하려고 한다. 양국의 서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서원의 운영 시기도 유사해야 한다. 이에 영남을 대표하는 경주 옥산서원과 廣州를 대표하는 廣雅書院을 대상으로 하고, 광아서원의 자료가 남아있는 19세기로 분석 시기를 제한하였다.<sup>6)</sup> 당시 양국 서원이 처한 내외부적 사정은 다르지만 이를 통하여 양국 서원이 가지는 지역성 내지 특수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날

6) 옥산서원의 자료는 필자가 이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광아서원의 자료는 등홍파 주편(2018)의 『중국서원문헌총간』(제일집) 86책의 「廣雅書院同舍錄」과 89책의 「廣雅書院東省諸生夏季功課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등홍파 교수는 『중국서원문헌총간』(제일집) 100책과 『중국서원문헌총간』(제삼집) 100책 등 총 300책의 자료를 영인하였다. 필자는 이 가운데 제일집의 100책만을 검토하였다.

것으로 기대된다.

## II. 방문객으로 본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에서 서원의 위상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향인과 사액 유무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다. 제향인의 위상에 따라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자금과 인력, 서적 등의 조력에서도 차이가 났다. 또한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 수적·질적 수준이 달랐다.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통해 유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서원 자체의 증식도 있지만 특히 지방관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지방관의 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서원의 위상이 높을수록 유리하였다. 서원의 위상은 제향인뿐만 아니라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높아졌다.

한편 한국서원은 그 건립과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었다. 그 결과 건립주체의 경제력에 따라서 서원의 규모와 운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서원의 주요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비와 토지는 지방관에 따라서 면역과 면세의 혜택에서 차이가 났기에 관의 영향력은 혜택의 정도에 비례하였다. 이러한 관의 침해를 예방하고, 합법적으로 서원의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賜額이 이용되었다. 사액서원은 관의 정기적 祭需 공급뿐만 아니라 각종 면역·면세 혜택을 함께 받았다. 아울러 國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면서 그 위상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나아가 문묘종사대현을 제향하는 사액서원은 그 위상이 일향을 벗어나 일도에 미쳤으며, 경우에 따라 도산, 화양동서원과 같이 전국적인 위상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서원은 그 고을의 인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 방문하는 자들도 많았다. 또한 지방관과 중앙관료가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유생과 관인들의 방문은 그들의 접대해야 하는 서원측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서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방관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기가 수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모습들도 18세기 이래로 서원이 사액유무를 떠나 대부분의 서원에서 철회되었고, 서원의 운영은 어려워졌다. 문묘종사 대현인 李彦迪을 제향한 옥산서원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18세기 중반이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 1. 옥산서원의 시기별 방문 추이

옥산서원의 위상은 18세기 말의 수차례 致祭와 서적 頒賜를 통해 높아지면서 방문객의 수도 증가하고, 그만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져갔다. 이러한 변화는 옥산서원에 남아있는 방문객의 명단인 『尋院錄』과 『本鄉尋院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원록』이 경주 府外 인사들의 명단이라면, 『본향심원록』은 府內 인사들의 명단이다. 서원이 건립되던 1573년(선조 6)부터 기록된 『심원록』은 1875년(고종 12)까지 31,225명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본향심원록』은 1756년(영조 32)에 처음 작성되어 1875년(고종 12)까지 22,260명이 수록되어 있다.

『심원록』의 입록은 타 지역 방문객의 신분과 지위 등을 확인하여, 알묘 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기에 선별된 인사만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약 300년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는 것은 옥산서원을 방문했던 관료 및 지방관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가문의 인사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나타낸다. 반면 120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경주부내 사족들이 방문하여, 외부 인사들에 비하여 그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부내 인사들은 옥산서원의 각종 향례와 유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거나, 강학과 유람 등의 기타 사유로 수시로 방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타 서원에서는 본향 출신들의 방문시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옥산서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756년(영조 52)부터 옥산서원에서 다른 곳과 달리 『본향심원록』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첫째, 원칙적으로 『심원록』에는 외부의 인사들만 기록이 가능하였기에 옥산서원에 출입했던 경주부내 先父老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내 인사들의 방문 내역을 기록하여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院僕들의 詐欺로 폐단이 누적되어 서원 경제력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문자들의 성명과 동행한 奴馬, 숙박 유무 등을 기록하고, 그날의 『庫子用下記』를 서로 비교하여 매일의 사용하는 것을 점검할 목적에서 만들었다.<sup>7)</sup>

한편 『심원록』에서도 1804년(순조 4) 4월부터 동행한 노비와 말의 수를 기재하고 있다.<sup>8)</sup> 이 역시 『본향심원록』의 제작 목적과 같이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내방객을 제외하고 그와 동행하였던 子弟나 노비와 말의 식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sup>9)</sup> 하지만 내방객에 대한 음식 공제는 전란이후인 17세기 초반의 어려운 환경에

7) 『本鄉尋院錄』, 「堂中 完議」(1756년(병자) 10월 15일). 1756년 10월 16일부터 경주 향내 방문객들의 성명과 방문일, 유숙여부와 노비와 말을 끌고 온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8) 1739년 12월 10일에 처음으로 자제를 거느리고 알묘한 사례가 확인된다. (『심원록』(結), 己未(1739) 12월 10日. “南陽 洪鳳祚 己未十二月初十日 率子弟謁”). 그러나 동행한 子弟, 奴馬 등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1804년 4월 부터였다. (『尋院錄』(海), 甲子 4月 11日. “永川 李箕相·李奎相·李台相 居德坪 同月十一日 樂育齋至路 俱奴馬 來宿祇謁”)

9) 비슷한 시기 도산서원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방문객과 동행한 말, 노비의 식대를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후손이라 하더라도 원안에 입록되지 않았다면 음식을 공제하지 않았고, 나아가 서원의 출입도 금지하였다. (도산서원, 「丁卯年 完議」, 「丁未年 式例」).

서도 유지되었으며 그런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sup>10)</sup>

<표 1> 『심원록』 및 『본향심원록』 연도별 방문객 현황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심원	본향		심원	본향
1573	17	1635	15	1697	87	1756	54	21	1818	264	194
1574	20	1636	14	1698	58	1757	59	19	1819	275	204
1575	24	1637	21	1699	73	1758	88	5	1820	235	236
1576	11	1638	37	1700	67	1759	98	0	1821	194	258
1577	24	1639	25	1701	60	1760	58	0	1822	228	270
1578	13	1640	8	1702	81	1761	118	0	1823	205	67
1579	12	1641	11	1703	97	1762	81	9	1824	204	293
1580	20	1642	22	1704	67	1763	91	206	1825	280	218
1581	3	1643	18	1705	47	1764	109	0	1826	214	200
1582	13	1644	12	1706	94	1765	111	0	1827	294	243
1583	12	1645	23	1707	128	1766	85	0	1828	324	329
1584	13	1646	16	1708	128	1767	112	0	1829	202	280
1585	22	1647	19	1709	79	1768	77	0	1830	191	257
1586	32	1648	27	1710	88	1769	112	0	1831	249	370
1587	17	1649	9	1711	104	1770	96	0	1832	377	422
1588	15	1650	29	1712	81	1771	86	0	1833	667	406
1589	16	1651	21	1713	100	1772	87	0	1834	477	391
1590	18	1652	29	1714	68	1773	114	0	1835	299	54
1591	32	1653	26	1715	116	1774	423	0	1836	368	213
1592	1	1654	12	1716	115	1775	212	0	1837	152	256
1593	2	1655	35	1717	105	1776	60	0	1838	310	213
1594	1	1656	13	1718	97	1777	129	0	1839	204	99
1595	2	1657	22	1719	77	1778	217	0	1840	215	0
1596	2	1658	47	1720	87	1779	125	95	1841	157	0
1597	1	1659	36	1721	84	1780	130	93	1842	261	0
1598	16	1660	50	1722	0	1781	192	33	1843	201	239
1599	37	1661	25	1723	47	1782	115	136	1844	195	238
1600	16	1662	32	1724	119	1783	200	83	1845	252	129
1601	29	1663	22	1725	100	1784	129	45	1846	151	192
1602	8	1664	18	1726	25	1785	130	20	1847	143	230
1603	27	1665	44	1727	65	1786	134	14	1848	263	331
1604	0	1666	23	1728	68	1787	114	0	1849	196	319
1605	0	1667	34	1729	94	1788	133	72	1850	207	1,229
1606	0	1668	25	1730	61	1789	141	51	1851	230	754
1607	26	1669	28	1731	64	1790	150	38	1852	194	890
1608	16	1670	40	1732	63	1791	86	28	1853	214	506
1609	49	1671	18	1733	30	1792	121	36	1854	318	438
1610	24	1672	25	1734	60	1793	159	34	1855	194	416
1611	14	1673	30	1735	83	1794	146	48	1856	179	202
1612	10	1674	43	1736	60	1795	196	117	1857	300	0
1613	19	1675	38	1737	86	1796	227	31	1858	274	49
1614	24	1676	45	1738	91	1797	225	80	1859	214	557

10) 1912년 「完議」. 옥산서원은 소작인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방문객들에게 서원서 제공 하는 닭과 음식을 제공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1912년 「完議」,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1615	39	1677	58	1739	102	1798	200	103	1860	0	508
1616	39	1678	73	1740	227	1799	112	61	1861	219	470
1617	15	1679	40	1741	72	1800	86	79	1862	188	468
1618	56	1680	38	1742	46	1801	117	50	1863	152	469
1619	24	1681	60	1743	52	1802	133	76	1864	408	540
1620	35	1682	31	1744	109	1803	198	61	1865	356	299
1621	45	1683	31	1745	90	1804	157	44	1866	294	142
1622	25	1684	26	1746	69	1805	152	40	1867	127	199
1623	18	1685	82	1747	84	1806	165	212	1868	187	282
1624	14	1686	63	1748	135	1807	222	414	1869	214	381
1625	9	1687	96	1749	129	1808	174	252	1870	179	336
1626	6	1688	65	1750	46	1809	212	342	1871	166	0
1627	31	1689	114	1751	78	1810	223	190	1872	187	0
1628	16	1690	44	1752	50	1811	246	196	1873	68	569
1629	19	1691	40	1753	96	1812	122	216	1874	161	547
1630	15	1692	32	1754	104	1813	298	197	1875	30	127
1631	14	1693	43	1755	74	1814	365	201	총 303년	31,225	22,260
1632	19	1694	66			1815	351	158			
1633	21	1695	39			1816	273	288			
1634	20	1696	47			1817	202	237			

<표 1>의 옥산서원 연도별 방문객들을 보면, 타지역 출신은 건립 이래로 303년간 31,225 명으로서 연평균 104명이 방문하였다. 반면 경주부 출신은 120년간 22,260명으로 연평균 185명이 된다. 경주부내 인사들의 방문이 더 많았는데, 누락된 연도를 포함하면 약 2배 이상 많았다. 『심원록』을 보면 17세기까지 방문객이 연평균 30명 정도였다. 17세기 초반의 20명 내외보다 후대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이다. 그것은 사족들의 수가 적었던 것에 연유한다. 일례로 『여주이씨족보』를 보면, 무침당 이의윤 계열은 16세기 창녕조씨(曹光益), 무안박씨(朴毅長) 등과의 혼인이 확인되는데, 17세기 초반에는 밀양손씨(손기양), 진성이씨(이황), 청안이씨(이방린), 순천김씨(김광화), 오천정씨(정극후) 등의 5개 가문으로 혼반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이후 상산김씨(김홍민), 의성김씨(김시탁), 안동권씨(權迓), 재령이씨(李攪), 경주최씨(최진립), 용궁전씨(전달), 의성김씨(김시온), 경주이씨(李杓), 성산이씨(이명기), 창녕조씨(조호익), 인동장씨(장세건), 안동권씨(권극립 계), 안동권씨(권덕주 계) 등과 같이 경주와 안동, 영천, 성주 등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혼반의 확대는 18~19세기로 내려올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사족의 수가 자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내방객이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시대가 내려올수록 기존 사족들 외에 새롭게 사족층에 들어온 신향들이 증가하면서 『심원록』에도 그러한 사정이 반영되었다. 18세기 후반 이래로 방문객의 폭발적 증가는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투영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1773년(영조 49)부터 방문객이 급증하여서 1774년(영조 50) 423명을 정점으로 평균 방문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1772년(영조 48)의 서류허통이 허가된 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원래 『심원록』에 기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世族이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읍 출신 신향들에 대하여 모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경주에서는 1775년(영조 51) 옥산의 이전인 후손들이 옥산서원 참알을 요구하면서 적서간의 분쟁이 발발하였다.<sup>11)</sup> 당시 곡산한씨를 비롯한 부내의 노론들도 개입하면서 분쟁이 확산되었다. 이에 옥산서원에서 서파의 참알을 막고, 신향들의 도발에 도내 사림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연락한 결과, 春享을 앞둔 시기에 안동과 예안, 의성 등지에서 119명이 방문하였다.<sup>12)</sup> 이처럼 1773~1775년 사이 방문객이 많은 것은 조정에서의 서류허통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나아가 1777년(정조 1)의 「서열허통절목」이 반포되면서 신향들의 서원 참배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심원록』내에 거주지를 기록하지 않는 자들이 증가하여 1803년(순조 3)부터 일반화 되어갔다. 사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서 자신의 출신을 감추기 위하여 지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특정지역 인사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당시에는 구분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주지가 확인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7세기 초반의 인조반정이전까지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홍해, 대구, 밀양, 청하, 영천(영주), 안동, 풍기 등 안동과 경주권 인사들의 방문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안동권 인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주권 인사들의 방문도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는 인조반정 이후 남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안동과 상주권에 있었고, 이언적이 이황과 더불어 영남 남인의 정신적 지주였다는데서 낙향한 인사들의 방문이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이래로 안동권, 경주권, 상주권 인사들의 방문은 계속 증가 추세였지만 진주권 인사들은 급감하였다.

그 이유는 이언적의 신원과 추송 과정에서 이황과 그의 제자인 기대승(奇大升), 류성용(柳成龍) 등이 적극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류성용은 선조의 이언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세세하게 수정함으로써 그의 문묘종사 결정에 일조하였다.<sup>13)</sup> 그 이후 여주이씨로 대표되는 경주권 사림들과 안동권의 퇴계학과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반면 조식(曹植)은 이언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그의 제자 정인홍(鄭仁弘)은 이언적과

11) 이수환,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16·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12) 『심원록』(剛), 乙未(1775) 2월 3일. 방문객들은 대부분 의성, 예안, 안동, 의흥, 영궁, 순흥, 영천(榮川), 풍기, 예천, 군위, 인동, 함안, 상주, 칠곡, 고령, 밀양, 청송 등지에서 왔다. 특히 안동과 예안, 의성의 인사들이 많았다.

13) 李彦迪, 『晦齋集』附錄, 「恭書御札答館學諸生疏後(柳成龍)」; 柳成龍, 『西厓集』卷4, 疏, 「晦齋辨明疏」(甲辰, 1604). “彦迪之欲直言強諫 與權機何異 其所以或言或不言者 時勢然也 賢人君子所同者心 所異者跡 不然(중략)世人徒見權機救解三人 而彦迪無所語 以此或不快於彦迪 而謂直截不及於權機 然以臣等今日所見 則權機之所言者小 彦迪之所言者大”



이황을 무훼(誣毀)하는 상소<sup>14)</sup>를 작성하였다. 그로 인해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권 사림과 남명학파는 더욱 멀어져 갔다.<sup>15)</sup> 물론 소수의 인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명학파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추정된다.

18세기 말에는 1781년(정조 5) 옥산서원 치제가 거행되던 이후 거듭 치제와 서적 하사가 있었다. 1781년(정조 5) 이래로 정조연간에는 춘추향사 때마다 인근의 영해, 영천, 밀양, 성주, 영덕, 영일, 대구, 울산, 청도, 하양, 의흥 등 경주 인근과 영남 중부권에 위치한 고을에서 방문객들이 급증하였다. 이전에 안동권에서의 방문객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이 동시에 치제가 있었고, 두 서원의 위상이 같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즉 안동권 인사들은 도산서원으로 출입하며 향사에 참석하였고, 경주권과 대구권의 인사들은 옥산서원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말 옥산서원은 거듭된 치제와 서적 하사로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특히 경주, 대구, 밀양을 비롯한 영남의 중남부지역으로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의 방문은 16세기 이후 전체적인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방문객 수는 18세기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당색과 상관없이 지방관과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된 관료 및 그들의 자제와 조카들이 대부분이었다.

## 2. 서원을 방문하였던 인물들 : 名儒, 중앙관료와 지방관

옥산서원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큰 피해 없이 건물을 보존하고, 사액이후 국가로부터 받았던 서적들도 온전히 보전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서원 가운데 옥산서원과 같이 원형을 보전한 것은 도산서원과 소수서원 등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을 방문한 자들은 내사된 서적과 이언적의 친필 저서들을 열람하고, 서원의 건물과 편액을 둘러본 후 이언적이 머물고 거닐었던 독락당과 주변 경관을 감상하였다.

이외에도 옥산서원을 찾은 사람들이 『심원록』에서 과거에 방문했던 선조(先祖)의 서명과 감상을 적은 글을 보고 더욱 옥산서원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거듭 옥산서원을 방문하거나 서원을 방문한 소회를 시나 기행문으로 남기는 자들도 많았다. 일례로 1598년(선조 31) 접반사 김수(金睟)는 체찰사 이원익(李元翼)과 옥산서원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술자

14) 『광해군일기』권39, 광해 3년(1611) 3월 26일. 남명의 문인 정인홍은 '회퇴변척소'를 올려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가 부당함을 극론하였다. 당시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이항복, 동부승지 김상헌 등이 정인홍의 처신이 선현을 비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성균관과 충청도 유생 등이 합세하였다.(『광해군일기』권40, 광해3년 4월 8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18일 ; 권41, 광해3년 5월 19일) 이에 반하여 정인홍을 두둔하는 경상우도 유생들의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다.(『광해군일기』권42, 광해3년 6월 19일 ; 권44, 광해3년 8월 4일).

15) 이수건,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 『민족문화논총』2·3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218~226쪽.

리를 갖고 그 감회를 시로 남겼다.<sup>16)</sup>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은 1613년 경주 부윤으로서 서원을 방문하여 부채를 선물하고, 서원의 풍경을 시로 읊어서 주었다.<sup>17)</sup>

한편 옥산서원은 대표적 유배지였던 장기현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송시열, 정약용(丁若鏞)과 같은 인물들이 유배되기도 했다. 송시열과 비슷한 시기에는 이웃한 영일현에 남인의 영수 권대운(權大運)이 유배되었다. 노론을 대표하였던 송시열이 유배되었던 1675~1679년 동안 1676년(숙종 2) 청계당(聽溪堂) 이우휘(李遇輝), 1677년(숙종 3) 삼우재(三友齋) 이만형(李萬亨), 자교당(慈教堂) 유명퇴(俞命賚), 1678년(숙종 4) 봉곡(鳳谷) 송주석(宋疇錫), 송은석(宋殷錫), 송하석(宋夏錫) 등 그의 문인이 옥산서원을 방문하여 참배하였다.<sup>18)</sup>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지촌(芝村) 이희조(李禧朝)는 기사환국 이듬해인 1690년(숙종 16)에 사직한 후 내방하였다. 1705년(숙종 31)에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인 조영복(趙榮福)이 방문하고 이후 한원진(韓元震)의 문인인 김근행(金謹行)과 1825년(순조 25)에는 경상도 관찰사 조인영(趙寅永) 그리고 조수삼(趙秀三) 같이 노론계 인사의 방문도 있었다.

송시열의 참배는 확인되지 않는데 정치적 견해보다는 장기에서 유배를 하다가 거제도과 제주도 등으로 이배(移配)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인의 영수였던 이이(李珥)는 이언적의 을사사화 행적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하며 문묘종사에 부정적이었다. 이후 송시열 역시 이언적의 가정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의 흠을 지적하였으나, 이언적에 대한 평가를 피하며 그의 대덕(大德)을 인정하였다.

회재가 창기(娼妓)를 여럿 거느린 것은 진실로 현자의 흠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그의 대덕을 덮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퇴계는 그를 지극히 존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학이 가볍게 의논해야 될 것이 아니다.<sup>19)</sup>

반면 남인의 대신이었던 권대운은 1680년(숙종 6) 경신환국 당시 실각하여 영일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는데, 1689년(숙종 15)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재등용되어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유배지에서 상경할 당시 옥산서원에 들러 참알하였다. 이때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그의 아들 권규(權珪)와 성주목사로 있던 이형상(李衡祥), 배종하던 황산찰방 홍만기(洪萬

16) 金尙容, 『仙源遺稿』(上), 五言律詩, 「同體察使李議政 住玉山書院餞歲酒席 次接伴使金相公睟韻」. “先賢留古廟 遠客憩征驂 當日身投北 千秋道在南 高山多士仰 遺澤小民談 往事悽遊旅 潛然淚不堪”; 「同體察使李議政 住玉山書院餞歲酒席 次接伴使金相公睟韻 二首」 “蕭洒堂依竹 寬平石作除 溪山圖畫裏 松桂雪霜餘 壁掛蘇翁句 門留退老書 春來當再訪 林下跨青驢 豪氣衰猶王 詩情病未除 顛狂遊物表 吟嘯試冬餘 酒或携從事 期能顧尚書 蕭然風雪興 長在灞橋驢”

17) 李安訥, 『東岳先生集』卷11, 月城錄, 「題畫竹扇 贈玉山書院儒生」. “寫得琅玕一兩莖 清風六月手中生 坐麾酷吏兼醫俗 認取山翁不世情”

18) 『심원록』(來), 병진(1676) 12월 21일 ; 정사(1677) 7월 일 ; 무오(1678) 12월 일.

19) 宋時烈, 『宋子大全』卷102, 「答沈德昇 別紙」.

紀) 등도 함께 알묘 하였다. 이후 권대운이 송시열을 사사(賜死)하였는데, 이처럼 서로 극한의 대치를 하였던 두 세력이 옥산서원을 방문했었다.

이들 외에도 서인계 거두인 유흥(俞泓)이 방문하여 노수신의 시에 차운하고,<sup>20)</sup> 1676년(숙종 2)에는 소론의 대표적 인물인 윤증(尹拯)이 서원을 방문한 후 소회를 시로 남기기도 했다.<sup>21)</sup> 유흥은 윤증의 스승인 김집(金集)의 장인이 된다. 1700년(숙종 26)에는 경차관이었던 송벽당(松蘖堂) 이정신(李正臣), 이듬해에는 관찰사 최석항(崔錫恒), 1702년(숙종 28)에는 도사(都事) 윤회(尹會), 1712년에는 경주부윤 권이진(權以鎭) 등과 같이 윤증의 문인이 방문하였다. 19세기에는 봉화 법전의 강필효(姜必孝), 박시원(朴時源) 등의 소론계 인사들의 방문이 잇달았다. 특히 강필효는 1818년(순조 18) 옥산서원에서 『태극도설』 강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그의 문인이었던 경산현령 성근묵(成近默)이 함께 참석하였다.<sup>22)</sup> 이처럼 소론과 노론계 인사들의 방문은 이언적이 분당 이전의 인물로서 당색과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호남인 계열의姜위(姜瑋, 金正禧 門人), 권말(權埰, 許傳 門人) 등의 방문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방문객은 퇴계학파의 인사들이었다. 퇴계의 고제인 조목(趙穆)과 금난수(琴蘭秀)의 방문 외에도 관찰사 박승임(朴承任), 김집(金湑), 권우(權宇), 장현광, 권두경(權斗經), 이재(李裁), 손기양(孫起陽), 도성유(都聖俞), 이현일(李玄逸), 정충필(鄭忠弼), 남경희(南景羲, 李象靖 門人), 최상룡(崔象龍, 李象靖 門人) 등이 방문한 후 소회를 남겼다.

다음으로 지방관과 관료들의 옥산서원 방문을 보면, 갑술환국 이후 3~5년의 공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방문이 이어졌다. 다른 고을 지방관 등은 부임하는 경로에 들어서 참배를 하였는데, 주로 흥해, 장기, 청하, 울산, 동래, 영일, 밀양, 청도, 영천, 하양, 자인 등 경주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경주부윤은 1572~1875년 사이 207명이 부임하여, 154명(74.4%)이 방문하였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방문한 자는 신담(申湛, 2회), 구사맹(具思孟, 2회), 이시언(李時彦, 2회), 권태일(權泰一, 2회), 윤효전(尹孝全, 3회), 이연신(李廷臣, 2회), 전식(全湜, 2회), 민주면(閔周冕, 2회), 권상구(權尙矩, 3회), 이관(李慣, 4회), 손만웅(孫萬雄, 2회), 한명상(韓命相, 2회), 정필동(鄭必東, 2회), 홍양한(洪良漢, 2회), 최헌중(崔獻重, 2회), 이덕현(李德鉉, 2회), 송근수(宋近洙, 2회), 이만운(李晩運, 2회)로 확인된다. 관찰사는 같은 기간 262명이 부임하여, 106명(40.4%)가 방문하였다. 특히 이시말은 경주부윤으로 재직시에도 방문했었으며, 강첨, 윤회, 이민구, 김시양, 정세구 등과 같이 16~17세기 초반의 관찰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하였다.

20) 俞泓, 『松塘集』卷1, 詩, 「玉山書院 次盧相公韻 二首」. “只有溪邊竹 而無種竹人 一丘吾欲買 習隱養天真 決決紫溪水 蒼蒼華蓋山 無機烟裡鳥 雙去又雙還”

21) 尹拯, 『明齋先生遺稿』卷2, 詩, 「訪玉山書院 謁晦齋先生祠有感」. “紫玉山中訪古祠 洗心臺上獨躊躇 千秋遺恨無人問 吾道如何又至斯”

22) 『심원록』(朔) 무인(1818) 3월 22일.

<표 2> 관찰사의 방문 내역

성명	방문시기	비고(고왕록)	성명	방문시기	비고(고왕록)
윤근수(尹根壽)	1574.12.		이언기(李彦紀)	1697.09.	
박소립(朴素立)	1576.09.		김세익(金世翊)	1698.10.	
이린(李遴)	1577.04.		이세재(李世載)	1699.09.	
유홍(兪泓)	1577.07.		최석항(崔錫恒)	1701.08.	
최옹(崔頤)	1578.03.		박권(朴權)	1703.09.	
정지연(鄭芝衍)	1578.12.		김연(金演)	1704.08.	
허엽(許曄)	1579.07.		이무(李杼)	1707.03.	
홍성민(洪聖民)	1580.09.		홍만조(洪萬朝)	1708.08.	
권극례(權克禮)	1584.10.		이탄(李坦)	1712.10.	
이산보(李山甫)	1585.08.		홍우녕(洪禹寧)	1714.09.	
류영립(柳永立)	1586.08.		조태억(趙泰億)	1721.03.	
권극지(權克智)	1587.09.		김동필(金東弼)	1724.04.	
김수(金睟)	1588.09.		황선(黃璿)	1727.08.	
이용순(李用淳)	1597.06.		김재로(金在魯)	1734.08.	
한준겸(韓浚謙)	1599.04.		이기진(李箕鎭)	1738.10.	
김신원(金信元)	1600.05.		심성희(沈聖希)	1742.02.	
이시발(李時發)	1602.05.	기해년(1599) 尹夏月 府尹으로도 방문	김상성(金尙星)	1743.08.	
정사호(鄭賜湖)	1607.05.		김상로(金尙魯)	1744.10.	
최관(崔瓘)	1608.10.		권혁(權赫)	1746.09.	
강첨(姜籤)	1609.07.	경자년(1600) 5월 홍 문 교리로도 방문	남태량(南泰良)	1748.04.	
송영구(宋英耆)	1612.01.		민백상(閔百祥)	1751.03.	
윤휘(尹暉)	1612.02.	경자년(1600) 1월 宣 諭御史侍講院弼善으로 도 방문	윤동도(尹東度)	1752.09.	
심형(沈惺)	1615.01.		이이장(李彝章)	1754.04.	
윤환(尹暄)	1617.08.		조운규(趙雲逵)	1758.04.	
박경신(朴慶新)	1618.11.		이은(李濈)	1768.08.	
김지남(金止男)	1622.09.		이미(李濈)	1770.03.	
민성징(閔聖徵)	1623.11.		김화진(金華鎭)	1773.09.	
이민구(李敏求)	1624.02.	을묘년(1615) 5월에 도 방문	조시준(趙時俊)	1780.09.	
김시양(金時讓)	1627.06.	가유년(1609) 1월 개 명전 이름인 金時言으로 禮曹佐郎으로 방문	이문원(李文源)	1781.09.	
오숙(吳翹)	1631.12.		이태영(李泰永)	1795.09.	
정세구(鄭世矩)	1633.04.	임오년(1642) 4월에 도 방문	이형원(李亨元)	1798.03.	
홍명구(洪命耆)	1634.01.		남공철(南公轍)	1802.08.	
이기조(李基祚)	1635.04.		윤광안(尹光顔)	1806.03.	
심연(沈演)	1636.02.		정동관(鄭東觀)	1808.08.	
이경여(李敬興)	1637.07.		이존수(李存秀)	1815.09. /1816.08	1816 租 50石
이경증(李景曾)	1638.03.		김노경(金魯敬)	1817.03.	조 7섬

구봉서(具鳳瑞)	1640.08.		김이재(金履載)	1819.2	
유철(兪媚)	1645.09.		김상휴(金相休)	1822.윤3	
이만(李曼)	1648.04.		조인영(趙寅永)	1825.08.	조 10섬
민응협(閔應協)	1650.05.		정기선(鄭基善)	1828.03.	
류넘(柳淦)	1652.03.		박기수(朴軫壽)	1831.9.3	조 10섬
조계원(趙啓遠)	1653.02.		김양순(金陽淳)	1832.9.5	조 10섬
홍처후(洪處厚)	1656.03.		서희순(徐憲淳)	1833.08.	
정만화(鄭萬和)	1662.10.		조병현(趙秉鉉)	1835.08.	
김휘(金徽)	1665.12.		윤성대(尹聲大)	1837.08.	조 10섬
심재(沈梓)	1669.03.		권돈인(權敦仁)	1838.08.	
민시중(閔著重)	1670.02.		홍재철(洪在喆)	1841.03.	1840 : 조 20섬 1841 : 조 20섬
이숙(李翻)	1672.04.		이경재(李景在)	1843.03.	
이관징(李觀徵)	1673.09.		홍종영(洪鍾英)	1844.08.	
이단석(李端錫)	1678.04.		이계조(李啓朝)	1846.03.	
박신규(朴信圭)	1679.11.		조석우(曹錫雨)	1854.02.	
권시경(權是經)	1683.03.		신석우(申錫愚)	1856.03.	
민창도(閔昌道)	1691.09.		홍우길(洪祐吉)	1859.08.	按廉使

<표 3> 경주부윤 방문 내역

성명	방문시기	성명	방문시기
이제민(李齊閔)	1573.02	유송(兪崇)	1718.07
박승임(朴承任)	1574.03	이정익(李禎翊)	1719.08
조부(趙溥)	1575.10	류만중(柳萬重)	1724.10
이선(李選)	1579.09	최종주(崔宗周)	1727.09
안종도(安宗道)	1582.02	이중관(李重觀)	1728.08
신담(申湛)	1583.05	김시경(金始炯)	1730.12
이현배(李玄培)	1585.09	이수항(李壽沆)	1733.05
구사맹(具思孟)	1588.03	조명겸(趙明謙)	1739.03
황윤길(黃允吉)	1589.04	조명택(趙明澤)	1741.03
윤인함(尹仁涵)	1590.11	송징계(宋徵啓)	1743.08
박의장(朴毅長)	1598.12	정홍제(鄭弘濟)	1744.10
이시발(李時發)	1599.閏夏	이유신(李裕身)	1748.01
윤안성(尹安性)	1601.09	조명정(趙明鼎)	1749.10
이시언(李時彦)	1602.09/1603.03	황경원(黃景源)	1752.09
남근(南瑾)	1607.05	김선행(金善行)	1753.03
오운(吳漣)	1608.10	홍익삼(洪益三)	1754.윤4
최기(崔沂)	1609.05	윤학동(尹學東)	1758.08
권태일(權泰一)	1611.03/1615.01	정존겸(鄭存謙)	1759.10
이안눌(李安訥)	1614.06	홍양한(洪良漢)	1761.04/1761.06
윤환(尹暄)	1614.12	이해중(李海重)	1763.4.15
윤효전(尹孝全)	1617.09/1617.10/1618.03	홍재(洪梓)	1765.03

윤선(尹銑)	1619.04	김재순(金載順)	1970.9.21
김존경(金存敬)	1620.05	이장엽(李長燁)	1772.10.30
이정신(李廷臣)	1623.閏10/1625.09	김상집(金尙集)	1778.4.16
윤의립(尹義立)	1627.03	심이지(沈蓬之)	1780.3.19
정문익(鄭文翼)	1629.09	이진익(李鎭翼)	1780.9.24
전식(全湜)	1630.12/1632.01	윤방(尹坊)	1781.9
박홍미(朴弘美)	1634.02	이병정(李秉鼎)	1787.9.21
이필영(李必榮)	1639.11	임제원(林濟遠)	1789.윤5.12
박수홍(朴守弘)	1640.08	이익운(李益運)	1793.12.13
송시길(宋時吉)	1644.02	유한모(兪漢謨)	1795.9.14
강대수(姜大遂)	1645.01	류강(柳壑)	1798.5.5
이민환(李民賻)	1645.09	오정원(吳鼎源)	1799.2.23
박서(朴遜)	1649.04	이상도(李尙度)	1801.4.11
나위소(羅緯素)	1650.08	최헌중(崔獻重)	1802.5.25./1804.4.17
서상리(徐祥履)	1653.02	윤익렬(尹益烈)	1804.10.8
정양필(鄭良弼)	1655.03	박종경(朴宗京)	1805.9.1
이천기(李天基)	1657.10	이채(李采)	1809.8.29
엄정구(嚴鼎耆)	1658.10	김노응(金魯應)	1812.3.8
채충원(蔡忠元)	1659.12	신서(申澈)	1813.4.28
정기풍(鄭基豐)	1663.07	홍이간(洪履簡)	1815
이상일(李尙逸)	1664.04	이덕현(李德鉉)	1817.9.12
심세정(沈世鼎)	1665.02	이우재(李愚在)	1818.3.19
권령(權玲)	1665.12.23	윤우렬(尹羽烈)	1819.4.17
홍처대(洪處大)	1667.3	홍면섭(洪冕燮)	1820.5.10
민주면(閔周冕)	1669.9/1669.10.25	이광헌(李光憲)	1821.10.10
이세익(李世翊)	1671.11	이로(李潞)	1822.4.19
권상구(權尙矩)	1674.4/1675.3/1675.9	박기평(朴基宏)	1825.8.5
임규(任奎)	1676.5	임처진(林處鎭):	1827.7.14
김빈(金賓)	1677.10	이원팔(李元八)	1828.9.8
이해(李穡)	1679.04	박종훈(朴宗薰)	1831.3.19
남천택(南天澤)	1679.11	정예용(鄭禮容)	1832.7.16
이관(李愼)	1681.04/1681.10/1682.02 /1682.10	홍종원(洪鍾遠)	1833.5.8
안여석(安如石)	1685.10	김매순(金邁淳)	1833.10.3
윤리(尹理)	1686.윤4	윤치겸(尹致謙)	1834.9.16
신경윤(愼景尹)	1687.11	이인필(李寅弼)	1837.2.23
오시복(吳始復)	1689.03	조기복(趙基復)	1838.8.29
유하겸(兪夏謙)	1689.10	유장환(兪章煥)	1839.12.13
김해일(金海一)	1690.09	박장복(朴長復)	1842.2.1
허영(許穎)	1692.06	성원묵(成原默)	1844.4.20
손만웅(孫萬雄)	1694.03	이시우(李時愚)	1846.7.9

남치훈(南致薰)	1697.03	권직(權濩)	1848.6
홍득우(洪得禹)	1697.09	이원조(李源祚)	1850.5.1
심극(沈極)	1698.04	심돈영(沈敦永)	1851.2.16
이형상(李衡祥)	1699.08	김양근(金穰根)	1852.8.11
한명상(韓命相)	1701.04/1701.08	남성교(南性敎)	1853.2.12
류이복(柳以復)	1703.04	박종휴(朴宗休)	1854.8.21
여필용(呂必容)	1703.09	송근수(宋近洙)	1856.3.2./1857.2.20
허윤(許琿)	1706.01	김재전(金在田)	1858.8.15
이인징(李麟徵)	1707.03	한계원(韓啓源)	1854.윤7.13/1859.2.12
정시선(鄭是先)	1708.08	송태희(宋泰熙)	1861.4.21
남지훈(南至薰)	1711.03	송정화(宋廷和)	1861.8.30
권이진(權以鎭)	1712.01	윤옥(尹堉)	1862.9.1
이교악(李喬岳)	1713.07	홍익섭(洪翼燮)	1864.9.16
심택현(沈宅賢)	1714.06	조기영(趙耆永)	1869.10.15
정필동(鄭必東)	1715.10/1716.윤3	이만운(李晩運)	1872.1/1873
김치룡(金致龍)	1716.07	임한수(林翰洙)	1874.9.15

이들 지방관은 대부분 알묘만 하거나, 독락당 등을 둘러본 후 당일에 돌아갔지만 유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1749년(영조 25) 10월 4일 경주부윤 조명정(趙明鼎)은 서원에서 숙박한 후 다음날 원생들을 대상으로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강(講)하였다.<sup>23)</sup> 1761년(영조 37) 경주부윤 홍양한(洪良漢)은 4월 22일 방문하여 유숙하면서 강회를 열고, 6월에 다시 방문하여 행단(杏壇)에서 백일장(白日場)을 개최하였다.<sup>24)</sup> 1752년(영조 28)에는 감사 윤동도(尹東度)가 방문하여 강당의 양진재(兩進齋)에서 유숙(留宿)하였다. 이처럼 감사나 부윤이 방문하여 알묘하거나 유숙할 경우 옥산서원 입장에서는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1755년(영조 31) 「완의(完議)」와 같이 방문 소식을 접한 인근 고을의 민원인들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대거 운집하였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본향심원록』을 보더라도 부윤이나 감사가 향사에 참석하거나, 순력하면서 들리는 날에는 평소의 5~6배되는 인사들이 방문 하였다. 옥산서원은 감사나 부윤이 방문했을 때 사족의 권익 보호와 향촌민의 풍속 교화라는 측면에서 사송(詞訟)의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었던 자들의 방문이 늘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결국 옥산서원의 위상과 직결되었다.

민사의 소송에 연루된 사람은 서원의 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선배(先輩)들로부터 이미 정한 규범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례를 따르지 않으니, 이러한 폐단이 자못 불

23) 『심원록(生)』(1749~1751), 己巳(1749) 10월 4일. “己巳十月初四來謁 仍宿兩進齋 去往生講夙夜箴”

24) 『심원록』(崑) 신사(1761) 4월 22일. “以府尹來謁留 一日聚諸生設講會”; 6월 26일. “同年六月二十六日設白日場于杏壇 以旅軒獨樂堂詩 命題試士信宿而歸”

어나고 있다. 순찰사와 부윤이 서원에 이르는 날에는 소송을 다루는 문자를 많이 가지고 와서 문을 가득 메우고 골목을 술렁거리게 한다. 서원에 끼치는 폐단 중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뜬소문이 오고가서 결속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어 손을 놀리는 것처럼 분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또한 선비의 아름다운 습속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행하고 그치는 도리를 생각하고 삼가는 것이겠는가? 이후에는 각자가 잘 생각해서 이와 같은 사람은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sup>25)</sup>

그렇기에 민원인들이 서원 주변에서 여러 날을 기다리면서 큰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서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 내릴 수도 있었다. 민원인들 역시 옥산서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서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관의 방문은 물질적 혜택을 동반하였는데, 옥산서원 『고왕록』을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지원이 이어졌다. 일례로 1816년(순조 16) 관찰사 이준수가 조(租) 50섬을 내려주고, 이어서 김노경, 조인영, 박기수, 김양순, 윤성대 등이 각각 조 7~10섬씩을 내려주었다. 특히 홍재철은 그가 재임하는 2년 동안 매년 조 20섬씩을 내려주었다. 부윤은 이원팔(李元八)이 1828년 9월에 조(租) 2섬을 준 것이 확인된다.<sup>26)</sup>

이러한 지방관의 방문은 옥산서원 사림과 긴밀한 상호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주부윤은 옥산서원뿐만 아니라 서악서원과 용산서원에도 방문하여 부북과 부남의 사족들을 위무하였다.<sup>27)</sup> 서원 측은 수령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수령은 서원과 사족들의 협조 하에 향촌지배를 원활히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옥산서원은 17세기 이래로 꾸준히 성장해왔다.<sup>28)</sup> 18세기 초반까지 도내와 향내의 여론을 주도할 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래로 부남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원유들의 이탈로 서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정에서의 서열 허통책으로 인한 신향들의 원내 진출을 두고 향전이 발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국왕의 관심으로 치제가 거듭 내리면서 18세기 중반이래로 약화되었던 옥산서원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또한 경주부윤과 관찰사의 서원 방문 역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방문은 18세기 중반이후 이전에 비하여

25) 「1755년(乙亥) 2월 完議」. “詞訟之人 不得出入院門 自是前輩已定之規 而近來不遵前例 此廢湖滋 巡使及土主到院之日 多持爭訟文字 填門熱巷 貽弊院中 此非美事 且聞風奔走 無事聚會 曠日留連 不勝紛如手 又非士子美習 是豈勵慮隅謹行止之道乎 此後則各自惕念 勿爲如此出入事”

26) 『고왕록』, 무자(1828) 9월 일. “府尹李公元八 租貳石上下”

27) 1804년 경주부윤 崔獻重은 4월 17일에 옥산서원을 방문한 후 5월 2일에는 용산서원을 방문하여 백일장을 개최하였다.(옥산서원 『심원록』(海) 4월 17일 ; 『거점소도록』 갑자년 5월 2일).

28) 옥산서원 내역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610년(광해군 2) 이언적의 문묘종사다. 현재 이언적이 승무되던 시기의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나마 『심원록』을 통해 그 해 8월 19일 옥산서원에서도 치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제관은 예조좌랑 남이준(南以後)이며, 대축(大祝)은 영천군수 손해(孫澮)였다.(『심원록』(宙) 경술(1610) 8월 19일). 그 외 다른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데 아마 별도의 명단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드물었다.

이처럼 옥산서원의 영향력 축소에는 서원의 구심체였던 원유들의 이탈이 컸다. 18세기 말 치제로 인해 위상을 일시 회복하였던 옥산서원은 19세기 초반의 정혜사와 구인당 화재로 인한 건물 신축, 낡은 건물의 개·보수 및 원유 이탈의 가속화 등으로 재정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1839년(헌종 5)의 치제는 서원의 위상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원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 청대 말기 동남(東南) 사인(士人)의 생활 세계

### - 진제당(秦際唐)을 중심으로 -

왕승군(王勝軍), 원원(袁媛)

#### 【국문 요약】

명청 시기 사료를 살펴보면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견된다. 바로 서원은 청대 말기 사인(士人)들의 주요 생활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사인들은 대부분 평생 서원에서 학문을 닦고 강학하였으며, 모임에 참여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등 서원에 속하거나 그에 관련된 일을 하였다. 진제당(秦際唐)은 동치(同治) 연간 종산서원(鍾山書院), 존경서원(尊經書院), 석음서원(惜陰書院)에서 수학하였고, 만년에는 규광서원(奎光書院), 봉지서원(鳳池書院)에서 강학하였다. 학당(學堂)이 생겨난 이후, 그는 전습소(傳習所) 총교원(總教員) 및 초급사범학당(初級師範學堂) 교무장(教務長)을 역임하였다. 서원의 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서원 생활에는 청대 말기 동남(東南) 지역 사인 공동체가 지닌 정신세계와 삶의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서원이 사인 공동체의 모임 장소이자, 그 인생 가치를 실현하는 주요 무대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청말 동남 지역의 학술사, 교육사 및 사인(士人) 생활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것이다.

주제어 : 서원, 진제당(秦際唐), 생활 세계, 동남(東南)

# 晚清东南士人的书院生活世界

## —以秦际唐为中心的考察—

王胜军 袁媛

### 【中文摘要】

仔细爬疏晚清史料，可以发现一个有趣的现象，即书院是晚清士人生活世界的重要平台，不少士人一生的求学、执教、雅集、撰述等几乎都在书院中展开或与之紧密相关。同治间肄业于钟山、尊经、惜阴书院，晚年主讲奎光、凤池书院，学堂既兴之后又迭充传习所总教员及初级师范学堂教务长的秦际唐，作为一代书院学人的一个缩影，其书院生活深刻地折射出晚清东南士人共同体内在的精神世界和生命追求，说明书院是士人共同体的会集之地、是实现其人生价值的主要舞台，这一现象是晚清东南地区学术史、教育史与士人生活史上浓墨重彩的一笔。

**关键词：**书院 秦际唐 生活世界 东南

# 晚清東南士人的書院生活世界

## —以秦際唐爲中心的考察—

王勝軍 袁媛

秦際唐，字伯虞，上元人，生于道光二十年(1840)<sup>1)</sup>，卒于光緒三十四年(1908)。咸丰十一年(1861)拔貢第1名，同治六年(1867)鄉試中式第171名舉人<sup>2)</sup>，光緒六年(1880)六上禮闈，“同考官异其文，力荐諸主司，傳觀贊嘆，竟不得第”<sup>3)</sup>，此后遂絕意仕途，專心從教。秦際唐是“石城七子”<sup>4)</sup>之首，以詩名咸同間，曾國藩、李鴻章、沈葆楨、左宗棠均激賞之，張佩綸稱秦詩“情深律細，初无隨園晚年滑率之病，風格實在慶歷之間。”<sup>5)</sup>而其爲文“自君親師友下逮民物，低徊咏歎，顯微闡幽，綿邈曲折，循若无端，令讀者或歌或泣而不得自主也”<sup>6)</sup>，劉聲木贊其文曰“婉而能達，紆回而有致，不規規學韓，而旁薄于班、馬兩家之史法。”<sup>7)</sup>秦際唐生平私淑姚鼐、曾國藩，爲學“益嚴歸、方、劉、姚，若統系然。”<sup>8)</sup>著有《南岡草堂詩選》《南岡草堂文存》《南岡草堂時文》等，參與編纂《國朝金陵文抄》《(同治)上江兩縣志》《(光緒)續纂江宁府志》。

秦際唐早年肄業于鐘山、尊經與惜陰書院，晚年主講奎光、鳳池兩書院。庚子之變后清王朝改弦更張，廢書院興學堂，尊經、鳳池兩書院改立校士館，后又改爲師範傳習所，光緒三十二年(1906)夏改爲初等師範學堂，秦際唐先后迭充傳習所總教員，初級師範學堂教務長<sup>9)</sup>。秦際唐一生與東南書院結下了深厚的淵源，在書院的從學、執教與交友构成了他人生中最重要篇章，而以秦際唐爲中心的金陵文人則以書院爲媒介，師生講習，文人往來，譜寫了一個時代士人的書院生活世界。

1) 關於秦際唐的生年共有兩說：一說爲生于道光二十年(1840)，秦際唐在同治六年鄉試卷上自述其“道光庚子年生(1840)”，其表弟何延慶在同治十二年鄉試卷上自言“道光壬寅年生(1842)”，而何在《南岡草堂詩選序》里稱“外兄秦君伯虞少長于余家，長余三歲。”可互相印証。一說爲生于道光十八年(1838)，見于《清代詩文集匯編》《秦淮人物志》等書，其材料來源或取之于陳作霖在《秦伯虞司馬誄》“(伯虞)光緒三十四年(1908)夏四月二十八日卒于里，第歷春秋七十有二”以及秦際唐《南岡草堂詩選》“光緒辛丑(1901)季夏既望，際唐自識于金陵講院之寄生居，時年六十有五”，由此逆推而得。然而“七十有二”、“六十有五”皆爲古人虛歲之數，所逆推者恐有誤，故以鄉試卷之自述爲准更妥。

2) 陳作霖：《秦伯虞司馬誄》，《可園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6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1年，第109頁。

3) 張佩綸：《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1頁。

4) “石城七子”是同光年間活躍于南京的一個士人群體，“七子”分別是秦際唐、朱紹頤、陳作霖、何延慶、顧云、鄧嘉緝、蔣師轍，翁長森輯有《石城七子詩抄》，“石城七子”由是得名。

5) 張佩綸：《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1頁。

6) 濮文暹：《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3頁。

7) 劉聲木：《桐城文學淵源撰述考》，合肥：黃山書社，1989年，第198頁。

8) 張佩綸：《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1頁。

9) 陳作霖：《秦伯虞司馬誄》，《可園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6冊，第109頁。

## 一、從學：秦際唐与鐘山、尊經与惜陰書院

秦際唐“高祖天祐，太學生”，“祖學誠，邑增生”<sup>10)</sup>，其父秦士科早卒，時秦際唐方四歲。家道中落，母親何氏守節撫孤，以紡織佐生計，以經書授子嗣，“每屆歲暮必令際唐背誦一歲所讀書，破窗風雪一燈焚。際唐手一卷，太宜人刺綉其側，或誦昌谷、香山諸集以和之。際唐倦甚，則令暫臥頃刻之，夏促使讀寒鐘卷。”<sup>11)</sup>在母親殷切期盼下的秦際唐力學不倦，聲名日起，但平靜恬淡的少年生活終在其十四歲時被戰亂摧毀殆盡。咸丰三年(1853)二月，太平軍攻克南京，時秦際唐隨母依外家居陶氏園，戶外殺聲沸騰，萬眾奔走，舅父何師孟“從容集家人，置酒笑且言”<sup>12)</sup>，誓以死效法屈原。二月十三日黃昏時分，薄暮蒼烟，何氏率先殉難，秦際唐隨母投池，得鄰人相救不得死，“生既不能為藜藿之養，死豈不能為桐棺之斂”<sup>13)</sup>是秦際唐一生的遺憾。這一年的南京城亂，死者難記，存者惊心，“自大府以至丞倅皆殉焉，其時衢巷火光晝夜不絕，垣墉棟之屬傾折如萬霆，官私陂池積尸几滿”<sup>14)</sup>，秦際唐的母親何氏，老師陳自超、馬慶淳皆在這場災難中殉節，讀書人忠君愛國的觀念以最慘痛的經歷刻進了秦際唐的精神世界。

太平軍占領南京后，秦際唐流離鄉外，萍踪靡常，大約活動在東南一帶。咸丰十年(1860)与陳氏匆匆婚嫁，“何期三日，近郊烽火。羹湯未調，急裝已裹”<sup>15)</sup>，后由蘇州到松江(今上海)，三百里，稍獲安居却倏惊轉徙，是年太平軍二破江南大營，進攻上海。十二年羈旅播遷，思鄉之情未肯忘却，聖人之學亦不敢懈怠一日，秦際唐一直潛力篤學，整身躬行，终于在咸丰十一年(1861)取得拔貢第一名。拔貢自乾隆七年(1742)定制為“十二年一舉”，名額為府學二名，州、縣學各一名，“歷屆歲、科考取經古及一等最多者”<sup>16)</sup>在資望審核合格后才能應考拔貢，考選難度之高可見一斑，第一名的好成績亦足規秦際唐學識之卓越。同治三年(1864)，在外飄蓬的秦際唐忽聞湘軍攻破南京，心下茫然，不敢置信，待萬口喧傳確認無疑，才喜極而泣，寫下詩歌《甲子六月十六日官軍克夏江宁喜而有作》，一句“料理歸裝載行李，秋風一棹還家鄉”蘊含着多少對故土的眷戀之情，而歸鄉的秦際唐也開啓了人生中最悠閑自得的書院時光。

南京自古物盛人眾，魁奇輩出，這得益于傳統、地理、教育諸因素，而“書院講學實為金陵人文氣氛的催發者和重要組成部分。”<sup>17)</sup>其中，鐘山、惜陰、尊經等書院最為知名，錢大昕、姚鼐、胡培翠、潘誥等名儒碩彥都曾在此間講學。然太平軍興，南京洊經喪亂十二載(咸丰三年至同治三年)，弦誦之風蕩然漸滅，乃至“橫舍荒余无寸甃”<sup>18)</sup>。同治三年湘軍克夏南京，曾國藩面對“江南人

10) 顧廷龍：《清代朱卷集成》第148冊，台北：成文出版社，1992年，第201頁。

11) 汪士鐸：《何氏太宜人墓碣》，《南岡草堂詩選續編》，《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35頁。

12) 秦際唐：《丁亥孟冬展先生太孺人墓泐然有作》，《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03頁。

13) 秦際唐：《陳葆常先生稀齡撮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9頁。

14) 秦際唐：《同治上江兩邑志忠義譜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4頁。

15) 秦際唐：《祭亡室陳孺人文》，《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65頁。

16) 商衍鎤：《清代科舉考試述彙及有關著作》，天津：百花文藝出版社，2004年，第37-38頁。

17) 徐雁平：《清代東南書院与學術及文學》，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7年，第251頁。

文淵藪，夙多朴學之士，亂離之后，流風遂沫”<sup>19)</sup>的巨大對比，“爲往聖繼絕學”的責任感與使命感无不催促其復興文教，而以文教來穩定人心、綱維國本亦是戡亂金陵后的首要選擇。于是鐘山、尊經、惜陰等書院相繼重建，各方文士相與談道講業，頡頏上下，一時東南壇席又呈現之前的風流盛況。

早歲遭患難，學殖皆坐廢，亂后館舍夏，名儒講斯席，秦際唐大約就是在這樣一個背景下進入南京鐘山、尊經、惜陰書院求學的。關於其具體入學肄業時間可據陳作霖的日記推斷一二：同治四年(1865)二月鐘山書院夏建，陳作霖是首批生徒，其稱“是歲，始交通州姜璜溪渭、揚州劉恭甫壽曾及同里秦伯虞際唐、陳耘芬、何善伯、延慶諸君，皆書院肄業友也。”<sup>20)</sup>尊經書院亦是同治四年夏，同治五年(1866)李鴻章又夏惜陰書院，而秦際唐在同治六年鄉試卷上業師一欄填寫有“周縵云(現主講尊經、惜陰兩書院)、李小湖(現主講鐘山、惜陰兩書院)。”<sup>21)</sup>再至同治七年(1868)薛時雨接周學浚主講尊經書院，秦際唐出入相隨，光緒十一年(1885)秦際唐感懷恩師時稱“奉手十七年。”<sup>22)</sup>可以逆推。種種迹象表明，自同治四年起，鐘山、尊經、惜陰書院依次夏建，秦際唐就基本上同時在這三所書院中肄業。

秦際唐所肄業的這三所書院教學內容各有側重，教學旨趣亦不盡相同。鐘山、尊經書院是當時“時文書院”<sup>23)</sup>的代表，專課舉子業，“上以承天子作人之化，下以副大吏培材之意。”<sup>24)</sup>惜陰書院則可歸入“古文書院”，以經史詞章爲重，默培諸生根柢，“使日講求有用之學，無僅耗心力于時藝。”<sup>25)</sup>

秦際唐在三所書院主要研習的是與科學相關的四書文和詩賦，並成爲生徒中的翹楚。馮煦<sup>26)</sup>曾言：“時書院翹材生有三党：寧党秦際唐伯虞爲之魁，浙党唐仁壽端甫爲之魁，揚党劉壽曾恭甫爲之魁。”<sup>27)</sup>據筆者統計，專門收錄四書文的《尊經書院課藝》一刻收錄秦作26篇，二刻收錄16篇，三刻收錄21篇，四刻收錄40篇，五刻收錄32篇，六刻收錄17篇，分別占全編的16%、27%、19%、12%、14%、12%。而以賦作爲主的《惜陰書院課藝》東齋收錄秦作13篇，西齋收錄68篇，另有《惜陰書院賦課擇抄目錄甲部》收錄秦作5篇，分別占比6%、32%、10%。要知孫鏘鳴在編《鐘山

18) 何紹基：《東洲草堂詩鈔》卷二六《金陵雜述四十絕句》，同治六年刻本，第83頁。

19) 曾國藩：《曾文正公書札》卷三十《夏周縵云侍卿》，光緒二年刻本，第618頁。

20) 陳作霖：《可園備忘錄》，盧海鳴主編：《教諭公稀齡撮記·可園備忘錄·鳳叟八十年經歷圖記》，南京：南京出版社，2020年，第62頁。

21) 顧廷龍：《清代朱卷集成》第148冊，第204頁。

22) 秦際唐：《瞻桑根師遺像感而有作》，《南岡草堂詩選續編》，《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504頁。

23) 近代學者曾將清代書院分爲三種，即“時文書院”(專課八股文，有的兼課試帖詩)、“古文書院”(專課經史詞章)、“新學書院”(專課時務之學、泰西之學)。參見魯小俊：《晚清古學書院的教學風貌——以武昌經心和黃州經古書院課藝爲中心》，《孔學堂》2021年第8期。

24) 薛時雨：《尊經書院課藝序》，《尊經書院課藝》，《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第37冊，北京：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8年，第7頁。

25) 胡培翠：《研六室六鈔補遺》卷1《惜陰書院別諸生文》，道光十七年刻本，第486頁。

26) 馮煦，字夢華，號蒿庵。江蘇金壇五叶人。少好詞賦，有江南才子之稱。光緒八年(1882)舉人，光緒十二年(1886)進士，授翰林院編修，歷官安徽鳳陽府知府、四川按察使和安徽巡撫。辛亥革命后，寓居上海，以遺老自居。參與纂修《江南通志》，撰有《蒿庵類稿》等。

27) 馮煦：《蒿庵隨筆》，《近代中國史料叢刊》第一輯第64冊，台北：文海出版社，1966年，第613頁。

書院課藝續選》時“盡發府署所存前列卷二千余篇，博觀約取，又得二百八十余篇”<sup>28)</sup>，用稿率低至10%，課藝由于“集隘，不能多載，遺珠之惜，誠所難免”<sup>29)</sup>，秦際唐一人課藝收泉之多也足征其才氣斐然。

成績之拔萃實得益于平昔研書之用力，秦際唐當時在書院主要閱讀內容當為十三經、五史、四書及《讀書雜誌》《楊園先生集》《古文辭類纂》等經典的四部書籍，此外于西譯新書如《重學》《幾何原本》《則古昔齋算學》亦可能有所涉獵，可從同治十年(1871)惜陰借書局所藏書籍加以推斷<sup>30)</sup>。秦際唐當時既是惜陰書院的生徒，也是借書局簿籍出納的主要負責人，特殊的双重身份使之具有豐富的時間、精力及機會閱讀書局藏書。在优越的讀書環境下，秦際唐還受曾國藩的影響採用“治經之法”專習“《史》《漢》《三國》《通鑑》《說文》《文選》等書”<sup>31)</sup>，并在老師孫鏘鳴的建議下多讀詞章，期望通過旁搜遐覽，鋪章搞藻“求為沉博絕麗之才。”<sup>32)</sup>此外，其四書文與詩賦征引文獻典故等亦可以推斷秦際唐讀書的部分內容。在客觀環境和主觀意圖的促使下，秦際唐閱讀了大量不同種類的書籍，積累了相當深厚的知識素養和詩詞文儲備量，上能進思盡忠，下能應題而作，為未來的科學和文教事業奠定了堅實的基础。

秦際唐在三書院從學時期逐步奠定了人生觀、世界觀、價值觀，即以書籍為媒介體天地之源，歸本聖人之道，非徒志在參加考試以博取升官發財之資。觀秦際唐解《子貢曰詩云如切已矣》一文，其言：“求訓詁者，識其字而不明其理事詞章者，泥其粗而未究其精。驟與之言，終未見其可耳……而見淺見深紬繹焉，以尋其旨趣，引申觸類，三百篇皆可作如是觀也”，秦際唐認為讀書要切磋琢磨，由淺入深，由表及里，在知來藏往中達到形上形下的融會貫通，即“由一境以賅萬境，可與補已亡之篇。由一詩以括全詩，可與析無邪之義。”<sup>33)</sup>秦際唐所追求的是在高文典冊中究精明理，在古人之功修驗以今人中益著學中之境，本經史發文章，以闡明性命天道。這與昔日陶澍告誡尊經諸生“夫即末可以知本，有得于經，則根茂實遂，言中體要，皆經之精液也。無得于經，雖獵取浮華，譬彼行潦之水，朝盈而夕涸耳”<sup>34)</sup>之理念一脈相承。

此外，秦際唐在科學訴求、書院教學宗旨及讀書理趣的共同影響下，行文風格形成了“清雋雅馴”、“義理宏深”、“情文相和”等特点，頗得三書院的文化精髓，這些特征借秦作所得之評語得以清晰展現(見表一)。

28) 孫鏘鳴：《孫鏘鳴集》，胡珠生編注，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3年，第30頁。

29) 華世芳、繆荃孫：《龍城書院課藝》卷首《凡例》，光緒二十七年刻本，第1頁。

30) 汪士鐸等纂：《(同治)上江兩縣志》卷12《藝文上》，同治十三年刻本，第414-417頁。

31) 曾國藩：《曾文正公書札》卷三十《夏周縵云侍卿》，光緒二年刻本，第618頁。

32) 孫鏘鳴：《孫鏘鳴集》，胡珠生編注，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2003年，第31頁。

33) 秦際唐：《子貢曰詩云如切已矣》，《尊經書院課藝》，《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第37冊，第111-112頁。

34) 陶澍：《陶澍全集》卷六《文集》，陳蒲清主編，長沙：岳麓書社，2017年，第110頁。



表 1 同光年間尊經書院部分課藝收錄秦作評語舉要<sup>35)</sup>

題目	點評人	評語	課藝名稱
《子貢曰詩云如切已矣》	李方伯 (芑園)	識解高超，筆亦清剛雋，上上下下，虛神不失分寸，可稱此題合作。	《尊經書院課藝》
《子路曰愿車馬(二節)》	周山長 (學浚)	密詠恬吟，文境到恰好處。	
《文之以禮樂亦可以為成人矣》	涂太尊 (宗瀛)	俯仰上下，氣度雍容。	
《方六七十如五六十至可使足民》	梅方伯 (啟照)	含苞振采，文筆鳴鳳，妙在氣充詞沛之中，仍有縱控自如之樂。	《尊經書院課藝二刻》
《斯民也合下一章》	曾中堂 (國藩)	專以單行抒寫題情，墨氣漸洗殆盡，沉鬱頓挫，俯仰低徊，饒有二方筆意。	
《大車无輓(二句)》	薛山長 (時雨)	靠定信字，說法正喻雙美，安詳大雅，又能處處留住虛步，是為制藝正軌，否則繁稱博引，只是一則車輿考耳。	《尊經書院課藝三刻》
《五谷者(一節)》	何制軍 (桂清)	意精詞雋，學養兼優。	
《曾子曰慎終追遠(兩章)》	薛山長 (時雨)	刊落浮詞，闡發實義，有典有則，莊雅不佻。	《尊經書院課藝四刻》
《非其義(二句)》	薛觀察 (福辰)	起講一氣旋折，方家舉止，起比題前着筆，元箸超超，故題位愈窄，文氣愈寬，入后层层勘實，筆筆凌空，精細似王墻東，警透似方集虛，此才自應一时无兩。	

從上表可知，諸考官十分欣賞秦際唐“安詳大雅”“意精詞雋”“刊落浮詞”的文章風格，或者說是秦作先契合了他們對文章“清真雅正”的首要要求。蓋“清真雅正”作為清代八股文考試的官方衡文准則，官僚山長也許正是通過嚴格把控考課的取稿標準來告訴生徒“正確”的行文方向。很顯然，具有強烈科舉訴求的秦際唐，自願自發地將文風錘煉成符合時代要求的“清雋雅馴”。尤其當秦際唐肄業於學業氛圍濃重的鐘山、尊經書院時，專門為科舉打造的四書文考課、日常學術訓練，以及老師“平昔論文一遵今天子清真雅正之音”<sup>36)</sup>的學術觀點，无一不在將其讀書寫作與科舉考試緊密纏繞，而秦際唐卓犖的考課表現也展示出他與科舉考試的高契合性。但需注意的是，鐘山、尊經書院雖重視科舉文教育，但未肯丟棄“制藝原以代聖賢之言”<sup>37)</sup>的理念，而另一性質的惜陰書院更是要求學生在四海治亂中自覺內省寸衷，以古文詞章為手段漲士人之氣、國之元氣、廣己而造于大。當時在三所書院肄業的秦際唐很自然地受到這些學術觀點的感染，不再局限于單純的考試技巧性訓練，“而是拓展為與煉品、踐行、培識的結合”<sup>38)</sup>，其文章不自覺呈現出“宏深義理”“氣充詞沛”“情文相生”之特點。

秦際唐在課程中出類拔萃，同時意味着他能獲得一份穩定的膏火獎勵。清代書院膏火制度“是一

35) 薛時雨：《尊經書院課藝》，《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第37-42冊。

36) 薛時雨：《尊經書院課藝三刻序》，《尊經書院課藝三刻》，《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第38冊，第364頁。

37) 朱珔：《鐘山書院課藝序》，《小万卷齋文稿》，《清代詩文集匯編》第494冊，第236頁。

38) 程敏生，文洋：《經史之學與清代書院科舉文教育》，《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8年第32期。

種以地域為中心的公共性教育資助，是對寒士的一種補償福利。”<sup>39)</sup>南京書院的膏獎歷來丰厚，以光緒年間的尊經書院為例，官課“超等三十名，每名二兩二錢；特等七十名，每名一兩一錢。初二日膏火，每月共一百四十三兩。”<sup>40)</sup>顧云亦言：“書院故事，月二日課于官，給膏火銀頗厚；山長課以月十六日，十人外无所給，籌之郡紳，始給如官之半，士多資焉。”<sup>41)</sup>與“一年的收入只有5兩至10兩銀子，再加雇主供應的飯食”<sup>42)</sup>的底層勞工相比，成績优异的秦際唐取得的膏火獎資足以應付一家人的日常家用，甚至略有盈餘，事實證明也是如此：直至光緒十二年出任奎光書院山長前，秦際唐并未另謀如幕僚、訓導、從軍等穩定收益門路，“舉人”身份也許會讓秦際唐參加如光緒八年治理赤山湖等帶有一定薪資的紳士事務，但自同治四年起的二十二年間秦際唐的生活始終圍繞考試讀書展開，他來回奔波于書院和考場、南京和北京，書院的膏火津貼應是其最主要的經濟來源。自小家境貧寒的秦際唐却在此期間飲酒作宴不斷，光緒六年還另聘妾室金姬，光緒十年(1884)南京雪灾他曾拿出一大筆錢財賑濟，光緒十二年又修葺落成了南岡草堂，種種迹象表明，秦際唐在書院的頭角崢嶸為其保證了相對充裕的物質條件，這也是支撐及激勵其潛心篤學、專志折桂的重要因素。

除了獲得穩定的生活環境，秦際唐在書院這個自由輕鬆的場域中，還凭借真才實學得到了高度的自我價值認同，且通過切磋交流初步搭建起了人際網絡。時書院山長李聯琇、周學浚“皆能宏獎後進，振拔單寒”<sup>43)</sup>，對才華橫溢的秦際唐尤為青睞。同治十年主講尊經書院的韓弼元“生平少所許可，獨于際唐獎借不容口，暇輒勗以古人立身之義與詩文源流。際唐所業稍進，而齟齬之者蜂然并起，先生弗顧也。”<sup>44)</sup>“夙有怜才癖”<sup>45)</sup>的薛時雨曾贊秦作“情生文耶，文生情耶，得此種文都為一冊，令人不復思楊用修、馬章民矣”，將秦際唐比之楊慎、馬世俊，字里行間盡是對高徒的惺惺相惜。秦際唐摳衣隅坐，與師長們析疑今古，論學紀事，得一字褒，珍于千金。需要注意的是，當時秦際唐便常隨師長飲酒高會，通過師長結識了張裕釗、薛福成、孫文川、曾國荃等名流達貴，諸前輩們古道熱腸，獎掖後進，于秦際唐有知遇之恩。

秦際唐與書院同門時有切磋之樂，諸生“每值風檐角藝，夜漏數下，灯火熒然，文成則拍手呼嘯以為樂”<sup>46)</sup>，扃門課試則“各從其曹，議論蜂起，旗鼓分張；迨一藝成，則互相糾賞，雖至曙鼓將鳴，猶未盡散。”<sup>47)</sup>秦際唐在交流切磋中所展現出的才華和資歷也為其獲得了同學的高度肯定。顧云和秦際唐同列“石城七子”，誼屬同輩，但其曾在信函中尊稱秦際唐“伯虞大兄夫子大人”，足覩顧

39) 劉琪：《清代書院的膏火獎賞——以助貧養士為中心》，《教育評論》2006年第2期。

40) 汪士鐸等纂：《(續纂)江寧府志》卷五《學校》，光緒六年刻本，第192頁。

41) 顧云：《桑根先生行狀》，《盩山文集》，《清代詩文集匯編》第759冊，第695頁。

42) 賈米森：《中國的土地占有和農村人口的情況》，《皇家亞洲學會雜誌·華北分會·新系列卷23》，上海：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2013年，第82頁。

43) 秦際唐：《瑞華館文稿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8頁。

44) 秦際唐：《翠巖室詩抄跋》，《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76頁。

45) 陳作霖：《薛桑根師挽詞四首》，《可園詩存》，《清代詩文集匯編》第736冊，第245頁。

46) 秦際唐：《瑞華館文稿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8頁。

47) 陳作霖：《惜陰書院東齋課藝跋》，《冶麓山房藏書跋尾》，屈万里，劉兆祐主編：《冶麓山房叢書》第7冊，台北：聯經出版事業公司，1976年，第357頁。

云對秦際唐的尊重和欽佩。七子中的鄧嘉緝亦言：“如秦陳諸公分屬前輩，未敢友視”，字里行間皆是對秦際唐的敬慕之情。在悠然自得的書院氛圍中，秦際唐和志同道合的同學們一起修志著述，互相酬別往來，別離之時雁帖滿篋，酒酣之際互訂婚約(秦二女世芳嫁陳長子詒紱；何季女曾許秦次子世蘭，何女殤后作罷)，云天高誼，笙磬同音。

秦際唐還通過官課得到了高級官僚的認可。尊經書院月二日課于官，達官貴胄得秦文章皆驚爲吏才。孫衣言評其文“風神綿邈，情文相生”“心細手和，面面俱到”，秦際唐對這份賞識感激在心，“竊器忽逢大匠賞，相期盤錯如霜松。針芥不顧俗眼詫，琴桐屢感知音聰。”<sup>48)</sup>沈葆楨出題《舉逸民》僅認可了秦際唐的兩篇答文，并評“獨見真際，是不向墨裁討生活者，后二有熊漢陽境界”“雅人深致，其味醞醞”，后更“命其子侄從子問業”<sup>49)</sup>于秦際唐。張士珩在官課中也頗爲欣賞秦際唐，后命其子張伯魯從游。

總的來說，在求學階段，秦際唐的學術風格、理想追求、經濟收入、內在價值和人際交往都与書院這一舞台密切相關。后來由于屢躋春闈，秦際唐遂閉戶課徒，其以山長身份在執教的几十年間更完美融入到了南京書院學人這一群体。

## 二、執教：秦際唐与奎光、鳳池書院

自同治四年開始的書院求學經歷無疑爲秦際唐帶來了生理和心理的双重愉悅，這既是其最平靜舒適的人生階段，也是其漫長人生道路最重要的奠基期。經濟上略有盈餘，良師益友相伴左右，同治六年更是順利中舉，滿腹經綸的秦際唐似差一步就可高步云衢。同治六年秦際唐首次入都會試，至黑水洋却遇大風，雷霆狂飆中他惶惶不安，不禁感嘆“浮名束縛令人死，不如歸臥江之湄。”這也許是個預兆，此后十余年秦際唐屢試不第，開始了他人生極偃蹇抑塞的一段旅程。同治七年秦際唐報罷南歸，遭遇捻軍，得曾國藩贈金遣驛方才渡河，甚是窘迫。光緒二年(1876)秦際唐与陳作霖共赴會試，双双抱憾出都。多年南北奔走，連不得志，落寞中幸有恩師薛時雨勉勵，“同堂言志，忽發深喟。謂我吏才，毋自頹廢。”<sup>50)</sup>光緒六年(1880)秦際唐六試禮闈，諸考官爭相贊嘆，發榜却只爲候補知縣，“群以失士爲憾”<sup>51)</sup>，秦際唐作詩《庚辰下第南歸》慨嘆：“江上青山也笑人，勞薪何苦逐征塵。曾經浩劫悲多難，豈爲浮名縛此身。”此后絕意仕途，鍵戶授徒，先后任奎光、鳳池書院山長，學堂既興又迭充傳習所總教員及初級師範學堂教務長，以終其身。

奎光書院嘉慶二十五年(1820)建于鷄鳴寺側，太平軍毀之，光緒十二年由太守孫桐城于益山之陽夏建，一循旧例，專課童生。鳳池書院以造就應童子試者聞名，旧在上元縣學內，嘉慶二十五年

48) 秦際唐：《送孫琴西觀察入都用張嘯山先生原韻》，《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488頁。

49) 秦際唐：《沈督部挽辭》，《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491頁。

50) 秦際唐：《桑根師誄》，《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71頁。

51) 張佩綸：《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1頁。

(1820)由知府俞德淵改建于旧王府“東北角之綉春園”<sup>52)</sup>，亂后荒蕪，同治七年由知府涂宗瀛另購大夫第東新廊民舍興葺。同治十年至光緒九年(1883)張裕釗主講鳳池，書院聲名大噪，張謇、范當世、馬其昶、朱銘盤等俊杰皆肄業其中。

據筆者目前所見的史料文集，尚不敢確定秦際唐主講兩書院的完整時段，但可以肯定的是，秦際唐于光緒十二年至光緒十九年(1893)間主講奎光書院，并是奎光葺建后的首任山長。據秦際唐自述，光緒十二年孫桐城剛興葺奎光書院就授其假館，當時秦際唐方落成新居南岡草堂，宴飲之樂還未消散，便匆匆移居益山。光緒十五年(1889)十二月亦有“何善伯于歲除前一日偕奎光書院山長秦際唐以及顧云同游清涼山，憩于掃葉樓”<sup>53)</sup>的記載。光緒十八年(1892)鄧弼之有詩記畧“孟夏廿有八日秦君伯虞山長際唐”招衆人拜訪顧云新墅<sup>54)</sup>。而由“山長秦伯虞先生鑒定”的《金陵奎光書院賦抄》出版于光緒十九年。很顯然，秦際唐至少在光緒十二年至光緒十九年間任奎光書院山長。至于秦際唐主講鳳池書院的時間，可從繆荃孫日記加以推測：光緒二十二年至二十七年(1901)間，繆荃孫在鐘山書院內主持雅集不下三十二次，而鳳池書院山長秦際唐是集會里經常出現的人物。另有盧前記載光緒三十二年鳳池書院改為津逮學堂時<sup>55)</sup>，“秦伯虞際唐任山長”<sup>56)</sup>。筆者大胆推測，起碼光緒二十二年至光緒三十二年(1896-1906)這十一年間秦際唐擔任鳳池書院山長。在鳳池改建學堂后，秦際唐繼續擔任總教員、教務長等要職。

秦際唐主講奎光、鳳池兩書院時，以辭賦教學為主，并一循東南書院盛行刊發課藝的風氣，將主要精力投入到《奎光書院賦鈔》《金陵奎光書院課藝》《鳳池書院課藝》(未見傳本)的編選刊刻之中。《奎光書院課藝》賦作占比58%，其余題材為試帖詩、古體詩、律詩及絕句。但与惜陰書院“取法乎上”<sup>57)</sup>不同，秦際唐之所以重視辭賦練習，是為了培養奎光童生的聲律詞章水平。蓋童生參加的縣試、府試、院試皆涉及詩賦。以縣試為例，縣試共五場，涉及詩賦的為后三場，“第三場試四書文或經文一篇、律賦一篇、五言八韻試帖詩一首、默寫前場《聖諭廣訓》首二句，賦不作亦可。第四五場連葺，則時文、詩賦、經論、駢文，不拘定格，時文或作一二起講或作兩比或作半篇，詩賦或作若干韻，經論、駢文或作一二段，限一二小時交卷，非寫作敏捷者不能爭勝。”<sup>58)</sup>此外，地方學政在院試前一般會舉行特考，不考八股，而以近體詩、律賦、時文、策論各項題目。這一系列的試賦活動使得如秦際唐之類的童子師通常會實行廣泛而嚴格的試賦訓練。

從課藝形式來看，秦際唐注意突出賦作的藝術鑒賞趣味，如用“同題”讓學生參互效仿，用“和韻”強化學生聲律訓練，以“評點”直接指導生徒。筆者謹以《奎光書院課藝》部分賦作題目出處列表如下，試圖展示奎光課藝內容，進一步揭示秦際唐的教學旨趣。

52) 汪士鐸等纂：《(同治)上江兩縣志》卷八《學校》，同治十三年刻本，第337頁。

53) 胡光國：《愚園詩話》，《南京愚園文獻十一種》，南京：南京出版社，2015年，第820頁。

54) 鄧輔綸、陳銳：《白香亭詩集·抱碧齋》，曾亞蘭校點，長沙：岳麓書社，2012年，第86頁。

55) 徐傳德：《南京教育史》，北京：商務印書館，2006年，第186頁。

56) 叶楚傖，柳詒徵等：《首都志》，南京：正中書局，1983年，第805頁。

57) 許結：《論清代書院與辭賦創作》，《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第36期。

58) 商衍鎰：《清代科舉考試述畧及有關著作》，天津：百花文藝出版社，2004年，第6頁。

表 2 《奎光書院課藝》賦作部分題目出處

題目	出處
《陈平分社肉甚均賦(以‘陈平为宰分肉甚均’为韵)》	《汉书·陈平传》
《大将军有揖客常賦(以题为韵)》	《史记·汲黯传》
《马伏波诫兄子书賦(以题为韵)》	《后汉书·马援传》
《墮泪碑以賦(以‘襄阳百姓建碑立庙’为韵)》	《晋书·羊祜传》
《郑监门上流民图賦(以题为韵)》	《宋史·郑侠传》
《朱衣点头賦(以‘朱衣点头其文入格’为韵)》	(宋)谢维新《合璧事类》
《红罗亭賦(以‘环亭四面都种红梅’为韵)》	(宋)陈景沂《全芳备祖》
《扬雄梦口吐白凤賦(以题为韵)》	《西京杂记》
《淮水东边旧时月賦(以‘山围故国，潮打空城’为韵)》	(唐)刘禹锡《金陵五题·石头城》
《络纬秋啼金井阑賦(以题为韵)》	(唐)李白《长相思》
《魏武帝横槊赋诗賦(以‘酹酒临江，横槊赋诗’为韵)》	(宋)苏轼《赤壁赋》
《寒与梅花同不睡賦(以题为韵)》	(宋)陆游《遣兴》

從創作題材來看，秦際唐所出題目與科賦相比，隨意性和自由度更大，藝術內涵也更為開闊，主要呈現出以下几个特征：一是出題獨特。秦際唐出題選擇的書籍有些並不常見，如《合璧事類》是涉及天文、地理、歲時、氣候、時令、占候的事類著作，《全芳備祖》為專輯宋代植物的集大成者，《西京雜記》則是載錄遺聞軼事的歷史筆記小說集。歷代試賦中較少採用這類書籍，秦際唐這一設計表現出其選題的獨特性，但這些題目通常難度不大，主要是考驗學生的文學素養和人品情操。二是重視史籍。“清代試賦題出自史籍的并不多見，其原因大概是由于熟諳往史對士人而言雖然重要，但并未如儒經與部分子書般成為科考的指定教材”<sup>59)</sup>，但奎光課藝中未見經子書，源自史籍的賦題却占比45%，且涉及前後《漢書》《史記》《晉書》《宋史》《南唐書》諸多史冊，這似與秦際唐旁搜博采、博古通今的讀書旨趣有關。三是重視宋明人詩賦。清代試賦宗法唐賢，以前人詩作題多選擇唐詩，“最突出的是用杜甫詩題、詩句為賦現象，表現出清人尊杜的心態”<sup>60)</sup>，但秦際唐多以宋明人詩作為題，如蘇軾、陸游、陳景沂、龍鼎孳等人，唐人中則偏愛劉禹錫、韓偓。四是感懷傷逝之題多。題如《江上青山送六朝賦》《淮水東邊舊時月賦》分別出自龔鼎孳《上巳將過金陵》和劉禹錫《金陵五題·石頭城》，兩詩皆以內在的對比暗連出金陵昔日繁華與今日的荒涼，抒發作者的幽咽暗恨，有吊古傷今的寓意在。同治三年後清王朝迎來了短暫的“中興”，但西方窺視，朝廷內亂，邊陲不定，內亂四起，知識分子在時艱迫來之際自會有徘徊之

59) 王瑜純：《清代試賦研究》，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2017年，第23頁。

60) 許結：《論清代書院與辭賦創作》，《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9年第36期。

感與家國之思，秦際唐借詩賦引發幽情，或許也想借此督促學生以古鑒今，務求為有裨有用之學，以備他日棟梁柱石之選。

秦際唐在出題時還會對不常見的題目作注解，這是秦際唐教學細致耐心的表現。如《蜘蛛隱賦》一題其按：“《金樓子》云：龔舍隨楚王朝，宿未央宮，見有赤蜘蛛大如栗，四面縈羅網，有虫触之而罨者，退而不能得出焉。舍嘆曰：‘仕宦者人之網羅也’，于是挂冠而退，時謂舍為蜘蛛隱。以上云云，較叶青為詳，故諸卷多從之，因附載于此。”<sup>61)</sup>簡明扼要的文字揭出題旨，諸生讀題意可遣詞，其用心之良苦毋庸贅言。

每篇課藝間有眉評，后有總評，評語中隱隱透露出秦際唐的行文偏好：一是強調氣勢。“龍虎之氣勝躍而上”“真氣驚戶牖，筆力勁于千軍之弩”，秦際唐重“氣”，認為氣盛則文章短長高下皆宜，軒軒霞舉顧盼非常，這或與其歸屬桐城派有關，桐城派一貫主張“神氣者，文之最精處也。”<sup>62)</sup>二是注重創新。秦際唐尤為青睞“吐棄陳言”“掃盡一切公共語”的賦作，創新是建立在洗練功深的基础上，惟以實而不以華，以真而不以偽，方能洗盡陳言，作品也能垂世而可久焉。三是提倡清雋之文。賦作評語多見“吐屬莊雅，右有左宜”“勻圓修潔，清無纖塵”“宗法唐賢，思清筆雋”，即“麗而有則、藻而不浮”始終是律賦之正軌，亦最與科舉功名相應和。

此外，秦際唐非常注重培養學生的山水情趣。課藝中的風景題如《訪隨園遺址》《后湖權歌》《雨花台晚眺》《仿報恩寺塔遺址》，是秦際唐要求生徒在山水之樂中煉心、煉情、煉文的體現。南京山水在生徒的筆下勾勒成畫，后湖“旧亭一角夕陽斜，小艇瓜皮入藕花”，雨花台“老樹十圍，枝翠沁骨”，南唐避暑宮“走馬城西得得來，翠微一角委蒿萊”，秦際唐帶領學生在夕照玉柳中養性修心，在相互唱和中抒發己感，在觀景流連中錘煉出清雋文麗的好詞佳句，而這一場景恰似重現了昔日東南諸生的逸游自恣之態。

總而言之，秦際唐教學宗旨雖以科舉為重，但在某種程度上是游离于科舉的藩籬之外。秦際唐在訓練學生詞章聲律能力的同時，十分強調讀書明聖人之道。這既是秦際唐通博學術觀的產物，也是秦際唐從生徒過渡至山長過程中對曾經所受教育的自然流露。蓋昔日肄業于鐘山、尊經、惜陰書院，諸師教育秦際唐“大之考鏡古今得失，匡時濟世，坐言起行，小之亦作一經與雅頌比烈，使天下知吾儒事業果非貲郎掾吏所能為也”<sup>63)</sup>，這一通經致用的學術途徑影響他在教學中自發自覺地指導學生沿着博而后約，修己治人的方向前進。他的學生亦不負老師重望：傅良弼光緒十五年舉人，二十四年(1899)進士<sup>64)</sup>；夏仁虎光緒二十三年(1897)拔貢，歷官郵傳部郎中、北洋政府秘書長，后任教于北京大學和北京師範大學<sup>65)</sup>；龔肇新歷任江蘇省議員、護法國會眾議院議員<sup>66)</sup>。學

61) 秦際唐：《奎光書院賦·蜘蛛隱賦》，光緒十九年刻本，第15頁。

62) 劉大樞：《論文偶記》，舒芑點校，北京：人民文學出版社，1959年，第6頁。

63) 馮桂芬：《惜陰書院戊申課藝》，陳谷嘉、鄧洪波主編：《中國書院史資料》中冊，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8年，第1930頁。

64) 顧廷龍：《清代朱卷集成》第179冊，第331頁。

65) 王景山：《國學家夏仁虎》，杭州：浙江文藝出版社，2009年，第3頁。

66) 《江蘇省志》卷六一《議會、人民代表大會志》，南京：江蘇人民出版社，1999年，第26、83頁。

生能鳴國家之盛，新竹能高于旧竹，全凭老竹的諄諄善誘。

秦際唐會選擇在奎光、鳳池兩書院教學，除与士人傳道授業的觀念相關，更和山長丰裕的工資密不可分。以光緒五年(1879)鳳池書院“山長束修三百兩，火食一百二十兩，節敬二十四兩”<sup>67)</sup>來看，鳳池山長收入不菲。這個金額雖會因各种因素有所波動，但歷史悠久的奎光、鳳池兩省城書院應該具有充分的財力資源(經常性的官方津貼、多种形式的捐贈)支付教師工資。而秦際唐是一個聲名遠播的舉人，是官員正式禮聘的山長，除确定薪酬外，他也許還會獲得“聘儀程儀、薪膳、節儀等名義發放的錢款，以及學生送上的一些‘孝敬費’，即‘贊禮’。”<sup>68)</sup>張仲禮先生曾提出“書院山長平均350兩銀子左右的年收入，是執教者所能期盼的最高收入”<sup>69)</sup>，秦際唐一度同時執教兩書院，其工資應該遠遠超乎這一水平。

長達二十三年的教學生涯為秦際唐帶來了家產和名望的双重積累，他成為南京一地极具話語權的名紳。在學生時代，秦際唐不過是地方事務的次要參與者，如同治十三年(1874)修上元、江宁縣志，光緒六年修江宁府志，他是分纂者、是跟隨者。而晚年的秦際唐，已然代替汪士鐸<sup>70)</sup>等人成為了南京地方事務的主要組織者和監督者，如光緒二十年(1894)承辦救生局務，光緒二十四年(1898)督辦五城平糶局。這種地位的上升，滿足了秦際唐的價值認可需求，增強了秦際唐的社會責任感。處在這種名利兼有的境遇里，秦際唐是晚清社會的保守者、維護者也在情理之中。

秦際唐在“千古未有之局”的晚清，是時人眼中的“死板旧派”，他在書院一隅為自己 and 學生搭建起一個“保守”的桃花源，維護科舉、學習篤志是其始終秉持的教育目標。19世紀的“智勇俱困之秋”逼迫清朝士大夫覺醒，以自強、變革回應西方成為時代主題，儒學在書院教育中的地位岌岌可危，以上海格致、求志書院，湖北兩湖書院為代表的新式書院早已轉為學習西學。秦際唐的老師孫鏘鳴于光緒十年至光緒二十年(1895)間主講龍門書院，這位耄耋老人接受姚文棟“科學、哲學、教育、政治，自我學習，起此夕斯”的建議，帶領龍門書院邁入西學教育的大浪潮。相比之下，秦際唐這個弟子顯得保守多了，光緒十九年編選刊印的《奎光書院課藝》仍以舉業為務，雖有關注西方事務(如《眼鏡》等篇)，但占比小、理解淺，比起西學自強他更願意讓學生通過閱讀吳偉業的詩歌(如《讀吳梅村詩》《讀吳梅村集絕句》等)來以詩存史、警醒自身。再至光緒二十年，甲午戰敗擊碎了士大夫最后的幻想，變法自強之說已轟然不靖，但秦際唐与友人交談時仍堅持維護綱常名教、擁簇科舉取士，張佩綸不禁慨嘆：“雖然以伯虞之才与識，使之蒐奇集異，綜中西學術之得失而折以道要非不能也，退而自娛于斯文，其确然有以自守而不囿于風气者然也。”<sup>71)</sup>

但在那个新旧交替的轉型過度時期，將士人單純划分為新派旧派，顯然過於簡單。有學者指出晚清文化人的思想觀念并存中西新旧的“兩個世界”<sup>72)</sup>，秦際唐雖忠誠傳統，“但他脫離不開中西交織

67) 汪士鐸等纂：《(續纂)江宁府志》卷五《學校》，光緒六年刻本，第193頁。

68) 張仲禮：《中國紳士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2019年，第279頁。

69) 張仲禮：《中國紳士研究》，第280頁。

70) 汪士鐸，字晉侯，晚号梅翁。道光二十年(1840)舉人，晚清著名歷史地理學家、藏書家，一生以游幕、接徒為業。著有《汪梅村先生集》《丙午日記》《南北史補記》等書。

71) 張佩綸：《南岡草堂文存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41頁。

72) 羅志田：《新旧之間：近代中國的多个世界及“失語”群体》，《四川大學學報》1999年第6期。

的文化環境，並必須在新舊混雜的環境中生活”<sup>73)</sup>，這就使他在保守的思想觀念世界外還要適應一個更為複雜多樣的文化生活世界。光緒二十七年十月，尊經、鳳池改名校士館，秦際唐出任總教員，書院之名遂退出秦際唐的歷史世界，然而兩書院舊有的亭閣牆院及其建構的生活性的世界依然對其延續着，並且秦際唐仍“策試四書經義、策論”<sup>74)</sup>，還試圖保持書院原有的學術精神。光緒二十九年(1903)設崇義學堂，秦際唐與陳作霖分主講席，以詩賦為主，次年罷<sup>75)</sup>。光緒三十二年校士館改為初等師範學堂，秦際唐迭充教務長，事實上仍然沒有離開奎光、鳳池書院那片長久生活的天地並終老于斯。總體來看，在新的文化環境中，秦際唐順應時勢，亦屬積極參與新的文教事業，尋求在變動的時代中立足，但是秦際唐堅定地抱以“運會有盛衰，而斯文之在天壤者一日不息”<sup>76)</sup>的信念，猶然強自支厲舊學于世，其在新式學堂中講舊式儒學，並萃一世精力蘄于古人文奧，與友人編校《國朝金陵詞征》《國朝金陵文征》《金陵詞選》等書保存雅音。秦際唐在特殊的時代中，呈現出學術思想保守、文化生活趨新的兩重世界。

### 三、雅集：秦際唐與書院內外士人群體

雅集是秦際唐書院生活世界的一個重要的側面。雅集，即是文人雅士吟咏詩文、議論學問的集會，史上較著名的有“金谷園雅集”、“蘭亭雅集”、“滕王閣雅集”等，延及於晚清的動蕩之世，在東南中國的金陵地區盛行不衰，並與書院結合起來。書院是晚清士人雅集的重要場所，書院士人又是當時士人雅集的特殊組成部分，從書院生徒到書院山長，秦際唐的雅集活動，或在書院之內，或延展到其外部，都與東南的士人文化生活一體相關。

早在從學時期，秦際唐就積極參加官員、鄉紳、師長主持的雅集盛會，像光緒六年六月二十一日胡恩燮在南京愚園舉辦的歐陽修生日會，與會人員如林壽圖、薛時雨、張裕釗、趙彥修、孫文川無一不是耆老名儒，時林壽圖為鐘山書院山長，薛時雨為尊經書院山長，張裕釗為鳳池書院山長，秦際唐以書院生徒的身份得以嶄露頭角。而秦際唐與同輩當時也有自己的雅集，如同治十二年(1873)的人日集會、光緒五年的上巳日集會等，雅集與官月課一起構成了秦際唐早期拓展人際關係的重要途徑。後主講奎光、鳳池書院時，秦際唐則以山長身份參與繆荃孫、鄧弼之、張謇、濮青士、鄭孝胥、張士珩、翁長森等山長官宦組織的各式雅集，可以說雅集是秦際唐人際交往的最重要環節，他與東南士人在讌游玩樂中磋商辭賦，感懷時事，無疑是擴大了自己的交流群體和社交範圍。

73) 李長莉：《開放的時代與保守的個人：一個清末士大夫思想與生活的兩重世界》，《學術研究》2007年第11期。

74) 陳作霖：《可園備忘錄》，盧海鳴主編：《教諭公稀齡撮記·可園備忘錄·鳳叟八十年經歷圖記》，第96頁。

75) 陳作霖：《可園備忘錄》，盧海鳴主編：《教諭公稀齡撮記·可園備忘錄·鳳叟八十年經歷圖記》，第98頁。

76) 秦際唐：《金陵文鈔序》，《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54頁。



同光年間南京雅集如此盛行，究其原因：一是得山水園墅之助。玄武湖、莫愁湖、秦淮河、清涼山、一拂祠、掃葉堂、濠堂、愚園皆是游栖佳處。其中，不少雅集也在書院內或書院所在地周圍進行，如云自在龕(鐘山書院內)、薛廬(惜陰書院對面)之半壁池、宛在亭、有叟堂、寤園、深柳讀書堂(尊經書院內)，以及盍山、蛇山、烏龍潭(尊經、惜陰旁)。諸勝美景如畫，鐘山講舍“地偏少客，文債頗稀，差足養疾。鳴蟬在柳，闔波衡窗，時有清風，呼月到枕，晝抄暝寫，心與古會”<sup>77)</sup>，半壁池“濃陰所布，圍吾堂如碧城，如翠□”<sup>78)</sup>，宛在亭在烏龍潭中央“凌空翼然，吐納萬景”<sup>79)</sup>，寤園“界竹籬爲徑，籬下植篤蘿，旁行斜上，所在延緣。當其旣花，如千萬散金，星綴碧紗幃”<sup>80)</sup>，春秋佳日，載酒從游者踵相接也，亦在情理之中。二是薛時雨提倡“山水之樂”。薛時雨講席尊經書院十七載，時常招友人弟子集會于薛廬，實與其創作觀念有關。薛時雨認爲人才之盛、文采之麗和山水之美緊密相連，他本人“杜門讀書，振衣作吏，蓋皆有山水之助焉。”<sup>81)</sup>薛時雨期盼學子從山水之樂中體悟到文學創作的方法，曾用“蹄涔之水”“濯濯之山”的改造比喻“文之潔淨”“文之藻采”的形成，認爲“諸生能知山水之樂，則文境當日進”<sup>82)</sup>，良苦用心，令人欽佩。三是金陵雅集具有獨特的道德性質。清代中后期的南京雅集活動反映了特殊的社會風氣，士人召開雅集不再純粹是沉湎美景，而是通過紀念先賢、品鑒金石等方式振奮士氣，在山河破碎、風雨飄零中尋得心靈的慰藉。而書院雅集在道德層面上尤爲突出，作爲講學的一種調節，學者們在雅集活動中仍“重視傳道授學，書院雅集帶有鮮明的道德印痕。”<sup>83)</sup>總而言之，南京雅集活動如此普遍，是與晚清士人精神世界和生活世界相契合的結果。

筆者謹以同光年間秦際唐參加的部分雅集列表如下，試以展示雅集活動的主要內容與秦際唐的情感變化：

表 3 同光年間東南書院學人部分雅集考：以秦際唐爲中心<sup>84)</sup>

時間	雅集情況	出處
同治十二年八月	與劉壽曾、陳作霖、朱紹頤、蔣師轍何延慶等人游后湖。	《可園備忘錄》 《南岡草堂詩選》 《傳雅堂詩集》 《三徑草堂詩鈔》
光緒五年正月十二日	白香山生日愚園十八人雅集	《蒿庵類稿》 《扁善齋詩存》
光緒六年十一月	薛廬落成，同門生會飲賦詩。	《可園備忘錄》 《南岡草堂詩選》 《盍山詩選》

77) 劉壽曾：《與郭慕徐書》，《傳雅堂文集》，《清代詩文集匯編》第737冊，第71頁。  
78) 陳作霖、陳詒紱：《金陵瑣志九種》，南京：南京出版社，2008年，第506頁。  
79) 秦際唐：《重浚烏龍潭記》，《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556頁。  
80) 顧云：《盍山志》，張增泰點校，南京：南京出版社，2009年，第19頁。  
81) 薛時雨：《薛氏五種》，同治七年刻本。  
82) 薛時雨：《尊經書院課藝五刻序》，《尊經書院課藝》，《中國書院文獻叢刊》第1輯第42冊，第236頁。  
83) 程嫩生，陳海燕：《石鼓書院雅集活動與文學創作》，《寧夏社會科學》2010年第5期。  
84) 參考《清代詩文集匯編》第706、734、736、737、753、757、759冊及《可園備忘錄》、《甘元煥日記》、《白下愚園集續集》。

光緒七年三月	与杨朴庵、陈作霖游胡氏愚园，听煦斋主人及乔子衡弹琴。	《可园备忘录》
光緒十一年十二月十九日	何延庆、方培容作东坡生日会于秦宅	《甘元煥日记》
光緒十二年	新筑南冈草堂同人燕饮以落之	《可园备忘录》
光緒十三年	翁长森邀集大江南北诸名流三十五人，祭历代诗人于薛庐之有叟堂。礼成，会饮。	《可园备忘录》
光緒十七年五月廿八日	与刘寿曾、甘元煥等公祭顾亭林于冶山麓，始立祠。	《甘元煥日记》
光緒十八年	饮集惜阴书院酒阑往访顾云新筑别墅	《白香亭诗集》
光緒二十二正月	与郑孝胥、张謇、蒯光典、陈庆年、陈作霖、顾云修楔于可青草堂	《扁善斋诗存》
光緒二十四年十一月	与陈作霖、司马晴江、周柳潭、郑叔龙作五老消寒会	《可园备忘录》
光緒二十五年暮春	具并文社社集，与集者十一人。	《白下愚园集续集》
光緒二十六年	与顾云、缪荃孙、俞明震、陈作霖、蒯光典上巳修禊之会	《可园诗存》

從上表來看，秦際唐所參雅集類型丰富，主要包括節日集會、季節型集會、風景游玩集會、先賢祭祀集會。

秦際唐參加的節日集會以人日、上巳節最爲典型。秦際唐于同治十二年、光緒九年、光緒十二年、光緒十三年(1887)的正月初七在莫愁湖、薛廬等地作人日集，諸人品嘗以“菰蒲薺韭梨笋栗”烹飪的七宝羹，在琼樓台榭中誦清風、追歡情，好不愜意。上巳(每年三月三日，又称“修禊”、“禊祭”)雅集則更爲普遍，秦際唐于光緒六年、光緒十一年、光緒二十二年、光緒二十五年(1899)、光緒二十六年(1900)、光緒二十九年、光緒三十二年均有作禊，地点包括薛廬、竹居、半青草堂、竹橋、烏龍潭諸勝。修禊自由性、隨意性更大，常与其他活動并舉，如光緒六年修禊兼壽趙彥修，光緒十一年作禊并餞別馮煦，衆人在踏青游玩中，賞云澹碧水，望竹搖花重，酒龍詩虎，延續着古典文韻之風流。

秦際唐等人還常主持“送春”、“消夏”、“送秋”、“消寒”等季節雅集，在万物流轉、四時變遷之際借唱和的方式吟咏内外环境的人物變遷。暮年之歲，秦際唐犹愛參加“消寒”會，如光緒二十四年十二月十九日(与陳作霖、司馬湘、濮文暹、朱紹亭)及次年十一月(与陳作霖、司馬湘、周嘉朴、

鄭叔龍)的“五老消寒會”，這一熬寒盼春的無奈之舉中更浸潤着秦際唐對生活重塞、親友离散的悲淒之情。宴上賓客有故友有新交，諸人言語中時常出現新政、改革、西學等詞，宋學漢學已然啞音，抵掌而談者亦非少年。此外，秦際唐于閑暇時也喜愛組織風景游玩集會，如同治十二年与陳作霖、何延慶等人集元武湖分韻作詩，光緒十八年四月二十八日招陳宗濂、沈瑜慶、王庭訓、鄧熙之、鄧弼之飲集惜陰書院酒闌，衆人賞景話旧，听琴評詩，爲日常生活增添了濃郁的詩文气氛。

值得一提的是，在晚清特定的社會風气和思想傾向的影響下，秦際唐們淡化了先賢紀念集會的娛情色彩，更強調這類雅集特有的建构群体認同和政治功能。秦際唐們所選擇的祭祀對象範圍很廣，主要包括前朝及本朝的賢者名士。先說紀念前代賢哲的集會，對象多爲唐代的白居易、宋代的歐陽修、蘇軾、黃庭堅、陸游，衆人借助先賢生日會來歌頌先哲的詩歌才華和忠貞品質，在万馬齊喑中發出振聾發聵的慷慨之音，相互砥礪，鼓舞士氣。再言紀念本朝名士的雅集，秦際唐的發迹和南京的宴興實与“同光中興”密不可分，受主客觀因素的影響，曾國藩、林則徐、沈葆楨等一批中興大臣成爲了祭祀的首選，如光緒二年六月十六日秦際唐等人在妙相庵公祀曾國藩，而雅集活動亦常伴隨紀念祠堂的落成，如光緒六年龍蟠里沈公祠(沈葆楨)落成作集，秦際唐們對諸公的紀念又何嘗不是在繼承和踐行着“承当天下事”的士大夫群体意識？另外，秦際唐們受地域文化的影響，還選擇了某些特定的祭祀對象。如光緒五年清涼山重建一拂先生祠，秦際唐与士紳作集并兼祀鄭俠。北宋鄭俠原籍福州福清縣，以“流民圖”一事獲忠義之名，他曾在南京清涼山寓居讀書。再如光緒十五年十二月秦際唐与何延慶、顧云憩于掃叶樓并祀龔賢，龔賢乃明末清初极具气節的愛國主義書法家，曾在掃叶樓深居簡出，不事權貴。秦際唐等人作集追慕鄭俠、龔賢，既是二人清廉耿介、勤勉讀書的高尚品質与当时士人心態与社會文化趨向相契合的表現，也是清涼山、掃叶樓借鄭龔二人逐漸成爲南京一地重要文化標志的体现。

秦際唐最常去的雅集場所是薛廬，而在薛廬舉行的雅集從人員到主題都明顯帶有書院烙印。光緒六年十一月薛廬落成，薛時雨招學生首作雅集。最開始的薛廬集會多由薛時雨組織，并成爲了師生切磋學問、交流感情的重要平台。自光緒十一年薛時雨离世，集會組織人轉變爲秦際唐這類有名望的薛氏弟子，与會人員仍以書院弟子爲主，如光緒十三年薛廬挑菜會參加者吳瞻青、鄧嘉緝、梅壽康、甘培、顧云、秦際唐、何延慶、馮煦无一不曾是書院生徒。雅集的主題逐漸轉爲感懷恩師、關懷友朋、怀念讀書時代，如光緒十七年(1891)秦際唐等人祀薛時雨并宴于永今堂，很明顯，薛廬成爲了秦際唐等書院弟子酬和雅會的首要選擇。光緒九年的挑菜會最能展現出薛廬集會的具体場景和人文意義。是年正月初七，秦際唐与友人馮煦、陳作霖、甘元煥、方培容、朱紹亭、顧云相約集薛廬作挑菜會，当日微風細雨，烏龍潭水又添新潮，梅花倚檻吐蕊，竹影沿堤搖影，七种蔬筍整齊羅列在案板上，花影重重間是行廚在舉炊，如此假日風光，秦際唐回想往日賓會之歡，而經年却爲浮名所縛，不禁感嘆：“墜歡杳難追，清風尚可誦。俯仰隨所遭，嫩寒襲衣縫。”<sup>85)</sup>馮煦以詩相勸：“所嗟世汶汶，且舍机种种，眞想放塵縛，毋爲蠶在蛹。”<sup>86)</sup>陳作霖在清風

85) 秦際唐：《癸未人日挑菜集薛廬分助》，《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499頁。

稚柳中則想起七種蔬筍乃劉壽曾同治十二年所倡，然光緒八年劉壽曾已歸道山，當時同游的朱紹頤、何延慶亦遠在幕府，“山陽增感慨，旧雨恰迢遙。題詩寄幕府，樂莫忘漁樵。”<sup>87)</sup>不料世事无常，同年朱紹頤并沒天津，而光緒十六年(1890)何延慶突發疾病卒于軍中。顯然，薛廬集會讓秦際唐等人獲得了一種優雅的人文氛圍和詩意的栖居環境，在生活中的苦悶与彷徨在美景和言語中有所排遣，但集會人員的流動變遷也讓他們深刻體會了時光易逝、生命易散的酸楚。對秦際唐來說，這種流動更令其恐懼与憂傷。秦際唐五十歲斷弦，不久長女產難而亡，六十歲姬妾喪沒，六十六歲二女离逝，可以說晚年的他孑然孤獨，只有幼子秦世蘭相伴于旁，与友人的集會讓他在最難得的歡愉時光，但佳友相繼殂謝，良會不再，久病纏身的他只能借書信与濮青士、張士珩等人訴說心中一二酸辛罷了。

對於秦際唐而言，雅集活動的精神旨歸不在於賞玩，而是依托情感，雅集創作無疑是他釋放情感的最佳渠道，品析秦際唐的創作成果，能清楚對比出他在劇變時代中由于理想和現實割裂而產生的悲楚与彷徨之情。同治十二年(1874)秦際唐与諸友在莫愁湖作挑菜會，作詩曰“百觴酒力醺，千里眼界拓。酒后發長嘯，不顧俗子愕。我輩貴适意，生趣肯束縛，一笑褰幘人，終歲无此樂”<sup>88)</sup>，少年意氣風發，憧憬着一日看盡長安花。光緒六年薛廬建成書院同門有宴飲之歡，秦際唐言：“此地昔賢憩，鐘山有草堂。但聞耽澗谷，誰更集壺觴。吳越人材萃，師儒教澤長。生机逮花木，几日便青蒼”<sup>89)</sup>，詩句浸潤着勃勃生机和感恩之情，秦際唐誓以己身報效國家，不負師門期望。光緒十年(1884)秦際唐第三次作玄武湖集，喟嘆“余游茲湖凡三，癸酉之游(1873)有耘芬、子期、幼瞻，巳卯(1879)有恭甫。遠者距今十余年，近者僅五六年，而耘芬、幼瞻、子期、恭甫皆宿草矣”<sup>90)</sup>，山陽之笛，黃公酒垆之悲，親朋的相繼殂謝表現出的是文情的日漸寂寥，而秦際唐頻年奔走不得意，滿腹才華无處施展，塵海勞生，再參雅集五味陳雜，再不復当年的洒脫肆意。光緒二十四年，司馬湘招同人作“壽蘇”集，秦際唐感慨“今之新法甚熙丰，重見宣仁憫困窮。易世奸邪皆誤國，千秋風雅孰如公……酒氣熊熊添書稿，春風拂拂上琴弦。白頭難得重相聚，老趁余閒即散仙”<sup>91)</sup>，面對清末政局日見危象，秦際唐不能也不愿獨善其身，他既擔憂外敵虎視眈眈，國家貧弱可欺，更憂慮聖賢綱紀的崩壞与世道人心的潰決。而已是風燭殘年的秦際唐，除了固守本心，无計可施爾。

需要指出的是，雅集活動既滿足了秦際唐等人的思想情感需求，還為他們构建起了諸个緊密聯

86) 馮煦：《癸未人日薛廬挑菜會分賦得種字》，《蒿庵類稿》，《清代詩文集續編》第757冊，第101頁。

87) 陳作霖：《癸未人日与馮夢華(煦)甘劍侯(元煥)方子涵(培容)秦伯虞(際唐)朱豫生(紹亭)顧子鵬(云)小集薛廬分韻得挑字并怀子期善伯》，《可園詩存》，《清代詩文集續編》第736冊，第252頁。

88) 秦際唐：《癸酉人日偕劉恭甫(壽曾)甘健侯(元煥)紫藩(曾源)朱子期(紹頤)豫生(紹亭)陳伯雨(作霖)何善伯(延慶)集莫愁湖作挑菜會分韻得樂字》，《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487頁。

89) 秦際唐：《薛廬落成紀事和顧石公(云)韻》，《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492頁。

90) 秦際唐：《后湖游記》，《南岡草堂文存》，《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557頁。

91) 秦際唐：《戊戌腊月十九日司馬晴江招同人寒叫壽蘇即席賦此》，《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續編》第734冊，第514頁。

系的社交圈，而這些交際網絡在一定程度上也促進了士人个体及整个南京地域的發展。如光緒二十五年暮春，秦際唐与丁立中、金元鼎、司馬湘、濮文暹、陳作霖、陸厚基、鮑穆堂、繆荃孫、沈維驥、傅春官集會于愚園，十一人相約成立具并文社，原定釀貲按月一聚，以佳辰良辰爲約。此設從光緒二十五年至民國元年斷續社集7次，隨後終止。民國四年胡光國再倡廣續雅約，最初十一人惟剩陳作霖一老，重建的文社先后擁有骨干成員36人，自民國八年正月初七至民國九年農曆六月間雅集聚會多達20次，文社延續至民國九年。具并文社的代表從繆荃孫、陳作霖、秦際唐過渡到陳三立、程先甲、何允恕(何延慶之子)，雅集內容也從評詩賦文、觀奕彈琴轉變爲以電話、電影、留聲机、照相、民權等爲題賦詩。可以說，具并文社的雅集及創作丰富了南京愚園的文化內涵，也再現了南京文人的社會生活和文學活動，更還原了晚清的時代風云。而收彙社員雅集創作成果的《白下愚園集》《白下愚園集續集》《具并文社唱和集》亦爲研究晚清南京詩壇提供了重要材料。另外，秦際唐等人還賦予了雅集一定的社會功能。在地方公共事務竣工、鄉邦文獻刊成時，南京士人常會組織雅集慶賀，如光緒十三年十一月《金陵詩征》告成，秦際唐与里中耆彥及僑寓諸賢三十五人于有叟堂祭祀歷代詩人并會飲，正如鄧嘉緝《益麓祭詩圖序》所言：“盛事之傳当以人重，豈直繼西園雅集而起哉！”<sup>92)</sup>雅集活動极大滿足了地方鄉紳的名利需求，促使他們更加積極主動地組織參與地方事務，進而促進南京一地的政治經濟文化發展。

總而言之，“因爲物質生活富足和品質的提高，清代士人有更高的精神追求，從而有意識地追求优雅而詩意的生活方式”<sup>93)</sup>，秦際唐等人紛紛在節日、季節變遷、閑暇時光作雅集，以詩賦唱和增添風雅之趣。而受到社會文化風气和士人群体的思想傾向的影響，他們的雅集活動還增添了特殊的道德性質和政治功能。此外，創作成爲雅集活動最不可分割的一部分，衆人分韻作賦，往夏廣唱，或咏景抒情，或立志有爲，或歌頌前賢，或感懷古今，凸顯出深厚的史學功底和道德印痕。雅集讌游成爲了秦際唐那一書院學人群体日常生活的最重要組成部分。

#### 四、余論

讀秦際唐早年詩歌，“少小偏逢喪亂時，窮途歌哭有余悲”<sup>94)</sup>是傷逝怀人、憂時感亂的悲愴，“亂世功名詔珥賤，窮蒼生計雁鳴哀”<sup>95)</sup>是奔走道途、苦計衣食的顛沛，“英雄死后有遺憾，眼看吳越紛兵戈”<sup>96)</sup>是杞國憂天、毀家紓國的慨嘆。南京克夏，秦際唐結束自小的飄蓬流离，嚴師益友相伴，親朋佳侶在旁，于鐘灵毓秀的金陵山川中尋得一方靜謐，在書院的從學、執教与交友是貫穿其一生的繩索，寄托着他對學術和思想的崇高追求，折射着他對天道性命的孜孜不倦，而講學授

92) 鄧嘉緝：《益麓祭詩圖序》，《扁善齋文存》，《清代詩文集匯編》第759冊，第37頁。

93) 盧高媛：《清代詩人集會專題研究》，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2019年，第27頁。

94) 秦際唐：《哭陸藹符四首之一》，《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484頁。

95) 秦際唐：《滬城感事和樞侯》，《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485頁。

96) 秦際唐：《哭張殿臣副帥》，《南岡草堂詩選》，《清代詩文集匯編》第734冊，第484頁。

道的目標即是晚清劇變中指引他選擇的一盞明燈。秦際唐的生活軌迹正是晚清東南書院學人的典型呈現，這些學人在羈旅遷徙中堅守着儒家士人的理想，繼承了從古至今書院所承載的精神理念，以書院為媒介共同為東南地區的文學、學術與教育作出了巨大貢獻。以秦際唐為代表的晚清東南書院學人，在鍥而不舍的知識追求中闡釋了人的意義、社會的和諧，實踐着道、學、文、會等合一的士人生活理想。

作者簡介：

1. 王勝軍，貴州大學中國文化書院教授，歷史學博士，研究方向：宋明理學、書院文化。
2. 袁媛，貴州大學歷史與民族文化學院在讀碩士，研究方向：書院史。

## 韓·中서원의 院任 비교 연구

###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채광수(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국문초록】

이 글은 韓·中서원의 院任을 비교해 본 것이다. 좀 더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과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인 중국 백록동서원을 교차 검증하였다.

먼저 원임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먼저 한국서원은 향촌 내 명망가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뒤 주로 院長-(掌議)-有司 체제로 서원 운영을 관장했다. 반면 중국서원은 크게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원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했고, 원장은 지방 관료 또는 대학자 초빙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국서원이 한국서원보다 원임의 직제가 보다 세분되어 있으며, 조직 규모가 더 컸다. 다만 한국서원은 관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서원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다.

다음은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우선 원장-유사 직제를 지향한 소수서원에는 1542년부터 현대까지 원임 구성과 정보가 담긴 『任事錄』을 분석한 결과 창건부터 1900년까지 거쳐 간 657명의 원장은 평균 5개월씩 재임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입원생 출신들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자가 무려 225회에 달했고,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하였다. 규약에는 文官과 司馬 합격자 중에서 원임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유학 신분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한편 이들은 주로 서원 인근 고을에 거주한 인사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姓貫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노정된다. 그러다가 18세 중·후반부터는 외부 명망가 또는 현직 지방관을 원장으로 삼아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특히 소수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 官權과 깊은 밀착성을 보인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는 상시 유사를 두면서 서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중국 4대 서원으로 추앙받는 백록동서원은 당대 여산국학부터 남송을 거쳐 명·청대까지 당대 학술을 주도한 입지전적인 서원이다. 여산국학은 국자감 九經박사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하며, 과거 인재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었다. 서원이 복원되는 북송 대에는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었다. 남송 대는 주자가 서원을 재건하여 백록동서원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 시기이다. 그는 스스로 초대동주에 올라 원생을 모집해 강

학한 것을 비롯해 堂長과 유명학자 초빙, 강학 업무 관장 등 서원의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백록동서원은 아니지만 송대 建康府 明道書院의 경우 산장·당장·提舉官·堂錄·講書·堂賓·直學·講賓·錢糧官·司計·掌書·掌議·掌祠·齋長·醫諭 등 총 15종의 직책이 존재한 만큼 이와 유사한 원임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송시기 원임과 관련해 추가적인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행히 명·청대는 동주의 계보를 다소 파악하였다. 명대는 과거 출신 동주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이었다.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파견했다. 그래서 청대 때는 동주 중 ‘포의’는 없고, 과거 참여 후 관직 역임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 韩国、中国书院的院任比较研究

### -以韩国绍修书院和中国白鹿洞书院为中心-

蔡光洙(岭南大学校 民族文化研究所)

这一论文对韩国书院和中国书院的院任构成进行比较研究。为了进一步深化讨论,交叉验证了韩国最早的书院绍修书院和东亚书院的模范中国白鹿洞书院。首先,从院任的一般区别来看,韩国书院自主选任乡村内有声望的家族后,主要以院长-(掌议)-有司的体制来运营并掌管书院。相反,中国书院大体上分为负责教育和行政的职分,院长由地方官员或大学者聘请等形式组成,其中官府的影响力起到了很大的作用。另外,中国书院比韩国书院更细分了院任组织结构,其规模也更大。但是,与官府的影响力较强的中国书院相比,韩国书院得到了更多的自律性保障。

接下来,笔者试图比较检讨绍修书院和白鹿洞书院。首先,绍修书院维持院长-有司职制。从1542年到现代,对包含院任构成和相关信息的《任事录》进行分析,其分析结果显示,绍修书院从其创建到1900年,历代657名院长平均担任了5个月左右的院长职务。他们主要由书院生徒出身组成,并且连任2次以上院长的事例多达225例,还是连任次数最少2次,最多7次。根据关于院任资格的规约,从文官或司马合格者中可被选任。但从实际事例来看,幼学出身比率超过一半。另外,他们主要居住在书院附近的村庄,不但如此,可以看出为有一些塥籍成员排他运营过书院的事例。到了18世纪中后期,书院以外部著名家族或当时地方官之中作为院长,以试图解决现实困难。据悉,与韩国的其他书院相比,绍修书院与官府权力更加紧密。另外,还书院设有常任“有司”,而按照书院的情况,随时选拔临时有司以使担任职务。

白鹿洞书院被尊称为中国四大书院之一。白鹿洞源于唐朝庐山国学,历经南宋时期、明清代一直主导学术世界。当初庐山国学以国子监九经博士为洞主以掌管教授,并且以科举人才培养为教育目的。到了北宋,根据当时普遍的社会需求,书院具有了官学性质。进而,在南宋时期,由于朱子重建书院,就形成了白鹿洞书院的认同性和特点。朱子成为首任洞主,自行招募生徒进行讲学,并聘请堂长和著名学者、掌握讲学业务等,以奠基书院的典范方向。此外,至于宋代建康府明道书院,已有山长、堂长、提举官、堂录、讲书、堂宾、直学、讲宾、钱粮官、司计、掌书、掌议、掌祠、斋长、医谕等,在书院内部共设置15种职责,因此,白鹿洞书院也会具备类似规模的院任组织。但是笔者无法发现有关南

宋时期院任结构的详细记录，所幸，在一定程度上可以掌握明、清代的山长谱系。从明代白鹿洞书院山长的出身记录来看，所有山长中，科举出身的山长高达90%左右。这一比率就符合明朝廷教育控制下的书院官学化趋势。到了清代，其讲学性质以科举和功名利禄为主要基调，朝廷派遣符合这一条件的人士到书院山庄任职。因此，清朝的山长中没有“布衣”出身，而大部分山长都曾历任科举和官职生活。

# 韓·中서원의 院任 비교 연구

##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채광수(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I. 머리말
- II. 韓·中서원의 원임 구성
- III. 소수·백록동서원의 원임 비교
- IV. 맺음말

### I. 머리말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태평한 세상을 만나 외람되게 이 고을 군수가 되었으니 고을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당과 서원을 설립하고 토지를 마련하고 경전을 소장하기를 한결같이 白鹿洞書院의 고사에 따라 하고서, 무궁한 후 일에 훌륭한 인물을 기다리게 되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뒤 만든 『竹溪誌』 서문에서 밝힌 구절이다. 주세붕이 주희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희가 재건한 백록동서원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교육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그가 제시한 「白鹿洞規」는 서원 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서원 곳곳에는 「백록동규」가 게시되어 있다. 또한 강학 때마다 이를 敬讀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백록동규」를 가장 충실히 구현한 공간이다.

한·중 서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향별로 書院誌, 교육, 인적조직과 경제기반,<sup>1)</sup> 건축 분야에 주목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에서는 그 체제와 지식양상을 검토했고, ②에서는 영남서원과 중국 徽州 서원의 특징을 비교 고찰했으며, ③에서는 영남서원과 청대 山東지역

1)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29, 2007.;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 2021.; 이수환, 「안동과 회주의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陳聯, 「중국 회주와 한국 영남지역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이수환 「조선조 영남과 淸代 山東의 서원 비교 연구—인적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2010.

서원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한·중서원 연구는 대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 바탕 위에 書院史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 운영의 주체인 院任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시도해 본 것이다. 이에 두 갈래로 글을 구성해 보았다. II장에서는 한·중 서원 원임의 일반론에 대해 살폈고, III장에서는 소수·백록동 兩院 원임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만 제한된 자료로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구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충분한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을 통해 극복할 향후 과제로 삼는다.

## II. 한·중서원의 원임 구성

### 1. 한국서원의 원임

원임은 서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한국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院規」에는 ‘원장 1인과 院貳 1인’을 정해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기, 지역, 당색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원임의 직제·신분·임무·임기 등 그 사정이 달랐다. 아래는 영남지역 원규의 모범인 이황이 지은 「伊山院規」 원임 관련 조목이다.

서원의 有司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가운데 事理를 알고 몸가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복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골라서 上有司로 삼되 모두 2년 만에 교대시킨다.<sup>2)</sup>

원장에 대한 구절은 보이지 않는데 위 조목을 보면, 2명의 유사( 유사)를 두고 그중 우수한 자를 상유사로 삼아 2년 간 서원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이황이 별도로 원장직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서원 운영 구상 시 경제적 지원은 지방관이, 강학은 초빙된 학자가 담당하도록 구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원장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제로는 상유사가 원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창기에 설립된 서원의 『원임안』을 보면 ‘상유사-하유사’ 체제와 ‘원장-유사’ 체제를 혼용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그 뒤 서원 제도가 조선 사회 내 안착하면서, 서원은 ‘원장-유사’를 기본으로 하는 직제로 편제되었다. 물론 서원이 발전함에 따라 원

2) 「伊山院規」.

3) 소수·서악·옥산·도동·병산서원 등은 ‘원장-유사’, 이산·천곡·역동·도산서원 등은 ‘상·하유사’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104.

임의 직제는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며, 특히 당색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원임 자격과 직무에 대한 일반론을 짚어본 후 당색별 차이를 일별하고자 한다.<sup>4)</sup> 일반적으로 원임은 춘추 향사 때 모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천거한 인사를 圈點 점수 순서에 따라 원장과 유사로 선정했다. 이후 선임된 원임의 이름을 院內 게시하고 임명장인 望記를 발급하였다.<sup>5)</sup> 먼저 원장직부터 살펴보면, 서원 재정을 비롯해 제사·교육·사람과 건물 관리 등 서원 살림 전반을 감독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 이가 원장이다. 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소수서원 ‘斯文立義’에는 “원장 1인을 常定하여 제사·유생의 공궤 및 소속 인물·사찰·전답·재물·器具·院舍間閣 등 대소사를 아울러 專掌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sup>6)</sup> 一院之長인 원장에 부임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할까? ‘학문에 종사하며 믿음과 신중한 자,<sup>7)</sup> ‘여러 사람이 높이 받들고 복종하며 한 뜻으로 공경하고 신의가 있는 자,<sup>8)</sup> 쉽게 말해 원장은 명망가를 추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실무는 유사가 담당했다. 원장과 원생 중간에 위치한 유사는 언행을 조심하고 학문이 정밀한 사람으로<sup>9)</sup> 원장을 보필하면서 일상적으로 서원에 일어나는 각종 대소사를 주관하는 직무를 담당했다. 임기가 보장된 유사 이외에도 서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시 유사를 선임해 사업을 진행시켰다. 아래 표는 남·서인계 원임의 조직, 임기, 신분을 간략히 비교해 본 것이다.

<표.1> 남·서인계 원임 비교

구 분	남인계 서원	서인계 서원
조직	원장 - 유사	원장 - 掌議 - 유사
임기	1~2년(중임·재임)	종신 - 1~2년
신분	하급관료, 司馬, 유학 등	중앙고위관료, 대학자, 지방관 등
선임	入院生 중 선출	관료, 入院生

남인계는 전술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남인계라 하더라도 영남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남인계 서원인 나주 眉川書院[享 허목]의 원임 구성은 오히려 서인계와 흡사한 점이 그러한 사례이다.<sup>10)</sup>

4) 이에 대해서는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5)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양상과 위상 변화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40쪽.

6) 「소수서원 斯文立義」,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p.111, 재인용.

7) ‘業文信愼者’, 「소수·옥산서원 원규」.

8) ‘衆所推服 一意敬信者’, 「도동서원 원규」.

9) 「도동원규 - 擇有司」.

10)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p.113~115.

서인의 영수 송준길 현손 宋來熙는 무려 10개소의 서원 원장을 겸직했다. 서인계 서원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체로 서인계 서원의 원장은 상징적인 명예직에 가까웠고,<sup>11)</sup> 실질적 업무는 장의가 처리했다. 서원의 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魯岡·竹林書院<sup>12)</sup>처럼 首院의 장의는 지방관 선임이 원칙이었다. 이와 달리 영남 서인계 서원의 장의는 향내 인사가 주를 이루었다.<sup>13)</sup>

양 당파를 대표하는 도산서원과 화양서원의 원장 비교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해보자. 도산에는 1573년(선조 6) 경 ~ 1895년(고종 32)까지 466명이 원장으로 부임하였다.<sup>14)</sup> 반면 화양서원의 원장은 1695년(숙종 21)~1852년(철종 2)까지 18명에 불과하다.<sup>15)</sup> 이 부분이 두 서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임기도 이와 짝을 이루어 도산은 평균 6개월에 그치지만, 華院은 8년 7개월에 이른다. 전자는 원장 수 확대를 통한 우호세력 확보를 추진하였고,<sup>16)</sup> 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인 京院長制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남서 간 정치적 성쇠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서원 운영에 대한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도산서원에서도 1798년(정조 22) 남인의 영수 채제공·韓致應을 원장에 초빙한 예가 있었으나 단 2회에 그쳤을 뿐이다. 장의 또한 화양에서만큼은 종신제로 운영되었던 점도 특기할 만하다.<sup>17)</sup>

원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당상관 이상으로 도산의 원장이 된 자는 19명<sup>18)</sup>인데, 이마저도 전직관료들이자 퇴계 후손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비해 화양의 원장은 조정의 公卿·宰相 및 대학자들이 포진해 있다.<sup>19)</sup> 이러한 차이에는 남인계 서원이 퇴계 서원론의 영향을 받아 서원 운영에서 관권을 배제한 자치적 요소를 강조한 면도 작용하였으나, 이보다는 정계에 밀려난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화양서원의 예는 서인계 서원이 집권 세력과의 상호 제휴 속에서 운영되었던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兩院의 원장 선임 형식을 비교해 보면 도산은 주로 입원록에서 원장을 선출했고 화양은 전술한 추대 형식 통해 원장을 선임했다. 도산의 입원록인 『遊院錄』[1576년(선조 9) ~ 1773

11) 원장 1명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京원장, 副원장, 鄉원장으로 세분된 체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12) 魯岡書院 : 享 尹煌·尹文舉·윤선거·윤증, 竹林書院 : 享 이이·성혼·김장생.

13) 송시열 등을 제향하고 있는 성주목 老江書院의 장의 구성원 전부가 향내 인사들이며, 단 1명의 관직자도 없다. 채광수, 「老江書院의 연혁과 인적구성」, 『민족문화논총』 제60집, 2015, p.336.

14)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15)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 담론』 18, 1990, p.157, <표>4 화양서원역대 원장 재인용.

16) 전용우, 「앞의 논문」, 1990, p.157.

17) 같은 서인계 서원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石室書院[享 김상용·상헌 外]은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도산서원 당상관 이상 원장 명단 : 琴愷·채제공·조덕린·姜潤·柳相祚·金熙周·한치응·李彦淳·李東淳·류이좌·李孝淳·李彙溥·류후조·李彙承·李晚運·李彙秉·李晚耆·李晚由 등

19) 정읍 무성서원에서는 원장 자격에 관해 '京鄉文蔭官 三品以上 年高德望'으로 규정되어 있다. 『武城書院誌』 권下, 「本員任員 選任規例」.

년(영조 49)]을 통해 원장에 오른 입원생은 중복을 포함해 114명이었다. 영남 남인계 서원의 입원생에 한정해 원임을 허락하는 방안은 하나의 규례였다.<sup>20)</sup>

그런가 하면 화원에서는 李秀彦을 필두로 권상하·鄭濤·민진원·이의현·李緯·박필주·민응수·조관빈·유척기·윤봉구·김원행·김량행·송덕상·김종수·송환기·남공철·조인영 등 서인계를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화양이 서인[노론]의 首院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원장에 추대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 2. 중국서원의 원임

중국서원은 唐代에 출현했다고 하나, 정확한 始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私적으로 공부하는 서재와 官府의 藏書處, 즉 民·官 양측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民에서 세운 최초의 서원은 攸縣의 光石山書院, 최초의 官立 서원은 麗正<sup>21)</sup>·集賢書院<sup>22)</sup>으로 알려져 있다. 후자는 왕실 서적을 소장·관리하던 도서관적 기능을 띤 기구에서 발전한 곳이다. 당대부터 출발한 중국서원의 역사는 민관의 협력 속에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당대~五代 말기<sup>23)</sup>를 초기서원 시기로 간주하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때 70개소의 서원이 존재했다.

北宋 대 서원의 흥성은 단기간에 관학 체계를 회복할 수 없어 나타난 변통의 결과였다. 이에 잠시 관학의 역할을 대체했지만, “正途” 곧 전통적으로 사인을 양성할 수 있는 관학 역량이 회복되자 서원에 대한 지원은 약화된다. 북송 중·후기에 이르면 백록동서원을 비롯해 많은 서원들이 폐지되고, 지방 州·府·縣의 관학체제로 편입된다. 그렇지만 북송 서원은 관학을 모방해 강학·장서·제사·學田 네 가지 기본 제도를 갖춘 부분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학의 색채가 강해 각 서원 고유의 특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강학 내용도 독서 단계에 머물렀으므로, 서원에서의 새로운 학문 모색이나 학술체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南宋은 서원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大儒의 선도 아래 서원이 일종의 문화교육제도로 안착한 것이다. 아래 3가지가 그 表證이라 하겠다.

첫째, 서원과 理學의 일체화 시작을 꼽을 수 있다. 남송의 대유들은 당대부터 내려온 서적 정리 및 학술 계통을 정리하고, 서원을 근거지로 삼아 각지의 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자신들의 학파를 경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학술과 서원이 변영기로 접어들고, 서원과 학술이 일체화되는 전통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서원은 중국 학술 발전을

20)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p.109.

21) 여정서원 : 당 현종 연간 낙양에 설립된 서원이다.

22) 집현서원 : 당나라 이래 황실의 도서관적 기능을 한 곳이다.

23) 618년~960년, 총 342년이다.

촉진하는 주요 구심처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완전한 서원 교육제도의 수립이다. 남송의 서원은 관·사학의 경험과 교훈을 흡수했을 뿐 아니라, 禪宗의 종림·정사, 道家의 강학 방식까지 차용하였다. 이러했기에 서원의 목적·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여타의 학술·교육시스템과는 차별되었다. 북송 대 서원이 관학 대체 기구로서 잠시 발전한 것에 비하면, 남송 대 서원 제도의 형성은 중국 교육 사업이 관학, 서원, 사학이라는 三輪 구조로 나아가는 시대를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서원 내부 구조의 완비, 관학에서 탈피한 고유한 특색을 지닌 제향인 봉안, 각 서원의 보편적 경제적 기반 구축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한편 남송 대 서원은 山長負責制와 黨長負責制하에 교사·생도·교육·경비관리 체제가 확립되었다.<sup>24)</sup> 이를 세분하면 교사에 대해서는 주로 산장의 임명과 이에 포함되는 각종 자격요건 기준이, 생도에 대해서는 入院 시험·합격 규정, 인원수 제한, 학업·덕행 요구 조건, 언행 통제, 시험, 상벌제도 등이 확립되었다. 교육 면에서는 산장이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생도는 일일 4회 수업 참여와 동시에 매월 정기 시험을 필수로 거쳐야 했다. 경비 관리 면에서는 예산 지출, 분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북송 시기에 유명했던 강서 백록동서원, 하남 應天書院, 호남 嶽麓書院 등은 꽤 세밀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송 시기에 접어들면 그 구조가 더욱 구체화한다. 북송 대에는 산장과 洞主라는 직책만 보이는 반면 남송 대 규모가 큰 서원의 경우 산장 - 副山長 - 堂長 - 堂錄 - 講書 그리고 각종 실무직들이 존재했다.<sup>25)</sup>

公立서원의 산장은 대부분 현지 州學 교수가 겸직하거나, 지방 행정 장관으로부터 초빙된 저명한 학자가 담당했다. 송대 理宗 이후에는 정부가 규정을 통일하여, 과거합격자 또는 太學 졸업자 가운데 교직 담당 기준에 적합한 관원을 조정에서 엄선한 뒤 산장에 임명했다. 그런 만큼 산장에게는 급료가 지급되었다. 이는 산장의 학술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면서도 관학의 서원화를 가속화했다.<sup>26)</sup> 생도 역시 북송보다 훨씬 증가함에 따라, 내부 조직구조는 더욱 정밀해졌다.

중국서원의 원임은 시대·지역·서원별로 편차가 심해 그 종류와 업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선행연구를 근거하면 대체로 <표.2>처럼 요약할 수 있다.

24)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167~168쪽.

25) 이는 서원의 규모에 따라 상이했다. 관부에서 관리하던 중·대형 서원의 경우에 당연히 직책이 비교적 많았을 것이다. 예컨대 천하 4대 서원 가운데 최고로 불리는 악록서원의 경우 송대에 이미 산장, 부산장, 당장, 講書, 講書執事, 司錄, 齋長 등 다양한 직책이 보인다. 반면 간단하게는 산장 한 사람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26) 범혜한,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5, 68쪽.



<표.2> 중국서원의 원임 종류와 업무<sup>27)</sup>

직책	주요 업무	비고
산장	총 책임자	·청대 이후 院長으로 개칭, 關防에서는 산장, 원장을 병용. ·높은 학식과 덕망, 지역의 학술적 유명세 등 고려 임명. ·별칭 : 산장·山主·동주·主洞·洞正·館師·掌教·院師·主講. (관사·장교·원사·주강 명칭은 明清 이후 자주 출현)
당장	교육, 연구, 행정	·송대 서원과 서당이 혼용, 당장이 산장의 별칭인 경우가 많았음. ·일부 서원 산장 아래 직급으로 당장 설치 : 악록·백록동서원. ·원·명대 이후 당장 지위 하락, 院生 대표의 명칭으로 변함. : 수업 기록, 생도의 질의응답 수집, 시험 책임 등 업무.
學長	교육, 연구	·백록동서원 : 禮·樂·御·謝·書·數·曆率 7과목 교사로 각 학장을 둠 ·청대 이후 학생 대표 명칭으로 쓰이기도 함.
分校	교육	·청대 광주 廣雅書院에 보이는 직위. 學長과 유사.
講書	교육 (學官 업무)	·송대부터 시작된 명칭. 일반 교육업무.
訓導	교육	·본래 관학 명칭, 원대 서원 관학 체계 유지했기에 서원에서도 사용 ·백록동서원에서는 명대에 설치.
經長	교육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나, 백록동서원에서는 5명의 경장을 두어 각기 역경, 상서, 시경, 예기, 춘추를 교육.
助講	교육	·거의 쓰이지 않는 명칭.
都講	교육	·上同
司錄	교육 기록	·서원의 수업, 행사 내용을 기록함.
會主	교육 사회자	·서원의 수업, 행사 사회자.
會長	강학 및 학술 고문	·강회와 文會 회장으로 구분. ·강회 회장 : 강학회에서 행사 진행에 학술적 의견 제시. ·문회 회장 : 학자들의 문장 비판, 질정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
教主	학술활동 대표	·각종 강학 및 학술활동을 주도, 참여.
知賓	내빈접대	·외부 학자 초빙 강회 시 접대를 맡고 강당을 활용하도록 함.
司書	장서관리	·장서 등록, 관리, 보충
掌書	장서관리	·청대 광동 지역 일대 서원에 보이는 명칭 ·광아서원에서는 생도가 담당한 직책
司事	장서행정	·주로 서적 보관·대출 업무, 생도 중 졸업 성적이 우수한 인물 임명.
主奉	제례	·산장이 유고 時 제사 업무 주관 및 담당 (산장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짐)
主祠	제례, 교육	·송대 道州 濂溪書院(주돈이 享)에 보이는 명칭, 제례와 교육 담당.
掌祠	제례	·송대 서원에 자주 보임. 香火·제기·공물 준비 등 관리 업무 담당. ·보통 토호를 천거하거나 생도를 선출하여 임명.
監院	행정	·행정 직위로는 산장 다음 권한을 지님 : 업무 총괄. ·명대부터 설치되어 청대에 보편적 직책이 됨. ·유사 직책 : 院總, 生童監院 등.
總辦	행정	·항주 求是書院에 설치된 직책.
掌管	행정	·감원 업무 보조 및 실무, 산장 초빙 업무.
監理	행정	

27) 陳谷嘉·鄧洪波,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105~120쪽 참조해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董事	행정	·청대 서원에 주로 설치, 토호 중 임명. ·董正, 董副, 監院董事 등으로 세분화.
司事	행정	·행정 실무 담당 : 청대 서원에 비교적 많이 설치. ·서원에 따라 각기 다름 : 수업 공지, 명단 등록, 음식 준비, 생도 출입 관리, 장부 회계, 서적 및 서가 관리 등.
錢糧官	재무	·송대부터 설치, 司計를 따로 설치해 전량관 보조 실무 담당.
直學	행정	·송대 대학에 근거 : 송대에는 생도의 생활 및 덕업 기록. ·백록동서원 : 생도 대표를 뽑아 당장 직속으로 설치.
經理	재무	·조세, 이윤, 경비출납, 장부 담당.
司計	재무	·송대 서원에 설치 : 주로 서원 졸업생이 담당.

이와 같이 중국서원에는 한국 서원보다 훨씬 다양한 직제와 직무가 실재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송대 서원 중 조직 체계가 가장 완벽했던 建康府 明道書院을 살펴보자. 이 서원에는 산장·당장·提舉官·堂錄·講書·堂賓·直學·講賓·錢糧官·司計·掌書·掌議·掌祠·齋長·醫諭 등 총 15종의 직책이 있었다. 우선 크게 직무별로 교육과 행정 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산장·당장·당록·강서는 중요 직책이기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뒤 ‘山長位’, ‘黨長位’, ‘堂錄位’, ‘講書位’라 불렀다. 지위가 제일 높은 산장은 교무를 주도하며 생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매월 3차례 시험 날과 1·3·6·8일 강학 때 來院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때 당장은 산장 보조 역할을 했고, 평소에는 서원에 상주하며 업무를 주관했다. 다른 직책에도 체계적으로 업무가 분담되어져 있어 서원에서 일어나는 교육·연구·제사·도서·경비 등을 직책에 맞게 수행되었다. 참고로 의유는 건강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산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취임했다. 하나는 지방 유지나 학자가 서원을 창건해 스스로 산장을 맡는 例이다. 예컨대 1182년(元豐 5) 程颐는 伊皋書院을 창건해 산장을 맡았고, 陸九淵은 1187년(淳熙 14) 象出精舍를 세우면서 초대 산장에 올랐다. 다른 하나는 산장을 초빙하는 경우이다. 서원을 만든 뒤 유명한 선생을 산장으로 초빙하는 것이다. 1166년(乾道 2) 호남의 安撫使 刘珙은 湖湘學의 최고 권위자 張栻을 악록서원으로 모셨다.

그러나 산장 제도는 시기와 서원에 따라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潮州 韓山書院은 백록동서원을 좇아 다음과 같은 원임체제를 운영하였다. “동주는 郡守가 맡고, 산장은 群博士가 맡는다. 실무는 당장·사계를 1인씩 두고, 재장은 4인을 둔다.”<sup>28)</sup> 이처럼 동주 아래 산장이 있기도 했다. 여기에서 동주는 일급 지방 행정 장관인 군수가 맡은 것이다.

한편 당장부책제는 서당과 서원을 혼용해 어떤 서원은 당장이 산장의 직능을 행사함에서 비롯된 남송대 특유의 현상이다. 九江 濂溪書院이 대표적인 곳이다.

28) “洞主, 郡守爲之, 山長, 群博士爲之. 職事則黨長, 司計各一員, 齋長四員.” 『永樂大典』, 卷五三四三, 「宋潮州韓山書院」

### III.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의 원장 비교

#### 1. 소수서원의 원임

「白雲洞書院規」의 원임은 원장 - 院貳[부원장] 각 1인이 院事를 주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紹院의 「任事錄」을 분석한 결과 원장 - 유사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는 보여 15~16세기에는 원장 - 監官[유사], 18세기에는 일시적으로 원장 1인 - 별유사 2인 - 상유사 1인 체제<sup>29)</sup>, 이후 다시 원장 - 유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기존에도 별유사가 존재했으나 「임사록」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가 1708년(숙종 34)에 다시 기재하였다. 상유사는 1772년(영조 48) 부터는 목격되지 않는다.

紹院의 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業文信愼者 1人을 원장으로 한다”<sup>30)</sup>는 조목이 원규로 제정하였다. 초대 원장으로는 이에 걸맞게 金仲文을 선임했다. 서원 창건 시부터 크게 힘쓴 점과, 마음 씀씀이가 지극히 전일하고 제사의 주관과 접빈객에도 시종 한결같은 근신한 인사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집 또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sup>31)</sup> 주세붕은 그를 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이를 天爵의 영화로운 자리라고 표현했다.<sup>32)</sup> 그러나 원장에 오른 김중문은 직책을 처음 맡아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서원 운영이 미숙해 院中の 소란을 야기했고 公館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이황은 원장의 처신을 염려하면서 해결책을 조언해 주었다.<sup>33)</sup> 이처럼 원장은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 그 때문인지 2대 원장부터는 김중문처럼 장기간[11년] 원장을 지낸 인사는 배출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이 해를 바꾸며 중임하는 원장은 여럿 있었다.

紹院에는 1542년(중종 37)부터 현대까지의 『임사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원임 구성과 정보를 알 수 있다.<sup>34)</sup> 이 명부는 紹院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 가능케 하는 유의미한 자료이다. 먼저 紹院의 창건부터 1900년까지의 원장을<sup>35)</sup>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 소수서원에 上有司가 임사록에 기재된 시기는 1708년 ~ 1723년, 1764년 ~ 1767년, 1772년이다.

30) 『列邑院宇事蹟』 紹修書院, 白雲洞書院規.

31)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275쪽.

32)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508쪽.

33)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750~751쪽.

34) 9책의 『임사록』 가운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1책(1542~1718)·2책(1708~1794)·3책(1794~1898)과 4책(1898~) 일부이다.

35) 소수서원 원임에 대해서는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 38집』, 2007에 精緻하게 다루어져 있어 크게 참고가 된다.

<표.3> 소수서원 원장 현황

시기	원장 수	평균 재임기간	성씨 수	과거이력	%
16세기(1542~1599)	18명	3.1년	8개	11명	44.4
17세기(1600~1699)	137명	0.7년	17개	69명	12.4
18세기(1700~1799)	171명	0.6년	18개	99명	9.8
19세기(1800~1899)	331명	0.3년	24개	151명	7.2

먼저 계량적 특성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1542년부터 1900년까지 359년 동안 선임된 원장은 총 657명으로,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평균 재임기간은 16세기 3년 1개월, 17세기 7개월, 18세기는 6개월, 19세기 3개월이다. 17세기 이후부터는 재임기간이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남 서원의 대체적인 흐름이며, 원장의 서원 내 입지와 역할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 아니라 서원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1697년(숙종 23) 한 해에만 5명의 원장이 부임한 예도 있었다. 이처럼 잦은 교체는 사실 서원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장의 임기가 축소되었던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인사 부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未行公 또는 재직 중 부정, 개인적 사유 등 서원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했을 터이다. 未行公은 18세기 후반부터 관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19세기 접어들면 원장은 거의 一期享祀를 수행한 명예직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까닭도 작용했을 것이다.<sup>36)</sup> 6~7회 중임한 원장이 연이어 배출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紹院에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횟수는 무려 225회에 달한다.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한 원장들이 확인된다. 이를 다시 인원수대로 나열하면 2회 62명, 3회 16명, 4회 5명, 6회 1명, 7회 1명 총 85명이 중임했다. 이러한 양상은 1719년(숙종 45) 사마시 입격자 위주의 입원 자격을 罷格한 영향, 즉 입원생의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7차례 원장에 오른 생원 權俊臣은 재임할 무렵 동몽재 재정 확립, 西齋 증축, 임사록 修補 등 다방면에서 서원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

紹院의 규약을 보면 “본소의 임원은 반드시 文官과 생원·진사 합격자 중에서 선비로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정하고, 요행으로 입격한 사람을 안면에 구해되어 뒤섞어 천망하지 말도록 한다.” 라고 원임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다.<sup>37)</sup>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장 취임 당시 유학 신분의 비율이 50.5%로 절반이 넘는다. 右尹·承旨 등이 그나마 고위직이며, 대다수는 司諫·掌令·應教·校理·正郎·持平·正言·主簿 등 당하관 출신이었다. 아마도 지역

36) 이수환, 앞의 책, 2001, 일조각, 117쪽.

37) 소수서원, 앞의 책「소수서원 立議」, 2007, 292쪽.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인사들은 거개가 원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거주지가 파악된 원장 439명의 군현을 조사한 결과 순흥 236명, 풍기 67명, 榮川 43명, 안동 42명, 京 15명, 예안 12명, 예천 3명, 상주 5명, 원주 3명, 廣州·長湍 각 2명, 봉화·石城·수원·龍仁·昌寧·포천·함창·洪州·회덕 각 1명 등 20개 列縣에 분포했다. 여기서 지방관이 兼원장한 사례를 논외로 하면 11개 군현에 불과하다. 紹院은 철저히 향중인사, 곧 순흥, 풍기, 榮川 사람을 대부분 원장에 임명했던 것이다. 원장으로 서원에서 5리 내 거주자를 선호한<sup>38)</sup> 영남 남인계 서원 인식이 잘 녹아있다.

18세 중·후반 영남 首 서원에서 목격되는 외부 명망가를 추대하는 道원장제가 1788년(정조 12) 9월 紹院에서 결의되었다. 도산서원 사례에 의거해 도내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되 향중과 도내에서 돌아가면서 선임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았다.<sup>39)</sup> 이듬해 紹院에서 처음으로 외부 명망가 李光靖을 추대하면서 도원장제가 현실화되었다. 그는 형 李象靖과 함께 당대 영남을 대표했던 학자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사임단자를 제출했고, 그해 사망하는 바람에 부임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으로 湖學 계열의 원장이 연이어 임명되고, 이는 소수서원이 湖論의 정치사회적 입장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학 역시 자연스레 心學과 실천을 강조하는 湖學적 학풍의 분위기와 맥을 같이 했다. 이상정의 조카와 손자들이 원장에 부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1792년부터는 현직 순흥부사, 영천·풍기군수를 원장으로 추대한 사례가 산견된다. 한말까지 38명이 紹院 원장을 겸했다. 이들이 원장으로 재직한 시에는 중대한 일을 반드시 관가에 품신해 처리토록 조치했다.<sup>40)</sup> 특히 흥학에 관심이 높은 지방관이 원장을 겸할 경우 강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도산서원 1810년(순조 10), 병산서원은 1830년(순조 30) 지방관이 원장을 역임한 것에 비해 이른 시기에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시기 紹院은 養士廳이 폐지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가던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의 일환이었다.<sup>41)</sup>

사실 紹院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官權과의 깊은 밀착성을 꼽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황이 강조한 향촌자치체에 의한 서원 운영론과는 간격이 있으나, 소수서원은 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창건된 서원이고, 일찍이 관권이 서원의 행·재정 지원에 유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를 배제하지 않고 서원 운영에 적절히 활용한 제도가 兼원장제였던 것이다.<sup>42)</sup>

38) 『海東雜錄』 3, (『大東野乘』소재), “別擇業文信慎者 一人爲院長 又擇一人爲貳 共主院事 主院者 若遠居 則雖有至試 勢不得常常顧之 必至荒廢 須以五里居人爲可也”. 이수환, 앞의 책, 2001, 일조각, 107쪽, 재인용.

39) 『雜錄』, 「戊申年 九月 九日 完議」.

40) 소수서원, 앞의 책 「소수서원 立議」, 2007, 292쪽.

41) 김자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77쪽.

42) 소수서원의 ‘兼원장’ 제도에 관해서는 김자운, 「앞의 논문」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76~181쪽 참조.

한편 원장의 성씨 참여율은 44.4% ⇨ 12.4% ⇨ 9.8% ⇨ 7.2%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일부 성씨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상위 성씨는 중복을 포함해 김 101명·이 75명·권 62명·박 61명·황 70명·서 46명·안 38명 순이다. 이들의 성관은 의성·강릉·예안 김, 진성·예안·우계 이, 안동 권, 무안·함양 박, 창원·평해 황, 순흥 안이다. 즉 이들을 紹院 운영을 담당할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단일 성관에는 2대 원장인 權應參을 기점으로 한 안동권씨를 위시해 대구서씨와 창원황씨의 점유율이 높다. 반면 주향자 본손 순흥안씨는 16세기 3회, 17세기 15회, 18세기 3회, 19세기 10회, 미상 7회 총 38회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경상감사 등을 지낸 安珪를 위시한 순흥안씨 본손들이 紹院 창건과 재정기반 구축,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의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公論으로 건립된 서원이 일정 가문의 사유화될 혐의를 피하기 위해 본손들의 원장 참여를 지양하던 것이 관례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일까.<sup>43)</sup> 이러한 점은 도산서원의 경우 이황의 후손 진성이씨가 원임의 85%를 점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sup>44)</sup> 이를 17세기 이후 지역 내 丹溪·郁陽·龜灣·愚谷·道溪서원 등 서원의 증가에 따른 출입처 분산으로 보아야할 것인지는 추단할 수 없다. 이 점은 다른 영남 남인계 首서원에 나타나는 제향자 후손 증가 현상과 구별되는 紹院만의 특징으로 볼만하다.

紹院 원장의 또 다른 특징적인 대목은 초창기에는 도산과 같이 입원생 출신이 꽤 많다는 점이다. 1584년(선조 17)『임사록』1권 誌에는 원장은 모두 入院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sup>45)</sup> 1542년(중종 37)~1696년(숙종 22)까지 살펴보면 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619년(광해 11) 초대원장 金仲文을 예외로 하면 전부 紹院 출신 원장이다. 이들은 주로 20대에 입원해 유사를 거쳐 40~50대에 원장에 올랐다. 이같이 입원생 출신의 원장 취임은 영남 남인계 서원의 일정한 규칙이었다. 그러다가 1650년(효종 1)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는 非 입원생 출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노정된다.<sup>46)</sup> 이 또한 여타의 서원에서 보이는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음으로 유사는 서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원규에 ‘특별히 학문에 종사하면서 신실한 이 1명을 선택하여 원장으로 삼고, 또 한명을 선택하여 차석으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sup>47)</sup> 차석이 유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1인이

43) 이병훈, 「앞의 논문」『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56쪽.

44) 안승준, 「소수서원의 건립·운영과 안씨 본손들」『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사, 2019, 212쪽.

45)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725쪽.

46) 송정숙, 「앞의 논문」『書誌學研究 제38집』, 2007, 119~122쪽.

47) 같은 영남 남인계서원 도동서원규 ‘擇有司’ 조가 좋은 참조가 된다. “유사 또한 一院을 管攝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장과 원중이 상의하여 선택하되 반드시 純謹精詳한 사람을 얻어 임명한다.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一院之事에 봉사한다. 만약 마음을 씀이 羸悖하고 院事에 힘을 다하지 않거나 濫冒無恥하여 소문이 좋지 않은 자는 작은 일이면 원장이 신척하고 큰 일이면 院中에서 責하고 끝내 고치지 못하는 자는 원장과 원중이 같이 상의하여 추방한다.” 정구, 『寒岡續集』 권4, 「잡저-道東院規」.

유사를 맡았으나 이후 많을 때는 9명까지 서원 환경에 따라 인원 변동이 있었다. 9명까지 두었을 때는 상유사가 있던 기간이었다. 상유사는 유사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또 서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기도 했다. 『竹溪誌』에 산견되는 특수 유사를 발췌하면, 養士廳別有司·京有司·寶穀有司·別辦有司 등이다.

양사청 별유사는 일반 유사를 제외하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명칭이다. 양사청은 1749년(영조 25)에 강학의 안정적 재정의 틀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 양사청 별유사는 강학 재정 곧 院田 살림을 전담한 유사인 것이다. 양사청을 기반으로 강학활동을 이어갔으나 재정고갈로 인해 지폐를 거듭하다 결국 1792년(정조 16)에 완전 폐지되고, 양사청 별유사도 함께 사라진다.<sup>48)</sup>

경유사는 1779년(정조 23) 채제공의 영정을 봉안할 때 재정세력의 도움을 받고자 前 참판 李益運을 선임한 사례이다. 紹院에서는 6차례에 걸쳐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는데 마지막인 채제공의 경우에만 경유사가 확인된다.

보곡유사는 원래 유생의 공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직이었다.<sup>49)</sup> 1629년(인조) 1월 미상환자와 서원 5~7리 안에 있는 자는 보곡유사에 천망하지 못하게 하는 立議<sup>50)</sup>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 보곡을 관리·감독해야 할 유사가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개인적 치부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원 인근 거주 유사가 그런 빈도가 높았기에 차단한 조치인 듯하다.

별변유사는 1780년(정조 4) 金燦元 1명이 「임사록」에서 확인이 된다. 다른 문서상에서는 당시 김찬원이 養士有司로 나오고 있어 별변유사가 양사유사의 다른 이름인지는 불명확하다.

서원에서 특별한 사안이나 사업이 있으면 도감을 설치해서 공사원을 差定해 진행했고, 강학과 관련해서 훈장·考官을 위촉해 시행하는 등 더 많은 非상설직이 있었을 것이다.

## 2. 백록동서원의 원임

백록동서원은 石鼓書院, 應天府書院, 嶽麓書院과 함께 4대 서원으로 추앙받는 중국의 대표 서원으로, 당대 여산국학에서부터 남송을 거쳐 명·청대까지 당대 학술을 주도한 입지전적인 역할을 한 서원이다.

白院의 전신 여산국학은 940년(昇元 4)에 창건되었다. 「白鹿洞賦」에는 “남당 승원 연간에 백록동서당을 인준하여 學館을 세우고 토지를 주어 여러 생도에게 음식을 제공하니 학

48) 김자운, 「앞의 논문」『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14~120쪽.

49) 김자운, 「앞의 논문」『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78쪽.

50) 소수서원, 앞의 책「士林立議」, 2007, 281쪽.

자들이 크게 모여들었다. 이에 국자감 九經박사 李善道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했다<sup>51)</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산국학은 과거 인재를 양성에 교육목적을 둔 교과를 설정했고, 생도 수는 많을 때는 몇백 명 이상이었으며 평상시에도 백여 명 선을 유지하였다.<sup>52)</sup> 그러나 관의 서원전담 귀속에 따라 재정이 피폐해져 갔고,<sup>53)</sup> 976년(開寶 9년) 남당이 멸망하자 여산국학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산국학의 경영법과 교육 방식 등은 향후 白院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북송 초(976-977) 江洲지방 학자들에 의해 舊여산국학 터에 소규모로 白院이 재건되었다.<sup>54)</sup> 재건한 白院의 생도는 수십 명에서 약 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나,<sup>55)</sup> 이후 추이는 고증하기 어렵다. 다만 977년(太平興國 2) 송 태종이 지방관의 요청에 부응해 九經을 하사했고, 향시 수 백명의 생도들이 운집해 학문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태종은 서원 운영에 공로가 컸던 동주 明起를 蔡州 褒信縣 主簿로 임명하고 표창하기도 했다.<sup>56)</sup> 이어 1002년(鹹平 5)에는 白院의 보수 및 공자와 제자상을 彫塑해 서원을 일신했다. 1053년(仁宗 皇祐 5)에는 孫琛이 백록동에 學舍를 건립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선비들을 맞이했다. 이때 ‘백록동서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이듬해 전쟁으로 파괴되고 만다.<sup>57)</sup> 북송 대의 白院은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남송 대는 오늘날 학계에서 조망하는 白院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다. 그 중심에는 理學의 집대성자 주희가 있었다. 주희는 1179년(淳熙 6) 南康軍知事에 임명되자 白院 복원에 착수했고, 1181년에는 황제로부터 賜額을 받아 국학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가 白院을 복원한 동기는 유가적 교육목적관 확립 - 이학의 전수, 斥邪衛正觀에서의 서원교육 필요 - 민족사상의 고취, 현실적인 교육시폐 척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58)</sup> 주희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이 모두 67개에 달할 만큼 서원 부흥에 열정적이었다.<sup>59)</sup>

白院을 복원한 주희는 당초 몇몇 학자들을 초빙하여 직무를 맡기려다 무산되자 스스로 초대동주에 올랐고 원생 20여명을 모집해 『중용』1장 강론을 선보였다.<sup>60)</sup> 주희는 「백록동

51) 『竹溪志』, 권5, 雜錄, 「白鹿洞賦」. 다만 중국학자 李才棟은 여산국학은 남당의 국학으로, 이는 후일에 여산국학의 터에 설립된 ‘향당지학’인 백록동 서원과 본질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백록동 서원의 시작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서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 관점으로 보인다.

52) 李才棟, 「北宋時期白鹿洞書院規模征實」, 『中國書院研究』, 2005, 1~8쪽.

53) 李燾, 『속자치통감 장편』 권21 「태종」, 310쪽.

54) 이 시기 백록동서원은 ‘서당’ 혹은 ‘학관’으로 불리었다.(李才棟, 『白鹿洞書院史略』, 教育科學出版社, 1989, 29쪽)

55) 李才棟, 앞의 책, 2005, 3~6쪽.

56) 주희 著·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서원의 수리를 보고하는 狀」 『주자대전 4』, 2010, 489쪽.

57)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22쪽

58) 정순목, 「한국서원 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총서 3』, 1979, 228~291쪽.

59) 한편 조선에서 서원의 정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이황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은 총 43개소이다.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총서』 제73집, 2019.



강회에서 卜丈의 운에 차운하다」라는 시에서 白院의 강학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집 담이 거칠고 무너져 몇 해를 지내니, 다만 찬 연기만 산골 물 둘러쌌네.  
집을 짓고 다행히 옛 경치 따라가니, 이름은 썼으나 유편 이음 허락하지 않았네.  
동주를 위하여 보답하지는 마시게, 푸른 구름과 흰 돌은 애로라지 취향이 같으며, 서간  
유공[劉渙]을 말한다  
달 개인 풍광은 다시 별도로 전할 것이네 濂溪 선생을 말한다.  
진중한 그 사이에 무한한 즐거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날아오르길 괴로이 부러워 마오.<sup>61)</sup>

그는 당대를 대표했던 학자 呂祖謙에게 「白鹿洞書院記」를 부촉했고,<sup>62)</sup> 스스로 「白鹿洞賦」와 「白鹿洞書院學規」를 지어 서원이 지향할 방향을 명시했다. 특히 「學規」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칙으로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희는 재임 중 陽日新을 당장에 초빙, 문인 劉靑之·林則之·王阮이 함께 강학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또한 유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등 문풍 진작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특강은 주희와 남송 대 학문을 양분한 육구연의 義利에 관한 講이 대표적이다. 주희는 이날 강학에 대해 “그가 밝혀 편 강론이 간절하고 명백하여 학자들의 은미하고 깊은 병통을 알맞게 지적한 것이어서 들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며 호평을 마지않았다. 또 오래되면 혹 잊을까 두려워 다시 육구연에게 써주기를 청하여 받아서 갈무리한다고 덧붙였다.<sup>63)</sup> 동시에 “무릇 우리 동지들이 이에 대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깊이 살핀다면 아마도 덕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혼미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학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희는 白院을 떠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였다.<sup>64)</sup>

주희 외 조사된 동주는 高懌인데 북송의 유명한 易學者 种放의 문인으로 經術에 뛰어났다. 그는 2차례나 동주에 올랐다.<sup>65)</sup> 주희가 복설한 白院은 이학 전파의 구심처가 되었고, 문인들은 스승의 서원론을 계승해 서원 정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희의 주요저작이 서원에서 모두 완성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sup>66)</sup>

아쉽게도 남송 대 白院의 기록에는 본고가 주목하는 서원조직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행히 명·청대 동주의 계보가 어느 정도 파악되므로 그 대체를 엿볼 수 있을 듯하

60) 주희 著·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여백공에게 답함 32」 『주자대전 7』, 2010, 541쪽.

61) 주희 著·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 강회에서 북어른의 운에 차운하다」 『주자대전 2』, 2010, 239쪽.

62) 주희는 여조검의 글을 동문 黃銖에게 隸書를 받아 각석했다. 주희 著·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여백공에게 답함 31」 『주자대전 7』, 2010, 535쪽.

63) 주세붕, 『(국역)죽계지』 권5, 「잡록 - 금계 육주부가 백록서당에서 강의한 글 뒤 발문」, 영주시, 2002.

64) 주세붕, 앞의 책 권5, 「잡록 - 백록동 임원에게 보낸 답서」, 영주시, 2002.

65) 孫彦民, 『宋代書院制度之研究』, 教育研究叢書(乙鍾), 1963, 103쪽.

66) 이존산 著·김홍수 譯,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 『안동학 연구』 제11집, 2012, 139쪽.

다. 명·청대 白院을 거쳐 간 동주는 각각 57명과 45명이다. 특히 명대는 1522년(嘉靖)~1619년(萬曆) 41명이, 청대는 1662년(康熙)~1795년(乾隆) 35명으로 이 시기에 집중이 되었다. 두 시기는 白院 발전의 절정기였다.

먼저 명대 白院의 동주 계보는 완벽하게 世傳하지는 않지만, 사료를 다방면으로 취합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정리하면 <표.4>와 같다.<sup>67)</sup>

<표.4> 명대 백록동서원 동주 명단<sup>68)</sup>

성명	본적	신분	재임연간	성명	본적	신분	재임연간
汪康	江西星子	進士	正統	許惟德	미상	寧國府教授, 訓導	嘉靖연간
方文昌	浙江杭州	訓導	景泰연간	瞿九恩	安徽黃梅	從耿定向遊	嘉靖연간
李昊	江蘇南京	鄉貢進士	1458년 (天順2)	朱勳	安徽滁州	安福訓導	嘉靖 ~萬曆
周孟中	江西吉安廬陵	進士, 廣東布政使, 左副都禦使	1466년 (成化2)	熊敦樸	四川富順	進士, 通判, 書院 教事	萬曆 이후
胡居仁	江西餘幹	布衣	1467년 (成化3)	趙參魯	浙江寧波	高安典史, 福建提 學, 南京刑部尚書	1574년 (萬曆2)
查杭	江西星子	布衣	成化연간	鍾譔	江西瑞金	南康府儒學訓導 동주 겸 직	1575년 (萬曆3)
袁端	甘肅通渭	劍州 判官	1469년 (成化5)	周傑	安徽六安	平湖·長興·臨江 府學教授	1575년 (萬曆3)
丁煉	江西豐城	淳安知縣	1479년 (成化15)	章潢	江西南昌	布衣	1582년 (萬曆10)
彭治	江西新餘	미상	1493년 (弘治6)	周偉	江西星子	星子縣 學訓導	1592년 (萬曆20)
婁性	江西上饒	進士, 南京 兵部郎中	1498년 (弘治11)	支如璋	江蘇昆山	舉人, 本府 同知	1597년 (萬曆25)
黃珠	福建莆田	舉人	弘治연간	舒日敬	江西南昌	진사, 知縣, 教授	1617년 (萬曆45)
董遵	浙江蘭溪	미상	正德연간	陳琦	福建閩侯洋 頭村	進士, 府學教授	萬曆연간
蔡宗充	浙江山陰	진사, 太學助教, 南考功郎, 四川提 學僉事, 福建 興化 府 入學教授	1521년 (正德16)	張三鳳	江蘇鹽城	主洞事, 訓導	萬曆연간
魏良器	江西新建	布衣	1531년 (嘉靖10) 전	何端表	廣西平樂	訓導	萬曆연간

67) 葉夢晨, 「明清時期白鹿洞書院洞主考論」, 江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11-14쪽.

68) 선행연구에서 밝힌 사료의 출처는 『康熙新建縣誌』, 『同治峽縣誌』, 『萬曆泰州志』, 『四書人物考』, 『新餘縣志』, 『湖廣通志』, 嘉靖『永嘉縣志』, 嘉靖『通許縣志』, 康熙『高安縣志』, 康熙『良鄉縣誌』, 康熙『徽州府志』, 乾隆『濟源縣志』, 乾隆『棗陽縣志』, 同治『南康府志』, 同治『進賢縣志』, 萬曆『南安府志』, 萬曆『福安縣志』, 萬曆『鹽城縣志』, 萬曆『永安縣志』, 明程敏政『篁墩 文集 卷69』明周偉『白鹿洞書院志』, 吳國富編『白鹿洞書院』, 章學誠『瞿九恩傳』, 正德『建昌府志』, 陳敏政『重建貫道橋記』, 『嘉昆山縣志』, 天啟『贛州府志』, 清毛德琦『白鹿 書院志』, 清錢正振『白鹿 洞書院志』, 清沈佳『明儒言行錄』이다.

吳國倫	江西興國	南康府 推官	嘉靖연간	謝敬躋	番禺	教諭	萬曆연간
劉世揚	福建福州閩縣	진사, 都給事中, 江西布政司照磨	1531년 (嘉靖10)	陳元琛	江西高安	建昌 教諭	萬曆연간
薛應旂	江蘇常州武進	진사, 浙江 慈溪 縣 知縣, 江西九江府 儒學 教授	1538년 (嘉靖17)	劉守成	江西南昌	訓導	萬曆연간
鄭守道	福建福州	南豐縣學 教諭	1544년 (嘉靖23)	劉汝芳	湖北宜城	舉人 本府同知	萬曆연간
馮元	廣東番禺	進士, 南昌府 儒學 教授	1547년 (嘉靖26)	楊聯科	河南孟州河 陽	本府訓導	萬曆연간
崔柏	미상	教諭	1553년 (嘉靖32)	陳維智	江西南昌	星子縣學 訓導, 通 判	萬曆연간
王世清	미상	미상	1554년 (嘉靖33)	黃佑	江西撫州廣 昌縣	府學訓導	萬曆연간
朱資	福建莆田	星子 教諭	1555년 (嘉靖34)	唐繼孝	江 西 興 國 湖廣興國	星子縣 學訓導	萬曆연간
王棟隆	江蘇薑堰	南城縣學 訓導, 深 州 學正	1558년 (嘉靖37)	餘文煒	安徽黃山歙 縣	府學訓導	萬曆연간
胡淑道	江蘇揚州	新喻縣 儒學 訓導	1559년 (嘉靖38)	李應昇	江蘇江陰	府推官	1662년 (天啟2)
貢安國	安徽宣城	湖口 訓導	1560년 (嘉靖39)	管天衢	江西臨川	建昌縣學 教諭	天啓연간
張拱極	江蘇鎮江丹徒	舉人	1563년 (嘉靖42)	朱之屏	重慶銅梁	舉人, 本府推官	天啓연간
陳汝簡	浙江溫州青田	府學 訓導	1565년 (嘉靖44)	李明睿	江西南昌	禮部侍郎典司	崇禎연간
王之臣	貴州省	府學 訓導	嘉靖연간	唐一魁	安徽績溪	府學訓導	崇禎연간
李資元	貴州恩南	府學 教授	嘉靖연간				

명대 白院 동주의 성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거 출신 동주가 51명으로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36명은 殿試를 거쳐 여러 관직을 역임한 인사들로 추정된다. 黃珠와 張拱極만 宦歷이 파악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고증되는데 관직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관료 출신 동주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으로 조정에서 白院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白院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위관료의 강학자 초빙, 교관 파견, 서원 운영비 보조 등 서원의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한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명대 초기 동주는 조정에서 임명하지 않고 지역의 포의와 토호나 지방관이 겸임했다. 후기에는 지방관이 겸임하거나 본인의 소관 하에 초빙하는 편이었다. 명대 白院의 동주 관직은 학술 업무에 종사하던 訓導[21명]·教授[7명]·教諭[4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지방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훈도·교수·교유는 명대 유학 교사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훈도는 교유를 보조하거나 직접 강학에 참여하는 직위이고, 교수는 府學에 속한 교관으로 대부분 진사 출신

이며, 조정에서 직접 임명했다. 교유는 현학에 속한 교관으로 舉人·貢生 출신으로 藩司가 선임했다. 이들은 동주 부임 이전에는 南康府 유학교수, 星子縣 교유, 부학 및 縣學 훈도로 재직하고 있던 경우가 빈번했다. 이처럼 동주가 관학 출신인 까닭에 명대의 白院은 講學式과 集徒式 서원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생도들에게 유학을 강론·토론하는 동시에 관학의 학술 정책과 일치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포의는 비록 과거·관료 출신은 아니나 胡居仁·魏良器·章潢은 서원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던 이력자들이다. 예컨대 호거인은 두 차례 동주를 역임하는 동안 서원 관리에 관한 이론 지식 체계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張元禎·周孟中 巨儒들과 자주 연락해 서원학과 과거학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원이 위치한江西에 적을 둔 자가 대다수로 지역성이 강했던 점도 짚을 수 있다.

다음은 청대는 명대보다는 12명이 적은 45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표.5>가 그것이다.

<표.5> 청대 백록동서원 동주 명단

성명	본적	관직	재임 연대	성명	본적	관직	재임 연대
熊維典	江西 建昌南城	官兵科給事中	1658년 (順治12)	史珥	江西鄱陽	翰林院庶吉士 改授主事	1769년 (乾隆34)
何孝先	江西瑞昌	書院副講	順治年間	候學詩	江蘇江寧	進士, 撫州知府	1780년 (乾隆45)
餘允光	江西奉新	建昌 教諭 書院副講	1660년 (順治17)	郭祚熾	江西星子	進士, 官通政司, 致士後主豫章	1785년 (乾隆50)
張世經	江西南城	府學 訓導 書院副講	順治年間	沈琨	浙江歸安	內閣中書	乾隆年間
李尚珍	江西瑞昌	貢生, 府教授	順治年間	謝啟昆	江西南康	兵部侍郎 都察院 右副都禦史巡撫廣西	1789년 (乾隆54)
楊日昇	浙江新城	府學教授 書院副講	1662년 (康熙원년)	楊倫	江蘇陽湖	進士, 荔浦知縣	乾隆年間
巫之巒	安徽當塗	司理南康兼督洞事	1662년 (康熙6)	左觀瀾	江西永新	通判, 安定縣知縣	1794년 (乾隆59)
廖文英	廣東連州	知南康府督洞學	1670년 (康熙9)	鄧夢琴	江西浮梁	進士, 漢中知府	1797년 (嘉慶2) 후
汪士奇	湖北湖廣	司理南康兼督洞事	미상	彭良裔	江西南昌	進士, 庶吉士	嘉慶年間
吳一聖	江西星子	舉人, 隱居 40년, 知府 廖文英 延請	1670년 (康熙9)	馬瑞辰	安徽桐城	星子知縣	1807년 (嘉慶12) 후
張自烈	江西宜春	廖文英守南康 재 임시 동주 초빙, 이후 知縣 부임	1674년 (康熙13)	吳嵩梁	江西東鄉	國子博士	1814년 (嘉慶19)
郭櫟	江西安福	福泉知縣, 建昌, 南康府教授	1723년 (雍正원년)	駱應炳	江西九江	進士, 知縣 15년 역임, 廣饒九分巡道祝麟聘	1830 · 1834년 (道光10 · 14)
王鼇	江西金溪	長清知縣, 귀향 후	1727년	帥方蔚	江西奉新	探花	1839년

		동주 초빙	(雍正5)				(道光19)
陶思賢	江西南城	九江府 教授	1733년 (雍正11)	徐謙	江西廣豐	進士, 吏部主事	미상
章國祿	江西瑞昌	廣東吳川, 廣寧知 縣 후 낙향	1738년 (乾隆3)	湯雲松	江西南豐	道光 10년 進士	1860년 (咸豐10)
張廷樞	江蘇江陰	進士	1743년 (乾隆8)	潘先珍	江西星子	進士	1861년 (咸豐11)
靖道謨	湖北黃岡	庶吉士	1745년 (乾隆10)	吳增達	江西南昌	翰林院庶吉士 郎中協戶部主事	1868년 (同治7)
熊直宋	江西南昌	進士, 廣昌知縣	1748년 (乾隆13)	謝章鋌	廣東長樂	內閣中書	1883년 (光緒9)
李金台	湖北黃陂	進士	1751년 (乾隆16)	張賡颺	江西鄱陽	進士, 刑部郎中 山西道禦史	1887년 (光緒13)
魏定國	江西廣昌	刑部右侍郎	1752년 (乾隆17)	華祝三	江西鉛山	進士, 禦史	1890년 (光緒16)
戴第元	江西大餘	進士, 太僕寺 少卿	1762년 (乾隆27)	陶福祖	江西新建	進士, 授戶部主事, 사직 후 귀향	光緒연간
顧鎮	江蘇常熟	進士, 國子監助教	1766년 (乾隆31)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선임했기 때문에 전 왕조와는 그 신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원 강학 정신과 방식 역시 이와 연동해 관학에 가까웠다. 물론 章丘縣 綉江書院의 경우 산장은 “공동으로 추천하며 원래 상관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보이기도 한다.<sup>69)</sup>

위 표에서 보듯 청대 白院의 동주 중 ‘포의’는 없고, 과거 합격 후 관직 역임자가 대다수이다. 이는 武城縣 弦歌書院 경우에서도 “교육담당 교사는 해당 지역 명사 중에서 文行을 겸비한 甲科 출신을 선임하고, 또 院內에 머물면서 강의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자리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sup>70)</sup>

동주는 이 가운데에서도 조정에서 직접 특정 관직을 임명했거나 재·퇴임 중 상급자가 동주로 延請해 부임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주의 관직을 열거하면 知縣 8명, 書院副講 5명, 庶吉士 4명, 司理南康兼督洞事·府教授·知府 각 2명 등의 순이었다.<sup>71)</sup> 지현과 지부는 지방관으로 배제해도 될 것 같고, 師長인 서원 부장은 그 자체가 관직이다. 사리남강검독동사는 애초 府推官을 거쳐 교관에 겸임시켰다가 본 관직을[督洞儒官] 신설해 현지 우수한 학자를 임명한 뒤 師弟의 녹봉 지급 등의 경제권을 부여했다. 이 관직은 청 조정의 서원 직영과 통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庶常이라고도 불리는 서길사는 진사 출신에

69) 道光, 『武城縣志』 권4. 이수환, 「朝鮮朝 嶺南과 清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 - 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제46집, 2010, 재인용.

70) 道光, 『武城縣志』 권4. 이수환, 「앞의 논문」 『민족문화논총』 제46집, 2010, 재인용.

71) 나머지 관직은 刑部郎中·官兵科給事中·刑部右侍郎·兵部侍郎·太仆寺少卿·國子監助教·通政司·揚州司理·通判·探花·吏部主事·戶部主事·內閣中書·禦史 각 1명씩이다.

황제의 조서 작성과 經籍 해설 등을 수행한 한림원 단기직이다. 한편 貢生 출신 6명도 눈길을 끈다. 공생은 府·州·縣의 생원 중 우수자에 선발되어 京師의 국자감으로 진학한 이를 말한다.

#### IV. 맺음말

이 글은 韓·中서원의 院任을 비교해 본 것이다. 좀 더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과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인 중국 백록동서원을 교차 검증하였다.

먼저 원임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먼저 한국서원은 향촌 내 명망가를 자율적으로 선임하였으며, 주로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서원 운영을 관장했다. 반면 중국서원은 크게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원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했고, 원장은 지방 관료 또는 대학자 초빙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국서원이 한국서원보다 원임의 직제가 보다 세분되어 있으며, 조직 규모가 더 컸다. 다만 한국서원은 관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서원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다.

다음은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우선 원장-유사 직제를 지향한 소수서원의 『임사록』을 분석한 결과 창건부터 1900년까지 거쳐 간 657명의 원장은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입원생 출신들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자가 무려 225회에 달했고,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하였다. 규약에는 文官과 司馬 합격자 중에서 원임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유학 신분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한편 이들은 주로 서원 인근 고을에 거주한 인사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姓貫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노정된다. 그러다가 18세 중·후반부터는 외부 명망가 또는 현직 지방관을 원장으로 삼아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특히 소수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 官權과 깊은 밀착성을 보인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는 상시 유사를 두면서 서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중국 4대 서원으로 추앙받는 백록동서원은 당대 여산국학부터 남송을 거쳐 명·청대까지 당대 학술을 주도한 입지전적인 서원이다. 여산국학은 국자감 九經박사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하며, 과거 인재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었다. 서원이 복원되는 북송 대에는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었다. 남송 대는 주자가 서원을 재건하여 백록동서원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 시기이다. 그는 스스로 초대 동주에 올라 원생을 모집해 강학한 것을 비롯해 堂長과 유명학자 초빙, 강학 업무 관장 등 서원의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백록동서원은 아니지만 송대 建康府 明道書院의 경우 산장·당장·提擧官·堂錄·講

書·堂賓·直學·講賓·錢糧官·司計·掌書·掌議·掌祠·齋長·醫諭 등 총 15종의 직책이 존재한 만큼 이와 유사한 원임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송시기 원임과 관련해 추가적인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행히 명·청대는 동주의 계보를 다소 파악하였다. 명대는 과거 출신 동주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이었다.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파견했다. 그래서 청대 때는 동주 중 ‘포의’는 없고, 과거 참여 후 관직 역임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 【참고문헌】

### ○ 원문

『四書人物考』, 『武城縣志』, 『嘉昆山縣志』, 『康熙新建縣誌』, 『建昌府志』, 『高安縣志』, 『贛州府志』, 『瞿九恩傳』, 『南康府志』, 『南安府志』, 『同治嶠縣誌』, 『良鄉縣誌』, 『萬曆泰州志』, 『明儒言行錄』, 『白鹿洞書院志』, 『福安縣志』, 『소수서원 任事錄』, 『新餘縣志』, 『鹽城縣志』, 『永嘉縣志』, 『永樂大典』, 『永安縣志』, 『濟源縣志』, 『棗陽縣志』, 『重建貫道橋記』, 『進賢縣志』, 『通許縣志』, 『湖廣通志』, 『徽州府志』, 『武城書院誌』, 『列邑院宇事蹟』, 『伊山院規』, 『竹溪志』, 『海東雜錄』.

### ○ 단행본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 ○ 논문

김자운,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孫彥民, 『宋代書院制度之研究』, 教育研究叢書(乙鍾), 1963.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 -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38집』, 2007.

안승준, 「소수서원의 건립·운영과 안씨 본손들」 『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사, 2019.

葉夢晨, 「明清時期白鹿洞書院洞主考論」, 江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양상과 위상 변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이수환 「조선조 영남과 清代 山東의 서원 비교 연구-인적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2010.

이수환, 「안동과 회주의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李才棟, 「北宋時期白鹿洞書院規模征實」, 『中國書院研究』, 2005.

이준산 著·김홍수 譯,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 『안동학 연구』 제11집, 2012.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 2021.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 담론』 18, 1990,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29, 2007.

정순목, 「한국서원 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총서 3』, 1979.

주희 著· 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서원의 수리를 보고하는 狀」 『주자대전 4』,



2010.

陳聯, 「중국 회주와 한국 영남지역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 청대 서원 학생 정원(名額) 제도 및 그 변천

—호남(湖南) 지역을 중심으로—

유명(劉明)

### 【국문초록】

청대 초기 서원은 명대의 강학 풍조를 계승하였다. 서원의 재사(齋舍)와 같은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서원의 졸업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도 안정적이었기에 생도의 정원에 관한 제도는 없었다. 서원의 고장(膏獎) 제도의 발전에 힘입어, 고화액(膏火額), 장상액(獎賞額) 제도가 출현하였다. 고장 제도는 또한 고정생액(固定生額), 고화액(膏火額), 상과장상(常課獎賞) 등으로 겸비되었다. ‘액외(額外)’ 제도 또한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수과고장(隨課膏獎)’, 전과장상액(專課獎賞額) 또한 출현하기 시작했다. 청대 말기에 이르러, ‘수과고장’ 제도 및 전과장상액 제도가 유행하면서 ‘액외’ 규모 또한 지속 확장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식 서원의 출현 또한 서원의 생도 정원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호남은 청대 서원 발전에 있어 중심 지역으로서, 호남을 중심으로 청대 서원의 생도 정원 제도 및 그 변화를 파악해본다면 서원의 학습 이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서원의 졸업생을 어떻게 확정하였는지, 심지어 서원 졸업생의 규모를 어떻게 특정하였는지 등의 의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원제도(名額制度), 고화액(膏火額), 상과장상액(常課獎賞額), 전과장상액(專課獎賞額), 수과고장(隨課膏獎)

## 清代书院学生名额制度及其变迁

### —以湖南为中心的考察—

刘明(北京师范大学社会学院 北京 100875)

#### 【中文摘要】

清初书院沿袭明代讲学之风,限于书院斋舍等条件,书院肄业规模较小且稳定,并无生徒名额制度。随着书院膏奖之制的发展,书院开始出现膏火额、奖赏额。膏奖之制又与住肄业相结合,从而出现书院固定生额。随着考课逐渐成为书院主导性制度,书院的名额制度呈现固定生额、膏火额、常课奖赏额等并存的形式,“额外”之制流行开来,“随课膏奖”、专课奖赏额也开始出现。及至晚清,“随课膏奖”之制以及专课奖赏额流行开来,“额外”之规模不断扩大。与此同时,新式书院的出现也使得书院生徒名额制度出现了新的变化。湖南为清代书院发展的重心区域,以湖南为中心厘清清代书院生徒名额制度及其变化,对于解答何为书院肄业、如何确定书院肄业生、如何确定书院肄业生徒规模等问题都有着重要意义。

关键词: 名额制度 膏火额 常课奖赏额 专课奖赏额 随课膏奖

作者简介: 刘明,北京师范大学社会学院博士后,主要从事近代社会史研究。

Email: liumingwtt@126.com。

# 清代书院学生名额制度及其变迁

## 一以湖南为中心的考察一

刘明(北京师范大学社会学院 北京 100875)

书院生徒名额制度指的是书院根据斋舍规模、经费等因素来确定录取生徒数额的制度，名额制度及实践为探讨书院之教育活动、成效及影响的基本立足点。以湖南书院而论，如何解释欧阳厚均掌教岳麓书院，弟子三千余；周玉麟掌教城南、求忠、岳麓书院，“与弟子藉者数千人”等史实<sup>1)</sup>如何理解关于陶澍、黄輿是否为岳麓书院学生的争论<sup>2)</sup>？诸如此类的问题都与书院生徒名额制度密切相关。然长期以来，学界的既有研究多未深究<sup>3)</sup>，因而谬误频出<sup>4)</sup>456-458，此种情形迫切需要厘清。

清代书院以“教养相资”为重要之特色，“教”以讲学、考课等制，“养”则以膏奖之制，皆为决定书院生额之基本因素。清初书院沿袭明代讲学之风，并无名额制度，其肄业规模的限制性条件主要为书院斋舍。随着书院膏奖之制的不断健全<sup>5)</sup>，膏火额、常课奖赏额开始出现，书院膏奖之制又与住院肄业相结合，书院固定生额也开始出现。清代中期，书院逐渐形成了以考课为主导性制度，以考课式书院为主流型式之情形。在此情形下，书院大抵以甄别录取定一年之膏火等第，称“常年膏奖”，而书院常课则另有奖赏，由书院日常经费保证并有常课奖赏额。此外，书院临时性的小课、加课、特课等考课形式则有专项经费保证并有专课奖赏额。及至晚清，“随课膏奖”，“即以一课之优絀，定奖银之等差”<sup>6)</sup>的制度形式愈益普遍，“额外”之规模不断扩大，专课奖赏额也愈益普

1) 杨布生.岳麓书院山长考.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86, 198,223.

2) 陶用舒.陶澍是否岳麓书院的学生[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1(9): 27-28;東華.黃輿是否岳麓书院学生[J].益陽師專學報,2001(5): 86-87.

3) 班书阁在《书院生徒考》一文中考察了书院“肄业生徒之定额”，认为书院生童正、副各课之额数，“则各视其地址人才经费而制宜，非定而不移者”。班书阁也注意到了表示“月课等次之高下”的超等、特等以及上取、中取与书院正课、副课的差别，认为两者不能等同，然并无进一步的探讨。班书阁.《书院生徒考》.女师学院期刊[J]. 1935(1):1-22.

4) 如杨念群根据诂经精舍及南菁书院规制中之额数及书院课艺集之情形进行分析，认为“按照最理想的状况估计，诂经精舍与南菁书院招收生员的总数相加仅2200-3000人”，并且将之与江浙地区生员数目作比较，因而认为“专以经古为业的士子人数在江浙区域学术圈的覆盖面仍相当有限”。杨念群.儒家地域化的近代形态—三大知识群体互动的比较研究.北京：三联书店, 2011年.

5) 书院膏火之制源自官学廩养士之制，书院膏火之设，原为住院者聊助薪水灯油之费，后代称书院发给肄业生徒的各项固定津贴，其形式包括膏火银、膏火钱、膏火米等等，其等第则多以正课、附课(副课)别之。奖赏，又称花红，本指士子中举或中进士之后的奖赏，书院奖赏则指考课录取后之奖赏，其等第多以超等、特等、一等别之。

6) (清)张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点.校经书院志略[M].长沙：岳麓书社,2012, 155.

遍。与此同时，新式書院的出現也使得書院生徒名額制度出現了新的變化。書院住院、考課、膏火、獎賞等制及其實踐之中的諸多情形共同形塑了不同書院的固定生額、膏火額(亦称課額)、常課獎賞額、專課獎賞額等諸多名額制度形式，而因書院肄業生徒又有“額外”等其他類型，故而書院肄業形式類型多樣，實際書院肄業規模亦往往与此類名額大相徑庭。

## 一、書院名額制度的出現

清初書院之興衰以湖南衡陽石鼓書院爲早。順治十四年，偏沅巡撫袁鄺宇請求重修石鼓書院，得清廷允准。書院有生徒肄業則遲至“康熙七年，知府張奇勛于大觀樓崇台之下立号舍二十余間，拔衡士雋者肄業其中，每月兩試之”<sup>7)</sup>，則生徒住院肄業且有考課之制。康熙二十四年，偏沅巡撫丁思孔主持修葺岳麓書院，“招致生徒肄業其中，設膳餼廩，每月課試者三，手自丹黃甲乙之，爲多士勸。越丙寅，而高明、中庸諸亭又成，藏修有所，游息有寄”，“捐俸購田三百余畝以資膏火”<sup>8)</sup>。則其時書院已有考課、膏火之制，生徒住院肄業，肄業規模大抵由齋舍而定，亦无名額制度。湘潭縣昭潭書院建于康熙五十九年，聶壽于乾隆十一年及二十一年兩次掌教書院，書院有講書、考課、祭祀等制，山長、生徒皆住院，亦无名額制度，肄業規模則“不下數百十人”。聶壽掌教情形：

春初入院，冬杪解席。《四書集注》逐字讲授，岁必一周。《五经》、《纲鉴》、《性理》、《近思录》，以次讲解，尤耽耽于《小学》一书。夜授古文时艺，手自批点，一堂歌诵，常至夜分。月定五课，俱在讲堂。鸡鸣即起，日昃缴卷。四书文一、经解一、诗一，寒暑昼夜，批改不倦。所取不拘一律，惟以理法为宗。发卷序齿为先后，标其优者，用资观摩。……朱、张、胡、真四贤祠近在院右，时率诸生入谒，以振其志气。……出必告，反必面。有告归省亲者，无不欣允。……自先生来主讲席，每年肄业者不下数百十人，相亲相敬，严惮自生。<sup>9)</sup>

湖南最早出現的書院名額爲膏火額、獎賞額，其中以永興縣安陵書院爲早。該書院爲乾隆十八年知縣康錫侯建，“就縣署東构講堂學舍二十余間”，“有書院而无膏火”。乾隆二十六年沈維基定規，書院甄別取錄內、外肄業生，其中膏火額爲“生員五名，童生五名”，“入內肄業冊，每名月給租谷五斗。”其余生童則列入“外肄業冊”。其獎賞額爲五名，每月十八日知縣課試考取，各有紙筆獎勵。“內肄業生童有學業荒疎者，降隸外肄業。外肄業生童有學業精進者，遷入內肄業。其有連三次詩文荒謬者除名。”<sup>10)</sup> 則書院雖肄業規模有數十人之多，而膏火額、獎賞額有限。此類

7) (清)李揚華撰;鄧洪波、劉文莉校點.國朝石鼓書院志[M].長沙：岳麓書社,2012, 212.

8) (清)趙寧纂修;鄧洪波、謝豐點校.新修岳麓書院志[M].長沙：岳麓書社,2011, 431.

9) 朱廷模.昭潭書院學約記.見鄧洪波.湖南書院史稿[M].長沙：湖南教育出版社,2012,685-686.

內、外肄業及膏火之制源自國子監之制。<sup>11)</sup>

書院名額制度的出現必定一定程度上限制了書院育才的規模，因此祁陽縣文昌書院于乾隆二十七年出現了“額外”之名額。通過甄別將生童分爲內肄業、外肄業、額外三等，膏火額四十名，其中內肄業二十名，“每月膏火銀三錢，薪水谷三斗”；外肄業二十名，“每月給紙筆銀二錢”；額外則不定額，允許參加書院考課。<sup>12)</sup>乾隆三十六年昭潭書院定規，“生員正課十名，每名月給膏火銀一兩，獎賞五名。童生正課二十名，每名月給膏火銀八錢，獎賞十名。”<sup>13)</sup>“有已經考取在外肄業者，仍准予會期附課。一月三課必須親到，不到者不收卷”。<sup>14)</sup>此種“額外”的肄業形式在考課成爲書院主導制度后逐漸流行開來。

隨着書院膏獎之制的不斷健全，<sup>15)</sup>書院膏獎之制與住院肄業相結合，書院開始出現固定生額之制，其中以岳麓、城南書院爲早。乾隆二十八年巡撫陳宏謀整頓兩書院，岳麓書院定規，肄業生徒由各屬保送或學政考取移送，“其零星赴轅求取者，一概不准”。生徒分正課、附課，“正課五十名，附課二十名”，“鄉試之年，增正課二十名，附課十名。”正課生員每名每月給銀一兩、食米三斗。附課生員每月課期二次，給紙筆銀五錢，應一課者減半，不赴課者不給，且無食米。則膏火額爲正課之額數，而正課、附課相加爲書院固定生額。此外，書院官、師課“毋論正課、附課，凡考前列，一併獎賞。一等不過五六名，二等倍之”，此爲獎賞額。生徒須住院肄業，有考課、講書、祭祀等制，“諸生告假，登記簿籍”，諸生須立功課簿。<sup>16)</sup>城南書院則僅有正課，膏火額正課生員二十名，童生二十名，生員肄業期內每月給膏火銀八錢，童生每名每月給膏火銀六錢，均每名月給食米三斗，則膏火額即爲固定生額。此外，書院官、師課取“一等一二名，二等倍之”，此爲獎賞額。<sup>17)</sup>寧鄉縣玉潭書院亦采此制，乾隆四十二年書院始添設膏火之制，“議每月每名給銀四錢，以二十名爲定”，諸生皆須住院肄業，規制極爲嚴格，除每日日程、考課等之外，還嚴格要求生徒住院肄業。<sup>18)</sup>

10) 乾隆永興縣志[M]卷二營建(三)。

11) 如李蒔在定文昌書院規制時即明確宣稱仿照太學內、外肄業之制，見同治祁陽縣志[M]卷之十九學校(下)。

12) 同治祁陽縣志[M]卷之十九學校(下)。

13) 張云璈.詳定昭潭書院章程.見鄧洪波.湖南書院史稿,690.

14) 潘世曉.昭潭書院學約八條.見鄧洪波.湖南書院史稿,686.

15) 對於大多數書院特別是縣級書院來說，膏火獎賞之制的健全是一個漫長的過程，如安化縣崇文書院創設于康熙三十一年，后迭次修繕，官紳亦迭有捐助，“書院租谷稞錢盡歸館師，而生童肄業者尚無膏火”。乾隆四十一年，官紳開始謀劃膏火之資，多方籌資并陸續購置田產，至嘉慶十五年合計每年可得“租谷二十石”，其中“抽出谷四石幫火夫薪水之資”，其余充爲膏火，而獎賞則無。道光十六年，陶澍捐置水田五十畝，每年租谷八十石，其中二十石作爲主講薪資，其余六十石以十月計算，每月谷六石爲考列上等生童，分別給予獎賞。嘉慶安化縣志[M]卷之七學校；同治安華縣志[M]卷十八公田。當然亦有書院建院之初即經費充足，此類書院大多級別較高，如常德府朗江書院創設于乾隆十六年，存膏火銀八千七百五十兩，發典生息，“每年一分二厘行息，共得息銀一千零五兩十兩，爲師生修膳膏火之資”，“每歲取正課生童四十名，附課生童四十名。”嘉慶常德府志[M]卷十五學校考；同治武陵縣志[M]卷之二十二學校志。

16) 陳宏謀.岳麓、城南二書院條規.見王曉天.新發現〈岳麓、城南二書院條規〉及其價值[J].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2):134-140.

17) 陳宏謀：《岳麓、城南二書院條規》，見王曉天：《新發現〈岳麓、城南二書院條規〉及其價值》，《湘潭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6年第3期。

## 二、考課制度主導下膏火額、獎賞額的泛化

自乾隆晚期以來，考課逐漸發展為書院主導性制度，書院住院肄業的形勢已經頗為嚴峻。<sup>19</sup>6嘉道年間，採取固定生額之制，要求生徒必須住院肄業的書院愈益減少，僅有如安仁縣宜溪書院、醴陵縣渌江書院等。宜溪書院約嘉慶十三年定書院條規及經費章程，“書院定額正課童生十二名，附課童生二十名，候本縣考取送學肄業，”“正課生童，每一名月給膏火錢六百文。附課生童，每一名月給膏火錢三百文。”書院有考課、講書、功課簿等制，並嚴格要求生徒住院肄業，“凡告假、銷假，均向掌教登簿稽考。不登簿告假而擅出者，以犯規扶出。”<sup>20</sup>渌江書院道光九年遷建于西山，書院齋舍有六間，“生童住齋者近六十人”<sup>21</sup>，“肄業只論居齋，不拘考取”，書院膏火經費由生童“自管自分”，“歷年肄業童生及生監居齋者，彼此通融收取，毋論生童，總照人數分給”，則書院按照住齋名額均分膏火。<sup>22</sup>道光十一年改章，要求不能住齋肄業之生童不必參加甄別。生童定額共八十名，生監正取十名，附取十名。童生正、附各取三十名。甄別課未被取錄之生童，“仍按其文理優劣，挨次填榜，無論人數多寡，統列額外附課”。此外，“未預甄別而愿住院肄業者”，若齋舍有空余，亦可入院肄業。書院規制嚴正，生童須住院肄業，有門禁、請假等制，且要求生童“生童各立功課簿一本”，記錄每日學習情況。另有考課之制，住院肄業之正、附生童可根据累計考課等第分給膏火。<sup>23</sup>

越來越多的書院逐漸取消了生徒必須住院肄業的限制，僅將住院肄業作為區別肄業生徒之待遇的一个重要依据，從而鼓勵生徒住院肄業，然其重要性也不斷降低。<sup>24</sup>554書院的名額制度則呈現固定生額、膏火額、獎賞額等并存的形式。龍陽縣龍池書院創設于嘉慶三年，定規每年十二月甄別收錄生員四十名，童生四十名。次年啟館後每月考課，分別正、副課給予膏火。“書院膏火生員正課二十名，每名錢一千文。副課二十名，每名錢五百文。童生正課二十名，每名錢一千文。副課二十名，每名錢五百文。其正、副課均以每月初三日官課為定。”此為膏火額。此外，又有獎賞

18) 周在熾.玉潭書院志.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M](四),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 535-536. 551-552. 565.

19) 道光元年湖南布政使程祖洛稱城南書院自乾隆十年重建于南門內都司廢署以來,“乃七十餘年以來,生童肄業者多而潛修者少”,“從前頗有借肄業之名,朋類相從,多為非法者,是以實學潛修之士,雖入院課而不居業其中。”(清)余正煥、左輔撰;鄧洪波、梁洋、李芳校点.城南書院志[M].長沙:岳麓書社,2012.

20) 同治安仁縣志[M]卷之六學校·書院.

21) 左宗棠.答周汝光.左宗棠集[M]第十冊,長沙:岳麓書社,2014,5.

22) 定書院規條公稟.文蔚起等修,劉青藜等纂.渌江書院志[M]卷首,光緒三年刻本.

23) 書院膏火規條.文蔚起等修,劉青藜等纂.渌江書院志[M]卷首,光緒三年刻本.

24) 道光年間,岳麓書院迫於形勢更改了正、附課生監必須住齋的規定,不住齋者亦給以膏火,甄別課人數由“不滿千人”激增為“三四千人”,“外侈聲華之盛,內結奔競之緣,百弊叢生,而寒畯之所苦者多矣。”咸豐十年,有士子上書希望能恢復陳宏謀所定住院肄業之舊制。(清)丁善慶纂輯,鄧洪波校点.長沙岳麓書院續志.長沙:岳麓書社,2011.



額，“每課獎賞額定生員前六名，童生前四名，均給予獎賞錢各二百文。”書院倡導生徒住院肄業，“如在外肄業，并非在院居住者，雖考列正、副課，只給一半膏火。”<sup>25)</sup> 芷江縣秀水書院道光十七年定條規，生員取正課十名，備取十五名。童生取正課十名外，備取十五名，此為固定生額。正課額數為膏火額，生員正課每名給銀三泉，童生正課每名給銀三泉，考課則則另有獎賞額。<sup>26)</sup>

清中期，採用“額外”之制的書院愈益普遍，書院“額外”之肄業形式愈益擴大，此名額之肄業生不享受膏火，有考課之資格。如嘉慶二十五年，鳳凰廳敬修書院定規，每年十一月考臬廳屬生童，“肄業生員正課十六名，附課十六名。童生正課二十名，附課二十名。額外附課不限額數。”<sup>27)</sup> 1236-1237道光三年，城南書院甄別，取列不給膏火之額外附課生童數十名，允許其在院讀書。<sup>28)</sup> 16“隨課膏獎”之制(即以每月考課成績定生徒膏火、獎賞)在湖南書院愈益流行開來，龍陽縣龍池書院于湖南書院中較早採取“隨課膏獎”之制，書院創設于嘉慶三年，定規每年十二月甄別收臬生員四十名，童生四十名，此為固定生額。次年啓館后每月考課，分別正、副課給予膏火。其正、副課均以每月初三日官課為定。<sup>29)</sup> 專課獎賞額于道光年間出現，其中以瀏陽縣獅山書院為早，“每月逢八由院長別設一課，以經解、策論、詩賦各體命題，隨取數多寡，照逢三館課發獎”<sup>30)</sup>，此名額的出現書院考課內容及形式的轉變有極大的關係。

### 三、“隨課膏獎”的風行与固定生額的重現

晚清為湖南書院制度及學風劇烈變遷的時代。“隨課膏獎”之制愈益普遍的流行開來，瀏陽洞溪書院同治初年定規，由縣“取臬生監正課五名，副課五名，童生正課十名，副課二十名，一体送院肄業。”“正課發米三斗，錢六百元；副課發米三斗，不發錢”。書院一年內共發膏火八个月，第一个月“即依縣取次第，發一月膏火”之外，其余七个月則由山長每月二十三日堂課甄別正、副。此外，每月初三、十三課專設有獎賞額，生監獎超等五名，童生獎上卷十名。未經甄別者亦可來院肄業，但无膏火而可升降。<sup>31)</sup> 寧鄉云山書院于同治四年定規，“肄業生童，每月由官課評定正、附。”“生監正課五名，每名每月米三斗，膏火錢一串；附課五名，每名每月膏火錢八百文。童生正課三十名，每名每月米三斗，膏火錢八百文；附課三十名，每名每月膏火錢六百元。”“又推广正課十名，每名每月膏火錢八百文，向由地方官捐廉按發。”另有師課獎賞額，每月錢八串，“由院長局試酌獎，課卷由首事備辦。”<sup>32)</sup>

25) 光緒重修龍陽縣志[M]卷之十二學校·書院。

26) 同治芷江縣志[M]卷十二書院。

27) 袁廷極.敬修書院條規.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

28) (清)余正煥,左輔撰;鄧洪波,梁洋,李芳校點.城南書院志[M]。

29) 光緒重修龍陽縣志[M]卷之十二學校·書院。

30) (清)蕭振聲等纂修.瀏東獅山書院志.中國歷代書院志[M],723。

31) 洞溪書院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146-1148。

石鼓書院章程于光緒六年改爲“隨課膏獎”，然“衆名以初課爲定，无者不准應課”，甚至取消了膏火額，“應將師課獎賞亦照官課一律，其額數不必限定各四十名，或佳卷多即多取數名，劣卷多即少取數名，總以每課五十千爲准，于五十千中變通辦理。”<sup>33)</sup>岳麓、城南、求忠，光緒十八年以前，“凡取正、附課者，得一年膏火；月課則无正、附、額外名目，但分超、特、一等。初次撫院月課，非甄別曾取額外者，不得應；自藩司以下各官課，則不必曾取額外，從寬破格，一体与應得獎。”即以甄別定膏火，以考課等第定獎賞。光緒十九年，三書院改制，“歲首一考，仍名‘甄別’，有膏火，无獎賞。自后每月一課，雖名‘月課’，而等第皆以正、附、額外差別，有膏火，并有獎賞。撫課非取甄別者仍不得應；而自撫課起，挨次投考，挨次酌取，若補甄別者。”<sup>34)</sup>甄別僅定一課之膏火及撫課之資格，其余月課則定各月之膏火、獎賞。

專課獎賞額也愈益普遍。瀏陽縣洞溪書院同治初年定規，每月十八經古課，院長兼出四書題，但時文不給賞。古學、經學、史學、算學卷內外前列，照逢三課獎賞，即生監獎超等五名，童生獎上卷十名。<sup>35)</sup>湘潭縣昭潭書院于同治年間以書院余谷二百石增經課獎額，“歲四課，每課獎谷四十石，余四十石以供校閱者代脩贄焉。”<sup>36)</sup>光緒十一年，新寧縣“邑紳議以金城書院另聘山長，專課經義詩古文辭，并增設膏火獎賞有差，其生童正副課額皆以十名爲段。”<sup>37)</sup>光緒十九年，玉潭書院創設經課，周達武“捐置經課田業，合之縣人所捐，歲租共五百石，作經課獎金”，称“泐水校經堂”。<sup>38)</sup>光緒二十二年，岳麓書院改課，官課仍課八股試貼，院長月課改爲經、史、掌故、算學、譯學五門，其中經、史、掌故由院長自行督課，延續考課之法，亦近于專課。<sup>39)</sup>城南書院与此類似，光緒二十四年撫憲批准，城南書院每月官課，“仿照經濟特科，以內政、外交、理財、經武、格致、考工六門命題山長館課，仍課四書文，兼課時務等題。”<sup>40)</sup>

由于各類畧雜的名額制度，書院生徒的肄業形式也更加多樣。同治年間，岳麓書院生徒已有有正課、附課、額外附課、自備膏火注册肄業四類。<sup>41)</sup>石鼓書院于同治十一年定規，生員正課二十名、副課二十名，童生正課二十名、副課二十名，額外附課生童均无定額。“正課生員月發膏火錢一千文，住齋者月發米一斗；附課月發膏火錢八百文，无米；正課童生月發膏火錢八百文，住齋者月發米一斗；附課月發膏火錢六百文，无米。”額外附課无膏火，但可補缺，“官、師兩課，如生員取超等兩次，童生取上取兩次，監院記名，俟正副課有缺出，挨次拔補。”此外，“生童或距

32) 云山書院章程 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138

33) (清)李揚華撰；鄧洪波、劉文莉校点：《國朝石鼓書院志》，第224-228頁。

34) (清)余正煥、左輔撰；鄧洪波、梁洋、李芳校点：《城南書院志》，第138-139頁。

35) 《洞溪書院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第1147頁。

36) 光緒湘潭縣志[M]卷七祀典。

37) 光緒新寧縣志[M]卷十五學校志。

38) 民國寧鄉縣志[M]之故事編第四書院。

39) (清)王先謙輯；鄧洪波、楊代春点校.岳麓書院記事彙存[M],723-724.

40) 肄業城南書院附生宋璞等稟請酌改城南書院課程并嚴立學規稟批[J].湘報(48).

41) 光緒年間岳麓書院額外取錄規模，光緒十八年取額外三百名，光緒二十二年取錄額外五百名，二十三年逢科場年取錄額外千名。二十四年照二十二年成案，取錄五百名。(清)余正煥、左輔撰；鄧洪波、梁洋、李芳校点.城南書院志.長沙：岳麓書社,2012,138-139;(清)周玉麟輯，鄧洪波校点.岳麓書院續志補編.長沙：岳麓書社,2011, 700.

城較遠不及考甄別者，准其陸續赴監院報明，隨時收課。其取列高等者，一体給獎。”若齋舍有空余，“有愿自備資斧搬入者，亦准其赴監院報明，入院肄業。”<sup>42)</sup>2書院肄業生徒實際上有正課、副課、額外附課及隨課投考四類。

晚清湖南新式書院以校經書院、瀏陽算學館為典型，新式書院改變了考課的主導性制度的地位，新式書院多強調住院肄業，采取考課、講學、日記札記等多种教學法，由于書院主導性制度的變遷，其名額制度也出現了新的變化，同一書院，一方面存在着接近西式學堂的固定生額之制，另一方面又有類似書院之其他名額制度。

光緒十六年，學政張亨嘉將湘水校經堂改名校經書院，書院有嚴格的祭祀、考課、日記、住院等日常管理制度，<sup>43)</sup>生徒名額為四十四名，其中商籍六名，“每名月給膏火銀八兩”，三年一易。<sup>44)</sup>書院倡導經史時務之學，“略仿古人經義、治事分齋之意，月試之以經史大義及當世之務”<sup>45)</sup>，每年“館課獎賞銀貳百兩”。<sup>46)</sup>諸生假期逾期不到、不守院規、考課不佳等皆有可能被開除，所遺名額由學政調補，因隨時調補，無缺可補，造成候額生員，即“候傍待補之生”。光緒二十年江標任湖南學政時，因“近來常年住院諸生不及其半，其余或有未經調取而反住院中者”，加意整頓，除重申住院之規外，還規定從光緒二十一年起造冊登記諸生請假、常住情形。因書院齋舍有余，允許生徒自備膏火住齋肄業，“許由原調四十四額中諸生，四人出結互保，呈明監院，稟明院長，即准進齋住宿，隨同月課，課卷亦送使者覆校，以察學業之真偽。”<sup>47)</sup>此外，江標還將“候額待補之生”進行甄別，取錄者稱為“候補內課生”，分超等、特等，“超等遇有缺出，先行調補，特等仍作候額，以備異日酌調。”<sup>48)</sup>則此時，校經書院已經有三類生徒，即原額四十四人，自備膏火肄業生徒以及“候補內課生”。

此外，光緒二十年，江標于校經書院添設加課，面向全省士子，不限資格。“自乙未年起四季加課。課分六學：一經學，一史學，一掌故之學，一輿地之學，一算學，一詞章之學。學各四題，或六題。作過半者即作完卷論。能多作，能兼課諸學者更善。惟每學須各謄各卷。”通過官學傳遞試題及收卷，生童自備課卷應課，獎賞則由學政捐廉，生額不確。<sup>49)</sup>光緒二十三年，江標又于校經書院立學會，“學會分列三門，曰算學，曰輿地，曰方言”，“學額每類四十名，報名逾額，即分作前后兩班課習。”“學生不論生童及年歲大小。曾經肄業書院及非肄業書院，皆可報名入會學習。”雖名為學會，形式則接近學堂<sup>50)</sup>，故而亦采取固定生額制度。

瀏陽算學館，其辦學形式介于書院與學堂之間，其限定肄業生徒年齡，“以二十內外至三十零歲為度”，并采用班級制及講授法等皆為學堂之法。光緒二十二年定規，“則每年甄別時由掌教考取

42) (清)李揚華撰；鄧洪波、劉文莉校點：《國朝石鼓書院志》，第224-228頁。

43)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17頁。

44)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15-16頁。

45)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4頁。

46)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14頁。

47)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113頁。

48) (清)張亨嘉等撰；鄧洪波、馬友斌、蔣紫云校點：《校經書院志略》，第129-130頁。

49) 江標.校經書院加課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082.

50) 江標.校經書院學會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084-1086.

生童三十余人或四十人入館肄業，爲正課。”“其未經考取正課諸生童，擇其資稟尤異者，酌取五十人或七八十人爲副課，一体入館肄業，但須自備火食。”<sup>51)</sup>光緒二十三年改稱額內、額外。<sup>52)</sup>書院月課有獎賞額，“每月逢八，由山長發題，課肄業諸生，別爲館課。限二日交卷，酌獎十名。其一連兩課不到者開缺。”<sup>53)</sup>此外，算學館亦有季課之制，“無論額內外及未錄取者，均准赴試，分別等地酌獎，以資鼓勵。”<sup>54)</sup>書院肄業生徒分爲額內、額外，其中膏火額即額內名額，另有月課僅書院肄業生可參加，有獎賞額。書院季課則不限書院肄業生，亦有獎賞。光緒二十二年，岳麓書院改課，官課仍課八股試貼，院長月課改爲經、史、掌故、算學、譯學五門，“經、史、掌故由院長自行督課，算學別立齋長，譯學延請教習。”其中“算學額定五十名，譯學額定四十名，均以三年爲一班。”<sup>55)</sup>光緒二十三年定《岳麓書院新定譯學會章程》，“以四十人爲限，額內隨時補足，額外不得增加一人。”譯學會採用課程制、班級制等制，形式已經非常接近于西式學堂。<sup>56)</sup>此外，書院生徒名額亦有極爲特殊者，如按比例取錄者。同治初年，湘鄉縣東阜書院定規，“生童官課歲獎八次，坐齋館課月獎一次，均三卷取一，生卷多止十名，不足則□取童卷，統以三十名爲率，獎各有差。”瀏陽洞溪書院同治初年定規，每月二十三日堂課甄別正、副。“倘生監不滿十名之數，總以三分定課，一爲正課，一爲副課，一爲額外，額外不發膏火。童生不滿三十名之數，亦以三分平分定課，額外亦不發膏火。三分不均。其多者，推入正、副課內。”<sup>57)</sup>湘鄉縣漣濱書院同治十年，“坐齋生童月課一次，生卷四本取一，童卷六本取一，生童第一名皆獎錢壹千陸百文，二名以下各獎錢壹千文。”<sup>58)</sup>亦有以地域划分名額者，如光緒二十二年，岳州府岳陽書院，正課百名名額分給各縣，“分定巴陵共取三十一名，平江共取二十四名，臨湘共取二十三名，華容共取二十二名，縱或稍有參差，不得過兩名，以免偏枯。”<sup>59)</sup>

#### 四、余論

通過以上梳理，則可以嘗試回答本文開頭的問題。陶澍之父陶必銓于乾隆四十八年肄業岳麓書院，“閉戶醇精”，即住院肄業，時陶澍“隨父讀書”，“朝夕在側”，雖年僅七歲，勉強亦可算作自備膏火肄業者。歐陽厚均嘉慶二十五年始掌教岳麓書院，凡二十七年，弟子三千余。考岳麓書院生徒額數，乾隆五十年正課增至六十八名，附課增至三十五名，計一百零三名。嘉慶初年增加額數，正課生監六十八名，附課生監七十名，鄉試之年，額廣正課二十名，附課十名。雖難以確証

51) 譚嗣同.瀏陽算學館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156.

52) 譚嗣同.瀏陽算學館原定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158.

53) 譚嗣同.瀏陽算學館增定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159.

54) 譚嗣同：《瀏陽算學館原定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第1158頁。

55) (清)王先謙輯；鄧洪波、楊代春點校：《岳麓書院記事彙存》，第723-724頁。

56) 岳麓書院新定譯學會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M],1062.

57) 《洞溪書院章程》，鄧洪波主編：《中國書院學規集成》，第1146頁。

58) 同治湘鄉縣志[M]卷四學校.

59) 曹廣祺.岳陽慎修書院志.中國歷代書院志[M],83-92.

此時岳麓書院是否已有額外生徒，然僅以正、附課額數而論，弟子三千余不為難事。周玉麟在咸丰八年后先后掌教城南、求忠、岳麓書院，其中掌教岳麓書院在同治七年至光緒元年，時岳麓書院生徒已有正課、附課、額外及自備膏火注册肄業者四類，其中額外之名額尤多，“与弟子藉者數千人”頗為容易。黃興于光緒十九年入城南書院，光緒二十四年入校經書院，所指應為考取正、附課之類，而此階段岳麓書院則生徒肄業規模极大，其中光緒十八年取額外三百名，光緒二十二年取額外五百名，二十三年取录額外千名，二十四年取录額外五百名，<sup>60)</sup>雖難以确証，但黃興于此時按照當時士子通常做法參加書院考課謀取一定之膏火亦為常事，則亦可算作書院肄業生。書院肄業規模与書院生徒名額也差別較大，除前所舉例岳麓書院“額外”肄業之規模极大之外，如岳州府岳陽書院光緒間，“住齋者恒有百數十人”，其生額則僅六十名，光緒二十年時岳陽書院“生童住院肄業者不下兩百名。”<sup>61)</sup>此類情形較為普遍，故而判定書院肄業規模，生徒名額僅能作為參考。

揆諸此類史實，清代書院“教養相資”之特色鮮明，肄業書院形式多樣，若強与西式學堂之制比照，則須住院肄業、享受膏火并參加書院考課等教育活動才能算作書院肄業生，那么不僅諸多書院肄業規模極為有限，很多考課式書院甚至几无書院肄業生。清代時人的書院肄業，所指或為甄別取录額內(正、副課)，享受膏火；或考課為官師拔擢為超、特、一等，享受獎賞。由此可見，書院“教”“養”之法与西式學堂之制差异明顯，不能簡單的等量齊觀。

60) (清)余正煥、左輔撰；鄧洪波、梁洋、李芳校点：《城南書院志》，第138-139頁。

61) 曹广祺：《岳陽慎修書院志》，《中國歷代書院志》(五)，第83-92頁。

## 【参考文献】

- 杨布生.岳麓书院山长考.上海:华东师范大学出版社,1986.
- 陶用舒.陶澍是否岳麓书院的学生[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1(9): 27-28;东华.黄兴是否岳麓书院学生[J].益阳师专学报,2001(5): 86-87.
- (清)张亨嘉等撰;邓洪波,马友斌,蒋紫云校点.校经书院志略[M].长沙:岳麓书社,2012.
- (清)李扬华撰;邓洪波,刘文莉校点.国朝石鼓书院志[M].长沙:岳麓书社,2012.
- (清)赵宁纂修;邓洪波,谢丰点校.新修岳麓书院志[M].长沙:岳麓书社,2011.
- 朱廷模.昭潭书院学约记.见邓洪波.湖南书院史稿[M].长沙:湖南教育出版社,2012.
- 乾隆永兴县志[M]卷二营建(三).
- 同治祁阳县志[M]卷之十九学校(下).
- 张云璈.详定昭潭书院章程.见邓洪波.湖南书院史稿.
- 潘世晓.昭潭书院学约八条.见邓洪波.湖南书院史稿.
- 陈宏谋.岳麓、城南二书院条规.见王晓天.新发现<岳麓、城南二书院条规>及其价值[J].湘潭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6(2):134-140.
- 周在炽.玉潭书院志.赵所生,薛正兴主编.中国历代书院志[M](四),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
- 同治安仁县志[M]卷之六学校·书院.
- 左宗棠.答周汝光.左宗棠集[M]第十册,长沙:岳麓书社,2014.
- 定书院规条公禀.文蔚起等修,刘青黎等纂.渌江书院志[M]卷首,光绪三年刻本.
- 书院膏火规条.文蔚起等修,刘青黎等纂.渌江书院志[M]卷首.光绪三年刻本.
- 光绪重修龙阳县志[M]卷之十二学校·书院.
- 同治芷江县志[M]卷十二书院.
- 袁廷极.敬修书院条规.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
- (清)余正煥,左辅撰;邓洪波,梁洋,李芳校点.城南书院志[M].
- 光绪重修龙阳县志[M]卷之十二学校·书院.
- (清)萧振声等纂修.浏东狮山书院志.中国历代书院志[M].
- 洞溪书院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 云山书院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 光绪湘潭县志[M]卷七祀典.
- 光绪新宁县志[M]卷十五学校志.
- 民国宁乡县志[M]之故事编第四书院.
- (清)王先谦辑;邓洪波,杨代春点校.岳麓书院记事录存[M].
- 肄业城南书院附生宋璞等禀请酌改城南书院课程并严立学规禀批[J].湘报(48).
- 江标.校经书院加课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江标.校经书院学会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谭嗣同.浏阳算学馆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谭嗣同.浏阳算学馆原定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谭嗣同.浏阳算学馆增定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岳麓书院新定译学会章程.邓洪波主编.中国书院学规集成[M].  
同治湘乡县志[M]卷四学校.  
曹广祺.岳阳慎修书院志.中国历代书院志[M]》.

【Abstract】

## The student quota system of academy and its changes in Qing dynasty Centering on Hunan

Liu Ming

In the early Qing Dynasty, the academy followed the Ming Dynasty's lecture style, limited to the houses of the academies. The students of the academies were small and relatively stable, and there was no quota system for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academy allowances and rewards, the academy began to have the number of allowances and awards. The system of allowances and rewards is combined with the resident student, co-created a fixed number of students in the academy. In the middle of the Qing dynasty, the examination system gradually became the dominant system of the academy. The quota system included a fixed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allowances and normal awards. The "extra" system has become popular, The system of allowances and re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test and the number of special awards began to appear.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system of allowances and re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test and the number of special awards began to become popular. The scale of the "extra" system kept growing.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academies also led to new changes in the academy student quota system. Hunan province is an important region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es in the Qing dynasty. Taking Hunan province as the center to clarify the student quota system of academies in the Qing dynasty and its changes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answering questions such as what is the academy learning experience, how to determine academy students, how to determine the size of academy students.

**Key words :** the student quota system of academy; the number of allowances ; the number of normal awards; The number of special awards; a system of allowances and awards based on each examination result.



# 오봉서원(五峰書院)과 명대 중후기 양명학의 금화(金華)지역에서의 심층적 전파 양상

난군(蘭軍)

## 【국문초록】

명대 정덕(正德)~가정(嘉靖) 연간, 응전(應典)을 대표 인물로 삼는 용강(永康) 사인(士人)들은 금화(金華) 지역의 학술을 전승한 것 외에도, 소흥(紹興)에 가서 왕양명을 스승으로 모셨고 양명의 심학(心學)을 무학(婺學)의 전통 속에 편입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오봉(五峰) 양명학자 집단을 형성하였다. 응전(應典), 정문덕(程文德), 정재(程梓), 노가구(盧可久) 등 양명제자들의 노력을 통해, 오봉서원은 점차 금화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명학 중심지가 되었다. 양명 심학은 오봉의 제자, 즉 두유희(杜維熙), 진시로(陳時芳), 진기은(陳其慙) 등이 일으킨 향회(鄉會), 사회(祠會), 가회(家會)를 통해 용강 오봉의 동양(東陽)으로의 심층적 전파를 이루게 된다. 응전, 정문덕, 노가구 등 향리 문중의 지원과 더불어, 오봉의 강학 활동은 청대 건륭(乾隆) 연간까지 지속되었다.

주제어 : 양명학(陽明學), 금화(金華), 오봉서원(五峰書院), 응전(應典) 강회(講會)

## 五峰书院与中晚明阳明学在金华的深层传播

兰 军(江苏师范大学历史文化与旅游学院 徐州)

### 【中文摘要】

明正德至嘉靖年间,以应典为首的永康士人在传承金华学术之外,赴绍兴拜王阳明为师,将阳明心学融入婺学传统,形成了颇具特色的五峰阳明学士人社群。经应典、程文德、程梓、卢可久等阳明弟子不懈努力,五峰书院逐渐成为金华一带最具影响力的阳明学讲论中心。阳明心学通过五峰弟子杜维熙、陈时芳、陈其蓊等人举办的系列乡会、祠会、家会,实现了由永康五峰向东阳的深层传播。借助应、程、卢等乡里宗族支持,五峰讲学活动绵延至清乾隆年间。

**关键词：**阳明学；金华；五峰书院；应典；讲会

## 五峰書院與中晚明陽明學在金華的深層傳播

蘭 軍(江蘇師範大學歷史文化與旅游學院 徐州)

嘉靖、隆慶、萬曆三朝，陽明弟子後學通過建書院聯講會，將陽明心學推廣到大江南北，“流風所被，傾動朝野”。王陽明生前便重視書院建設，其學凡變而定于書院，其教亦傳于書院。以應典、程文德、程梓、盧可久為代表的永康陽明弟子通過建立五峰書院形成固定講學場所，利用定期講會活動集結當地士人，使陽明學說通過講學師友關係網絡，由永康拓展到東陽，實現了跨地域傳播。

### 一、明中后期永康士人對陽明學的汲取

成化至正德年間，金華雖有章懋繼起承接金華朱子學，終未能轉變此時理學重踐履，輕理論闡發的風氣。他自己也認為，“經自程、朱後不必再注，只遵聞行知，于其門人語錄，芟繁去蕪可也”。<sup>1)</sup>面對明中期程朱理學日趨繁瑣支離，陽明心學充滿生機的發展趨勢，深受章懋影響的金華士人在為學方向上日漸呈現出分化情形。以應典為首的永康部分士人雖從學章懋，秉承“真實心地，刻苦工夫”八字箴言，卻以更加開放兼容心態接納陽明心學，將良知本體論與婺學傳統相融合，為明中后期金華學術注入了新的生機與活力。應典、程文德、程梓即是該部分士人領袖。應典，永康芝英人，正德九年進士，由職方司主事官至尚寶司丞。居家養病期間，應氏曾專至蘭溪拜謁楓山先生，章氏望其能發揚金華之學。“吾婺自宗忠簡公功業，呂成公道學，宋潛溪文章以來，久失其傳，子將安任。”<sup>2)</sup>在承繼婺學傳統之外，應典還赴仙居問學于應良，又至黃岩與黃綰論學，最後“因應、黃而師余姚王陽明，得良知之旨。”<sup>3)</sup>程梓，字養之，永康駙馬堂人，年輕時深受金華學術熏陶。“及長聞何王金許之學，欣然慕之，后讀《正學編》躍然曰學在是矣”<sup>4)</sup>。考取生員後，程氏曾徒步往余姚求文成之學，與王畿互相印正。程文德，永康獨松人，父銑，官至四川按察司僉事副使。正德九年程文德至蘭溪，受學于章懋。《松溪程先生年譜》載，“楓山先生察先生能立志究心于理學，于是授以‘真實心底，刻苦工夫’之說。先生毅然起，以聖賢之學為學焉。楓山喜謂

1) 黃宗羲著，沈芝盈點校：《明儒學案》（卷45），北京：中華書局，2008，1075

2)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69

3)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69

4) 張芑修，沈麟趾等纂：《康熙金華府志》（卷17），中國地方志集成浙江府縣志輯49，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3，251

先生曰：‘吾婺東萊之鄉，今得子，何王金許之正脉，其有託乎？’先生后来作《婺集同聲詩序》，推楓山以道自認，爲婺山川灵秀所間出，爲世所宗。”<sup>5)</sup>姜宝評論道，“人以爲眞修實踐如先生，眞得楓山法門矣”，可見程文德確得章懋嫡傳。嘉靖三年(1524)，程文德受學于王陽明門下，与聞“致良知”之說。程氏對陽明心學的接受建立在融匯金華之學基礎上，注重兩者間的互補与調試。“先生聞陽明先生教人以學爲聖賢，于是往受業，以所聞于胡公珵李公滄朱公方，及所受于楓山先生者互相印証。”<sup>6)</sup>

正德至嘉靖初年，從學陽明接受“致良知”之教，在永康特別是仙游鄉士人中逐漸成爲一種潮流。《五峰書院志》所載《王文成公傳略》記述到，“若語其學之傳至永康，則自公官南都時，周實峰先生先往師之，厥后如李東溪、應石門、程松溪、盧一松、程方峰諸公等數十人聞風而起”<sup>7)</sup>。實峰周先生即永康游川人周瑩，在應典推荐下先赴仙居与應良游，后率先從學于王陽明。陽明對周瑩頗爲重視，在其學成而歸時作有《贈周瑩歸省序》，透露出當時永康士人從學陽明之艱辛与追求良知學說之堅定。

“斯吾之所謂子之既得其方也。子之志，欲至于吾門也，則遂至于吾門，无假于人。子而志于圣贤之学，有不至于圣贤者乎？而假于人乎？子之舍舟从陆，捐仆贷粮，冒毒暑而来也，则又安所从受之方也？”生跃然起拜曰：“兹乃命之方也已！抑瑩由于其方而迷于其说，必俟夫子之言而后跃如也，则何居？”阳明子曰：“子未睹乎热石以求灰者乎？火力具足矣，乃得水而遂化。子归，就应子而足其火力焉，吾将储担石之水以俟子之再见。”<sup>8)</sup>

應典周瑩等第一批從學陽明士人，多先赴台州受陽明弟子應元黃綰啓發，再轉赴紹興。隨後，五峰講學士人信奉良知學說日益堅定，開始直接赴紹興拜陽明爲師。永康生員盧可久也較早從學陽明，后主講五峰書院。“爲諸生有志圣贤之學，聞王守仁倡道山陰，偕同邑程梓往師事之。刻厲精思，盡得其指要，守仁深器之。比歸，送之曰吾道東矣。”<sup>9)</sup>永康陽明弟子中頗有聲望的還有大理評事李珙。李氏早年有志于理學，徒步赴紹興与聞良知學說，受同門錢德洪王畿輩推重。陽明歿后，李珙爲師門四處奔波，在王門弟子中擁有較高聲望。“陽明子沒，迎奠三衢，凡窀穸保孤，爲師門身后計者，无不竭力圖之。故當時有錢王李管之稱。”<sup>10)</sup>

永康諸子從學陽明事迹，不僅影響身邊師友，在一定程度上改變了他們爲學方向，更對族內子弟姻親家族產生連帶作用，在当地社會形成一種潮流。以應典爲中心，考察他對周邊士友宗族子

5) 姜宝．松溪程先生年譜．程文德集(附錄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588

6) 姜宝．松溪程先生年譜．程文德集(附錄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588

7)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69

8) 王守仁撰，吳光錢明等編校．贈周瑩歸省序．王陽明全集(卷7)．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4，234

9) 万斯同．明史(卷384)．續修四庫全書第331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108

10)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4

弟的影響，即可初步揭示這一現象。應典，字天彝，別号石門，中舉前与從兄弟芝田、芝石，外甥周桐相聚共學，后隨兄鶴邱先生游學南京<sup>11)</sup>。應典接觸陽明心學后，周桐隨即“聞陽明倡道姚江，負笈從之游。辨析良知宗旨，深探源委。”<sup>12)</sup>周光幼從周桐治學，示以致良知宗旨后，奮然率弟侄若德器、子夏、子善輩往越中從陽明游數月。應典受業于叔父應典，与聞陽明心學后携程梓、周桐等前往從學。永康周氏其它房枝還有周昇、周螯從學陽明，書院志称二人“樹立風聲，尤諳世故，而綜理周密”。永康橙川王益“聞王陽明先生倡道東越，負笈從之。陽明先生語以學需自信，不必守定成規。……先生聞之有省，嘗語人曰老實打不破。”<sup>13)</sup>永康可投胡棠也親炙陽明門下，聞致良知，始划思所以振拔<sup>14)</sup>。永康士人以應典、程文德、程梓、盧可久爲首相互接引、汲納陽明心學的經歷，很快轉化爲在當地建立五峰書院傳播陽明心學的具体實踐。

## 二、五峰書院講學活動

正德年間，程文德、程梓、周德基從學陽明前，已在壽山石洞舉行不定期講學活動，爲后来麗澤祠、五峰書院的建立奠定了基礎。正德十五年(1520)，程文德會試落榜，在壽山石洞聚集同志論學。“距家數里許，有壽山，洞內爲五峰書院，乃朱晦翁、呂東萊、陳龍川諸公講學之所。先生聚同志友肆業其中”。<sup>15)</sup>壽山講學期間，程文德“恨立志不篤，屢奮屢廢”，爲立德修身日常警醒，特書痛懲條目十款即《益齋貶劑》，焚香拜誓于洞內。首條“景行”旨在追從章懋所倡導的金華朱子學傳統。“嘗謁吾鄉章楓山，見示曰：‘后生須立得脚跟定，方好做人，賢輩正在此時立脚。’……今之楓山何人也，而海內咸推之，可不求其所以至楓山者乎？由楓山而上之，亦豈不可至乎？”<sup>16)</sup>由此可見，當時程文德所講之學仍不出傳統金華學術范疇，程梓和周德基也筑室五峰洞中与之交相砥礪。正德十四年，應典自兵部車駕司主事考滿后引疾歸養。奉養期間，与台州應良、黃綰往來不輟，講論日深。因二人推荐，應氏携鄉里諸生周德基等相繼從學王陽明，得聞良知之說。“正德辛巳，久菴黃公訪石門公，留五峰多日。嘉二先生志尚不凡，因語之曰‘姚江陽明子，今尼父也，盖往從之。’且出《傳習錄》數篇以示曰‘孔孟正脉俱在此’，二子見而悚悅服膺焉。久菴至越，語二先生于陽明子，陽明子喜。不數月而周生至，因詰之何不與程生偕來。盡之還，復邀程氏与俱，已而先生与方峰公同如越授業。”<sup>17)</sup>

11) 見鶴邱先生傳、石門先生傳，芝英應氏宗譜。黃灵庚，陶誠華主編。金華宗譜文獻集成(15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394-399。

12)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5。

13)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3)。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82。

14) 程正誼。白峰公傳。程正誼集(卷5)。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164。

15) 姜宝。松溪程先生年譜。程文德集(附錄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585。

16) 姜宝。松溪程先生年譜。程文德集(附錄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586。

17)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3)。趙所生，薛正興。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82。

正德十六年，爲進一步凝聚永康陽明弟子，弘揚良知學說，應典與程梓、程文德、盧可久集諸生興建麗澤祠以爲會講之地，五峰陽明學士人社群初步形成。五峰雖爲南宋陳亮、呂祖謙、朱熹等大儒講學故址所在，因年代久遠，石洞旁无舍宇，難以容納此時上百人的講學活動，學者往往露居岩穴間。爲推動講學事業進一步發展，應典與程梓、周德基、李珙等捐資若干，“卜台側隙地，因石洞爲堂宇，凡數十楹。其奧以祀三先生，而前廡則以居四方學者，命之曰麗澤之祠。于是，士益蒸蒸奮而會日加盛矣。”<sup>18)</sup>麗澤祠建成于嘉靖元年(1522)，正值嘉靖帝登基不久，選賢任能，應良、黃綰相繼被起用，應典也被舉薦爲尚寶司丞。應氏因志在鄉里講學，未离家赴任，却已爲地方官所重，在当地頗具影響力。金華知府張鉞爲新建麗澤祠題額，繼任知府姚文韶作《麗澤祠碑記》。麗澤祠祭祀朱熹、張栻、呂祖謙、陸九淵四位理學大師，意在接續南宋五峰講學事迹，興起后學。“呂子講學明招，游而樂止。朱子按台過焉，欲創書院而未果。張子倅陸，陸子唱鵝湖。往復辨晰，合同于異。維時呂子陽、潘文叔、陳同甫時少章之徒，業聚其間，麗澤志也。石門應子志古學道以淑人也，乃祠洞石祀四子附諸賢焉。”<sup>19)</sup>祠宇將四位理學大師并祀，顯示出應典等講學士人在學術上合會朱陸兼容并包的取向。“應子曰：紫陽過化也，東萊身教也，南軒、象山麗澤也，萃固合人心，久固定也，殊途同歸，百慮一致，圣贤道豈二哉。”<sup>20)</sup>麗澤祠講學活動中如何合會朱陸？應典姻親李鴻記述了講會以王陽明所作《朱子晚年定論》爲宗旨的現象。“晉庵公謂：‘壽山乃朱呂二公過化之地而并及陸公，則取陽明所輯晦庵晚年定論之意，將以一鵝湖之余論而會之于周程者也。’可謂知先生之深者矣。”<sup>21)</sup>五峰講會初期是在合會朱陸旗幟下宣揚陽明學說，意在最大限度減少爭論，吸引更多当地士人。

嘉靖年間，永康陽明士人社群逐漸形成篤實踐履的講學風尚，來自地方官的強力支持，使五峰講會日趨興盛。嘉靖十二年，金華知府姚文韶與永康縣令洪垣赴五峰拜訪應典，見四方來學日衆，周邊齋舍不能容，遂命人撤去固厚峰小石洞內羅漢像，捐俸助建五峰書院。洪垣，字峻之，婺源官源人，嘉靖十一年進士，受業于湛若水。<sup>22)</sup>洪氏任永康縣令期間與太平呂氏族人呂榮、呂瑗父子交好，五峰書院即由他們負責具體興建事宜。呂榮父子捐金數百，購材興工，于壽山石洞正中建樓數間，以廣來學。洪垣升任御史后，甘翔鵬繼任永康縣令，繼續支持五峰書院建設。嘉靖十五年書院竣工，初名桃岩麗澤精舍，金華知府陳京題額“五峰書院”。在地方官員支持下，五峰書院不斷發展壯大，講會也日加興盛。衢、婺括蒼諸郡邑士人，遠近畢集，環侍听讲徹晝夜，教化翕然成風。“婺之文獻，至是爲一再盛，而良知一脉，又五峰之所獨盛，非他邑所敢擬也”<sup>23)</sup>洪

社，1995，181

18) 程正誼．贈通奉大夫四川布政司左布政使先考方峰公行狀．程正誼集(卷5)．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153

19)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4)．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89

20)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4)．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89

21) 黃靈庚，陶誠華主編．金華宗譜文獻集成(15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395．

22) 丁廷樞修，趙吉士纂．康熙徽州府志(卷13)．中國方志叢書華中地方第237冊．台北：成文出版社有限公司，1975，1770

垣爲書院所作記文，期望講會承繼麗澤君子朋友講習之義，發揚陽明學說。“良知之体，非子之所說者乎？循其端而達之于位天地、育万物，无非貞也，即无非說也。應生曰‘命之矣’。執之以告諸學者。”<sup>24)</sup> 以應典爲首的五峰講學士人注重爲學工夫反求諸己，以闡揚陽明學說爲己任，反對談禪論定專務口耳之弊。從應典所作《誠意章講義》，可見此時五峰書院講學風尚。

圣人千言万语，无非欲人反求诸己。……故诚意之首便指点出一个毋自欺三字。……或知有身心之学止模拟想像，不肯为实践下手工夫，则行不著，习不察，自欺之罪终恐不免。今我同志亦有此病否，幸用力克去毋令负今日之会也。<sup>25)</sup>

嘉靖二十六年九月，應典病逝，五峰書院進入程文德程梓主講時期。闡揚陽明心學外，書院通過對麗澤祠祭祀對象的調整，展現出承接南宋以來金華學脉的意圖。五峰書院內設五峰祠，公開主祭王陽明。此時陽明心學雖已在各地廣泛傳播，仍未獲得朝廷認可。永康五峰書院在應典程文德相繼主持下，已在地方社會扎穩脚跟，形成一股講學勢力。除公開祭祀陽明，在程文德主導下書院對麗澤祠祭祀對象進行了大幅調整：以張栻陸九淵未親至五峰爲由，調整出祭祀行列，主祭朱熹、呂祖謙、陳亮，以九月九日爲歲祀之期，舉行大規模講會活動。麗澤祠初建時，五峰講學社群尙處在构建中，還未在地方社會獲得廣泛認同。故講學仍需借助南宋理學大師資源，以合會朱陸名義進行。五峰書院建立后，講會師友已在地方士人中形成气候，亟需在陽明之前接續南宋諸儒五峰講學淵源，標明承繼鄉邦學術的正統地位。程文德所撰《壽山麗澤祠五先生告文》委婉闡明了這一意圖。

惟兹丽泽之祀，以义起也。昔在有宋朱晦庵先生、吕东莱先生访陈龙川先生，会于五峰，流风遗墨，迄今尚存。自三公过化，而五峰增高焉。数百年来，祠祀犹缺。乃者吾党石门应子，景其芳躅，嘉会兹山，因而祠焉。名曰“丽泽”，得无当于义乎？义当则礼协，礼协则情安已。乃诸先生以道而言，固一体也。然于兹山，则未尝至，或至矣而于三公不相及而类祀焉，恐非诸先生之心也。爰兹奠告而请命焉，或谓有举莫废，无文成秩，自古有之。窃谓此里社索飧之典，与官司殷礼之称，又非所以事诸先生也。惟先生亮其弗黷之诚，求诸合礼之敬，而以不祀为祀焉，斯文幸甚。尚飧！<sup>26)</sup>

《鷄鳴章講義》是程文德主持五峰書院時期所作講會講義，旨在提醒五峰講學士人注重從本心出發，時時察覺利善之間的甚微差別，強調反思之功，注重慎獨功夫。“均是人也，或爲舜焉，或

23)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4)．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95

24)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4)．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90

25)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26－227

26) 程文德．壽山麗澤祠五先生告文．程文德集(卷17)．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253

爲蹠焉，均是心也；或爲善焉，或爲利焉，均是孳孳也。……吾慕舜，而鄙蹠也，吾奈何孳孳以違所慕而就所鄙乎？是不亦失其本心乎？……故曰思則得之，思則知耻，知耻則必慎其獨矣。爾多士將爲舜焉，將爲蹠焉？其思之哉，其思之哉！”<sup>27)</sup>可見，五峰士人講學活動，本于陽明良知學說宗旨，仍較爲注重功夫踐履。嘉靖三十八年，程文德病逝，五峰講學士人將之奉祀于麗澤祠，配祀朱熹呂祖謙陳亮之側。程氏先后以章懋王陽明爲師，二人分別被崇祀于學易齋与五峰祠。按規制，程文德應与應典程梓盧可久等配祀于五峰祠更爲恰當。或因其功名宦迹顯著，擁有較高影響力，被拔高從祀于麗澤祠。祠宇祝文評價到，“至于文恭公學術无忝儒臣，行誼足称君子，是皆道紹往圣，功在斯文者也”。<sup>28)</sup>程文德時期五峰講學士人將陽明心學与金華文獻之學相融合，奠定了自身的學術風格。

程文德之后，五峰講會實際由盧可久主持。盧可久，字德卿，号一松，永康儒塘人<sup>29)</sup>。盧氏与程梓同受業于王陽明，刻苦精思，盡得其旨，深受錢德洪王畿鄒守益等王門高足推重。陽明逝世后，他与同門迎奠于衢州，与應典、周莹、李珙、周桐、程梓等創建五峰講會。与其他永康陽明門人相比，盧可久年齡最小，但生性超然，于陽明學說造詣尤深。常言“本体工夫，不落階級，不涉有无。悟得者超越凡界，不悟者終落迷途。或問學之實功曰：‘非礼勿視听言動，充之而手舞足蹈，克之而動容周旋中礼。今人多不務此，此學之所以无實用耳。’人皆謂其妙契師門宗旨”。<sup>30)</sup>一松終身致力于陽明心學的闡釋与傳播，有《光余或問》、《望洋日泉》等著作。前者是在五峰講會中与師友間的講學問答語錄，注重以小見大，闡發陽明學精要所在。《會中示諸友》即爲一松講會中告誡諸友爲學須專心一意，立志堅定，注重入門功夫。“今日學者但知有善，而不知有个眞善；雖曰致知，而不求其知之至，如何免得若存若亡之弊？幸今講究商量入門，端的必從茲實下工夫，辨其孰爲吾心之眞知，出于心而不容自己者；孰爲影響聞見之知，似知而非眞知也。”<sup>31)</sup>一松強調与會同志須爲眞善致眞知，從入門處下得實實在在功夫，方得致良知之力。后者完成于嘉靖三十一年，爲其畢生致力于良知學說之學術心得，共四百零七條，意圖就教于其他陽明學者。一松序言中称“余學于陽明先生有年矣，先生歿，四方同志者离合无常，而余之學日亦有省。將執此以爲是，固不敢；苟以爲非，又不自知其非也。謹录以正諸仙絕，肯以爲公而公言之，以教我乎！”<sup>32)</sup>程文德晚年赴五峰講會，聞盧可久獨在，嘆曰“一夔足矣。”

盧可久參與五峰講會前后近五十年，四方來學者衆，使五峰成爲浙中王門講學重鎮。許宏綱

27)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0

28)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8)．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57

29)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0

30)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0

31)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4

32) 程尚斐纂，程朱昌、程育全編著．增訂本五峰書院志(卷9)．北京：中國文史出版社，2010，231



《理學一松盧先生傳記》盧自明《一松先生行狀》都談及盧氏主持書院期間舉辦過浙江範圍內的陽明學大會。“越歲姑洗月，龍溪子至自山陰，久庵子至自黃岩，南洲子至自仙居，皆大會于五峰精舍，其視鵝湖鹿洞，與昔龍川云溪之會朱呂諸公者，殆將以嬾其美矣。先生在諸公間最少，而超然頓悟，暗然日章，則諸公之所讓舍也。”<sup>33)</sup>有王畿、黃綰、應元等王門代表學者參會，可見此時五峰書院講會在浙江已具有較大的影響力。盧可久還通過對東陽講學士人的影響，使陽明心學傳播于東陽境內，極大拓展了五峰書院的地域輻射範圍。東陽士人陳質甫、杜正夫、杜子光、李子文等數十人皆慕名參與五峰講會，師事盧可久。“先生隨材造就，人人以為得師，遂成東方之學，邑尹王公亦躬駕而請益焉。”<sup>34)</sup>五峰講會書院由應典發端，至程文德因顯赫功名與宦業成就，使書院顯揚于地方，講學祭祀事業更加完備。盧可久主講時期，五峰講學拓展至東陽，影響力更波及整個浙中。

盧可久之後，親炙陽明的永康弟子凋零殆盡，五峰講會雖大師不再，仍延續不絕。繼盧可久之後，其侄盧自明篤志聖學，講學五峰書院數十載。“五峰雅集，自諸大老歿後，朋儕星散，僅存犢羊。先生獨身維之，不以盛衰易厥志。”<sup>35)</sup>萬曆二十八年(1600)，程正誼辭官歸鄉後召集講學故友于五峰，重整講會，講學活動再趨活躍。缸窰胡大范、太平呂一龍晚年也參與五峰講學，學者咸宗之。呂一龍七十余歲時仍手錄陳時芳《宗傳廣錄》，對參與五峰講會講論陽明心學，執著而堅定，上升至人生只有此事，古今只有此道，得之則生，失之則死的高度。呂氏主張講會所講之學應落實于儒家倫理綱常之中，五倫五事即是良知之教的真實功夫。

試思吾人自幼至老，有一刻離五倫乎？故習者習此，集者集此。有一刻離五事乎？故集者集此，習者習此。故五倫一薄，無以成身，而無事一失，亦無以敦倫。是則敦倫又从敬事始。夫敬而貌之恭，言之從，視之明，听之聰，思之審，則習之集之盡是矣。且敬而至恭之肅，從之義，明之哲，聰之謀，審之聖，則習之集之，又无尽矣。以无尽为尽，以尽而更为无尽。斯之谓‘实地’，斯之谓‘真功’。<sup>36)</sup>

明末永康游川周氏在周佑德帶領下積極參與五峰書院建設事務，捐造學易齋于書院之右，祀郡賢何基、王柏、金履祥、許謙、章懋五先生，以李珙、周瑩、杜維熙等附祭<sup>37)</sup>。至此，五峰書院祠分三區，祭祀規制基本確立，曾主書院講席或有重大建樹者均可申請入祀。每歲重陽日，講學士人集聚五峰祭拜朱熹、呂祖謙、陳亮三先生，次日祀王陽明，三日祀何王金許諸儒，四方學者集聚講學，盛極一時。明末清初，有趙忠濟、王同壘、王崇炳承繼五峰講學事業。趙忠濟，字濟卿，号歧

33) 程尚斐纂輯，程朱昌、程育全編著。增訂本五峰書院志(卷5)。北京：中國文史出版社，2010，129

34) 程尚斐纂輯，程朱昌、程育全編著。增訂本五峰書院志(卷5)。北京：中國文史出版社，2010，129

35)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6

36)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7

37)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8)。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58

寧，東陽巍山人，自萃齋先生沒繼主五峰講習，然周歲一赴猶病其間，寔設會于法界洪閣<sup>38)</sup>。爲學注重從人倫事理中闡發良知學說，主張“求性命不出盡倫物。倫物懇切處，卽性命透徹處；倫物恰好處，卽性命精微處；倫物常盡自慊處，卽性命純亦不已處。”<sup>39)</sup>王崇炳師事趙岐寧，晚年屢至五峰講學。王同壘，字天珠，号澹菴，永康象珠人<sup>40)</sup>。澹菴受學于陳其慈，讀書五峰十年，晚年闡明理學至精，至當聞者，莫不靜听。

清初，五峰書院講學活動漸趨弱化，祭祀先賢教化鄉里功能日益突出，規制日趨嚴密。康熙二十三年(1684)，五峰書院罷春季大會，單爲秋會。乾隆四十六年(1781)九月訂立《五峰書院會規》，形成了嚴密的祭祀講學規制。《會規》將祭祀時間定爲九月十二日，相關事宜由應、程、盧三姓子弟操辦。東陽會友因路途遙遠，可在十一日到達書院。其余會友統一十二日午前至祠宇，正午時分舉行祭祀大典。三祠由原來分三日依次祭拜，改爲一日完成，順序調整爲首麗澤，次學易齋，次五峰祠<sup>41)</sup>。五峰講學士人寄希望通過對先賢的祭拜，以移風易俗教化后人。爲確保祭祀儀式庄重神圣，制定有詳細規條：

祭器、祭品、餽品，务宜预备，倘有不周，责在司事。

尔迩来与祭颇滥，今议定诸贤后裔，每派以四人为率，如有绅衿，另行散餽。

是会原关讲学衣冠中人，即非派下，听其与祭。

入祠后各宜礼让相先，勿得轻言妄动，有愧儒风。

主祭必择衣冠中齿德兼者承之，毋得滥举。

执事必择礼仪娴熟者任之，毋俾失仪。

与祭者务宜衣冠整洁，敬谨行礼，咸昭如在之诚。<sup>42)</sup>

清初，五峰講會雖在規模頻率上遠不如明代，相關規制却日益細密。書院每年大會在九月十一日到十三日間舉行。十一日主要爲會友報到，由年高德邵者講明會規。十二日進行初步討論，會友仍有疑難不明處則抄錄登載于壁上，“正楷大書登名于尾，凡與會者各帶紙幣，午后互相抄錄完，時實粘壁上”。十三日由老成諸儒各拈書一章性理一章予以闡發講論，隨後討論“三日內余功或質疑問難或闡發格言俱登載于簿”<sup>43)</sup>。

38)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8

39)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8

40)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8

41) 乾隆以前五峰書院祭祀依各祠宇創建時間爲序，依次爲麗澤祠·五峰祠·學易齋

42)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8)．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60-261

43)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8)．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261

### 三、五峰書院講會向東陽的拓展

陽明心學向東陽縣的拓展，始自盧可久門生杜惟熙，他先后創辦法界官橋等鄉里之會從事講學活動。杜氏門生陳時芳在鄉會之外，于宗族內辟祠會與家會，將陽明心學進一步傳至鄉里布衣階層，陳其蔥接續其傳繼續開展鄉里講學實踐，實現了陽明學說在東陽的深層傳布。

杜惟熙，字子光，号見山，東陽西街人。赴五峰師事盧可久四年，及歸，一松叮囑“汝邁往精進，諸子莫及。然爲學須經事變，方可自信所得”。<sup>44)</sup>后因學業受阻家難并起，方大悟良知之旨，寔至五峰講學。《悔言彙》即爲其書院講學所作語彙，注重謹言慎行時時反省自恭及日常功夫踐履。“學者一息不寐，則萬古皆通；一刻自寬，即終身欠缺”，“學是一體之學，心是統同之心”<sup>45)</sup>。繼承盧可久追求對真善真知的探究，戒除對良知學說做一知半解功夫，“以把持爲敬，則敬非其敬；以活泛爲良知，則良知非良。”嘉靖年間，道台張鳳梧建崇正書院于東陽，聘杜惟熙與蘭溪徐用檢并主教席。在書院講學之外，杜氏還先后創建法界與官橋講會，向當地士民傳授陽明心學。其學“以寔性爲宗，以克欲爲實際，審察克治無間，晝夜持已接物，真率簡易，不修邊幅，其教人迎机片語，即可証悟”。<sup>46)</sup>以書院講會爲平台，杜惟熙周邊逐漸聚集起一批東陽士人，以講論陽明心學爲己任。盧洪昇，受知周汝登陶奭齡，“當時社學如維熙法界，時芳麗澤，正道官橋，每會必赴。五峰重九之會，往無間期至則也”。<sup>47)</sup>陳時芳，字仲新，号春洲，東陽安文人，師事杜維熙，殫精默會，盡得其奧，博學多聞，歸于實踐<sup>48)</sup>。陳正道，東陽官橋人，祖父安山與杜維熙講學明德堂時，即執弟子禮。“見山及門甚盛，先生方年少特見器重。”<sup>49)</sup>陳氏爲學不事辨難，專以靜悟爲主，以立大爲要，善于講論。“凡所講說，數言曉暢，使听者忘倦而無從測其涯也。”肖茂榮，東陽官橋人，從杜見山赴五峰講良知之學，期向甚銳，見山深器之。

杜惟熙之后，陳時芳領導東陽士人繼續開展陽明學講會活動。陳氏爲學旨在立大志，識心體，以修悟交融爲極，不泥門戶。在講義《論學》中對南宋以來程朱之學當前左派陽明學各自弊端加以評析，“良知之說未明，頭緒多端，故南宋之學，大抵失之難；良知說既行，本源易測，故近世之學，未免失之易。失之難者，不特窮搜偏物，苦于支離，而拘泥矯激之意，反爲虛明之障。失之易者，無論任情圓轉，墮于俗障，而疎略遺棄之習，終亏道體之全。非難非易之間，中道而立，能者從之”<sup>50)</sup>倡導注重功夫實踐的良知學說。他帶領東陽士人于五峰法界官橋拓林諸會輪回

44)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5

45) 王崇炳．金華征獻略(卷6)．續修四庫全書第547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294

46) 王崇炳．金華征獻略(卷6)．續修四庫全書第547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294

47) 党金衡等纂修．道光東陽縣志(卷20)．中國地方志集成浙江府縣志輯 53，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3，249

48)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6

49)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6

講學外，復立麗澤會，接待四方學者，從者云集。陳正道在祖父陳亨同所建陳氏璽夏義塾基礎上立文山講會與時芳相呼應。陳氏義塾在東陽五十三都官橋，嘉靖時陳亨同建，延請盧可久杜維熙主講席，有“學紹姚江”匾額<sup>51)</sup>，可見其鮮明的陽明心學色彩。主持鄉會之外，陳時芳還注重在宗族內舉行講會，以敦宗睦族。陳時芳陳時覺兩兄弟率族人為大會于祠，月會于家。每月兩次舉會于安文家塾，宗祠年大會于冬至后五日舉行，四方賢士紛紛赴會，從者甚衆。東陽陽明學講會在陳時芳主導下日趨興盛。“雖促膝問難者數十百人，時芳侃侃而談，不厭其煩。辯証至理，發微命中，又務求化偏歸全，尋源見委。直至年已古稀，肢體羸弱，而精神猶旺，談論終日不倦，讀書常至夜分，聞朋友來，即欣然迎接，禮極周詳。”<sup>52)</sup>由杜惟熙陳時芳主導的東陽陽明學鄉里講會與五峰書院始終保持有密切往來，二人也是該時期五峰講會的主講者。陳時芳注重學統构建，為使宋明諸儒五峰講學事迹流傳久遠，傾心于五峰書院文獻的編纂整理。

忆己丑岁，见山先生赴会五峰时，不肖芳实操杖履从行。此时会中诸先辈，俱谢世久矣。自恨生也晚，不及亲炙光仪。然五峰去家百里而遥，又不数数至也。荏苒日时，见山先生寻亦捐馆，朋侪稍稍凋谢。于是偕知友，期岁必一赴，以毋坠诸先哲之绪。而永邑同志友亦跃然奋砺，更相砥切。讲论之暇，试访遗踪，后生辈至有不能举其梗概者。则凡建置颠末，断简遗文，行且日就消沉，可念也。不揣芜陋，思托管城子记之。暇日颇留意搜采。世远言湮，十仅得其三四。漫加詮次，潦草成编。首曰《五峰纪事》，次曰《五峰渊源录》，而凡诗若文，有关五峰，及一二轶事，亦附录之，总名曰《五峰书院志》。自愧笔力萎弱，体裁未谙，然他日有诵遗编而思景仰者，则此志未必无少助焉。虽然，此特先哲之影似耳。石火流电，过眼成空，无从描画，不可执捉。阳明子不云乎？“千圣皆过影，良知是吾师”，又云，“谁人不有良知在，知得良知却是谁。”夫知得良知，乃为善继阳明子之志，则志五峰者，夫亦志其影耳。执影为真，果诸贤哲真志否？天启五年乙丑，东阳陈时芳撰。<sup>53)</sup>

由引文可見，以杜維熙陳時芳為代表的東陽講學士人實源自五峰講會，雖日后主要精力投注于組織本地講會，仍與五峰保持有密切往來。陳氏更以保存五峰諸儒講學事迹為己任，天啓年間在廣泛搜羅書院講學文獻基礎上編纂《五峰書院志》，以承繼發揚陽明良知學說為宗旨。乾隆年間程尚斐所編《五峰書院志》即以陳氏志書為底本。“是編初名五峰會志，義取會友講學也。后見陳春洲先生遺書名書院志，仍之。”<sup>54)</sup>

50)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6

51) 党金衡等纂修．道光東陽縣志(卷19)．中國地方志集成浙江府縣志輯 53．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3，240

52) 磐安縣志編纂委員會編．磐安縣志．杭州：浙江人民出版社，1993，540

53)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4)．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96

54) 程尚斐纂輯．五峰書院志(卷首)．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60

陳時芳之后，東陽陽明學在陳其蔭主持下進入總結階段。陳其蔭，字生南，号萃齋，東陽安文人<sup>55)</sup>。爲生員時，性豪爽任俠，后于“某歲之元日齋戒執秩往謁春洲，春洲大喜曰‘生南至，吾道有人矣’”<sup>56)</sup>。其蔭爲學以致良知爲本，刻苦勵行，尤重戒慎恐懼，視其爲人身必備，嘗曰“戒慎恐懼，如人之津液，有之覺味平淡；一刻无之，則喝燥焦枯矣”。《蒙訓》六條爲其講會時問答語彙，對朱陸異同良知致良知靜中未發气象等心學核心概念進行生動辨析，意在解除與會士人爲學中的疑惑。如講會諸友有疑良知未能囊括事務之變。萃齋認爲，“致良知，非不博學，慎思明辨也。學問思辨，非良知不可耳。不然，舍繩墨而度長短，離規矩而揣方圓，窮理格物，止益之障耳。理无窮，事无窮，功夫无窮，一致良知，无不并包貫徹。故曰一以貫之”<sup>57)</sup>，將良知視爲認知把握世間一切事務之共通方法。有會友問致良知恐落于虛空，萃齋認爲因万物皆備于我，致良知卽是致万物皆備于我之良知。有問及靜中觀未發气象，是否需在閑時用功。萃齋指出未發之气象卽是良知的表現。良知處于時時發，而又時時未嘗發的狀態。所謂靜觀之法是于心体至靜時觀之，并不以有事无事作爲靜判定靜的狀態。

陳其蔭講學之地除永康五峰·東陽文山外，另辟有西菴講會。萃齋繼承陳時芳面向平民布衣的講學風格，言語通俗易懂，言不足則繼之以歌，“无有智愚，莫不感動”。此時講學活動雖沒有春洲先生時鼎盛，却更注重浸入鄉里底層傳承陽明心學。“自春洲沒，广其傳，使勿替者，先生力也。”<sup>58)</sup>陳其蔭注重學脉傳承，對從五峰到東陽金華之學的綿延脉絡作了總体描述。爲陳誠源所作祭文中談到，“昔吾婺之學代有宗功，東萊聞其始，何王金許暢其風，而姚江一派則薪傳于盧子一松，泊夫見山子司其鐸，春洲子广其聰，而五峰一席夏連翩鵲起于吾東。”<sup>59)</sup>萃齋門生數十人，傳其學者有東陽趙忠濟·永康王同壅等。五峰陽明學講會在杜維熙時向東陽拓展，經陳時芳·陳正道·陳其蔭等儒者發揚，逐步构建起一个由書院到鄉會再到祠會·家會的多層次講學体系，實現了陽明學說從講學士紳向鄉里布衣階層的深層滲透。

五峰書院作爲金華一帶陽明學講論中心，講會參與者多爲本地及周邊府縣士人，借助于師友間互相接引，陽明心學得以擴散到更广區域。東陽縣陽明學講會雖屬五峰書院分支，更側重面向鄉里布衣階層講學，借助衆多小型鄉會·祠會·家會實現了陽明心學的草根化。借助五峰講會，陽明心學與還与仙游鄉講學宗族形成一种榮辱与共互爲依托的關係，由此在当地社會站穩了脚跟。

55)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7

56)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7

57)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6)．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237

58) 程尙斐纂輯．五峰書院志(卷2)．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9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178

59) 党金衡等纂修．道光東陽縣志(卷18)．中國地方志集成浙江府縣志輯 53．上海:上海書店出版社，1993，216





# 민족과 함께한 75년 인류와 나누는 75년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지역성과 운영 실태**

2022년 5월 20일 ~ 5월 21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영상회의실, 온라인[youtube, Zoom] 동시 진행

주최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주관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서원학회, 중국서원학회

후원 : 한국연구재단, 영남대학교

※ 이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 등 일체의 자료는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